

2015년 제천간디학교 인문학캠프

누가 내 머리 위에 똥쌌어?

제천간디학교

한별 유준상 김채현 안현선 이건산 강도운 황소윤 전진 권산 정나린 김소아 은형근 조영서 수자T

[전체목차]

인문학 시식코너_7p

2015 인문학 본캠프 - 누가 내 머리위에 똥쌌어?_53p

총평_249p

[인문학 시식코너]

개요

제목 : 누가 내 머리 위에 똥쌌어?_ 인문학 시식코너

주최 : 제천간디학교

주관 : 제천간디학교 10학번 13명

장소 :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 92-3 제천간디학교, 소강당

일시 : 2015년 10월 12일 월요일~10월 15일 목요일 오후 6:30~8:30

/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11:15~12:30, 오후 1:15~2:30

수업별 소개

강철멘탈 (철학)

“생각을 멈추게 하는 습속”

우리가 두 눈으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판단하는 것

역:동적으로 사:알자 (역사)

“모두의 책임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청년들의 정치에 관한 무관심

性장하다, 청춘! (성)

“주체적으로 사랑하기”

합법적 땡땡이, 군대 가기 싫어요 (사회)

“국가의 강제성”

왜 군대와 학교를 가야하는가

꿈꾸고픈 청춘들의 홀로서기 (진로)

“미래를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할 준비”

수업 방식

주제별로 그동안 공부하고 고민했던 것을 일종의 강의 형태로 진행하기도 하고 주제를 잡아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집중하여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차]

생각을 멈추게 하는 습속(철학)_11p

모두의 책임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역사)_19p

주체적으로 사랑하기(성)_25p

왜 군대와 학교를 가야할까?(사회)_31p

미래를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할 권리(진로)_43p

총평_51p

생각을 멈추게 하는 습속

황소윤 권산

[1부] 철학이란?

-미성숙함에서 벗어나는 것 → 미성숙: 지적능력을 쓰지 못하는 것, 판단하지 않는 사람 자리를 떠나서 볼 수 있는 것.

감히 생각하라. 따져 생각하기, 그것이 자유이다.

미성년 상태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 임마누엘 칸트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1784년)

칸트는 정신이 미성년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계몽/철학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용기 있게 지성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과감하게 따져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칸트에 따르면, 게으르고 비겁하기 때문이다.

돈을 내면 지성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돈만 내면 대신 생각해주는 변호사도 있고, 음식도 방까지 배달해 준다.

대신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다. 돈 있으면 게을러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지성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성을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한다. 사람들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괜히 지성을 발휘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부모님과 선생도 위험하다고 말한다. 관습이나 형식도 지성을 사용하는 일을 방해한다. 그러나 칸트는 생각보다 그리 위험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레 겁먹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한다.

계몽하려면 일단 자유가 필요하다. 그 자유는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 다.

칸트는 이성의 공적인 사용과 사적인 사용으로 구분한다.

이성의 '사적인 사용'은 공직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다. 군대에서 상관의 눈을 치우라고 명령하면 치워야 하고, 구청에서 상관의 문서를 처리하라고 명령하면 처리해야 한다. 이런 것에 일일이 따지게 되면 조직 자체가 돌아가지 않으며,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다시 말해, 이성의 사적인 사용은 제한될 수 있다.

반면, 이성의 '공적인 사용'은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대중 앞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지식인'으로서 병역 의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목사는 교회 규칙에 따라 설교를 하면서도, '지식인'으로서 교회 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대중 앞에서 발표할 수 있다.

칸트는 '이성의 공적인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교회에서는 목사 설교를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지만, 잠시 단상에 올라 사람들 앞에서 '목사만 설교하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 여자도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야 한다.(이성의 공적인 사용) 그래야 사람들이 계몽된다. 그러므로 이성의 공적인 사용은 '비판 정신'에 가깝다.

이성의 공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훼방꾼은 많다. 선생은 따지지 말라고 한다.

군대는 대들지 말고 훈련이나 받으라고 하고, 목사는 따지지 말고 믿으라고 설교한다.

그러나 칸트는 용기를 갖고 과감하게 이성을 사용해야 계몽이 가능하고,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해도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지 않으며, 계몽을 그만두는 것은 인류의 신성한 권리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단언한다.

칸트 왈

미성년 상태는 이성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 생각하려는 결단과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다. 따라서 과감히 알려고 하라!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려는 용기를 가져라!

[생각을 멈추게 하는 습속]

- 우리가 두 눈으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판단해 버리는 것. 편견, 선입견
- 새로운 삶을 생산하는 사상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사유할 수 없다.

니체_ 제3의 눈 그것이 우리를 지배한다

검정색은 그냥 검정색일 뿐이지만, 미국 사회에서 흑인은 그냥 흑인이었던 적이 없다.

여성은 그냥 여성이었던 적이 없다. 니체는 그것을 제3의 눈이라 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판단은 버려라. 그것은 네가 판단한 것이 아닌 습속이나 관습이 너를 통해서 판단한 것일 뿐.” 바로 우리를 지배하는 충동, 사회적 의지, 문화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철학이 과거의 사상을 훈육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두 번째 판단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역사는 끊임없이 변해왔고, 옛날에는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오류로 판명되거나 옛날에 선(善)이라고 배웠던 것이 오늘날에는 악(惡)이 되기도 한다. 어떻게 우리 역사는 이렇게 변신해 올 수 있었으며 어떻게 매번 습속의 지배를 깨트려 왔을까?

[광기가 사회를 발전시킨다]

니체 식으로 말하자면 ‘미친놈들’ 덕분이다. 바로 세상이 ‘광인’이라고 불렀던 자들의 업적이다. 니체는 ‘광기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표현했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에 만적이 노예해방운동을 벌이면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라는 말을 했다. 그때 사람들이 만적을 보고 미쳤다고들 했지만 그가 만약에 1198년의 고려가 아닌 1789년의 프랑스에서 태어났더라면 역사적 영웅이 되었을 것이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때였으니까. 미쳤다는 것은 때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때가 아닌데 불쑥 튀어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광기이다. 그런 사유 덕에 우리문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니체는 광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친 것’ 과 ‘아픈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되는 개념은 건강이 아니라 ‘길들여진 두뇌’와 보편적인 신념’이다. 즉 미친 것은 아픈 것이 아니라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광기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뽑아내는 정신이며, 일반적 구속성과 대결하는 자유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 우리가 철학을 하는 이유, 철학이 필요한 이유]

- 철학자는 법이 아닌 올바름을 따르는 것이다.
- 한 뼉의 인생으로 세계를 판단하지 않는 것
- 좋은 삶을 살려면 좋은 삶인지 판단해야한다.
- 철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박식함’에 있지 않고 ‘일깨움’에 있다.

[2부] 그렇다면 철학이란 어떻게 해야하는가?

칸트가 말했듯이 철학을 하면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가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철학을 어떻게 해야 할

까?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질문하라. 그것이 정말 당연한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물음을 던져라.” 이게 무슨 말이고 왜 그래야 할까? 여기서 질문 하나 하려고 한다. 당신은 학교를 왜 다니고 있는가?

그 이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이유를 가지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을 후회하진 않는다. 그럼 난 의미 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걸까?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의미 없는 존재인 인간이 의미 있는 이유는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것.”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중요한 의미는 신앙심 이었다. 니체는 사람들이 아무런 목적 없이 신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맘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말했다. 신은 죽었다! 그런데 이 말에 핵심은 “신이 어딤어? 신은 죽었어!” 이게 아니라 “신이 죽는다면 내가 바로 인격이 되고 내가 바로 너의 자아를 찾게 될 것”이다. 막연히 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의미는 내가 생각하는 거야.”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나의 학교생활을 정의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나다. 내가 6년 학교생활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면 가치가 있는 거고, 의미가 없다고 느끼면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냥 흘러 가는대로 ”올해도 끝나가네. 이제 학교 얼마 안 남았네. “라면서 학교를 다니기 보다는 내가하는 수업, 내가하는 동아리, 내가하는 활동들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게 학교를 다니기에 좀 더 좋지 않을까?

자 그럼 학교에서 재밌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커다란 결실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하게’ 살아야 한다.”

위험하게 사는 게 뭘까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 술 마시는 것? 나는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 도전하는 것. 그럼 도전할 만 한 거리가 뭐가 있을까? 나는 일탈이라고 말하고 싶다. 당신은 일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일탈의 사전적 정의는 ‘하여진 영역 또는 본디의 목적이나 길, 사상, 규범, 조직 따위로부터 빠져 벗어남.’ 이다. 그렇다면 일탈은 무조건 나쁘기만 할까? 나는 매점도 가보고 술도 마셔보고 무단외출도 해봐도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매일 매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럼 일탈은 규칙을 위반해야만 하는 걸까?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까 일탈을 도전할만한 거리라고 했다. 재시도 해보는 걸 추천한다. 재시도라고 하니깐 감이 잘 안 오는데 해봤었던 일중에 흥미를 못 느꼈던 것 중에 다시 한 번 해보는 거다. 예를 들면 저수지에 가서 책읽기? 내가 평소에 책을 별로 안 읽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 일수도 있지만 전 일단 그게 가장 먼저 떠올랐다. 평소에 별로 흥미가 없었던 책읽기를 새로운 환경에 적용해 다시 한 번 해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각자 안 해보던 걸 해보는 것은 어떤가? 물론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게 싫고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하기 싫은 느낌 혹은 감정은 어릴 때 생긴 인식일 수 있다. 일종의 선입견이다. 어렸을 때 혹은 학교 들어와서 해봤는데 재미가 없어서 그 뒤로는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도전해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야구공에 맞은 뒤로 야구가 재미없다고 느낀 사람은 야구를 해보고, 정말 재미없는 책을 읽은 뒤로 책에 재미를 못 붙인 사람은 좀 쉬운 책을 읽어보는 거다. 재시도를 해봄으로써 잃을 것 보다는 얻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도전이 ‘일탈’이라고 말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해보는 것.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을 도전 하는 것이니까. 나는 2학년 때 커피는 어른들만 마시는 음료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커피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연한 계기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지금은 나를 소개할 때 커피를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영향을 주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려고 한다. 나는 5학년 남자아이들이 학교에서 축구만 하고 사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인턴을 갔다 오고 나서 5학년 친구가 “나 피아노 치고 있을게”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피아노라는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고 ‘한 학기 사이에 변할 수 있구나’라고 느꼈다. 어떤가? 물론 어떤 걸 도전하느냐에 따라 어려움을 느끼는 강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도전하라!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재밌는 게 도저히 없다. 그럴 땐 정말 답이 없는 걸까? 니체의 책 중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자신을 높이 던졌으나 모든 던져진 돌은 반드시 떨어지기 마련이다.” 무슨 일을 도전하든지 인간은 결국 다시 돌아와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에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

는 그것이 삶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이것저것 해보는 것에 의미를 뒤라.

[질의응답]

이성을 공적인사용과 사적인 사용으로 구분한 게 예시가 잘못된 건지.. 예를 들어 내가 상관이라고 했을 때, 하관이 미워서 시킨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였다는 것이 이성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해가 잘 안된다.

→ 10월에 눈이 왔다고 치자. 선배가 후배에게 나가서 눈 좀 치워야 할 것 같은데 “후배야. 눈 좀 치워”라고 말했을 때 후배는 “10월이면 당장 내일 눈이 녹을 텐데 왜 치우냐”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나는 필요에 의해서 말을 한 것이기에 사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누구라도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으로 지향하는 것이 철학인가?

→ 철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앞으로 삶을 계속 살아갈 텐데 좋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좋은 삶을 살려면 판단하는 힘이 필요하다. 학식을 깨우치고 내가 일깨우는 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길인 것 같다.

소운: 학교에 왜 다니고 계세요?

진: 엄마를 못 이겨서요.

예림: 나가면 할 게 없어서

소운: 학교를 다니는 게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시길 바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활동에서 의미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운: 일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별: 자기가 하던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해요. 누구와 교류가 없던 애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것! 이것도 일탈이 아닐까요?

소운: 규칙을 어기는 것도 한 번씩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게 일상이 되면 안된다는 거죠.

재시도, 흥미가 없어지거나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해보는 것.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래도 뭐 없으면?

인간이 무슨 도전을 하던 그 도전은 한 순간일 뿐이고 결국은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것저것 도전하는 것 역시 삶이다!

소운이나 산이의 주장을 한문장으로 요약하자면?

→ 결국에는 도전하는 것이 철학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됐다.

→ 인간이란 무엇이고 삶의 본질은 무엇이고.. 이런 게 철학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틀에 대해 도전하는 것 역시 철학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탈이라고 말해서 좋았다.

주위에 사회적 환경 때문에 도전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던가.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 최하계층의 사람들은 도전을 못하며 사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도전하는 것은 삶을 더 즐겁게 철학할 수 있는 것.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자기 의미를 자기가 정의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안된다고 말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삶이 힘든 사람들에게 ‘도전하라. 이러니 재미 없는거다.’ 라고 한다면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못하는 건 아닌데 도전하는 환경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물질만능주의에서 돈이 없으면 철학이든 뭐든 힘든 거 같다. 돈이 없고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은 못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

-철학이 제일 좋은 게 딱히 자본이 필요없어서인 듯. 똑같은 것이지만 내가 느끼는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 돈이 없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돈이 있어야 철학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내가 생각하는 철학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딱 말할 순 없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의미를 내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토론]

1. 우리는 간디학교 안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배울 수 있는가?

-형근 : 교사나 선배의 설명이나 강의로 먼저 이론적인 부분을 습득한 후, 그것이 생활에서 구현될 때.

-준상 :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집단이 한곳을 나아갈 때. 우리학교는 사랑과 자발성을 배우는 공동체인데 자발성은 일단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만히 있는다면 의미도 찾기 힘들고 무료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자꾸 찾게 되는데 사랑은 잘 모르겠다.

-별 : 서로의 잘못이나 못한 점들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같이 해결해보는 과정에서 함께 하는 사람에게 이해받는 경험을 해보는 것.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보는 경험.

-채현 : 학교에서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다고 보였던 모습들이, 서로의 생활에 피해주지 않으려는 것과 모두의 앞에서 사과할 수 있을 때. 기회를 만들어줄 때, 굶은 일을 도맡아 할 때.

-교류생 :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랑. 간디학교는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게 많다.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친구의 얘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 친구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것이 공동체. 사랑하고 바꿔길 기다려주는 것.

-상운 : 학교에서 밤에 기숙사에서 스태프 걸리거나 그럴 때. 전체가 나와서 한사람의 일을 해결하거나 할 때. 모두가 정한 약속을 다 같이 지켜나갈 때.

-현선 : 개인 사이에서는 있었을지 몰라도 어느새 나에게 공동체로서의 공동체는 형식적으로만 와닿았고 직접적으로 느껴본 경험은 없어서 안타깝다. 서로를 인식해야 상처를 봐주고 배려하는 건데. 그러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우정 : 우리는 14살에 입학하니까 그때는 공동체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오는데, 함께 지내면서 점점 성장을 해나가는 것. 말장난으로 공동체 때문에 힘들다고는 하지만 이런 공간 안에서 5년쯤 생활을 하다보니까 내부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묻어두지 않으려는 날 보면서 공동체를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림 : 학교를 다니면서 공동체를 강요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공동체를 배웠다면 공동체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을 스스로 할 수 있을텐데 ‘공동체’라고 하면 지긋지긋했던 기억. 가족회의나 기타 회의들이 공동체의 형태인 것 같은데 배웠다기보다는 강요받은 것 같다. 미성숙한 자신 때문인지, 미성숙한 공동체 때문인지.

-효연 : 우리 안에 생긴 도난, 폭력 문제를 모두가 풀어나가는 모습이 공동체 같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회의를 하고, 더 나은 방법을 모두 다 같이 고민하고 있고 다 같이 살아야 한다.

-채은 : 굳이 알 필요 없는 너와 나에 대한 이야기를 사소하게 나누고 함께 풀어나가는 것.

-늘찬 : 수학 공식처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고 알려주지 않는 것 같다. 경험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

-영서 : 간디학교라는 게 공동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구성해놓은 것 같다. 학생 개개인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배울수 있게 되고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소아 :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동체 일원에게 생기는 문제를 모두의 일로 여기고 함께 머리 맞대는 것. 또 우리 안에서 생긴 사건에 대해 피해자 위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피해자를 아우르는 해결방식을 모색하는 것.

합리적이지 못한, 마음에 들지않는 규칙이나 상황에 마주했을 때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반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준상 : 따르고 나서 반박하는 게 자기주장이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바뀌나갈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림 : 보통은 저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반발을 하지 않는데 그게 옳은지 부터 따져야 할 것 같다. 뭔가 불만이 있거나 그래도 잘 얘기를 하지 않는데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보통의 다수는 하기 어려운.

-형근 : 지킨 다음에 말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가. 군대 가기 싫으면 가보고 총 쏘보고 나오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싶은데 본인이 억지라고 판단되더라도 개인 나름의 논리를 잘 드러내야 할 것 같다. 글을 쓰는 생각이 같은 아이들을 모아 행동하든. 지키지 않는 것은 비겁하다.

-우정 : 일단 자기 맘에 안들더라도 따라보고 반박해야 말에 힘이 실리는 것 같다. 개인의 의견이고 개인의 행동이 아닌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합리적이지 못하더라도 자기를 제외한 다수가 원하는 건 따라보고 반발을 하는 게 맞다.

학교 규칙을 다 어겼다. 개망나니. 그렇다면 내가 이 공동체에 일원이 될 자격이 있을까?

-효연 :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스스로 지킬 필요가 없는 규칙이 있는 공동체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거 같다. 타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형근 : 공동체라는걸 쉽게 생각하면 가족공동체가 가장 많다. 가족 간에도 룰이 있는데 그걸 망나니처럼 어긴다고 해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는 없다. '재는 여기 있으면 안돼.'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부터 공동체가 아직 미성숙한 게 아닌가 싶다.

-별 : 깊게 생각하기 전에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애는 왜 여기있을까 하고.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며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게 많은 것 같다. 관심을 둘 필요가 없으니 가족회의에 올라오는 것에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듯.

-정호T : 그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을지라도 공동체의 목표에 동의한 사람이라면 일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밖에 있는 것이라면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그 사람은 공동체에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뚜렷한 목표가 있고 동의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핵심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함께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별 : 부모님의 강압에 의해 학교에 왔고 공동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존재는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정호T : 그건 학교라는 특수성에 따른 것.

-형근 : 입학할 때 간디의 철학에 대해 공부하고 오는 사람들ㅇ; 있나? 공동체가 그 사람을 공동체화 시켜야 할 텐데,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우리가 밀양, 송전탑, 강정마을을 돕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정 : 단순하게 송전탑은 할머니들만 억울하게 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공감하고 나누기 위한 것도 있는데 사실 원래 모르던 사람들이고 같은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가는 게 당연하지만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게 엄청 당연하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민정 : 공감하기 위해 간다. 가기 전까지는 관심을 가지거나 모르고 가는 게 많다. 세월호도 한번 가본 뒤로 눈이 가고 관심이 가는 것 같은 데 그것처럼 내일이 아니라도 소외받거나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간다.

-수자T : 질문인데, 피해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국익이라는 게 있지 않나. 불안정한 이 나라에서 동네사람들 몇 명만 피해를 본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지 않나.

-우정 : 전기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나 해군기지나 지금 상황에서 뭐가 부족하고 필요해서 강압적으로 진행하는지 모르겠다. 내 입장에서는 욕심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

-소윤 : '힘든 사람들을 돕자'와 같은데, 봉사활동과 다른 점이 뭐가 있죠

-정호T :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자선이든 봉사든 밀양이든 결국 나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공동체 의식 속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준상 : 동정심에서 시작되는 것도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인턴을 시작할 때도 동정심에서 시작했고, 현장에서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 남의 일에서 내 주변의 일로 연을 발전한 것이고,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또 국익 자체가 시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건 아니다.

-나린 : 우리도 소수이기 때문에 공감하기 쉬웠다. 이 학교라는 공간이 되게 재밌는 거 같다. 머리로는 아는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던 밀양에 비해 세월호는 계속 가슴이 쿡했다. 개인의 공감대에 따라 다른 것 같다.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스펀지같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 들어서 함께 행동하게 되는 것 같다.

당신은 장애인이나 성소수자나 취약층 등 사회적약자를 우리와 평등하다고 느끼는가, 도움이 필요한 안쓰러운 약자라고 느끼는가?

-예림 : 전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나랑 똑같은데 다만 조금 더 눈에 띄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진다. 사람은 누구든지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 같지도 않고 나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도 든다.

-교류생 : 평등하다고는 못 느낀다. 우리보다 이 세상에서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니까. 더 많이 노력해야 평등하게 되고 우리 사회가 주는 불평등이 많고. 안쓰럽기보다는 응원하고 싶다.

-수자T : 약자의 개념은 누구에게도 있다고 본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적인 평등을 누리기위해 투쟁해온 역사. 그래서 함께 하려 하지 않을까.

[시식코너 평가]

-생활관 일과 시간에 지장가지 않게 잘 맞춰서 끝냈으면 좋겠다.

-철학을 왜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풀어갔으면.

-같이 사는 공간에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초점을 맞춤. 본캠은 나부터 시작해서 철학을 사회에 접목시키는 쪽으로 갈 것.

-조금 더 공불 했으면 더 나왔겠다는 생각은 드나 미련은 없고 생각보다 의제를 나누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야기가 많이 나뉘어서 좋았다. 평가가 좋게 나와서 기본이 좋음

-리허설을 해봤는데 강의시간이 짧아서 걱정했는데 의제하나마다 쓰게 하는 점에서 좋게 평가받은 것 같고 다음부터는 술술 나와서 좋았음. 중간 중간 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리허설 꼭 필요!

-전체적인 인문학의 기초이기도 할텐데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 각자 쓰고 얘기하는 과정이 의미 있고 좋았던 거 같고 본 캠프로 이어진다면 이야기를 끄집어 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고민하면 좋겠다는 평. 사유하고 사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각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의도하는 게 제일 훌륭할 것 같다. 왜 철학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자기 확신이 명료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의자가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참가자에게는 큰 위안이 되니 확신이 있었으면

-자신감이 없다가보다 쌤 같지 않고 우리랑 비슷한 눈높이의 의제와 피피티를 보며 친근했던 것 같다. 진입장벽이 낮았던 것 같다. 얘기하기 힘들고 어려운 게 철학인데 그렇지 않아서 새롭고 부러웠다

-어제 너무 좋았는데 조금 마지막 마무리가 안된 느낌을 받았다. 철학이라는 게 강요받지 않고 주체적이고 사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의제자체가 너무 공격적인 얘기들이고 성소수자나 밀양이나 우리가 뭔가 당연히 베풀어야 하는 일들이었기에 개인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주제들이었나? 철학이라는 키워드가 희미해진 것 같다. 마지막에 갈 땐 공동체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갔다.

모두의 책임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유준상 한별 강도운

[2강] 경제성장이란 미명아래 용인 된 독재

[1강] 정치란 무엇인가?

*1,2강 자료는 본캠프를 참고해주세요

[3강] 시민의 권리

근대적 개인이란

근대인과 시민사회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근대인의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조선시대, 그전의 역사를 이야기해야 한다. 조선시대의 근대적 개인은 과연 존재했는가? 인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말 대신 인민이라는 단어를 썼다. 인민은, 기본적으로 평민을 지칭하는 말로 사대부를 포함하여 대소인민이라 하였다. 조정에서 인민은 통치와 교화의 대상이었다.

조선의 지배양식은 문의 통치였다. 군대와 치안을 최소화하고 관권과 향권으로 500년을 다스렸다. 중국의 비호 아래 바다를 봉쇄했기에 북쪽의 변방오랑캐와 남쪽의 왜구만 물리치면 족했다. 조선의 내정은 문의 통치를 무의 통치보다 견고하고 단단하였다. 진리의 근원으로서 하늘이 상정됐고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세상에 퍼는 것은 군왕과 사대부, 양반의 몫이었다.

오늘날과 같이 조선의 통치철학인 성리학이 민유방본이라하여 민을 국가의 본으로 상정하고 있었지만 민은 공역과 납세의 의무를 짊어지고 군주의 권력에 복종해야 하는 집단이었다. 민이 없으면 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로 민심은 천심으로 천심은 천도로 정의되는 군주는 인민에 터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 민유방본, 또는 도덕 정치의 기본 논리였다.

언문은 한문과 구분되는 사회적 상상을 인민에게 제공한다. 사회적 상상이란 문자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새로운 성찰이라고 한다면, 그 새로운 성찰 속에는 지배권력의 허를 찌르고, 지배이념의 논리를 뒤집고, 전복까지를 꿈꾸는 혁명적 이상이 싹트고 있었다.

무너지기 시작한 봉건질서로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민란에 휩싸이거나 기존 체제에 모순을 느끼는 인민들, 서양문물에 경계심과 호기심을 가지는 인민들이 등장했다.

말안장시대에 지배층과 인민의 분리는 서양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분리와 불화는 지극히 불안하고 새로운 시간대를 동반했다. 인민의 역사는 동학이라는 문을 열고 소설과 서민예술을 지양분으로 정체성과 고유영역을 개척해나갔다. 인민의 역사를 썼던 주역은 주체의식을 갖추기 시작했던 자각인민들이었다.

말안장시대

1860~94년대 봉건왕조시대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기를 말한다. 1860년대 봉건질서에 반기를 든 백성들이 전국 각지에서 민란을 일으켰고 문자해독이 가능한 백성들이 주체의식과 존재론적 자각으로 '자아인민'으로 진화했다. 평민공론의 장이 형성된 시기이다. 1894년 동학혁명은 양반지배층의 역사와 평민의 역사가 충돌하여 다 같이 실패한 기록이다.

분리와 불화, 불안을 통한 자각이 시민사회의 초기 형성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청년의 사회적 위치가 정치에 끼치는 영향

시민혁명과 학생운동

그렇다면 청년의 사회적 위치가 정치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960년부터 1987년은 민주화시기까지 한국 사회운동에 있어 하나의 주기라 할 수있고, 이 기간 동안의 주도 세력을 민주화 운동세력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을 물러나게 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의거 역시 부정선거에 분노한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었고, 1960년 4월11일 실종되었던 김주열군의 시체가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중앙부두에서 떠오르자 2차 의거까지 이어졌다. 모두 분노한 시민과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비주체의 변화로 인한 정치무관심현상

근대적인 주체를 가진 개인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던 청년들과 지금 우리들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국가발전을 통해 평균수명이 길어졌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0년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이르는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연령층이 가장 인구비율이 높은데, 이들이 경제활동을 그만두기 시작하는 10년 후 부터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급작스럽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감소한다면 주택과 같은 자산의 가격이 유지되기 어렵고 현재의 국민연금은 소진 될 것이다.

우리 사회 청년들이 지닌 삶에 대한 태도가 비관을 넘어 달관에 이르기 시작했다는 신종 세대담론의 등장. 한 달에 백만 원이면 행복하기 충분하다? 청년세대 내에서 발화되지 않고 외부의 이해관계에 의해 발명되거나 수입된 세대담론이 이제는 자족을 원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88만원세대, 삼포세대 등 여러 말들로 청년의 존재를 규정하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천 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 조언하기 일쑤였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스스로 질문에 직면할 기회에는 인색했다. 실상 세대담론이란 청년을 주체로 동원하거나 대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에 의해 기획되는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언어들에 정작 청년세대의 자기 서사 안에서 양분을 얻으면 호가대되지 못하고 세대 바깥에서 제기되고 유행처럼 소비 된 후에 소멸해왔다. 설령 소수가 기존과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면, 그러한 세대는 실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청년들의 삶을 특정한 의도에 따라 재현함으로써 현상의 구조적원인을 가리는 착시효과일 뿐이다. 속내는 얇은 지갑을 대신할 두터운 삶의 양식이 마련되지 않은 사회적 조건에서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안분지족의 삶에 만족하라는 것이며 이제 그만 체념하라는 것이다. 더 이상 청년들이 사회의 주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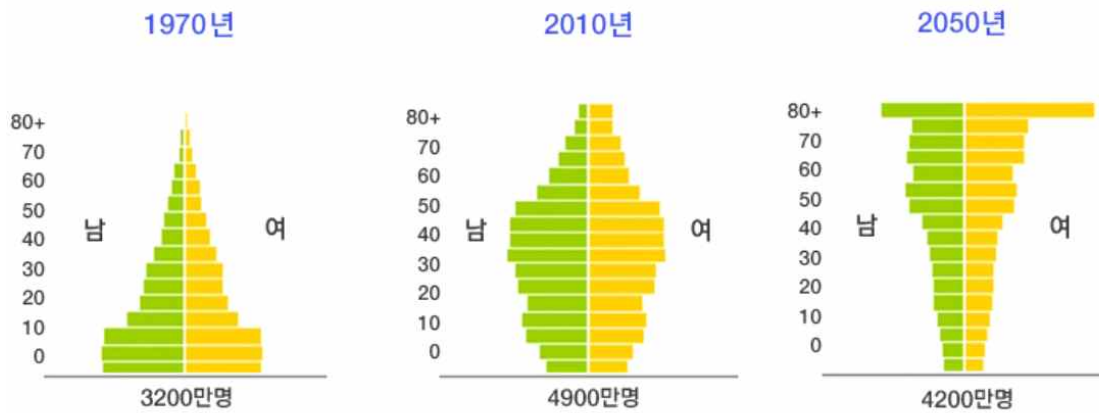
구조적 인식에서 발생하는 세대범주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다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것 또한 객관적 사실이다. 청년기의 가장 기본적 특징은 시장경제에 독립적 주체로 진입하는 최초의 단계라는 점이다. 연령이 낮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저숙련과 짧은 경력으로 인한 취약함으로 이어지며,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세입자의 불안정함으로 이어진다. 소득도 낮고 자산도 없는 청년들이 이제 막 사회의 출발선에 섰을 뿐이니, 사회적 보호 장치가 취약한 조건에서 경제위기의 충격이 그들에게로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2008년 국제적 금융위기의 발발 이후 청년들의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 근대화 와 경제성장,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어온 한국사회의 복잡성은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표현으로 함축된다. 비동시적인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의 전근대, 근대, 탈근대적 요소가 공존하는 불안정성이 핵심적인 특성이다.

우리는 달력 위에 흘러가는 동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회적 위치와 처해진 조건, 상황에 따라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는 주로 '세대 간'에 두드러지는 모습이지만, '세대 내'에서도 존재한다. 세대 내의 비동시성을 계급, 계층 간 격차의 모습을 띤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88만원세대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극소수 88억원 세대의 청년들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울 가로수길 건물 79채의 등기부

등분을 조사한 결과, 증여와 상속에 의한 소유가 27채로 그 중 10~30대 청소년 청년 건물주가 17명이었다는 언론보도가 새삼스럽지 않다. 같은 동네,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막역한 친구 사이였어도 대학 학벌과 직장간판의 차이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지는 씁쓸한 경험은 너무나 일상적이다. 대다수의 경우 태어남과 동시에 그리고 수많은 삶의 기로에서 청년 개인의 삶은 분화하고 있다.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독립할 나이가 늦어지고, 부모의 밑에서 들려주는 대로 들으며 출세를 위한 공부를 지속하다보니 나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예전에는 청년들이 사회의 주축이자 주요 마케팅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중장년층의 소비력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학벌과 직장간판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출세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중요한 청년복지 정책이라든지, 사회문제에 관한 관심이 사라졌다. 나 하나 나서서 될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국가의 중요한 인적자원인 청년은 복지정책의 부재와 함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으며 경쟁에 급급해진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물구나무 서는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



집회의 양극화

노사관계 또는 집단민원 등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집회를 하거나 행진을 하는 것을 가끔 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자유권의 하나로 헌법 제21조 1항에도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단적 표현을 통해 그들의 요구나 주장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보니,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일반 시민의 불편이 따르는 경우가 많고, 경찰은 집회시위권 보장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소음 측정도 하는 것이다.

집회시위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최 측에서는 그 대상인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도리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의사 관철을 위해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한다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집회시위를 법 테두리 내에서 신고 된 대로만 한다면 시민의 불편도 줄이고 경찰의 개입도 최소화할 수 있다. 경찰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유지선 침범 또는 과격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은 더 큰 불법 폭력 시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임을 알아야 한다. (박경수·부산동부경찰서장/문화일보 오피니언)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에게서 권력이 나오며, 국민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는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는 곳이 이곳이다.

시민들은 집회의 자유가 인정되며, 국민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기득권층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집회시위다.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집회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과 소통의 통로를 끊긴 억울한 민중들의 정말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회나 시위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데에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측면이 있다. 몇몇 사람들이 말하듯 최근의 시위는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서 이용되고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이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시민사회의 중요한 의사표현 방식인 집회는 이처럼 두 가지 시선으로 마주하게 된다. 집회에 참가한 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거리행진을 하고, 구호를 외친다. 물론 역효과가 날 때도 있고, 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들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확실한 것은 시위가 변질되게끔 만드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소위 '프락치' 라고 불리는 이들은 시위현장에 스며들어 과격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평화시위의 목적을 변질되게 만든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집회의 분위기에 이끌려 과격하고 거친 행위들을 일삼게 된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의 체증이라던가, 경찰차벽, 지하철 등에서 경찰들이 배치되자 일반 시민들의 불편함이 커졌다. 시위현장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말 들 중의 하나가 그냥 조용히 먹고 살 것이지 왜 나와서 이러냐, 니들이 매일 이러니까 국가가 더 안 해주는 것 아니냐, 못할 짓을 한다는 말들이다.

시위는 자기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분명 좋은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집회참가자들로 인하여 똑같이 힘들어하는 전경들이 있으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과격행위는 오히려 시민 개개인이 무관심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개인의 시민사회의식에 대한 변화

앞서 보았듯이 우리는 분노했고, 공감했으며 적극적이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치에 무관심하여 자기를 되돌아 볼 줄 모르고 나 하나 살기 바빠 정작 해야 할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것은 개인의 시민사회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여주는 말이다.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청년의 등장이 비록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로만 확인될 지라도 현재에서 미래를 이으며 살아갈 청년들에게 가능성을 찾지 않는다면 희망의 언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안주할 것인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세대가 처한 객관적 현실의 보편성을 찾아내기 위한 사회구조적 접근과 동시에 청년의 집단적 존재로부터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찾는 주체적 접근을 분리하되 두 가지 다 포함해야 한다. 하나의 결과는 어떠한 원인으로부터 과정을 거쳐 이룬 것이다. 우리 세대에 퍼져나가고 있는 '계획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기력'이라는 하나의 결과 역시 어떠한 원인과 과정에 의한 것이다.

청년의 삶이 절벽 앞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의 결과에 대해 첫째, 그 원인과 과정을 밝히는 작업은 사회구조적 접근을 통해 초점을 선명히 하되, 둘째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작업은 청년세대가 오늘 만들어가고 있는 다양한 상상력과 새로운 움직임에 주목함으로써 보다 풍부하고 다양하게 해야 한다. 그러한 이중적 숙제를 담아내는 것이 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방향성이다.

우리는 언문을 가짐으로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고, 주체적인 사람이 되었다. 1960년~80년대에는 시민혁명을 일으킨 나라의 주축으로서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했으며 정치에 있어서 당당하고 건강한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에 무관심할 수 밖에 없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사회초년생에 불과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청년'이라는 이름이 귀중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 먹고 살기 힘든 요즘 세상에 독립하지 않고 숨어 있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나의 목소리를 당당히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불평만 하기보다 문제의 해결의식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는데 필요하다. 당장에 내놓은 청년복지정책과 최저시급등을 바꾸려는 노력을 차근차근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있을 것이다.

주체적으로 사랑하자

김소아 이건설 김채현

[1장] 주체적으로 사랑하기

우리는 얼마나 주체적으로, 내 감정에 솔직하게 상대를 대하고 있을까?

주체적인 사랑은 무엇일까? 사전적의미의 주체적은 어떤 일을 실천하는 데 자유롭고 자주적인 성질이 있는. 또는 그런 것. 자주적은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또는 그런 것 이라고 한다. 내가 생각하는 주체적인 사랑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른 이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사랑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원하는 사랑이다. 물론 자신의 의지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데 있어 그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알고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주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누군가가 주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주체적으로 사랑하기에 앞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 상대를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표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속을 알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고 싫음에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그 것이 분명할 때도 표현을 하기보다는 상대가 원하는 답을 찾아 말하고는 한다. 그 중심에는 늘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 사랑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불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는 누구보다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을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몇몇 문제들을 보면 소통이 잘 안되거나 부족해서인 경우가 많다. 자신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표현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추측하게 되고 지레짐작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사소한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고 연애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에게 속상한 일이 있어도 꼭 참으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 하는 기대심리가 상대방에게 더욱 큰 원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데 그 속을 어떻게 알 수 있겠나. 평소에 자신의 감정과 요구사항을 솔직히 말했다면 작은 충돌은 있었을지언정 큰 싸움으로 번지는 위험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솔직하지 못한 소통은 두 사람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게 될 수 있다.

우리는 타인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도 솔직해져야 하지만 우리가 솔직해져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느끼고 표현할 때 자신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상하는지, 기쁘고 행복한지, 어떤 말에 예민해져서 욕하는지 어떤 단어를 자주 쓰는지, 어떤 때 지루하고 괴로운 지 등은 솔직해지지 않으면 좀처럼 파악하기 힘들다. 주체적으로 사랑하려면, 잘 사랑하려면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위해 자신의 의지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데 있어 자신의 감정이 솔직하지 못했다면 그 것은 모순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주체적으로 사랑하는데 있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끔씩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거나, 작은 일에도 엄청나게 화를 낸다거나, 무기력하여 아무것도 하기 싫다거나 하는 반응을 보인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씩은 겪어본 감정이 아닐까 싶다. 이 반응들 모두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해결해달라는 뜻이다. 왜 이렇게 다들 피곤하게 살아야할까? 분명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 조금은 솔직하게 과감하게 말해보자. 표현해보자. 아름다운 학창시절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보내는 것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다. 사회로 나가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기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다.

분명 사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란 없다. 삶이 있는 한 사랑은 언제나 가능하다. 그러나 젊은이 사랑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학교 '간디학교'의 경우 '기숙형 학교' '대안학교'라는 환경적인 이점이 있다. 우리학생들은 교류가 많아 서로 이야기 할 시간, 감정에 솔직해질 기회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려면 서로를 알아야 하고, 다른 점을 인정해야 하며, 모자란 점은 채워주고, 힘들 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며, 기쁜 일은 마음껏 함께 누려야 한다. 다시 말해 주체적으로 '잘'사랑하기 위한 그 초석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감정을 비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학창시절에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아닐까?

항상 갈망하는 연애를 쉽사리 시작하기 힘든 이유

플라톤은 《향연》에서 신화 이야기를 하면서 남녀의 모습을 설명했다. “태초에 인간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고 둘이 한 몸을 이룬 모습이었는데, 이들이 엄청난 힘으로 하늘에 올라 신들을 공격했다. 신들은 인간을 어떻게 처벌할까 고민하다가 멸망시키기보다는 힘을 약화시키기로 결정했다. 제우스는 인간을 두 조각으로 나눈 뒤 아폴론에게 치료하라고 명령했다. 아폴론은 상처를 치료하면서 배꼽을 만들어 인간이 과거의 잘못을 상기하도록 했다.” 여기서 플라톤은 인간의 성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를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기원도 설명하고 있다. 원래 하나였던 몸이 양쪽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하나인 나 자신은 무언가 불완전하고 부족하다고 느낀다. 따라 상실된 부분에 있어 결핍을 느끼고 다른 한쪽을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선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언제나 자신의 반쪽을 찾아 헤매고 또 결합되려는 노력을 한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자신의 반쪽을 찾아도 결합하지 못하거나, 혹은 결합을 하더라도 그 결핍을 채우지 못한 채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 '하는 문제' 곧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받는 문제'로 생각한다. 그들에게 사랑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 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보다 많은 이성에게 사랑받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한다.

이때 남자들이 애용하는 방법은 성공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얻는 것이고, 여성들이 애용하는 방법은 최대한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겉모습을 과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늘 연애를 갈망하지만 스스로 사랑하려 하지 않고 나만을 사랑해줄 백마 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매우 수동적인 자세로 사랑에 임하고 있다.

1학년 신입생으로 들어와 처음 본 오빠들 모습에 반하고, 친구라고만 생각했던 그 애한테서 의외의 모습을 보고 반하고, 어장관리에 홀라당 속아 반하고, 어느 날 갑자기 꿈에 나온 모습이 자꾸 생각나 반하고 다양한 계기와 이유로 우리는 사랑에 빠진다.

이렇게 짝사랑이 시작 되고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로지 그도 나에게 사랑에 빠지길 기다리는 일 뿐이다. 하루 종일 눈으로만 쫓고, 한번이라도 더 마주치길 기대하고, 그가 나에게 인사라도 건네주길 기다린다. 달콤한 상상은 내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짝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조금도 할 수 없다. 아니 오히려 내 마음을 들켜버릴까 두렵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가 나를 거절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심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다. 그냥 혼자 좋아하면 그것만으로도 나름대로 애뜻하고 힘이 나지만 거절을 확인하면 그마저도 누릴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그가 나를 좋아하게 될 날이 오거나, 혹은 그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 당당하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바람을 지녔기 때문이다. 다들 알겠지만 그런 날은 그리 쉽사리

오지 않는다. 사랑을 거절당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드물다. 사랑은 나의 감정, 나의 하루, 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면 학교를 다닐 의욕도, 일을 할 의욕도, 살아갈 의욕도 없어진다. 그래서 우린 더욱 맺어진 사랑을 쉽게 놓지 못한다.

물론 사랑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언제나 힘이 든다. 그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우린 지금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 아예 자전거에 올라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넘어져보면 안다. 넘어졌을 때는 죽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아픔은 일년도, 한 달도 가지 못한다. 그마저도 두렵다면? 평생 연애를 하지 않고 살면 된다. 그에게 거절당해 내가 아플까봐 서로 사랑스럽게 바라 볼 수도, 따뜻하게 안아 줄 수도 없는 사이로 남는 게 낫다면 말이다.

연애를 하지 않을 자유

주체적으로 사랑하기 힘든 이유는, 썸과 어장관리처럼 언제든 치고 빠질 수 있는 쿨한 연애관을 조장하는 사회에서 믿음을 주고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주체적이라는 것이 자신이 하고 싶을 때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 하고 싶지 않을 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요즘의 연애는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는 어딘가 치사한 개념이 잔재해 있다. 그렇다면 커플은 솔로보다 우월한 것일까? 무언가에 쫓겨, 그저 적당하다 판단되는 상대와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오늘날의 연애는 개인의 사회성과 사교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었고, 강박적으로, 연애를 재촉하는 사회를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사랑은 이 시대에서 더 이상 열정과 낭만의 대명사가 아닌, 계산과 선택의 대상이 되었다.

인스턴트적 사용과 즉효약, 그리고 인스턴트적 만족을 즉석에서 제공해주는 제품을 선호하며, 단기간의 노력, 아주 간단한 조리법, 그리고 모든 위험 보험과 함께 환불 보증서가 붙어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우리의 소비자 문화에서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기란 아주 드문 일이다.

<액체근대>의 저자인 폴란드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인이 관계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소비자적 합리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우리의 소비자 문화에서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기 아주 드문 일이 된 사회라고 말한다. 연애의 스펙화 현상도 여기서 나타난다. 타인과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는 세대의 등장은 연애를 하나의 희소자원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한 ‘스펙’이란 말은 원래는 전자제품 등의 사양을 의미했으나 점차 학점, 어학점수, 자격증처럼 개인이 갖춘 자원을 가리키게 됐다. 연애의 스펙화는 연애가 개인에게 하나의 사회적 자원으로서 요청되며 갖추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연애 여부가 개인의 사교성이나 사회성을 드러내는 지표와 동일시되고, 연애 못 하는 사람은 ‘찌질’한 사람이 되는 현상이 이를 반영한다. 연애코칭이나 연애지침서들이 유행하는 현상도 이와 유관하다. 연애는 이제 단순히 개인적으로 갈망되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듣고 책을 읽어서라도 갖추어야 할 자원이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연애지상주의, 연애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연애만 하면 만사 행복할 것 같고, 따라서 연애를 하지 않는 게 대단히 큰 문제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다. 연애지상주의를 일상 속에서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모태솔로’라는 말을 태어나서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않은 솔로들을 이른다. 태어난 지 약 1만일(27년)이 되도록 연애를 하지 못하면 요술을 부리는 마법사가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며, 처음 그 용어가 등장한 것은 20대 후반 이상을 가리켰다. 그러나 최근엔 중고생, 초등학교들도 스스로를 ‘모솔’이라 칭하며 연애에 필요 이상으로 조바심을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연애를 일종의 통과 의례로 보며 이 시기까지 연애 경험이 없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사회적인 압박이 증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체적으로 사랑하기 힘든 이유, 드라마와 포르노가 끼치는 영향

우리시대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동선은 집과 학교, 두 가지다.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이라고 해 봐야 학원, 쇼핑몰 정도. 학교는 지금 청소년들에게 있어 감옥에 해당된다. 배려라는 이름하에 24시간 철두철미 감시-통제가 가능

한 시설 좋은 '감옥' 따라서 집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학교에서도 절대 사랑과 성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는다. 성교육이 있다 해도 '미혼모'를 막기 위한 것이거나 학교생활에 지장을 줄까 걱정해서이지 청춘의 열정을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삶의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사랑과 연애? 그런 걸 가르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학생들은 옆으로 새는 수밖에 없다. 이들의 시선이 가는 곳은 드라마와 포르노, 연애는 드라마로 섹스는 포르노로 배우게 된다. 특히 연애에 관한 모든 학습은 전적으로 드라마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배우려고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매스컴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 무의식 적으로 세뇌를 당하는 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tv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상적인 배우들이 나와 완벽한 연애를 한다. 이런 매스컴을 접하게 되는 청춘들은 모두들 그런 이상적인 연애를 꿈꾸고 따라하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아주는 배우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 인생이 영화와 같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고 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고 못한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랑은 금방 식어버리고 상대를 탓하게 된다. 이게 바로 수동적인 연애의 모습이다.

다들 알다시피 포르노는 이제 특별한 장르가 아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쉽게 포르노에 노출되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들마저. 그리하여 요즘 청소년들은 성에 관한 모든 것을 포르노를 통해 습득하게 된다. 포르노는 현실에서의 성관계와는 거리가 멀다. 관계 전 남녀 간에 사랑 '전희', '후희'는 보여주지 않고 행위에만 집착하며 더욱 자극적인 자료들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포르노를 계속 보며 중독, 세뇌 된다면 현실에서도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위에만 집착하는 결국에는 상대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는 성관계를 갖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결국 멜로적 판타지를 쫓거나 아니면 포르노적 변태를 추구하거나 이것이 청소년을 비롯하여 거의 우리 시대 모든 이들이 공유하는 성교육의 일반적 코스다.

솔직히 우리학교 '간디학교'의 학생들도 별 다를 것이 없다. 우리는 나름 좋은 환경에 있지만 사회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몰래 휴대폰을 가져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는 학생들도 있고 방학 때 집에 가서 밀렸던 드라마를 왕창 몰아보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다. 포르노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많이들 볼 것이다.

드라마, 포르노를 보지 말라고는 못하겠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주체적인 사랑에 드라마와 포르노가 방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의식하고 판단하며 현실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숨어서 하는 야한 얘기에는 열광하지만, 어른들과는 떠들 수 없는 이유

본 캠프 자료참고

[질의응답]

-수자T : 우리 학교가 진정 연애하기 좋은 학교라 생각하는가?

-손쌤 : 우리 학교가 작년에 비해 연애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준상 :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는 것은 사랑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형근 : 감정에 너무 솔직한 것은 오히려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솔직해져서 문제가 생긴다기보다 어떻게 솔직했는지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산 : 사랑을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닌 넘치는 안정을 남에게 나누고 싶을 때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사랑이 꼭 이성과의 사랑이 아닌 친구 간의 우정에서도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수자T : 개인적인 생각으론 거부감이 많이 느껴진다. 이성간의 사랑을 너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굳이 동성애나 인간관계에서의 모든 사랑을 배제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앞서 말한 주체적인 사랑 역시 서로 양방향간의 사랑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다.

- 정호T : 드라마나 포르노에 대한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근거가 있는가? 확실한 근거가 없이 주장만 나타나는 것 같아 아쉬움.
- 수자T : 성적 판타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성욕이 현실로 실현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더욱 청소년 시기에는 가상적인 성적 판타지도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정호T : 소비자 층이 누구인가에 따라 주관이 달라지는 것 등의 근거를 좀 더 덧붙여주었으면.
- 도운 : 사람들이 드라마나 포르노를 계속해서 찾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사회적인 이유도 클 것 같고, 모든 이들이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 아닐까? 대리만족 역시 떠오르는 것이 사람들이 드라마나 포르노를 통해서 내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환상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인가 아닐까 싶다.
- 소윤 : 이러한 가상적인 환상을 배제한다면 우리는 사랑과 섹스를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 공부를 하며 이미 '왜 성교육에서는 섹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거지?' 라는 질문을 떠올렸었다. 우리나라의 성교육 수준과 내용을 개선한다면 이 역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 형근 : 포르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인지, 불건전한 포르노가 나쁘다는 것인지.
- 연인의 사랑하는 과정을 담은 건전한 포르노는 괜찮지만 오로지 유희만을 담은 불건전한 포르노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수자T : 서로의 동등한 의사소통이 성립된다면 섹스라는 행동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성적 취향이 어떠하든지).
- 수자T : 잘 모르겠지만 '남들 다 하는 연애, 나도 해야지'라며 연애하는 사람이 많은가?
- 내가 느끼는 바로는 그렇다.
- 준상 : 그것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는가? 조바심을 가지고 연애를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만은 않는 것이 각자가 본인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만남의 이후 헤어짐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산 : 연애를 권장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가?
- 전두환대통령 당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자극적인 문화들을 퍼트린 적이 있었는데, 그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정호T : 이 강의의 주 타깃(연령대)이 누구인지.
- 우리는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10대 후반서부터 시작하여 20대 청년들에게 해주고픈 이야기를 하고 싶다.
- 정호T : 현실 사회에서는 경쟁과 스펙에 휩싸여 연애와 결혼이 뒷전으로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연애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조금 다르지 않은가 싶다.
- 준상 :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외부적인 성생활이 국가적 낭비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외도로 인해 자녀가 태어나는 것의 과정 역시 일반적인 가정의 자녀가 태어나는 과정과 똑같지 않은가.

2부 섹스토크

촛불 켜고 둘러앉아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왜 군대와 학교를 가야할까?

은형근 조영서

[1장] 군대

1.국민의 4대 의무

대한민국 헌법엔 4대 의무와 5대권리가 있다. 4대 의무는 국방, 교육, 납세, 근로. 의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꼭 해야 하고 법원의 기준 하에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강제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강제로 시키는 이유는 국가라는 공동체를 운영하고 유지시키는 데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꼭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학교를 예로 들면 아무도 건들 수 없는 학칙이 있겠다.

2.개인의 자유와 권리

국방의무라는 이름의 폭력-징병제는 폭력이다

국민의 자율성, 다르게 말하면 인권이다.

징병제는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무시한다. 아니 무시할 수밖에 없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은 각자 다 다르고 각자 나름의 뜻이 있다. 안보에 대한 이론도 무조건 많은 군사가 안보 즉,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양심에 자유에 대해 헌법상에 ‘어떤 일의 옳고 그름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거 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구체적인 것’이라고 정의해 놓았다. 그렇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계속해서 병역법 위반 유죄를 준다. 그 이유는 이렇다. ‘헌법 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적 측면에선 이해하지만 국방의 의무와 국가안보의 이유로 유죄라는 판결을 내린다. 500명의 병역거부자 때문에 안보가 흔들리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 초래의 가능성 때문에 국민의 인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인권은 그런 가능성에 의해 제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병역비리

징병제는 과거 프랑스 혁명 이후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민주주의 제도로 떠올랐다. 모두가 차별 없이 같은 신성한 의무와 책임을 진다면 정말 그것은 민주주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타협안으로 평화, 종교의 양심적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그 후 3/2가 대체 복무를 선택함으로써 사실상 모병제에 가까워지자 2001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그렇지만 한국의 징병제는 끝없는 병역비리로 신음하고 있다. 삼성 회장의 아들들은 허리디스크와 비만들의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았지만 현재 골프, 승마대회에 참가하는 등 아주 멀쩡한 것을 알 수 있다. 모병제 국가임에도 왕실인가 친인척들은 의무적으로 사관학교에 장교로 진학해서 병역을 수행하는 영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기득권들은 본인 포함해 자녀까지 병역기피를 수월하게 하면서 징병제의 민주주의적인 부분을 파손하고 있다.

개인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역시 병역기피에 해당되지만 이는 인권적, 평화적 측면에서 병역기피 보다는 병역거부로 분류된다.

사상 주입

군대를 가서 배우는 것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군사훈련은 보

통 신체, 기술적인 훈련과 정신적 훈련을 한다. 신체 훈련과 기술 훈련은 무기를 다루는 법이나 행군 등을 통해 전시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정신 훈련은 전시에 명령을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해 잠념을 없애고 국가를 위한 사상만 주입시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군인정신은 군인에게 필요한 것 같긴 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정신교육에서 중복세력의 실체, 민주당●전교조●민주노총이 나쁘다는 교육이 아주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정신교육 경연대회를 열어서 우수자에게 포상을 주고 휴가를 줬다. 교육과정에서 지휘관들이 “친구나 엄마한테 전화해서 야당이 집권하면 큰일난다고 전해라”라고 말한 사례도 있다.

군대 가서 배우는 것들

윗사람 명령을 따르고 아랫사람에게는 명령을 해라

다른 말로는 상명하복이라고도 한다. 군대에서는 급박한 상황에선 상부의 지시에 따라 무조건 따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계질서가 아주 강하다. 정말 급박한 전시 상황에서 일일이 민주적인 토의를 할 수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군대에서는 위계질서와 상명 하복문화가 맞을지도 모르겠다.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다.

앞서 나온 상명하복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군인 입장에서선 아무리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이라고 해도 억지로 해야 한다. 장교 자녀들의 과외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등 불합리한 일도 윗사람이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명령은 내린 상관에게 맞거나 운이 없으면 영창에 갇힌다.

진짜 사나이

군대는 말 그대로 ‘사나이’ ‘상남자’와 같은 남성주의가 주로 시작되는 곳이다. ‘나는 신체와 정신이 우월한 남성이고 여성과 장애인은 내가 지켜주는 사람이다’ 즉, 나는 보호자고 여성과 장애인은 피 보호자다’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것은 남성우월주의, 가부장제로 연결된다. 실제로 이화여대가 공식적으로 “여성의 이름으로 병역거부를 지지한다” 입장을 표명한 후, 이화여대 게시판에는 사이버 테러 및 성폭력이 가해졌다. 이것은 피 보호자인 여성은 남성만의 ‘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해 위로와 감사하는 입장을 많을 취해야 하고 감히 이견을 낼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군대라는 공간 안에서는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경향이 있다. 남자는 나라와 가정을 지키고 여성은 애를 낳거나 살림을 하는 것과 같이 남성(국가)에게 ‘내조’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군대를 남성만 가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법적 명칭으로도 현역은 제1국민 여성과 장애인, 면제자는 제2국민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마치 여성과 장애인은 현역보다 떨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명시 하는 듯하다. 현역을 가지 않고 다르게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을 무시하고 본인이 얼마나 어려운 부대에서 복무했는지 과시 하는 것도 ‘나는 남자답고 멋진 사람이다’와 같은 남성주의 이념이 있어서 임을 알 수 있다.

여성 혐오

군대를 전역한 남성들에게는 여성에 대한 혐오감이 있다.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2년의 세월을 군대에서 썩히는 것이 억울하기 때문이다. 나는 20대의 황금 같은 시간 중 2년을 버렸는데 그 시간에 여성들은 스펙을 쌓거나 대학 졸업이나 돈을 버는 등 자유롭게 여러 가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군대의 문제나 나아가서 징병제의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그냥 같은 사회 안에서 특혜를 받는 ‘짜증나는 여성들’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다.

북한은 적이며 섬멸해야 할 존재다

맞을지도 모른다.

북한이 현재 한국의 주적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 이상 도발 가능성이 큰 북한에게 경계심을 갖고 임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혐오감으로 정신무장을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군대 가서 배우는 것이 사회에 녹아든다

이렇듯 군대에서 주입되어진 군사주의, 남성주의 같은 것 들을 대부분의 전역 군인들은 가지고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은 사회, 가정, 친구관계 같은 사적관계 안에서 본인의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적용, 전파 되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이미 한국 사회는 군대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다. “군대 갔다 와야 남자 된다”라는 말은 곧, “군대 갔다 온 남자는 사회의 구조를 파악하고 오게 된다”와 같다. <당신들의 대한민국>이란 박노자 선생님의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실컷 맞다가 나중에 실컷 때리고, 조직사회의 원리를 제대로 터득했다. 이제 시키는 대로 할 줄도, 시킬 줄도 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 생각보다 한국 사회는 군사주의 가부장제에 빠져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군에 가는 것은 남성이지만 여성 역시 학교나 사회생활, 가족에서 군사주의적인 부분을 계속 해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군사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여성도 많다. 단적인 예로

남북관계에 일이 생기면 군필자 한국 남성들은 sns에 군복과 군화를 찍어 올리면서 수 천개의 ‘좋아요’를 받는다.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 중에 여성의 비중도 적지 않다. 그만큼 남녀노소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테러국’이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국가에 목숨을 바쳐 충성하기를 원한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미 한국 사회는 이런 생각들 지배적이기 때문에 다소 비 상식적인 요구들과 행동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회사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커피를 타다 줘야 하는가?’ ‘내가 왜 여성이라는 이유로 명절음식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정상적 문제의식을 우리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개인에게는 ‘사회 부적응자’라는 타이틀이 붙고, “남들 다 참고 사는데 왜 너만 유독 그러냐”와 같은 말 같지도 않은 말이 현실적으로 옳은 말이 된다. 거기다 ‘어른을 공경하라, 동방예의지국’같은 동양 철학이 왜곡되면서 한국 특유의 이상한 이념이 탄생하면서 사회를 더럽히고 있다.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닌 기득권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국민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략하고 원하는 결과를 손에 넣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정리하자면

군대는 2년 동안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하게 하는 곳이다.

군대에 있으면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부정적이고 옳지 않은 생각들이 잡혀 평생 그렇게 살게 된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아닌 우리 사회의 절반이라는 것이다. 절반이 같다면, 나머지 절반에게도 군대에서 오는 생각들이 전파됨으로 비로소 모두가 하나의 생각을 갖게 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국가가 원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원하는 국민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한다면 국가가 얻는 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가진다면 뭔가 국민을 공략해서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기가 아주 쉽다.

국가가 원하는 국민이 되지 않는 법은 쉽지 않다. 국가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벌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따르고 설령 거부감을 가진다고 해도 앞서 나온 대로 벌 받는 게 두려워서라도 그냥 따르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이미 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사회 구조나 문화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할 만큼 국가에게 충실한 국민이 되어있다. 시대가 바뀔에 따라 방식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정부는 국가를 빌미로 항상 국민을 통제하려했다. 국민들이 점점 진화함에 따라 그 통제 방식도 진화해가고 있을 뿐이다.

국민들은 스스로 자신을 억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강] 교육

강의의 목표: 입시 위주 교육의 불합리함과 각종 부당함, 그로 인해 학생들에게 가는 실질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또 간디학교에서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 알려주고 각자 얘기해본다.

국가의 강제성 아래 강행되는 국가의 입맛대로 국민 길들이기에 대해.

강의 진행

1. 교육은 무엇인가. /'바람직한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 정도'? 세뇌?
2. 학교교육(공장식 교육)의 역사(한국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3. 학교교육(공장식 교육, 일제식 교육)의 폐해(목표)
4. 학교교육의 진행 과정

1. 교육은 무엇인가.

교육이 왜 국민의 4대 의무일까? 흔히 교육, 특히 국가에서 세우는 교육 정책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할 만큼 개개인과 사회에까지 큰 영향을 준다. 우리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다. 사전마다 교육의 뜻이 다르다.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 등이다. 교육이란 단어의 어원 또한 동양과 서양이 다르다. 동양의 교육(教育)은 맹자의 득천하영재이교육지(得天下英才而教育之)에서 따온 단어이다. 한자를 풀이해보면 갓난아이를 때려서 가르친다는 뜻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한자를 풀이하자면 자식이 본받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 회초리가 들어가는 식이다. 즉 본받도록 하고 사랑의 매를 든다는 소리지, 무턱대고 때려 키운다는 뜻은 아니다. 영어의 Education은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사람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뜻이다.

한자와 영어 의미의 유래를 보면 알겠지만, 해석에 따라선 얼마든지 정신 세뇌를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개념이다. 실제로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로 세계가 양분된 시절에는 서로 사로잡은 포로들을 '정신 교육,' '사상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비인간적으로 취급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교육은 무엇일까? 교육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지식, 기술, 기능, 가치관 등을 대상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여기서 바람직한 방향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 사회가 정하는 것이다. 조금 악랄하게 말하자면 사회가 원하는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을 교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학교교육의 역사

현 입시위주 교육의 뿌리는 메이지 일본의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메이지 일본의 교육제도는 18세기 프로이센의 교육제도에 뿌리를 둔다. 프로이센은 유럽 변방에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경쟁위주의 근대 교육체계를 최초로 도입하여 독일 제국의 뿌리를 만들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막부가 무너지며 대격변을 겪었고, 메이지 정부는 서양식의 산업화를 통한 성장 동력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독일 제국(프로이센)의 급성장에 주목한 메이지정부는 농사짓고 살던 평민들을 공업 현장의 일꾼으로 투입시키기 위해 프로이센의 방식을 받아들였고 이것이 입시 위주 교육의 뿌리이다.

한반도에선 임진왜란 이후 신분제 질서가 일제강점기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고 해방 후 미군정으로 연이어 무너

졌다. 게다가 6.25로 인해 국토가 잿더미로 변하는 등, 짧은 시기에 총 세 번의 격변을 겪으면서 기존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로 인해 완전히 제로인 상태에서 북한의 남침 위협으로부터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빠른 지식수준 성장이 필요했다. 거기에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비슷하면서 초고성장을 기록하던 일본의 교육체계를 따라가는 것이 아무래도 한국에 적합한 교육제도를 찾는 것보다 비용으로 보나 시간으로 보나 훨씬 쉽고 간편했었고 당시에는 창의성 위주의 서비스업의 시대가 아니었으니 산업구조도 맞아떨어졌다. 적어도 한국의 근현대 입시위주 교육은 국민의 빠른 산업화 적응이라는 목적의식이 뚜렷했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문제는 이런 입시위주의 교육은 문맹상태인 국민들이 일정 수준까진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순 있어도 고도의 정보화된 현대 시대에는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지고 비효율적이면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쓰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3. 학교교육의 폐해

교육의 의미 퇴색

입시위주 교육에서는 교육의 목표 자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단정된다. 참된 진리의 추구를 통한 정신적 성장이 아닌 '대입에 필요한 지식'만이 강조되어 교육 본연의 모습과는 거리가 영 멀어진다. 시험에 나오는 지식은 아무 재미가 없어도 억지로 배워야 하는 반면, 시험과 무관한 지식은 아무리 흥미와 열정이 있더라도 시간 낭비로 치부되거나, 대학 가면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약으로 때워 버린다. 실제로 대학에 가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매진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다.

이 와중에 사회성, 창의성, 실무 능력, 도덕성 등 정작 대학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 버린다.

학생 인권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대다수는 거의 온종일을 학교나 학원에서 보내야 한다.

한국의 학생들은 대학입시를 지상목표로 여기고,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학원, 독서실을 보낸다. 게다가 0교시 등교와 타율학습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학생들이 하루 온종일 학교에 있어야 한다. 보통 야간자율학습이 밤 9시나 10시에 끝나므로 대부분 12시간 이상 하루 온종일에 가깝게 보내게 된다. 그래서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웃지 못할 말을 하기도 한다.

취미 문제

취미활동 부족

대다수의 청소년들에게 있어 취미활동이라고는 게임 이외에는 웹툰,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정도가 고작이다. 시간표상에 있는 특별 활동도 강제성이고, 사회가 취미를 탄압하고 우습게 여기다 보니 자발적인 취미를 갖는 건 기피하게 된다.

사교육이 줄어들지 못하는 이유

공교육 인구 약 60만 명 중, SKY에 가는건 약 1만명. 하지만 모두 명문대학을 원하기 때문에 대학 서열이 건재한 이상 시 경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는 고학력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모두 점수를 올리기 위해 경쟁한다. 때문에 전체 수험생의 성적이 올라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며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모두가 지금의 서울대를 갈 성적이 되더라도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른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기 때문에 덩달아 불안해진 학생들도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받게 된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전(煎) 교수의 미시경제학)

결국 고학력 선호사상이 원인이지 사교육 통제로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실제 전두환 시절 "과외 금지 조치"의 경우도 단속의 위험을 감수하여 과외비가 비싸졌을 뿐 돈 있는 수요자는 암암리에 과외를 받았다

고 한다.

성적에 따른 위화감 조성의 차별

성적에 따른 차별이 과도하여 과열경쟁을 강요한다.

선진국 일부 국가에서는 성적을 본인에게만 공개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등수를 매기지 않는다. 위화감이 조성된다는게 이유다. 대표적으로 핀란드, 뉴질랜드가 있다.

그 외의 국가에서는 성적과 등수를 모든 학생에게 공개하며 교사들은 우등생을 우대하고,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에게는 수치심을 강제한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학교 내 벽보에 점수를 공개하는 프랑스, 체코, 독일, 한국이 있다. 영국의 경우 최고등급인 A*와 A를 받는 학생의 비율이 30%까지 치솟는 점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고등학교부터는 사실상 위화감 조성이 없어졌지만, 중학교까지는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우등생에게 선생님들의 관심과 기대를 많이 보여주고, 열등생에게는 고민을 들어주긴 커녕 짜증나는 공부를 하라고 자주 강요한다. 심지어 우등생과 열등생이 싸울 경우 우등생은 좋게 훈계하고 타일러서 넘어가고, 열등생은 강하게 혼내며 때로 다스리는 등 인간성과 별개로 이중성이 치솟는 차별도 과거부터 빈번하였고, 이런 경험 때문에 학창시절 때문에 차별의식이 깊어진 사례도 존재한다.

이런 가치평가 문화가 학생들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할 필요도 없다. 많은 교사들이 상대평가 등수로 학생들을 차별하면서 학생들도 성적 차별과 엘리트 주의를 당연시하게 여기며 어른이 되어서도 학력을 따지는 학력 위주 사고가 대물림되어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된다.

공부 이외는 탄압한다

공부 이외의 것은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건 말건 탄압한다.

애초에 입시교육 자체가 학생이 특기와 적성을 만들기 힘든 구조다.

어린 시절엔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창작에 대한 열망을 쉽게 가진다. 하지만 철저하게 "인식도 안 좋고 돈도 안 되고, 좋은 대학 안 나오면 힘들다"는 식의 교육을 여러 번 강조, 그렇게 공부 안하면 인생이 꼬인다는 주입식 교육을 받은 높은신 분들이 청소년들 범죄행위가 문화 산업 때문이라는 명목으로 탄압하고 검열하면서도 검열 유지비를 명분으로 문화산업의 수익까지 뺏는다.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도 학력 만능주의가 만연해 학력부터 보는 게 사실이다. 일례로, 그리 인지도가 높지 않은 대학을 나온 한 사람이 미술대회에 출품을 했을 때 입선도 되지 못했는데, 미국 유학을 다녀왔더니 같은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좋아하는걸 하려고 명문대를 나오는 것도 매우 힘들뿐더러, 희망 직종만 파는 것도 주변의 반대가 많기 때문에 훨씬 어렵다. 그러나 정작 역사책과 국내 언론에서 튀어나오는 진정으로 꿈을 이룬 사람들은 학력이나 안정된 수익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 많았다. 오히려 실패를 여러번 겪어도 자신을 믿고 미래를 내다보며 자기 의사대로 행동하는 칠전팔기형 헝그리 정신의 인물이 많았다. 이렇다 보니 롤 모델로 제시하는 인간상과 실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인간상이 상당한 괴리가 있다.

판단력과 창의력이 없는 인간상의 양산

글읽고 외우고 계산하는 것만 12년동안 끝없이 반복하며 판단력, 창의력 등 정말 중요한 능력은 전혀 훈련하지 않는다. 결국 중요한 문제를 판단해야 할 일이 생길 때, 기존 지식에만 의존하여 판단하는 바람에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에 대처를 제대로 못하는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학창시절 본인 의사를 탄압당하는 경험을 수없이 거치며 성인이 되어서도 주체성과 개선의식이 많이 결여된다.

•주체성 결여에 따른 판단력 저하

청소년들은 장래희망과 의사를 수없이 묵살당한다. 그로 인해 자발적인 주체의식이 점차 떨어지며 객관적 자료나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의 진실성을 판단하기 힘들게 된다.

•비판적 사고와 개선의지의 소멸

어른들의 강요와 탄압 속에서 사회에 문제점이 있어도 어른의 사정이라며 무시해버리는 풍조를 배우며 자란다. 덕분에 문제를 직면해도 개선 의지가 없어서 "사회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패배적 인식과, "비판할 시간에 나만 잘 하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인 사고에 빠진다. .

또한 비판하는 사람을 노력이 부족하고 자기 변명하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풍조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된다. 비판적 의식과 개선 의지는 온전한 삶을 사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 적응력 부족

탄압적인 환경에 의한 상황 판단력과 주체성 결여로 사회 부적응 현상이 늘어났다. 이 때문에 자그마한 갈등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용기를 내어 행동해도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겪고 혼란이 가중되어, 사회 적응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쉽게 거두고 사회를 기피하거나 혐오하는 등의 악순환도 생겼다. 이 때문에 사회성 결여, 소통 장애, 집단괴롭힘, 히키코모리 등이 되는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부족

청소년들이 주변 어른들에게 문제점을 상담하면 "어쩔 수 없으니 인정하라"는 식의 패배주의 적인 상담, "사회 풍조에 맞는 것을 선택하라"는 식의 황금만능주의적인 상담이 많다 보니, 상담 대상자는 자신의 노력, 자신의 환경, 자신이 원하는 공감을 받지 못하고 상처입는 경우가 많아져 자연스럽게 그런 사고를 주입받는다.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에게 경쟁을 가르치고 유도하는데, 그런 경쟁체제를 12년 겪으면서 자라온 세대는 타인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온 사람들은 타인을 나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그 두가지의 경우로만 볼 것이며 한국 사회 전반에 타인을 무시하고 깔보는 현상은 이와 연관이 있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4. 학교교육의 진행 과정

현재 학부모 세대들이 대학 입학~졸업후 IMF라는 초대형 경제파멸 사건을 겪으며, 이로 인해 이전까지 공부 잘 하면 부자, 못하면 부자가 안된다 수준에서, 공부 잘하면 살고, 못하면 죽는다 수준으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IMF 이전에도 아는것은 힘이였기 때문에 6~80년대에는 고학력자가 매우 적은 상황에선 대우도 매우 높았다. 의사들은 건물을 몇 채씩 지을 수 있고, 엔지니어나 과학자는 젊은 나이에 석사만 되어도 교수직에 올라 권위를 누릴 수 있었다. 명문대 나오면 강남 40평 아파트에서 땡땡거린다 과거급제로 온가족 인생이 퍼듯이 전문직이 되어도 온가족 인생이 활짝 피기 때문에 시골 빈농이 전 재산인 소를 팔아서 아들 대학교육 시켰다고 해서 우골탑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과거 6~80년대의 고학력자 대우까지 겹쳐져 기성 세대 전반이 좋은 대학 나와 대기업에 취업해야 살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박혔다. 원래 고학력자를 우대하던 시대에 살던 50대 이상 세대는 물론, 그들의 아들딸로 80~90년대 입시위주 교육을 받고 자란 지금의 30~40대 학부모들은 당연히 자기가 배웠던대로 자식에게 대물림하게 되어있다. 이것이 학벌 카르텔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더욱 공고해지게 된 것.

정리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 교육은 불합리하다. 각종 부당함, 의도된 통제로 인해 학생들에게 가는 부정적 영향이 정말 크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그 부당함을 간직한 채, 어느 정도 부당해진 채로 사회에 나가 사회를 이룬다. 우리 사회의 병폐가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군대는 2년 동안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하게 하는 곳이다.

군대에 있으면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부정적이고 옳지 않은 생각들이 잡혀 평생 그렇게 살게 된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아닌 우리 사회의 절반이라는 것이다. 절반이 같다면, 나머지 절반에게도 군대에서 오는 생각들이 전파됨으로 비로소 모두가 하나의 생각을 갖게 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국가가 원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원하는 국민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한다면 국가가 얻는 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가진다면 뭔가 국민을 공략해서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기가 아주 쉽다.

국가가 원하는 국민이 되지 않는 법은 쉽지 않다. 국가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벌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따르고 설령 거부감을 가진다고 해도 앞서 나온 대로 벌 받는 게 두려워서라도 그냥 따르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이미 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사회 구조나 문화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할 만큼 국가에게 충실한 국민이 되어있다. 시대가 바뀔에 따라 방식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정부는 국가를 빌미로 항상 국민을 통제하려 했다. 국민들이 점점 진화함에 따라 그 통제 방식도 진화해가고 있을 뿐이다.

국민들은 스스로 자신을 억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민석 : 저희도 하고 있는데 저도 군대를 좋아하진 않는데 남북이랑 휴전 상태인데 군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형근 : 군대라는 것이 평화에 필요할까? 국민이 많고 군인이 많은 게 유리할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10만 명이 북한에 군인으로 있는데 식량난이 심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미군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동안 버티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모병제는 우리나라 6조원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군대비리 등 돈이 빠지는 것을 막으면 가능하다.

-준상 : 군대가 자유를 억압한다고 했는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형근 : 위험부담 때문에 생각에 자유를 막는 게 맞다고 생각 하지는 않음.

-나린 : 현 군인 수에 30%만 되어도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강대국에 둘러 쌓여있는데 우리나라의 군인수가 많은 것인지? 줄이는 것이 가능할지?

-형근 : 감축을 해도 가능하다. 군인을 9급 공무원 취급하면 가능할 듯.

-희라T : 공교육에 지옥에서 노아의 방주를 탄 거 같다. 아직 일반학교 친구들에게 미안한 거 같다. 공교육에 유일한 장점이 빈부격차에 피해가 적다는 거 같은데 그 장점과 많은 피해들을 두고 봤을 때 어떤 거 같나?

-영서 : 그 장점이 비교대상이 될 거 같지는 않고, 노아의 방주에 비유를 하셨는데 완벽하진 않은 거 같다.

-준상 : 공교육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거 같다. 진입장벽도 낮고, 사람을 판단하기에 시험이나 오랫동안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발표자는 어떤가?

영서 : 대안학교도 큰 틀에서는 학교의 틀을 따른다. 시험으로 그 사람에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험만을 위해 공부하면 사람에 능력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형근 : 주입식 교육의 안 좋은 점은 배워도 기억을 못한다는 점에 있는 거 같다.

-수자T : 헌법에 4대의무중 납세 빼고는 권리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학교나 군대가 묶인 이유가 국가가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를 가장 이용하기 쉬운 곳이 학교나 군대인거 같다. 왜 학교나 군대가 없는 나라는 왜 상상하지 못하는 가? 발표자는 상상할 수 있는가?

-영서 : 큰 사건이 있어야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교육에 이상은 다양한 교육환경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근 : 군대 가는 게 좋으면 권리로 보장해서 가게 만들고 싫으면 안 가게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군대 없는 세상은 가능 하다. 점차 수를 줄여 없앤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희T : 군대를 언제 갈 건지? 군대를 빨리 가려고 하는 사회적 문제에 원인은?

-형근 : 공익에 가능성이 있어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25세에 결정 날 듯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게 추세다. 그리고 군대를 가면 욕을 먹지 않는다.

대안학교는 할 게 없어서 간다. 일찍 다녀오면 사회에 대해 알 수 있어서 가는 거 같고 나이가 들수록 하는 게

많아서 일찍 가려고 하는 거 같다.

-수자T : 군 기피자들은 왜 목소리를 내지 못할까?

병역 거부자들의 잘못이다.

-형근 : 통과됐는지 모르겠지만 병역기피자 실명공개가 통과되려하는데 수치심을 주려하는 이유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종교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이다. 양심적인 병역거부자들은 그래 우리 병역기피다. 라고 한다. 이단취급을 받는 종교인거랑 총들기 싫어하는 거랑은 다르다

-희라T : 엠씨몽은 어떻게 봐요? 여학생들도 할 얘기 많을 듯

-민석 : 생니 뽑을 정도로 가기 싫었을수도 있는데 욕을 너무 많이 먹는 게 아닌가. 잘못된 거에 비해서. 단지 공인이고...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엠씨몽이라면 역올할 수도 있을 듯.

-수자T : 민석이 친구가 그랬으면 받아줄 의향있나

-민석 : 자기 생니 뽑아서라도 군대 안가려는 건 대단한 거 같기도 하고.

-나린 : 양심적 병역거부와 회피는 다르다. 엠씨몽에게 느껴지는 것은 거부가 아닌 회피. 이 사람이 물론 대중의 선입견이 있기도 하지만 욕을 먹는 이유가 그 사람의 의견을 떳떳이 낸 게 아니라 뒤에서 이 뽑으면서 숨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당당히 의견을 밝혔더라면 다른.

-준상 : 음지에서 그런 짓을 한 것. 자신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에도 못나오고 하는 것 같다. 노래제목도 원망하는 듯한 내용. 자신이 떳떳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군대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형근 : 도망치는 행위가 나쁘다곤 생각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비겁하게 군대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도망치는데 수단과 방법이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올리버가 뭔가를 만드는데 한그릇 더 달라고 하다가 따귀를 맞잖아요. 산업발전과.....국가가 잘못된 거죠. 올리버가 도망쳐요. 당연한 회피인 듯. 엠씨몽에게 서운한 건있다. 이빨 8개 뽑을 정도로 싫었으면 종이 하나만 썼어도 상황이 달라지고 전쟁없는세상 사람들이 힘을 더 얻지 않았을까. 엠씨몽이 말할 수 없는 사회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준상 : 올리버를 바라보는 시각과 엠씨몽을 보는 시각은 다르다. 나이로 인한 책임감이 있으니까 이런 시선이 쏟아지는 거라고 본다.

-형근 : 나이? 레미제라블에서 빵을 훔치는 장발장. 도망치죠. 형량이 늘어나지만 그거로 시선이 다르게 보이지는 않죠. 그거로 인해 사람이 됐으니까.

-별 : 사람이 뭔가에 대해 고민하고 찾아보려고 할 때 뭔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텐데 영서는 왜 공교육에 대한 폐해를 인문학 주제로 까지 가지고 오게 되었는지. 학교가 가르쳐주는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있고 대안교육이라는게 하나는 하고 싶지 않은 걸 하지 않을 자유가 있지 않냐는 말이 있는데 영서의 생각은 어떤지.

-영서 : 민들레 인턴 가서 처음 접하니 나름의 충격이 있었다. 자세히 알면 느껴지는 게 더 많지 않을까 해서 관심을 가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지. 간디학교는 어떤지. 다루려고 했었다. 필수수업같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 방식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거나 재미를 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아 : 이화여대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병역거부를 지지한다. 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군대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관심사인데 어떤 일이 있었나?

-형근 : 잘은 모르지만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 대해 말을 하는 경우가 많진 않은데 여성들이 왜 명절음식을 해야 하는지. 가부장적인 비판도 사실 쉽지 않다. 병역거부가 여성운동에 들어간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희라T : 실제로 군 가산점제도라는 게 있었다. 여성단체에서 군 가산점제도를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냈더니 여성단체페이지가 마비된 적이 있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군대를 안갔다는 이유만으로 점수가 떨어진 것.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자 남녀가 대립하게 되는데 많다. 사실은 남녀가 싸워야 할게 아니라 정부와. 국가와 싸워야 될 문제였다. 군대에 대한 화풀이를 여성에게 하는 것도 문제.

-형근 : 북유럽의 나라들이 한 곳은 여성징병제, 한곳은 여성모병제가 되었다. 이것이 솔직히 같다면 남자 여자 가는데 맞다고 생각한다. 가는것도 여성의 권리이다. 충분히 나라를 지킬수 있고 주체적 일수있다고 생각한다. 둘다 가는데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다 안갔으면 한다. 군대라는 곳의 특성상 성차별이 일어나서 문제라고 한다. 여자도 군대를 같이 가야한다고 흠여간다면 옳지 못한 것 같다, 그게 꼴보기 싫다면 우리도 가지말자가 되어야 한다.

-나린 : 대안학교에 아버지가 보낸 이유중 하나가 초등학교 시절의 맞으면서 공부하는걸 겪고 싶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이 학교에서 너무 힘들 때 일반학교가 그렇게 나쁜가? 공부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기도 한데? 라고 생각한 적 있다. 공교육이 개선되었던 점이 있는지. 변환되면 좋을게 있는지.

-영서 : 예전에 비하면 학생인권조례도 재정되고 체벌문화도 사라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 개선된 점이 뭐가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

-수자T : 나는 학교생활 재미있게 했다. 튀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청소년 문화라는게 사실 없었다. 깽해야 학교라는 곳 이었고 중학교 때 집에 티비가 들어왔다. 학교에나 가야 친구가 있고 음악실이 있고 이랬으니까. 유일한 놀이터였다. 돌이켜보면 지금사회는 워낙 배움의 공간도 많고 시대도 바뀌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은 것은 많다. 종소리라던가 시간표라던가. 학교형태든 성적으로 줄세우는 거든 본질적으로 변화는 없다. 정부 시책이나 정책이 제일먼저 적용되는 곳이 학교이다. 나라에서 시키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게 많이 없어졌으니까.

-형근 : 지금은 입시라던가 사회적인 큰 그림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 사회랑 군대 교육 이런 것들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서 우리를 가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토론]

공교육에 대한 비판지점을 우리학교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대안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싶어 하는 심리가 무엇일까?

-나린 : 아빠가 보내놓고 실망을 많이 하셨다. 대안학교가 공교육에 대안이 될 거라곤 생각하진 않는다. 그렇고 일반 공교육에 가는 것만큼 대안학교에 가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다. 복에 겨운 거 아닌가?

-소운 : 항상 소수라는 느낌을 받았다. (초등대안) 다른 길을 걷고 있고, 다수에 일반학교아이들은 동경하는 게 없잖아 있다고 생각한다. 대안학교에 나오는 폐해도 있다고 본다.

대안학교 부심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 대안학교가 대안인 것 같지는 않다.

-도운 : 불평이나 불만을 말하는 게 복에 겨운 거 같진 않다. 환경에 따라 다른 것 이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환상은 있는 거 같다.

-혁민(금산) :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쌤한테 말하지 못한 거. 그런데 대안학교에서 보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게 분위기의 차이가 큰 거 같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자신의 노력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 같다.

-주호(산청) : 저 역시 중등과정을 일반학교 다녔는데 사람이 많으면 많은 친구들과 다 친해지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 같다. 그런데 대안학교에서는 소수가 되니까 친구 맺는 과정이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소수가 나온 거 같다. 물론 수업시간이 짧은 게 좋긴 했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다.

-정희T : 딸이 대안에서 일반으로 갔는데 그렇게 힘들어 하진 않는다. 다만 쌤들 대하는 게 다를 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물론 다르긴 하지만 괜찮은 거 같다.

형근 :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환상인거 같다.

[인문학 시식코너 평가]

-준비를...피피티나 기술적인부분을 신경 썼으면 더 좋았겠다 싶기는 함. 본캠뎀 더 신경을 써야겠다 함. 준비에 비해서는 잘 됐다. 토론도 많이 되고 질의응답도 많고 분위기가 좋았다

-강의준비를 잘 해주면 제일 기대되는 수업일 것 같다.

- 질의응답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강의에 넣을 수도 있는 내용이었으나 자유롭게 말하는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로 했다
- 앞의 수업에서의 흐름이 쌓이고 쌓여서 연결이 된 것 같다. 국가의 문제라고 들을 엮은 것은 잘 한 것 같고 막판으로 갈수록 고민이 쌓이고 과열이 될거같은 예상
- 이전 삼일동안 토론하는 분위기가 올라와서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이상적인 토론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준비를 대충했다 그래서 기분이 좀 나쁘다
- 약간 허점있고 멍하게 강의를 하고 싹티나게 의도해서..ㅋㅋ
- 그전에 고민하고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예캠에서 깊이의 정도가 얕았다.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 깊게 빠질수록 한 몸인 주제에서 빠지게 돼서 가지치기를 했다.

미래를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할 권리

안현선 정나린 전진

[1부] 진로에 대한 생각

<진로-막연함, 두려움, 아득함, 불안, 부담>

-각자 포스트잇을 하나씩 나눠줌.

졸업한 후에 대해 불안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키워드로 적음. 무작위로 하나씩 뽑고 보드에 붙인 후 작성자가 얘기하는 시간을 가짐.

-채현 : 위기감

실감이 안나서 위기감이 안 든다. 오히려 기대감이 더 있다. 주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소아 : 나를 스스로 책임져야한다는 부담

인턴하면서 알게된 대안학교 졸업생이 있는데, 부모님이 강경하게 독립을 시켜서 월세를 내는 등 생활이 녹록치 않다고 했다. 나도 '나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많이 들어요.

-산 : 평범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틀이 없어서 불안해요.

-건산: 대학, 잉여인간

대학에 대한 압박감. 졸업 후에 잉여인간이 될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도운: 경제

돈이 전부라고 생각은 안하지만 필요한 거니까, 1~2년은 여행,휴식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것도 경제적인 부분이 밝혀줘야 한다. "뭘 하면서 내 스스로 살 만큼 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함.

-형근: 불안정한 수입

불안정한 수입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런 삶이 기대되기도 함

-별: 인정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는데, 대안학교 출신이라 남들의 시선이 부담된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린: 독립과 가족

돈이 중요하죠,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도전할 껍도 있다. 독립하는 과정이 걱정된다. 한 부모 가정인데 아빠랑 단 둘이 지내는게 익숙하다. 독립을 해야하는 건 맞지만 '아빠를 혼자 두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부모님이 걱정된다.

-준상: 사람,관계

인턴 할 때 외로운 적이 많았다. 학교는 친구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근데 졸업하고 나면 학교에서 맺었던 인연이랑 많이 멀어질 까 걱정된다. 내가 졸업하고 나면 안 외로울 수 있을지 걱정된다.

-소윤: 혼자서 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동안 했던 일은 학교 소속의 황소윤으로 했는데 졸업을 하게 되면 내가 할 일들을 저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해야하니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걱정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진: 가치관

저는 항상 고등부 때부터 사회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학교가 온실같았고 다 비슷한 사람들이 많지만 사회 나

가면 다 다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많이 든다.

[토론]

-별 : 가진 고민이 많은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힘이 나잖아요. 청년들이나 어울릴 수 있는 게 있으면... 학교에서 6년동안 부대끼고 살았으면..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상태에서 맺어가는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산 :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나가서 멀어져서 그사람과 관계가 멀어지는건 아니라고 생각하는게, 다른 나간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 같이 있다가 한새, 지훈이랑은 연락하고, 기완이도 나간다고 연락이 끊기는것도 아니고. 그랬다가도 어느날 연락하고. 그런 것 보면 나가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와닿진 않다. 자기가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믿는다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듯

-준상 : 제 철학과도 관련 된건데 답이 없다. 제가 찾은 답이 없어서 졸업하기가 존나 싫다.

-수자T : 관계라는건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했으면. 부모 관계도 달라진다. 받아먹기만 하는 존재였다가 내가 크면 되려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기도. 이 친구들이 내가 선택한 친구들은 아니다. 누가 누구 뽑아서 된 학년이 아님. 우연히 만났는데 이런 공간에서 지내다보니 비슷한 색깔로 관계를 맺는건데. 저 개인적인 거 보면 중학교 때 되게 친했어도 인문계 상업계 가나가 서로 확 갈려질 수밖에 없다. 공부 좀 한다고 인문계 갔어도 대학 간 안간 친구가 갈려지고, 여자같은 경우는 결혼 한 친구 안한 친구. 자기가 어떤 스타일 모습을 하나에 따라 관계의 풀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 가냐에 따라 비슷한 결로 사는 사람들끼리 새로운 관계. 그렇게 인생. 언제나 좋은 이 열세명과 죽을 때까지 지낼순 없지 않을까.

-진 : 경제랑 나를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부담감? (주제를 말함)

-별 :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눈앞에 안 보인다. 엄마아빠가 집 나가 라는게, 니가 싫어서가 아니라 여기 있어봐자 할게 없어서. 근데 돈 버는거 따로 ,내가 하고픈거 따로 라고 하게 되면 막막할 거 같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도 벌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돼서.

-형근 : 근데 약간 현실적으로 별도 소아도 그랬고 졸업하면 집에서 나가거나 월세내라 하는데, 이해가 안감. 흔히 말하는 어메리칸스타일인데 미국도 29살? 까진 집에서 같이 산다. 부모님이 20대 중반까진 키워준다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한다. 너무 잔인한 거 같다.

-현선 : 나아가서 결국 독립해야하고 하는데 대안학생들은 나름 신념을 지키니 조금 앞당겨진다. 다만 안하는게 아니라 미뤄지는 것 뿐이지 마주해야할 사회는 분명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한게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불안할수밖에 없는 이유가 외부에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준상 : 개인적으로 20되면 독립, 손 빌리면 안되지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되는데, 여기 부모님들 다 착하고 자식 버릴 것도 아닌데 부모님 이용할 수 있는건 이용하고 원하는 것도 원원형태로..? 얻어먹고 줄 것 주고 하면서 왜 안 되는지 이해 안 간다. 개인적으로는 경제 같은 건 잘 와닿지가 않는다.

-소아 : 한편으로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한편 기대가 된다. 그런 삶이 꼭 물론 어렵고 힘든 점 많겠지만 그런 힘을 스스로 기르겠다는건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언니의 아버지가 좀 유명한 경제학자라고. 그래서 아빠가 많은 신뢰를 얻고서는 스무살 되면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인턴하면서 알바도 병행했고 인턴하면서 필요한 밥값 차비등 지출은 스스로 했고. 폰비도 지금은 내주시지만 전엔 내가 냈고. 조금씩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엄마한테 투정부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맘 편해지는게 많다.

-나린 : 소아의견에 공감. 지금은 정말 막연하지만 일하면서 내가 일한 그것에 대가가 처음 왓을 때 너무 뿌듯했다. 당장 생활적인 면에서 독립한건 아니어도 내가 어느 정도 생활비를 버니. 손 빌리는게 민망해서. 사고 싶은 거 해결 해야할거 선물이라든가 식사. 그런 걸 해결해나가니 뿌듯하다. 힘든 알바를 해도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마련한다면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별 : 한편으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해야한다 말아야한다 하는 생각 이외에 부모로부터 사회에 나가기 전 지원을 받는 거. 만약 내 또래 친구들 중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못할 수도 있는데, 난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런 거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을수 있단 생각을 했다. 나는 못할까? 부모님 벗어났을 때 암것도 못할까? 도전하고도 싶고 걱정도 되고.

-수자T :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한다고 권해드리고 싶고. 부모 입장에서도 10대 때까지 새끼에 대해 컨트롤할 여지가 많은데 내 자식이 커버리면 컨트롤하곤 싶은데 꺼리가 돈밖에 없다. 구차하겐 부모가 나쁜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당당해야지만 의식도 당당해질 수 있다는게 큰거 같다. 제 경험을 보면 고등 때 오빠가 대학4년을 다니는 걸 봤는데 집에서 돈대주고 하니 하다못해 mt비 회비, 돈 달라고 실갱이 하는게 짜질해 보였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등졸업하면서 자립해야겠다. 그래야 부모한테도 당당하고. 살아갈 세상에서는 내가 필요한 거 벌어서라는게 아니라 부모 또한 나한테 주어진 자원일 순 있다. 부모님 봐서도 얘기한다. 애들 고딩 때만 키워줬으면 됐다. 졸업한 이후에 먹여주면 밥값 방값 다 받아라. 차용증을 쓰던지. 늙어서 다 받아내라고. 내가 당당하게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다.

-나린 : 한번 방금 든 생각인데 모두에게 질문으로. 부모님과 돈 얘기하면 어땠? 방금 수자쌤 얘기를 듣는데, 물론 수자T 의도는 알겠지만 차용증얘기 등 나오니. 부모님이랑 그런 얘기 하는게 불편해서.

-수자T : 불편한 정체가 뭐가?

-나린 : 그냥...

-준상 : 저도 뭔지 알 거 같은데.

-소아 : 돈 얘기 라는게 돈을 받기 위해서 라는거야 아님 돈 자체에 대해?

-나린 : 그런 얘기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부모가 지출하는 돈에 대한 얘기도.

-소운 : 그런건 있다. 부모님이 얘기를 하고 우리 엄마는 일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 하면서 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한테 부족함 없이 주려는 입장인데 또 보면은 우리 집이 넉넉한 집이 아니구나. 하는걸 알게 됐을 때 이후 부터는 내가 많이 벌어서 자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엄마한테 바라거나 해주려고 할때 꺾끄러워 지거나 부담스러워 진다.

-나린 : 아빠가 담당해주는 저에 대한 비용이 있다. 핸드폰이라던가. 그런 것도 있고 저희 가족이 외식을 많이 하기도 하고. 제가 선뜻 뭔갈 해보고싶다. 말을 못하겠는게. (울컥) 모든 부모님이 다 그러겠지만 자식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 하니깐 그런게 죄송해서 부담된다

-건산 : 부담되긴 하지만 사회 나가면 힘든 것도 사실. 저희 엄마는 20살 되면 내보낼라 했는데 점점 안 좋아지기도 해서, 갑자기 절 낳아서 미안하다고 하셔서.. 금까 원래 아빠엄마 결혼하고 애낳을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심심해서 낳았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좀 더 집에 있게 해주겠다. 근데 아빠엄마 회사 정년되면 시골 갈건데 그때까지 내가 정리 못하면 같이 시골 간다고 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될듯. 부담도 있지만 맘을 이해하지 못하진 않는다.

-소아 : 부모입장에선, 다 알진 않지만 제가 너무 안 기대서 서운하기도 하다고. 나한테 정 없다고 그러고. 동생이 철없는 남동생이 사실은 책 사는데 쓰는 돈 아닌거 다 아닌데 책 산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선 여친이랑 놀고. 제가 용돈 알바비 받으니까 주기도 하고. 저보고 독한년이라고 그러고. 필요한 돈도 모아서 쓰니까... 어찌면 나린이네 아버님도 너무 나린이가 혼자 고민하고 앓고 그런 걸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지. 좀 털어놓고 필요한 건 얘기하고 힘들면 조울해나가고.

-도운: 경제적 얘기에 부담을 가질 순 있지만 얘기하는게 당연하다. 우리집은 셋이 사는데 엄마 돈 관리 다 알고 있다. 거기에 대해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한때는 돈받는게 미안해서 말 안했는데 너무 힘들기도 하고 엄마도 그걸 아니까 나한테 너무 미안해한다. 그때부터 이만큼정도 만 쓰겠다. 이정도만 줘라. 하니깐 그 후 부터 경제적 얘기에 편해졌다. 월셀 나중에 내가 못 내면 지원해 주실거고. 그렇게 내가 책임질 부분을 늘려가면 나중에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별 : 돈 얘긴 어느 가정에서나 편하게 얘기하진 못하겠는데, 전 어릴 때까지 내가 유복한 가정인줄 알았는데, 고등되니 우리집 통장 잔고가 얼마나 월급이 얼마나 얘기를 한다. 어릴 때부터 넌 스무살 되면 독립해라 하고 말해왔던 집이니 그런 얘기를 하다보니 편해진 것도 있지만 독립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니 지원받는 거에 대해 엄빠가 누릴 걸 나한테 양보해준다는 느낌 받는다. 그런 고민 하는게 우리 나이에 당연한거 아닌가. 의존적인 건 안 좋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게 서로에게 좋지 않나.

-형근 : 우리집은 좀 다른데 돈이 되게 없는 집인줄 알았는데. 먹을 것도 안사주고. 티비도 안보고 컴퓨터도 안사주고 그랬는데 크니까 아빠가 사람들에게 퍼주는 돈이 너무 많다. 내가 써야겠다. 남 줄 바엔 내가... 왜냐면 말한것처럼 부모들은 자식이 해달라는거 다해주니.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서 돈이 없으면 딴사람들한테 못 퍼주겠지 해서 저는 부담없이 쓰는편. 졸업해도 소아네 부모님처럼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런게 아빠가 강해서. 근데 그건 모르겠다. 경제적 독립은 해야 할텐데 아빠가 묶어놓라 해서. 벗어나야되나? 아님 타협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은 살다가 아빠한테 화나는 순간이 오면 독립하기로 하고 지금은 현실에 안주.

-진 : 확실히 이 주제가 금방 다가오는 얘기고 하니 다음얘기로 넘어가요. 대학취직잉여인간

-현선 : 이 키워드에선 약간 사회적 시선이 담겨있는 것 같다. 대학 가지 않고 취직안하면 잉여인간이라는. 사람 구실을 마땅히 하지 못 하고 있는 듯한. 의식이.

-소운 : 셋 중에 뭐할지 고민 중, 사실 저는 흔히 말하는 대학을 안가고 취직이 스펙이 보면 신경 쓰진 않는 타입이라. 졸업하고 나서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 돈 없으면 취직, 에너지를 두개에 쏟기 시간 없으면 그냥 인간을 하고... 그래서 별로. 선택지인거같다. 셋중에 뭘 하면 좋을지 고민중.

-건산 : 되게 부모님과 함께 시골에 내려가면 안되겠다 해서. 잉여인간 표현은 아니지만 내가 할 일을 하다 부모님 정년 끝나서 같이 내려가면 정말 끔찍. 빨리 독립하고 싶다. 그러기엔 대학과 취직이 묶여있는 거라.

-도운 : 옛날부터 꿈이 돈많은 백수였다. 광오빠 같은 사람들 부자되면 1억 주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경제적으로 불안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잉여인간이 되거나 쓰레기가 되진 않을 듯. 그렇다 하더라도 가치관 갖고 재밌게 살면 되는거 아닌가 한다.

-형근 : 잉여인간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었는데 끊임없이 일하고 공부하는걸 강요한단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으로 학교 나간친구들이랑 좀 있어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 생각이 들었다. 이걸 문제가 있구나. 저 친구들이 특별히 뭔가 이상한게 아니라 나도 졸업하고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소름이. 좀 부담스러워짐.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안 쓰는 편인데 자신에게 대해 떳떳해지고 싶어서 그런 부담감은.

-소운 : 공부하고 일 하는게 왜 노는게 아닌건지 모르겠다. 제가 공부하고 일하는게 노는거 아닌가. 잉여인간이 제 맥락에선 그렇다.

-산 : 보통 잉여인간은 뭔가 하는 것보단 안하는 맥락. 난 셋 다 하기 싫다. 간디 살면서 공부안하고 살았는데 또 하기도 싫고 바로 취직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집에서 놀자니 눈치 보이고. 부모님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막 뭐 안하고 노는게 당시엔 좋지만 하루 지나면 쓸모없구나 하는걸 느낀다. 그래서 모르겠다. 계속 불안한거 같다. 방학엔 끝나면 학교라도 가는데 졸업하면.. 형근네서 놀고 한달 일주일 뒤에 돌아가면 학교에서 뭔가 한다. 그런데 졸업하면 형근이네서 놀고 나면 이제 뭐하지.

-수자T : 산 건산이 걱정하는 잉여의 모습은?

-건산 : 저는 가볍게 백수.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경제적 독립도 못하는 게 아닐까.

-산 : 취미생활만 하고 살고 싶은 거다. 그렇게 살수 없으니. 그래서 정말 한때 꿈은 돈 많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집안일 하는게.... 인간 항상 꿈이 있어야하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살수 있을거 같은데 돈이란 것 때때 뭐가 해야 되는게 너무 싫다.

-별 : 대학에 대해 공부하는 공간이란 생각이 있는데 초중고 대안을 다니면서 이쪽 사람들을 많이 만난거다. 어른들 대하는 것보다 또래친구 만날 때 떨린다. 괜히 어떤 얘기 해야 하지 싶기도 하고. 대학이 공부해야하는 공간이라 필요하면 가야되는데 한편 아쉬운 건 대학은 또래친구하고 같은 추억 만들어가고 기억을 공유할 수 있

는? 이점에서 내가 누군가 사회에서 다수로 되는 사람하고 나눠볼 수 있는 어울려보는 생각 할 수 있다고 생각. 다수랑 나눌 수 있는 고민이...

-준상 : 저도 대학 같은건 솔직히 졸업하면 갈려고 방향잡곤 있는데 딱히 배우고 싶은 건 있는데 이것 때때 가야겠다가 아니라 사람 때때 가는게 1차적 목표고 아빠한테 말했더니 그럴 거면 장학금 받으면서 가든지 국립대 가라. 그래서 서울에 살고 싶은데 서울 국립대가 서울대 밖에 없다. 어쨌든 대학을 뭔가 인턴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사람 중에 딱히 방향 정해지지 않았으면 대학 가는 것도 좋다고. 거기서 하고 싶은 걸 찾아도 늦지 않다. 사람들 만나면서 배우는게 크다고. 대안학교 나와서 대학을 안 갈 생각은 없다. 대학에 대한 거리낌도 없고

-진 : 서로 얘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봤다. 저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문학캠프에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얻은 거 같다. 1시 15분에 다시 모여서 2부 하겠다.

[2부] 가치관

-현선 : 어떤 인물이 자신의 가치관을 믿고 살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다양한 케이스를 알려드리기 위해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오드리 헵번, 마더 테레사 등 9명의 일대기를 정리한 pt 발표함

-나린 : 저희가 9분을 소개해 드렸어요. 인물 중에 공감 가거나 본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공감 가시는지 얘기해주세요, 한분씩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영서 : 조금 생각해 봐야할 것 같아요. 딱히 없었음

-별 : 저도 영상에서 본거 보단... 저는...잘못된 걸 알고도 뭔가를 내 이익을 위해서 눈감고 하진 않았음 좋겠다? 끝입니다.

-소운 : 저는 보면서 좋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많은 것 같거든요. 좋은 업적을 남기는 것도 어렵지만 좋은 삶을 사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업적을 위해 삶을 포기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아직 정리가 잘 안되요. 개인적으로 고흐라는 사람이 본 받고 싶은 사람은 아니였거든요. 좋은 업적은 남겼지만 좋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저도 예술을 할 때나 그럴 때 업적을 위해 삶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건산 : 저도 가치관이 뭘지는 모르겠고, 좋은게 좋은 거란 생각이 들고 저는 제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 힘든거 같아요. 다 좋겠지만 여러가지 문제도 많아보이고.. 좀 더 살아 봐야 알 것 같은.

-소아 : pt가 너무 빨리 넘어가서 잘 못 봐서....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준상 : 저도 눈이 잘 안보여서 잘 못 봤는데. 저 중에 닳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행복한 삶이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이랑 쫓겨 쫓겨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의 가치관은 제 주변 사람들과 행복 하게 사는것?

-형근 : 어려운데.. 사회적인 일을 하는 것이 좋아서. 간디가 롤모델 인 듯.

-산 : 저도 약간 나의 이득? 때문에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그냥 넘어가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 보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숨을 걸고 대단하게 하고 싶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스티븐 스피버그처럼 재밌게 살고 싶어요.

-도운 : 다 훌륭하신 분인데 저는 딱히 남을 좋아한다거나 그런게 아니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굳이 꼽으라면 사회운동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채현 : 저는 오드리 헵번 pt를 보면서 마음에 꼭 박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항상 나 혼자 행복하게 살면 되는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중에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그릇이 못 된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오드리 헵번이 예뻐서 좋아했는데 아이들이랑 웃는 모습이 더 예뻐던 것 같아요.

-나린 : 약간 위인들만 나와서 '누구를 본 받고 싶나요?' 하는 쪽으로 흘러 간 것 같기는 한데 저희는 가치관 이라는게 내 행동의 바탕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현선 : 정리를 하자면 우려를 했던 부분이긴 해요. 너무 위인들의 삶을 따르라고 이 pt만든거 아니거든요. 각자 가치와 각자의 삶이 있다는 다양한 면에서 보여주고 싶었던거예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을 보여주고 하면 각자 가치관과 그런 것에 대해서 감이 오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너무 많기도 하고 생각할 시간도 짧고 했던 것 같네요.

-나린 : 가치관이라는 말이 저희에겐 모호하고 어려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편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얘기해 주고 싶으신 분계신가요?

-영서 : 요새 가치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바뀌는 중이라, 되도록이면 하고 싶은대로 풀리는 대로 살고 싶어요.

-현선 :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가장 즐겁고 좋은지 얘기 해봐도 좋은 것 같아요.

-별 : 저는 누군가랑 나눌 때 좋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걸 함으로서 누군가에게 크나큰 아픔이 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고요. 이런 말도 제가 지키지 못할까봐 말하기도 조심스러워요.

-소윤 :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게 있으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타입이거든요.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 하고 있고, 하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같이 나누고 사는게 가장 행복 할 것 같구요. 어렸을 때는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누면 모두가 잘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건산 : 저는 제가 살고 싶은 걸 말할게요. 여행을 하고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랑 친해지고 관계를 쌓고 살고 싶거든요.

-소아 : 저는 몇 해 전에 책에서 삶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라는 걸 봤는데 그때도 멋진 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요즘 인문학 하면서 '아는 대로 사는게 힘든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로 사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준상 : 음... 전에는 하고 거창한 직업을 생각하며 멋있겠다. 했는데 사회를 보면서 점점 소박해지는 것 같아요. 이젠 거창한 것보다는 작은 행복을 찾고 싶어요. 하루에 한 두 시간씩은 책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고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 이 정도는 좋아하는 애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만 보장된다면 어떤 직업을 갖게 되도 상관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형근 : 이것저것 해보면서 살고 싶어요.

-산 : 학교 다니기 전에는 새로운 사람만나는 거나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학교 다니면서 보수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아까 별이 말처럼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저도 싫어해서 일부러 이것저것 최대한 안하는 것 같아요.

-도운 :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항상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고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여행도 다니고 가만히도 있어보고 하고 싶어요.

-채현 : 저도 남을 위한 일을 했을 때 저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서 저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제가 강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있어서는 타협과 합리화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피드백]

-나린 :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본 캠프랑 이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1부에 나왔던 불안과 고민도 그렇고 본 캠프에 앞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진로에 대해서 피드백이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별 : 인물pt후 가치관에 대한 부분보단 '와 그냥 멋있다'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도운 : 저는 가치관이라는 단어가 잘 와닿지 않아서 얘기하지 힘들었어요. 1부처럼 자연스럽게 얘기 하는게 좋

은 것 같아요.

-준상 : 2부에선 훌륭한 사람만 나왔는데 악인도 나름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히틀러나 스탈린도 있었으면 다르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윤 : 전 현실적인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어요. 1부처럼 우리가 돈 벌고 먹고 살기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등등 구체적으로 뭔가 해결해줄 수 있는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누는 것만으론 부족 한 듯.

-준상 : 소윤이 말에 동감하는데. 진로의 분위기가 힐링캠프 같은 분위기로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분위기보단 대안을 찾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별 : 그런 상황의 예시같은 걸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현선 : 전체적 설명 드리자면 피드백 받은 부분은 고민하던 부분이었고 예비를 본캠 과 따로한 생각이 아니라 나름의 저희 순서가 있었고 이번 시간은 준상이 말한 것처럼 의도한 부분이 없지 않다... 진행이 너그럽지 못했던 점은 죄송하고 얘기해주신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될 것.

-수자T : 친구들 두 달 이상을 공부해왔기 때문에 자기 정답이 있다.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물음표를 많이 던져 줄 수 있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가치관이 중요하지, 하고 깨달으며 문밖을 나가는게 아니라 그런게 있었네? 하고 나가게 해주는게. 방법적인 부분을 많이 고민해보면 좋겠다. 내가 알고 공부 하는거 하고 타인과 전달하고 소통 하는거 하곤 다른 부분이 많아서.

예비 인문학캠프 총평/사전모임준비

- 진 : 사람이 많이 왔을 때도 없을 때도 있었는데 종이 평가 좋았고 한번 해보니까 수업가닥이 잡히고 부족한 점 찾을 수 있어서 좋았음.
- 형근 : 전체적으로 사람도 적당히 왔던거 같고 좋았다. 당황했던 건 토론주제가 다 비슷해서. 마지막주자로서 걱정이 되었음. 우려하던 일은 없었음. 본캠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각자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 산 : 인문학 예캠하면서 본캠에 있는 내용을 학교에 맞추는 건 잘한 것 같다. 시간이 좀 적었다는게 아쉽. 준비시간이 모자랐던거 같아서 본캠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준비 꾸준하게 필요함
- 영서 : 감이 좀 잡혀서 좋았다. 본캠 때는 조마다 잘 알아서 하지 않을까
- 수자 : 형태는 묵학 시간에 하나까 학생들이 참여가 많아서 좋았고 참여하는 사람입장에서는 두 시간이라는게 압축적으로 좋았고 비슷한 큰 주제 안에서 학교로 의제를 뽑아낼 수 있어서 좋았고. 처음시도한 방식이지만 좋았다. 간혹 팀별로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았다. 팀 안에서의 흐름, 모두의 흐름을 세심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 나린 :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잡았던 거 같아서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들 잘 꾸려나가고 있구나 해서 적당히 만족스러운 캠프
- 건산 : 각자 방식이 달랐는데 좋았던 듯. 피드백 받은 게 좋았던거 같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 같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 채현 : 안하려고 했었는데 해보니까 너무 괜찮았던 것 같고 알게나마 하고 나니 감이 잡히는 거 같고 다음에도 혹시 예비인문학을 고민한다면 해보는 걸 추천하고 싶다
- 소윤 : 확실히 재밌다고 느껴진 점은 얘기를 나누고 토론 하는게 큰 재미, 인문학을 공부하는 느낌이었다. 정보 전달을 하는 것들은 미리 책을 읽거나 페이퍼로 익힐 수 있을거 같아서 이야기를 나누는거 에 초점을 맞춰보면 좀 더 재밌는 인문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전모임하고 참가자들을 만나는 거에 좀 활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 현선 : 진로조만 묵학 시간에 못하고 오전에 했던게 사실은 조금 아쉬웠다. 참여도 적고 집중도 떨어지니까. 어쨌건 각자의 주제에서는 다른 친구들에게 정보도 전달하고 이야기도 하고 대표하는 느낌인데. 앞에서 강의하는 친구들을 믿고 신뢰하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미숙한건 당연하고 노력하는 거니까 응원하면서 본캠 잘했으면.
- 준상 :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을 남에게 전달시키는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서 예캠으로 연습 하는 건 괜찮다고 봄. 1차적 목표가 내 공부를 하는 것이었어서 예캠을 재밌게 했던거 같아서 만족도는 좋았다.
- 별 : 예캠이 학생들한테 열어놓게 되니까 나눌수 있는 의제를 나눌수 있어서 좋았고 재밌었다. 미숙한 점이 드러났으니까 본캠을 준비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거 같다. 본캠은 어떤 친구들이 올지 모르니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의제를 뽑을 수 있을지 고민되긴 한다.

<사전모임>

일시 : 10월 31일 토요일

장소 : 성미산 학교/3층 교실

프로그램 :

12:50 마포구청역 집합 후 출발

1:00 인문학 취지 설명, 통성명

2:00~3:00 인문학 입문 강의

(양희창 제천간디학교 전 교장쌤)

3:00~4:30 팀별 간단발제 소개

5:00 마리스타교육관 방문

<본캠 시작 전 나름의 생활규칙>

-핸드폰은 강의전에 무음또는 전원을 꺼주세요!

-아침 안 먹으면 5000원!

-마리스타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떠들거나 나가노는 건 자제하자

-이름표 달고 다니자

[2015년 누가 내 머리 위에 똥쌌어?]

제천간디학교 인문학캠프를 아시나요?

제천간디학교 6년 과정의 마무리이자 6년 배움의 꽃을 피우는 자리입니다.

스무 살을 앞둔 우리는 졸업 후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사회에 나가기 전, 우리가 궁금해 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어떻게 살아야할까?’ 라는 물음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람에 관한 모든 학문이 인문학이라고들 하는데요. 다 같이 사회에 대해 묻고 이야기하며 다양한 환경 속의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는 즐거운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개요

제목 : 누가 내 머리 위에 똥쌌어?

주최 : 제천간디학교

주관 : 제천간디학교 10학번 13명

장소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85-1번지 마리스타교육관

일시 : 2015년 11월 14일 토요일 ~ 2015년 11월 18일 수요일

수업별 목표

강철멘탈 (철학)

철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끝없는 질문을 통해 나와 우리를 이해한다.

이제 곧 사회에 내던져지는 우리들에게 ‘철학’과 ‘생각’ 이라는 도구를 쥐어주자.

생각이 죽은 사회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기 위한 작은 노력.

역:동적으로 사:알자 (역사)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공부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갖춰보려 한다. 더 나아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성장하다, 청춘! (성)

‘삶’과 ‘성’은 뗄 수 없는 사이이다.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한 성이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다. 다양한 활동과 생각나누기를 통해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고 누구나 해볼 법한, 누구나 가지고 있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묻고 고민하고 풀어보자.

합법적 땡땡이 (사회 / 오전)

다들 공교육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걸까? 왜 잘못되었을까? 학교의 무엇이 문제일까?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 문제가 없다면?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학교의 목적이라면? 그런 교육에 대해 강의하고 나아가 교육이 한국 사회에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에 대해 토론해본다.

군대 가기 싫어요 (사회 / 오후)

군대 가기 싫은 청년들, 군대가 싫은 사람들과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
병역 거부'와 '병역기피'는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정말 다른 건지 알아본다.
현 군대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본다.

꿈꾸고픈 청년들의 홀로서기 (진로)

20대를 앞둔 우리들이 가지는 불안과 고민을 나누고 청년들이 홀로서기 버거운 사회의 현실과 그 속에서 꿈을 키워나간 사회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우리의 진로와 미래를 고민해본다.

수업 방식

수업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제별로 그동안 공부하고 고민했던 것을 일종의 강의 형태로 진행하기도 하고 주제를 잡아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영화감상** 뒤 소감을 나누거나,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또 이 밖에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집중하여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015 인문학 캠프 일정 👏

날짜 시간	13 (금)	14 (토)	15 (일)	16 (월)	17 (화)	18 (수)	19 (목)	
수업 주제		철학	역사	성	사회	진로		
7:30 ~10:00	입소 후 집정리	기상 & 아침 식사						집으로~!!
10:00 ~12:30		나는 누구인가	해방 정국이 현대 정치에 끼친 영향	우리가 만났던 사랑	합법적 땡땡이	청년들이 현 사회에서 홀로서기 힘든 요인들		
		내 삶의 이유						
12:30 ~14:00		점심 식사						
14:00 ~17:30		생각이 죽은 사회	경제성장이란 미명아래 용인 된 독재	(13:30~)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랑	군대 가기 싫어요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대안적인 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시민의 권리	사회와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사회 선배의 이야기					

17:30 ~18:30	저녁 식사					3대 프로젝트	
18:30 ~20:30	오리엔 테이션	(영화 감상) 플레전트 빌	(활동) 한국사 국정 교과서, 가만히 있을 건가요?	섹스 토크	(영화 감상) 죽은 시인의 사회	뒤풀이	
20:30 ~21:00	하루 나누기						

※ 16일 성, 18일 진로수업에는 일정 조정이 있습니다.

16일 성

점심 식사 : 12:30~2:00 → 12:30~13:30

18일 진로

오전 수업 : 10:00~12:30 → 10:00~12:00

점심 식사 : 12:30~14:00 → 12:00~13:00

오후 수업 : 14:00~17:30 → 13:00~17:30

함께한 사람들

유준상 은형근 정나린 김소아 전진 김채현 이건산 강도운 안현선 권산 한별 황소윤 조영서
수자†

+

<p style="text-align: center;"><숙박참가자></p> <p>중3 최지현, 지혜학교, 여 고1 이준학, 이우학교, 남 고2 김민수, 산청간디, 여 정인욱, 산청간디, 남 홍수경, 진주외고, 여 옥지민, 태봉고, 남 고3 도연희, 이우학교, 여 이성지, 충북여고, 여 김연진, 충북여고, 여 이유진, 청주여고, 여 김성훈, 느티울, 남 김준상, 느티울, 남</p>	<p style="text-align: center;"><전일참가자></p> <p>중3 김세아, 지혜학교, 여 문유경, 지혜학교, 여 이산하, 지혜학교, 여 고1 유승재, 산청간디, 남 김동석, 산청간디, 남 고2 정진한, 산청간디, 남 진석원, 산청간디, 남</p>
	<p style="text-align: center;"><당일참가자></p> <p>김푸른하늘, 남 김한새, 남 한용욱, 이우학교, 남 김윤재, 벤자민인성영재학교, 여 문지현, 류기백, 김두현, 공단비, 산티학교 이충희, 필간졸업, 남 정종운, 필간졸업, 남 김선명, 필간졸업, 남 윤샘, 금산간디, 여 김평강, 금산간디, 여 김민정, 장우정, 서하린, 손채은, 조익준, 김예림, 권효연, 안다연, 서명아 / 제천간디 고2</p>

*본 캠프 토론 자료는 녹취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목소리로 구분이 힘든
사람들은 “참가자”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강철멘탈(철학)_61p

역:동적으로 사:알자(역사)_85p

성장하다, 청춘!(성)_151p

합법적 땡땡이(사회/교육)_181p

군대 가기 싫어요(사회/군대)_195p

꿈꾸고픈 청년들의 홀로서기_221p

<강철멘탈>

주제: 철학

강의: 권산 황소윤

날짜 11/14 토요일

수업의 목적

- 철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끝없는 질문을 통해 나와 우리를 이해한다.
- 이제 곧 사회에 내던져지는 우리들에게 '철학'과 '생각' 이라는 도구를 쥐어주자
- 생각이 죽은 사회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기 위한 작은 노력.

수업의 흐름

철학 수업은 총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등 어찌면 뻔하지만 삶에 있어 꼭 필요한 요소들을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2부에서는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내던져질 사회 속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를 지배하는 편견과 선입견'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등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유하는, 즉 철학하는 이유에 대해 나눠보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1강 <나는 누구인가?>

2강 <내 삶의 이유> - 내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3강 <생각이 죽은 사회> - 내던져질 사회 속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4강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수업을 위한 숙제

- 우리는 왜 내가 누구인지 고민해야 할까?
- 자신이 생각하는 최상의 좋음(가치)이란?
- 고스톱은 '전 국민의 스포츠'이자 대한민국에서 자투리 시간을 때우는 매우 요긴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고스톱을 '건전한 여가 선용'으로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 왜 그럴까?

“철학에서 반박 불가능한 진리란 없다.

열린 생각과 끊임없는 반성만이 더 많은 세상을 만든다”

강철멘탈

권산, 황소윤

1부 나를 알고 너를 알고

1강 <나는 누구인가?>

-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 우리는 왜 내가 누구인지 고민해야 할까?
- 내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올까?
-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될까??

2강 <내 삶의 이유> - 내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 우리는 왜 살까?
- 우리가 아는 행복이란?
- 지혜를 사랑하는 법

2부 우리를 알고

3강 <생각이 죽은 사회> - 내던져질 사회 속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초청강사: 김만권 교수님

4강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 비주체성, 인문학이 사라진 교육
-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3부 저녁프로그램

- 영화시청 <플레전트 빌>

1부, 나를 알고 너를 알고

1강,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뻔한 질문이 바로 ‘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일 것 같다.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해본 적이 있을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가는 과정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고뇌해야 하는 화두가 아닌가 싶다. 그만큼 답을 찾아가는 길이 복잡하기도 하다. 이번 1강을 통해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물음의 묻는 바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 물음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 일주일동안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것들의 시작,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의 철학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밖으로 향하지 말고, 너 자신 안으로 돌아가라 진리는 바깥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아우구스티누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 까지 묻고 묻고 물어야 한다.”(법정스님)

“거짓된 나에 가려져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일, 그리고 신과 진정한 힘이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인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일, 그러한 일 없이는 행복은 불가능하다.”(에크하르트 톨레)

위의 명언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의 중요성을 각성시키거나,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가를 일러 주고 있다.

이들의 가르침은 ‘나 자신이 진정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이 소수의 탁월한 철학자라든가 위대한 일부 인물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이나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물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내면을 알아 나갈 수 있는 가능성과 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물음은 갑자기 찾아왔다가 홀연히 떠나가기도 하고, 뭔가 원하는 해답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곧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도 하며, 답변을 추구하면서 얻은 성찰의 결실을 바탕으로 성장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우선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이 묻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지 우리가 왜 생각해봐야 하냐는 것이다.

자신 밖에 있는 무언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살고 싶다면,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자아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외부의 힘에 휘둘리거나 종속되지 않으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인간은 인간 존재 자체를 스스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반성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와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에 취해 산다면, 어쩌면 편리하고 편한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인간다움 혹은 인간 본연의 모습에 등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그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해 주는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보다 인간다운 삶, 보다 좋은 삶을 살아가려면 우선 누가 누구인지에 대한 각성으로 충만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무엇이 적합한지 스스로 알며,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분별하며,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는 바를 해냄으로써 필요한 것을 얻고, 그러고는 모르는 곳을 삼감으로써 비난받지 않고 살아가며 또 불운을 피하게 된다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플라톤의 경쟁자였던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의 추억>에서 위와 같이 소크라테스의 말을 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 이 말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바람과 능력과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동시에 그것을 실천에 옮길 것을 말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자신을 안다는 것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고, 생각을 통해 살아간다. 철학자들은 항상 생각하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즉 ‘내생각에 대해서 생각’ 해본 적이 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또는 내 생각이 어떻게 내 생각이 될 수 있을까.

내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올까?

18세기 인물인 콩도르세는 사람을 둘로 나누었다. 바로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한다고 믿는 사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생각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다. 믿는 사람이라는 건 미디어나 제도 교육을 통해 내가 ‘객체 혹은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한번 필터 된 생각이나, 텍스트를 통해 주입된 생각을 내면화 시키며 자신의 생각이라 믿는다. 직접 생각하지 않는다. 내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난 무엇을 옳다고 여기는가에 대한 질문 역시 던지지 않는다. 데카르트의 명제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내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건 무엇일까?
나의 의식세계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내 것이 되었는지,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은 무엇 때문인지 말이다.

우리 모두는 생각하는 존재라고 전제하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생각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성장 ‘과정’에서 가지게 된 것 일겁니다. 어떠한 한 논제거리를 가지고도 지금 여기 모여 있는 3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른 얘기들을 할 수도 있다. 또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때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다른 사람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그냥 쉽게 “아, 그러나. 그럼 내 생각을 접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 어렵도 없다.

이것은 일찍이 17세기 인문학자인 스피노자도 강조한 말이다. “사람은 한번 형성한 의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일단 갖게 된 생각을 고집하면서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생각이 내 의식 세계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와 대치되거나 충돌하는 생각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즉 내가 고집하는 생각이 다른 생각을 밀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진 않았다.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자신이 만들었나? 만들지도 창조하지도 않았다. 그럼 자신이 선택했는가? 선택한 것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일부일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창조한 것도 없고, 선택한 것도 지극히 일부에 지

나지 않는데 왜 그것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가? 흥미롭지 않은가? 본인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집하면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고집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에게 허용된 단 한번뿐인 이 삶을 말이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저 주어진 것을 암기하거나 주입당한 것에 지나지 않은 생각인데 말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걸 우리가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학자 레온하르트 오일러는 <독일의 공주께 바치는 편지>에서 '진리'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 바 있다.

1. 우리 스스로 지각했기 때문에 믿는 것들
2. 스스로 궁리하여 추론해냈기 때문에 믿는 것들
3.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었기 때문에 믿는 것들

이 구분은 계몽주의 시대에 매우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한다.

세 가지 진리 중 제일 비중이 큰 것은 무엇일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세 번째라는 느낌이 온다. 우리 스스로 시험해보았거나 직접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가진 확신 혹은 지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눈에 비치는 세계라는 게 사실은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서 알게 된 데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내 주먹보다 크거나 사람이 원숭이가 아닌 개미핥기로부터 진화되었을 수도 있을 텐데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알고 있는 것은 순전히 우리가 그 사실을 어디선가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엄마아빠가 해주는 말과 주의환경의 영향을 받아 믿고 따르게 된다. 그것이 어찌면 당연한 것들 이고 나중에는 선생님, 그 다음에는 교수 또 그다음에는 신문을 믿고 따르게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그저 믿고 따르는 것, 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전적으로 현명한 처사이고 또 달리 대안이 없을 때도 많다. 어떠한 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가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안을 이야기한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다. 훌륭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면, 믿을 만하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릇된 생각을 한번 흡수하게 되면 그 생각을 다시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려워 똑똑한 사람들조차 그 그릇된 생각에 대해 제기된 반박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도 그 그릇됨을 알아차리려 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편견' 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편견에 약하다고 한다. 토마지우스라는 사람은 무기력함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동물의 경우 어릴 때라도 본능의 도움으로 곧바로 제 몸을 가눌 줄 아는데, 사람은 오래도록 부모에게 의지해야 한다. 토마지우스는 사람이 미신과 편견에 약한 원인이 여기 있다고 본다. 사람은 스스로의 눈으로 직접 보기도 전에 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기 때문이다.

오류와 미신과 편견들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계몽주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그리고 나중에 임마누엘 칸트는 그것이 바로 '언제나 스스로 생각하는 원칙' 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곧 제3자의 생각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알아가는 사유와 성찰의 시간들과 남이 아닌 나로부터 비롯된 생각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들이 진정한 나 자신이 되고 우리가 되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곰곰이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한다.

2강, <내 삶의 이유> — 내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우리는 왜 사는 것일까?

'우리는 왜 살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당신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 여러 가지 답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

만 그것들을 다 통합해서 묶어보자면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일까?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라고 한다.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모든 행위와 선택, 모든 기술과 탐구는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

‘왜 살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자 그럼 다음 말을 보자. “행복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행복이 최상의 좋음”이라고 답한다.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가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낄까? 행복을 느끼는 경우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행복을 느낄 것이고, 친구와 놀 때도 행복을 느낄 것이며,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경기에서 이길 때도 행복을 느낄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경우는 다양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시절도 마찬가지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일반인들의 대답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또 다른 사람들은 향락적인 삶을, 또 다른 사람들은 명예로운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답한다. 그러나 과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최상의 좋음으로서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최고의 선, 즉 행복은 첫 번째로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 삶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목적들 가운데 어떤 것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목적이 똑같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최고의 선, 즉 행복은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자족(自足)적 이여야 한다. 자족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만족한다는 점과 아무런 부족함 없이 그것만으로도 생활을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첫 번째 뜻에는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로 태어나서 나 자신 뿐이 아니라 부모, 친구, 나아가 동포들까지 만족시킨다는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일단 나를 먼저 스스로 만족시켜 보자.

이 관점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들이 과연 최고의 선, 행복인가 따져보자.

우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에 대해서, 그는 돈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유용할 따름이므로” 최상의 좋음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먹을 것도 살순 있지만 돈 자체를 입을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돈의 가치를 떠나서 돈 자체로 봤을 때는 그냥 종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상에 좋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향락적인 삶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즐거움 즉 향락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생각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락적인 삶은 결국 “짐승들의 삶을 택하여 완전히 노예와 다름없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비판한다.

즉 향락적인 삶이 행복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삶의 행복이기 보다는 짐승들의 삶이 주는 행복이며, 따라서 향락적인 삶이 주는 행복은 최상의 좋음일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향락적임은 식욕, 성욕 등 육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말한다.

셋째로 명예로운 삶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양 있는 사람이나 실천적인 사람”이 명예를 선택하지만 “명예는 명예를 받는 사람보다 수여하는 사람에게 더 의존” 하므로 최상의 좋음의 두 번째 특징인 자족의 특징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즉 명예는 자족적이지 못하고 명예를 주는 사람에게 의존하므로 명예로운 삶은 최상의 좋음에 도리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제적 여유, 향락, 명예가 최상의 좋음으로서의 행복이 될 수 없음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최상의 좋음으로서 행복한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인간의 기
능과 연관 지어 제시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영양을 섭취하고 성장하는' 기능이고, 둘째는 '감각과 운동' 기능이며 셋째는 '이성'의 기능이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 했던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기능은 무엇일까?

'이성'의 기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의 기능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삶이 좋은 삶이며 행복한 삶이라고 한
다.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말하듯이 이성은 인간만이 가진 것이며 우리가 가진 것 중 최고의 것이다. 이성을
가지고 있기에 판단하고 생각하며 행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성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삶은 어떤 삶일
까? 이 물음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삶은 바로 지혜에 따르는 삶. 즉 지혜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한다.

결론은 철학하라는 소리를 하고 싶었던 거 같다.

'philosophy' 철학의 어원은 philos와 sophia라는 말의 합성어이다. 그리스어 'philos'는 '사랑스러운'이라는 뜻
이고, 'sophia'는 '지혜, 앎, 지혜로움'의 뜻이다. 따라서 'philosophy'는 '앎을 사랑한다.' 혹은 '지혜로움을 사랑
한다.'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혜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하면 지
혜를 사랑 할 수 있는 것일까? 지혜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
신적 능력 이라고 한다. 물론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지혜로워 질 수는 있다. 하지만 책만 읽고 공부만 해서는
지혜를 기를 수도 사랑할 수도 없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을 해야만 지혜라는 것이 뭘지 알 수 있다. 그렇다
면 어떻게 하면 지혜를 사랑 할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인간이니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라.”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권고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 우리들이 불사불멸의 존재가 되도록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 최고의 것에 따라 살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이성적인 부분이 인간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인간 속에 잠재된 신적인 '무엇'이 있는데 이 '무엇'을 이성이라고
본 그 당시 사회에서 오히려 할 수 있는데 까지 해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말을 전하고 싶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돈이 없다고, 또는 다른 이유로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 지금 세
상이 돈에 미친 자본주의 세상이고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돈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어찌면 당연할지 모른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과연 이성
이란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을 여러분이 탁월하게 사용할 수 있길 바라며 강의 여기서 마치겠다.

질의응답 및 토론

[질의응답]

-연희 :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최후의 삶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성보다 감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성이 뜻하는 게 뭔가요?

-소운 : 여기서 말하는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성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등을 감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스시대 고전과 철학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그 시대의 이성이라 함은 머리에서 나오는 이성적인 게
아니라 올바른을 따르고 깨우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이성이라고 하기에 궁극적인 목적을 이성이라고 했던
것이죠. 머리에서 나온 이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성이란 개념을 조금 다르게 잡은 것처럼 저와 산이도 결국 같
은 맥락으로 말한 것. 산이는 그것을 이성이라고 말한 것이고, 저는 생각하는 것과 사유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
다.

-민수 : 지혜에 지식이 필요할까요?

-소운 : 불쏘시개가 지식이고 장작이 지혜라고 했다. 물론 지식 없이도 지혜를 실행할 수 있지만 천천히 탄다.

‘불쏘시개가 있으면 빠르게 탄다.’라는 거죠.

-민수 : 지혜를 사랑하는 삶. 사람마다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다른데 그 지혜들이 다 지혜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다 옳은지. 옳음의 기준은 무엇인지.

-소윤 :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한 것이니 진리는 아니죠. 불변의 진리는 없고 반박하지 못할 진리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반박을 제기하고 자신만의 것을 추구하는 게 철학이 될 수 있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진리가 될 수는 없죠. 이것도 누군가의 지식이니깐.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지식을 사랑해서 자신의 지식을 지혜로 만들라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기준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지 : 남의 말과 경험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라 했는데 결국엔 저희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는 것 일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소윤 : 저도 한 가지 걸렸던 부분이 사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직접조사하고 알아낸 건 아니잖아요? 배워서 알게 된 거고 들은 것인데 그런 지식적 인거나 사실의 포커스가 아니라 내가 첫 판단한 것들은 어쩌면 사회가 준 것. 또는 어떤 사람이 준 것 일텐데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사유하는 버릇을 들여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 : 히틀러는 자기가 사유해서 유대인 학살하고 자기의 정책이 옳다고 믿지 않았을까요.

-산 : 그 사람이 어떻게 믿고를 떠나서 저는 그게 물론 필요하다고 이득적인 부분을 생각 했을 때는 옳다고 봤겠지만..

-민수 : 제가 말한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옳다고 믿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행동하는 것은 옳다고 믿어야 그런 것 아닐까요?

-산 : 그렇다면 살아오면서 꼭 옳다고 생각해야 그렇게 행동을 하시나요?

-민수 : 옳음이라는게 옳음의 기준? 그런게 없잖아요. 히틀러에게는 옳음의 기준이 히틀러에게는 그런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떤이들에게는 옳음의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는거죠.

-산 : 그럴수도 있지만 제가보기에는 히틀러가 진행했던 것은 옳다고 믿어서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요즘 사회이슈들 많죠. 예를들면 세월호라든지..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게 정말 옳은 진리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판단의 기준인 것 같다.

-수자T : 질문이 잘 안들렸어요. 다시 말해주세요

-민수 : 히틀러도 히틀러만의 옳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박근혜도 박근혜만의 옳음이 있고.. 박정희도 박정희만의 옳음이 있듯이 그러면 우리는 사유하면서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사유가 각자의 옳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이 과연 옳음일까요?

-산 : 아까 짧게 넘어가긴 했었는데 최고의 선이 되려면 나왔던 기준 중에 자족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자족적이란 말이 나만의 만족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말했듯이 주변사람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모인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죠.

-민수 : 그런 결과물이 있을까? 주변의 사람들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그것을 다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각자의 가치관도 있는데, 모두의 옳음이 다 있는데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산 : 근데 그 행위를 할 때 자기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저는 지금 인문학 강의를 하지만 학교에 돌아가면 일반 대안학교의 학생에 불과하고, 저는 제 주변학생들의 영향을 받고있고. 내 주위의 만족을 시키고 영향력을 주는 것은 하나의 틀, 그런데 히틀러라는 사람은 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만족인지, 국민들의 만족이라고 생각하는지 생각해보자.

-성지 : 박근혜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다수를 만족시키는 것이 옳은 건지? 그렇다면 다수가 옳은 건지..

-산 : 계속 저의 생각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에 같이 이야기 해보면 좋을것 같아요.

-소윤 : 박근혜가 평범한 늙은 여자로서 하는 행동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하는 행동 위치에서 오는 행동은 다를 것 같아요. 히틀러도 마찬가지.

-형근 : 근데 히틀러나 박정희의 경우는 위치에서 오는 압박감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하기 보다는 그 일을 하기위해 위치에 올라가려 한 것은 아닌지.. 예를 들면 과거 우리나라 진보적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파 병이나 이라크 같은 것은 그 위치에서 오는 압박감 때문이 있어서라고 예상을 하는데 히틀러나 박정희는 자기가 하고싶은 일이나 아까 말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그런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생각이 듭니다.

-참가자 : 박정희든 히틀러든 각자가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형근 : 진보와 보수는 서로를 틀리다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맞는지 그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 기준은 무엇인 것 같아요?

-소윤 :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텐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수도 있겠다는 생각. 뭔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모두가 다 다르다면 옳음도 틀림도 없지 않을까. 모두가 자기 자신의 기준은 있잖아요.

-소윤 : 이 세상에 과연 옳음이란 기준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으니까 철학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히틀러의 행동을 옳다고 할 수 없는 게 엄청난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거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옳다고 믿었어도 용인될 수없는 것 같아요. 좀 다른 것일 것 같다.

[토론]

그렇다면 우리는 돈, 명예, 향락적인 삶을 추구해서는 안되는가?

추구하는것이 더 인간다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추구하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희 : 저는 그것을 추구하기 전에 진정으로 나의 삶과 나의 행복과 가치에 대해서 생각이 필요하고 가치판단에 있어서 돈은 물질적인 것이니 행복하기위해서는 집착해서는 안될 것 같다.

-영서 : 남한테 피해를 안준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돈과 명예만을 쫓다보면 필연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총희 :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형근 : 추구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도 되고 저것만 추구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준상 : 추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통일화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 피해를 끼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이기도 하나까 그 선 안에서 저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아 : 돈과 명예 같은 것은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욕망을 따르는 것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허무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과 같은 가치를 따르는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

-성훈 : 최근에 들어서 수업으로 알게된 것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었다고 생각해요. 나만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을까? 내 생각이 아닌 남의 생각을 내 생각 처럼 생각하고 살진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 : 저는 좀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내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경향이 커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쁜건가? 힘들었던가? 하는생각이 들어요.

-유경 : 저도 생각없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좋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가벼워 지거든요. 근데 생각 없이 사는게 순간만 좋은거 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채현 : 어려운 것 같은데 진이 말처럼 스스로 뭔가를 하려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생각 없이 살면 편하지만....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생각하면서 사는거.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가치란 무엇인가

-사회자가 이 질문을 낸 의도와 생각이 궁금해요

-소윤 : 앞 강의에서 말했듯 절대불변의 진리는 없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묻고 싶었어요.

-산 :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영원히 같은 것으로 지속되는 가치가 있는지 생각하려고 해요. 제 생각에는 항상 바뀌는 것 같아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푸하 : 잘 모르겠어요.

변하는 사회속에서 내가 가진 변하지 않는 가치는?

-별 : 어릴적부터 사람과 함께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오는 것 같아요. 남의 아픔이 나와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느껴보고 다른 이의 아픔을 좌시하지 않으려는 노력?

-명아 : 저도 별언니와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의미 있게 살아보자 라는 것을 가치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현선 : 공감. 결국은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공감할 때 감정을 공유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의 목적을 돈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는 노력은 뭘까

-민수 : 저는 세상을 인정해야하는 것 같아요. 자본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인정해줘야 할 것 같아요.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판단할 권리는 저에게 없으니까요.

-형근 : 사실 타협을 할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씩 타협하되 .. 예를 들면 핸드폰을 쓰고 싶는데 삼성은 나쁘니까 엘지를 쓰는 정도.. 물론 이런 행동으로 엘지가 커지면 삼성과 같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저는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삶의 목적을 돈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휩쓸리지 않으려 하는데. 꿈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나 먼저 용기내서 조금씩 꿈틀대면 불행한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모습자체로 자극을 주며 살아가려 하고 있어요.

-동석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도 이게 맞는 일인지 살펴 보는게 좋은 것 같아요.

-건산 : 노력하는게 좀 더 열심히 철학하면 되지 않을까. 돈으로만 행복을 얻는 건 아니니까 자신이 행복해하는 것을 찾으면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나린 : 세상이 성공했다고 뻔히 말하는 삶을 살고 싶진 않아요. 세상이 정답이라고 내놓는 삶을 살고 싶진 않고. 그러면서도 이것만은 지키고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뚜렷히 있으면 될것 같아요.

아까 2강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해봐요. 각자의 올바름에 대한 기준이 다르면 그 믿음으로 나온 행위는 올바른걸까?

-연희 : 자기가 올바르다고 믿는 것과 옳다고 믿는 것을 실현했을때 하는 행동은 다르다. 그 믿음에서 나온 행동의 파장이 있다.

-맞는 올바름과 틀린 올바름?

-준상 : 다르겠지만 공통분모는 있을 것 아니에요. 살인은 안 된다는 그런게 올바름이 아닐까요.

-민수 :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것이 올바름일까.

-민수 : 굳이 미래까지 안가도 역사적으로 보면 지배하는 게 당연한 때가 있었잖아요. 생명도 절대적인 옳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하나요.

-소윤 : 사회가 말하는 올바름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는데, 사회와 나의 옳음이 다를 때 나는 누구를 탓해야하고.

그럼 사회는 내가 만드는 것인데 사회는 누가만들고....

-형근 : 제 주제랑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말을 아낌. 히틀러가 전쟁에서 이겼다면 범죄가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권력이, 힘이, 파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수자T : 개인적인 생각은 히틀러는 옳다고 확신에 차서 살았을 것 같은 예상은 들어요. 너저분하고 발전에 방해되는 인종은 없어야 발전한다는 확신과, 잘먹고 잘사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었다는 생각에 확신에 차있지 않았을까. 저는 집단지성이라는 것을 믿긴 해요. 우리가 다함께 올바름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한다는 생각. 히틀러가 될 수도, 일베가 될 수도, 철학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정말 옳은게 뭘까'를 계속 고민하기 때문에 역사도 진보한다고 이야기되는 것 아닐까합니다. 특출난 개인만 있어서는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성차별이 당연한 시대가 있었듯 인류전체가 올바름을 찾으려하는 노력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석원 : 올바름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배층과 기득권이 올바름이라고 이야기되기 마련인데.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껏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위해 뭔가를 구성한 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피지배층이 얼마나 생각을 하고 사유하고 집단지성을 가지냐에 따라 세상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자리가 중요한 것 아닐까요?

-아무리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고 소수의 의식 있는 사람들이 모여도 안 바뀔것 같아서...그냥 한 개인 개인일 것 같아서. 너무 힘들지 않냐고 이야기 했었는데.

-연희 : 저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삶이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으로 내 삶의 방식과 생각이 바뀌면 이 사회가 불만족스러운 이들에게 자극이 될 것 같아요.

- 별 : 집단지성이 어느새 뿔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가진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내 생각에 힘이 실리는듯. 생각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소운 : 저는 자기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실천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돼요. 철학은 지식이 아니라 행위라고 하듯. 자기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되는 것 같은게 이야기를 나누고 행동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

2부, 우리를 알고

3강, <생각이 죽은 사회> — 내던져질 사회 속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초청강사 김만권 교수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뉴욕의 뉴스쿨 정치학과에서 정치이론 및 법철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정치적 적들이 헌법짓기를 통해 어떻게 화해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지'를 주제로 쓰고 있는 박사논문을 마무리 짓고 있다. 자유주의 및 공화주의 이론, 정의론, 민주주의 이론, 입헌주의 이론, 정치철학사에 관심이 깊고 '삶의 방식으로서 철학'에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관심과 애정을 쉬운 언어로 풀어 독자들과 공유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 입문』, 『불평등의 패러독스 : 존 롤스의 정치철학과 분배정의』, 『그림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세상을 보는 열일곱 개의 시선: 정치와 사회에 관한 철학에세이』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만민법』(공역) 등이 있다. 철학, 정치, 법을 함께 아울러 간결하고 쉬운 말로 세상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

강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만권입니다. 그리고 제 전공은요 드문 전공이에요 정치철학입니다. 정치이론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사회철학과 정치철학. 정치와 사회라는 책도 쓰게 되었어요. 철학과 관련한 대역섯권의 책도 썼고요.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과 철학이야기를 하러왔는데 아는 한도내에서는 여러분이 물으시는 거에 최대한 답할게요. 저는 여러분의 선배들인 대학생들과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부터 프로테스탄트 윤리까지 읽어 내려가는 수업을 하기도해요. 수업을 하다보면 나보다 철학적으로 뛰어난 친구들이 많구나 하고 느낄 때가 많아요. 청소년강의는 잘 못하지만 여러분은 대학생 같은 고등학생이라고 들었어요. 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오전에 진행된 강의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있다면 먼저 이야기하고 강의를 진행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오전에 수업질문인데 풀지 못했다 싶은것! 최대한 답해드릴게요. 철학수업은 마음을 열어야 해요. 철학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있다면 철학은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질문 같은 거 마음껏 해주세요.

-민수 : 오전에 이야기 하면서 궁금했던 건데, 옳은게 뭐가요? 지금까지 생명의 윤리가 없던 시절도 있었고 영원한 진리는 없었잖아요. 각자의 진리는 다르고요. 궁극적인 진리는 뭔지.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해야하고 옳음이란, 옳다는 건 뭐가요.

-진리이야기가 나왔네요, 여러분 진리하고 사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뭘 찾아 헤메는 걸까요. 학문의 목적은 진리탐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수 친구는 진리가 뭔지 모르겠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뭘 쫓아야할까요? 진리? 아니면 어떤 사실? 진리와 사실의 차이부터 알고 넘어가요.

아주 간단한 영어를 써볼게요. 진리와 사실이 있다고 해봐요. 사실을 시제로 표현하면 is로 말할수있죠. 그리고 오늘은 is였던 사실이 내일이 되면 was가 돼요. 그러나 진리는 어제도 is, 오늘도 is, 내일도 is인 것이죠. 그래서 영원불변한 것이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러나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was로 바뀌어버려요. was로 바뀔 수 있다는 건 뭔가가 변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문제가 되고있죠. 역사교과서가 is에 관한, 진리에 관한이야기라면 어찌면 하나의 교과서로 폐내는 것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사교과서는 사실에 관한,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의 문제잖아요. 우리들은 이미 일어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군가가 어떻게 손을 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예요. 사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예요. 그 해석을 창문에 비교해볼까요. 오른쪽에 서면 반대편인 왼쪽이 잘 보일것이고, 왼쪽에 서면 오른쪽이 잘 보이겠죠. 그러나 반대쪽은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중립에 서겠다.' 면서 중립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죠. 그래서 창문의 가운데에 서는데, 사실은 중립도 편향이죠. 많은 사람들이 중립이 공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창문에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창문 가운데에 서면 중앙 말고는 잘 못 보잖아요.

결국엔 중립도 편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때론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유행이 돼요. 누군가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교과서를 이야기 할 때 좌편향이나 우편향이나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어느 쪽에서 어느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입장들을 다 취합하고 통합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바람직하다, 공평하다 정도로 보게 될 수 있으려면 해석의 다양성은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검정체제거든요, 국가가 무엇을 쓰라고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예요. 사실 국정교과서와 다를 게 없어요. 신문에는 사실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실려요. 학문이 다루는 것은 주로 진리이고요. 특히 철학은 더 그렇죠. 왜 이것을 다루려고 하고 중요하게 여길까요?

-민수 : 진리에는 옳고 그름이 있나요? 진리는 옳은 건가요, 아니면 변하지 않는 건가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짚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철학은 서양철학이에요. 동양철학의 가장 큰 약점은 어느 정도 공유된 성과가 없어요. 통용되는 해석이 없다는 것이 난제인데, 서양철학의 경우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 가운데 공유된 지점들이 있죠. 칸티에드? 같은 사람은 ‘플라톤 이후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플라톤 이후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에 대항하는 철학이거나, 찬성하는 철학이거나, 플라톤을 변형시킨 철학이었다는 거죠.

플라톤은 진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영원불변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영원불변한 것일수록 정확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무언가 자꾸 변하는 것에 기준을 삼으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기준에 나도 변해야하겠죠. 확고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과거의 사람도, 오늘의 사람도, 내일의 사람도 모두 같은 원리를 공유 할 수 있겠죠. 안정적인 방식으로 기준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철학의 임무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찾아 헤메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하고요. 플라톤이 진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변하지 않는 것, 영원불변한 것, 항상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올림이란 기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영원성과 불변성에서 올림은 탄생한다고 보았고, 그걸 진리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나 플라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진리는 없다고 이야기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변하게 된다. 맥락에 따라 같은 것을 대하는 모든 것은 다 다를 수가 있다. 플라톤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학문의 목적이 진리탐구라는 말은 거짓인 거죠. 그러나 어떤 학문에서건 제대로 된 앎을 탐구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앎을 말하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에피스테메. 제대로 된 지식을 찾아 헤메는 게 철학이다. 우리는 왜 제대로 된 앎을 찾아 헤메는 걸까요? 칸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행동했을 때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고. 훌륭한 사람이예요. 여러분이 불면증이 있다면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읽으면 바로잘 수 있어요.(웃음) 책을 읽었을 때 너무나 지루한 사람이지만 실제 삶을 보면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철학자, 철학교수이기도 했죠. 당시의 많은 철학들이 강의형태로 많이 남아있는 형태인데 유일하게 칸트만 말로 합니다. 원고가 없어요. 대신 학생들이 칸트의 강의를 돌려 적은 기록이 남아있죠. 칸트는 세 가지의 책을 씁니다.

1. 순수이성비판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2.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3. 그래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 세 가지에 답할 수 있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또한 칸트가 철학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하게 된 이유는 철학에서의 질문을 반으로 잘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 철학으로 답 할수 없는 것은 질문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신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처럼요. 신은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죠. 존재 한다는 것만 알지 본질을 알 수가 없는 것을 물자체라고 하는데 칸트는 이런 것들에 대해 존재가 있다는 것만 받아들이고 시작하면 된다고 모르는 것은 질문하지말자고 했던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질문해야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해야할까를 고민했던 철학자였어요.

여러분은 칸트철학을 되게 지루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칸트철학은 보기보다 흥미로운 점이 많아요. 칸트철학은 삼차원철학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 작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볼게요. 칸트 철학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는 철학이 있으면 그 원리원칙을 끝까지 지켜가야 했어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 집에 독립투사가 왔어요. 그리고 뒤이어 일본순사가 찾아와서 독립투사를 찾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하기 때문에 ‘네 여기 독립투사가 숨어있어요’라고 해야 할까요? 칸트의 완고함은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철학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칸트의 삼차원철학은 급박한 상황인 시간의 축을 넣지 않았어요. 칸트철학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 공간만 있고 시간이 없는 것이예요. 시간의 축을 쫓는 순간 많은 것이 변화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죠. 시간의 축이 들어가자마자 이름자체가 ‘상대적’으로 바뀌어요, 시간 속에서 사회의 원칙은 달라져야한다는 게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을 통해서 말한 아주 중요한 철학이에요. 시간의 축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것인가. 옛날에는 아리스토텔레

스,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이 철학과 물리학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철학 속에서 물리학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는데, 아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도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주제가 내버려질 사회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 것인가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대학을 가거나 사회로 나가면서 다른 환경을 맞게 돼요. 시간의 축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기준을 들고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기준이 이 세상에 맞는 것일까. 내가 과거에 가지고 왔던 기준으로 똑같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제목을 봤을 때는 내버려질, 내던져질 사회라는 것이 살짝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사회화과정을 거치게 되고 일종의 기준을 가지게 돼요. 한 세대는 다른 세대에게 반드시 이런 것이 옳다. 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사회에서 혼란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옳다고 배운것과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부분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이죠. 정말 솔직히 말하면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회는 없어요. 좋은 사회란 무엇이나 하면, 그 간격이 줄어드는 사회인거죠. 내가 배운 옳음과 사회가 말하는 옳음의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좋지 않은 사회가 되는 것이고요.

니체는 간격이 넓어지는 것과 그로인해 생겨나는 절망을 니힐이라고 말했어요.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과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것이 다른거죠. 여러분은 니체 하면 허무주의를 먼저 떠올릴 텐데 니체의 허무주의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아무리 해봤자 세상은 안 바뀔 것이다. 그러나 니체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겠지만,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너희는 뭐할건데? 라고요. 그럼 또 '웃기시네. 어차피 안하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니체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악보라고 생각했을 때 쉽표 같은 존재라고 말해요. 그리고 음표같은 사람들은 리버매쉬-오버맨 라고 불러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보면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아 절망에 빠져 산에서 펄펄 눈물을 쏟아요. 그리고 태양을 보며 다시 내려와서 도전하죠. 아픔과 절망이 분명 있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맞서 싸우라는 것. 한 인간으로서 우리시대의 인간이지만 선한. 여러분이 리버매쉬로 살길 바라요.

-내버려질 사회라는 말에서 사회를 낫설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날의 사회는 대부분 소비사회로 전환되었어요. 소비사회의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인데, 규범은 지켜야 하는것이잖아요 그러나 소비사회에서는 버려야해요. 왜냐면 규범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금방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모순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하고 있잖아요. 60만 군대를 운영하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죠. 엄청나게 많은 수의 청년이 한공간에 모여서 같은 것을 배우죠. 그리고 같은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정신적 문화적 폭력이 가해지죠. 규범을 가르치고 규율을 따르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사회의 한쪽에서는 규율을 가지라고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버리라고 하고 있는거죠. 정신이 분열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사회는 굉장히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서구의 소비문화를 그대로 들고 오기만 해서 양쪽에서 서로 다른 것을 강제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며 어떤 기준을 가져야하는지, 어떤 걸 해야 하는지 고르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신비한 정보를 얻었어요. 얼마 전에 경희대학교학생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50년 후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가치를 묻는 설문조사에 1위가 똑같았어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한것'. 그러면 여러분 행복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용옥 : 없으면 못사니까. 지루하고 하는 이유가 없으니까요.

-행복이라는 건 여러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건가요, 지루하지 않으면 행복한 걸까요. 지그문트바우만 같은 철학자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오락사회에 접어들었음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해요. 지루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소비산업사회에서 중요한 힘이기도 해요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본질이 소비오락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친구들은 행복이 돼 중요해요?

-성훈 : 행복하지 않으면 살고 싶은 마음이 안들 것 같아요.

-별 : 그래야 계속 살고 싶은 것 같아서. 먹는 순간도 행복해야 계속 먹고 싶은 것이고, 행복은 뭔가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

그렇다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예요?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느껴요?

-별 : 누군가랑 같이 뭔가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행복해요.

-인옥 :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할 수 있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영서 : 저는 행복한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승재 : 남들한테 인정받을 때

-타자에서 인정받으려 하는 욕구는 사실 인간의 기원부터 이어져 온거예요. 루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들이 같이 모여 살면서 인정에 대한 욕구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춤을 더 잘 추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더 잘 부르게 되고 그것들이 사랑받는 다는 것을 알게되면서 인정에 대한 욕구가 인간불평등의 첫걸음이 되었다.’고요.(웃음) 이걸 철학자의 이야기였고요, 다른 친구는 어때요?

-동석 : 싫은걸 하지 않을 때

-좋은 것을 할 때가 아니라 싫어하는 것을 안할 때? 이건 되게 소크라테스적인 말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윤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안하는 것이거든요.

-세아 : 자신이 스스로 받아들여질 때. 스스로 인정할 때

-이건 되게 칸트의 이야기와도 비슷하네요. 자기스스로를 인정한다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했거든요.

-나린 : 걱정거리나 슬픈 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웃을 때. 그 상황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명아 : 되게 많은데 놀러 갔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순간 순간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행복해요.

-충희 :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제일 행복해요. 최근에는 운동을 할 때 행복.

-이렇게 잠깐씩만 물어봤는데 행복은 각자가 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정치사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요. 누구나 느끼는 것이 다다른데 정치가 채워줄 수 있을까? 그것이 공동체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

-민수 : 그렇다면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개인의 목적이 공동체의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만의 목적이 따로 있는 거라면, 개인의 행복이 공동체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거라면 공동체는 왜 존재해야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논쟁을 벌여요. 그러나 정치는 행복을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해요. 행복은 개인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사회가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마지막 행복까지 책임지는 것은 사회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헌법적으로 행복추구권이 있다. 국가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가장 큰 난점은 국가가 여러분을 얼마나 잘 보호해줄 수 있을까 물었을 때 국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우리 사회가 옛날과 사회구성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원인이 내부에 있었다면 요즘에는 그 원인이 외부의 영향에서부터 온다. 영어로 표현해보자면 로컬(local)한 일이 로컬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로컬 한 일들이 글로벌(global)하게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같아요. 하나 예로 들자면 유목민과

정착민이란 말이 있죠. 옛날에는 제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자리를 잡아라 정착민이 되라고 이야기 했었죠. 요즘은 국경을 뛰어넘으며 살 수 있는 시대이고 유목민들의 삶이 훨씬 더 나은 삶처럼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흐르는 삶이라고 표현하는데, 옛날에는 기업이 하나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했고 또 이젠 초국적기업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글로벌기업이라 부르기 시작해요. 기업들 자체가 세계의 경계를 없애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 경계없는 삶의 첫 번째 세대이고 그 경계를 없애기 시작한 첫 번째가 바로 저 스마트폰이죠. 옛날에는 펜팔을 했었는데 편지가 가기까지 한달 반이 걸렸어요. 과거엔 45일 걸리던 일이 이제는 실시간으로 가능해졌는데 변화의 속도는 얼마나 빠른 것일까요. 세계의 공간과 시각이 압축되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오늘날의 1시간동안 변화하는 것이 과거의 1천년 변화 속도와 맞먹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전혀 새로운 세계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첫 세대이고, 오늘날의 사회는 디지털화 되어있어요. 디지털세계가 죽어버린 철학을 다시 살려놓기도 했는데, 세계시민주의라는 철학이었어요. 이는 정치·문화적으로 굉장히 좋은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다른 영향을 미쳐요. 옛날에 발전된 국가에서는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공장이 줄어들고, 남아도는 노동인력을 제국주의란 이름으로 바깥으로 인력을 내보냈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므로 한 사회가 모든 인구를 껴안게 되었고요. 우리나라 점점 인구가 준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청년실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 이유는 세계 산업구조 자체가 인간적인 일자리는 나오지 않는 구조라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가장 국경의 뛰어 넘는 능력을 만들어 내거나, 아주 지역으로 들어가서 연결된 살지 않는 한 어려워요.

대안학교는 지구화현상에 대안하기위해 만들어졌지만 아주 우연히도 안으로 파고들어가 밖의 상황에 대응하게 된 사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대안학교는 지금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연결하고 살아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배우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는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세계가 바깥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맞춰가기에 세계와 나를 연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은 용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네요.

세계화로 뻗어나가는 첫걸음이 용기예요. 저는 20대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유학을 가고 싶었으나 돈이 없었고요. 우연한 기회에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지만 당당하게 행동했어요. 그러다보니 말은 자연스럽게 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능력이 부족하다 여겨질 때 도망가고, 외면하고, 바깥으로 나가려하고, 할 수 없을 것이라 불신하죠. 첫 제자가 대안학교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을 알아야 세상을 알 수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해서 지금은 제 스승님의 마지막 제자가 되어서 곧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에게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배움을 얻었던 거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응을 할 때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용기예요. 문제에서 도망간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법인데, 여러분들은 마주할 용기가 있는 학생들인 것 같아요. 졸업하고 이 세상으로 나갈 때 다양한 문제들이 닥치는 것은 필연적인 문제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모든이가 다 자기랑 비슷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페이스북 효과에 갇혀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상엔 많고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다시 돌아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수있는가?를 질문해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 때는 내가 공동체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을 행복한것이라 말했고 혼자 살아가는 것을 이기적인 것이라 했어요. 오늘날엔 꼭 그렇지만은 않죠. 행복이 무엇일까 라고 물었을 때 다들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였고, 개인적인 행복을 통해서 변화하고 싶어하고, 뭔가를 바꾸고 싶어 했잖아요. 철학이라는 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거는 대화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부터 출발하고요. 여러분 자신을 잘 대하는 일. 스스로 소중히 하고 아끼는 작업이 철학이고 철학의 목적은 자기 자신과의 모순을 없애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행복이라는 건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뭐라 지정 해줄 수는 없지만 행복해지는 수단과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그중에 하나가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것이고 철학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은 세계에 질문을 던지는 것 뿐 아니라 자신의 모순을 없애고 세계를 그 시선과 그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

문에 철학이 2천년의 역사를 지닌게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친절해지기란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사실 저는 원래 문학을 했던 사람인데 그 시절의 절 돌이켜보면 저는 스스로를 대단히 싫어하고 모든 글은 저에 대한 미움으로 채웠어요. 그게 저의 한계였죠. 여러분은 스스로 친절하고 스스로 존중하는 언어를 쓰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여러분을 대한 언어로 주위사람들을 대하면 좋겠어요. 그러다가도 못 견디면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가세요. 술 사달라고(웃음). 철학의 목적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에요. 저도 매순간 스스로 질문하며 살죠. 지루한 이야기를 긴 시간 들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강의 질의응답

-용욱 : 외부에서 오는 저항할 수 없는 압력들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외부로부터 오는 저항할 수 없는 것들은. 이것이다 하는 해답은 없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견뎌왔던 시간들이 있었다. 역사교과서 문제를 제기했던 친구들이 있죠 1인시위를 나선 학생과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인터넷상에서 그들에 대한 신상털기가 여러 어른들이 학생들의 처분을 요구했는데요. 이런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의 가장 나쁜 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외부압력에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압박감도 엄청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늘 세상을 바꿔왔고 민주주의를 지켜왔다는 것이에요.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민주주의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지탱시키는 것들 중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줄수있는 행복이라는건 개인적인 것이아니라 공적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경제학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장 많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하도록 냅두고 결과만 취하는 사람들을 집단행동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린 '무임승차자'라고 하죠. 민주주의를 쬐먹고, 갹아먹죠.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향상시키는 사람들은 남들이 해줄것이라 믿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친구가 말했던 외부라 함은 가족들의 영향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태클에 일일이 싸우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말하면 '네!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웃음) 하나의 외부 효과를 다루는 나만의 방식이겠죠. 가족의 외부효과를 저는 그렇게 다뤘던 거죠. 다행히 부모님께선 제가 한다고 말씀드리면 놔두셨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게 되었네요. 삶은 우리 것. 부모님이 대신 살아 줄 수는 없죠.

-별 : 강의 안 지루했다. 학교에서 정말 좋은 많은 가치들을 배웠으나 전부 다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에 따라 나의 무언가를 버리는 기준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위해 얼마나 행동할 수있을지 겁이난다. 선생님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하다.

-그 불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다만 과거보다는 훨씬 자유로워졌다는 느낌? 과거보다는 지금 자유로운 것도 있고, 그 불안은 내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온다. 하지만 내가 철학을 공부하다보니 옛날은 10년 20년을 보고 준비했었다면 지금은 단기간을 보는 준비해야하는 사회죠. 살아가다 보면 내 것을 희생시켜야하는 기준이 있는데 겁이 날 수 있어요. 예로는 공익제보자를 들 수 있다. 실제 정의를 해가면 반드시 따라오는 비용이 있죠. 그 용기가 필요하고요. 각자에게 어느 순간 결정할 시기가 찾아와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생길텐데 그 순간을 잘 견뎌내야 해요. 그리고 견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비난할 권리가 없고요. 무엇을 해야한다 해야된다 압박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일이 곁에 있을 때 지지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또한 사람들에게 곁에 있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회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부정할 일이 일어나는 지 항상 눈을 뜨고 있어야 하고 말 한마디를 건내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형근 :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정몽준도 그렇고 말하는 것이 미개하다고 그러고 개몽되지 못한?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런 건지 우리가 계몽되지 못한 건지, 그게 맞다면 왜 그런건지, 그렇다면 유럽은 왜그런지 궁금해요.

-답하기가 어렵지만 미개하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성숙하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산업화 되면서 근대화되는데 이 근대화가 이성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봐요. 서양은 3,400년이지만 우리는 50년만에 압축되어 나타났거든요. 어느 한 문화가 정착되는데 100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있어요. 요즘의 디지털 문화도 비슷하죠, 어른들은 디지털 문화를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양에서 3,400년 동안 감당하지 못했던 문화가 4,50년만에 이뤄지고 바뀌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받아드리는 기술과 속도, 생각의 차이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봐요. 실제로 사고방식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 시대에 가치에 기반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지 미개한 것은 아니고, 가치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항상 귀를 열어두고 세대와 세대를 소통하는 것, 공감할 수 있는 기술과 감정이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서양은 오랫동안 그것이 트레이닝 되어있다는 점이 다른 거고요. 서양은 노동윤리가 정착되는데 200년이 걸렸다 해요. 서양도 노동자들이 처음에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데, 왜 하루치 일당보다 더벌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들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문화적 미개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간의 차이로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소윤 : 세대가치 차이가 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공존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다른 프로젝트로 가져가야하는데, 저는 앞선 5,60년 세대에 대한 기대를 접었어요. 여러분과의 새로운 세대를 열고 싶어요.

-준상 : 왜 그런 기대를 접으셨나요?5,60대와의 소통을 접으셨다면 세대가 바뀔 때까지 고통 받는 시간은 길어질텐데 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정치학을 공부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처한 분단이한 현실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성적인 담론들이 사라지게 돼요. 지금은 우리요구를 수용 할 수있는 정당을 만드는 게 빠를지, 여러분과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시민들을 만들어 세상을 바꾸는 게 더 빠를지 생각했어요. 저한테는 후자가 훨씬 안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선 세대는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날지 모르나 안정성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정당이 움직여 주면 가장 좋죠. 제가 틀리길 바라요.

-용욱 : 같은 편에 속해서 일베같은 경우로 다투는 경우는 어떠한가?

-제가 몇일전에 일베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자유주의 세대에서는 관용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일베는 상대의 입장에서 관용을 거부하는 것이죠. 일베 현상을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어떠한 대화도 안 될 것 같다는 점과 이성적 대화가 불가하나든 거예요. 제가 정치학자도 되지만 교육자로서 그들을 놓진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서 제도적으로 제제하여야한다 하지만 그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데 일베들은 우리세대와 그 윗세대가 약간 겹쳐져 있어요. 서로 마주앉았을 때 서로 설득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양쪽다 설득될 준비가 되어있지 않죠. 다만 그 친구들을 대할 때 인신 공격 같은 것을 한다면 일베의 논리와 똑같이 말려들어 가게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예요. 똑같이 말려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준상 : 일베는 만나보신적이 있으세요?

-네. 제 강의 때 마다 한 명씩은 있어요. 저는 수업에 가면 제 정치 관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기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 케이스가 있다. 좋은 현상이었는데요. 과제에서 5.16쿠데타를 지지하는 글을 쓴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훌륭한 인물로는 전태일을 썼더라고요. 그 학생의 수업평은 이랬어요. 모든 학생들 가운데 내 이야기를 해본 것이 처음이었고, 나의 관점도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인신공격을 하면 안된다는 것 같아요. 대화는 달히게 되거든요.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기 보단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이해하다 보면 변화의 가능성이 어느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열려있죠. 일베 내에서 극단적인 애들을 보면 대화가 잘 안 될때도 있어요. 말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용욱 :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실 때 지치실 때가 있을텐데 그럴 땐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학교서 강의할 때 스트레스를 풀어요. 정말 좋아요. 젊은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이 되게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어요. 대학교는 굉장히 불공평한 곳이에요. 저는 친구들과 놀면서 돈을 벌지만 학생들은 놀면서 돈을 내니까요(웃음).

젊은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이 즐겁다.

-소윤 : 저희들은 뭘 해야 할까요. 19살의 황소윤으로써 어떻게 해야하나요?

-거창한 것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유하고 생각하는 것들, 문제를 인식하는 것들, 포인트를 잡아내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실천이에요. 여러분은 그 속에서 성장할 것이고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죠. 저는 대학을 1990년대부터 다녀서 요즘 응팔보면 옛 생각이나요. 그때 돌이켜보면 친구들과 책 읽고 토론한 것이 지금의 밑거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저는 큰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4강,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수업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그러나 앞으로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주제들을 가지고 각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자.(같이 나누고 싶은 물음이 있다면 의제를 제시해도 좋다.)

노동

마르크스의 '노동 가치설'에 따르면 상품의 가치는 이를 만드는데 들인 노동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자본주의 상품 가치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 예컨대 철학교수가 치열하게 공부하고 공들여 책을 썼다고 해도, 인세 수입은 그만큼 노력한 수준급 프로야구 선수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에서는 노동과 그 대가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문제가 없을까? 문제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잘못되었다면 무엇이 잘못이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해보자.

신분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자가 대접받는다. 고급차를 몰고 좋은 집에 살면 대우가 은연중에 달라지기 마련이다. 문제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많이 생산하는 능력에서 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세 귀족들은 좋은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최고의 부를 누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좋은 부모를 두었다는 점만으로 좋은 환경과 부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과거 신분제 사회보다는 훨씬 발전된 사회로 여겨진다. 왜 그럴까?

종교

모든 종교는 지향하는 바가 거의 같다. 평등, 평화, 사랑 등 인류 보편의 도덕과 진리를 추구한다.

그럼에도 종교 간 싸움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종교 간 싸움은 가치의 차이 때문인가, 언어가 주는 ‘오해’ 탓인가? ‘정통’ 교단과 ‘이단’을 가리는 기준은 무엇일까?

사회

세탁기와 전기청소기는 집안일을 하는 시간을 크게 줄여주었다. 휴대폰과 인터넷 덕에 우리는 훨씬 빠르게 연락하고 정보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을 절약해주는 물건이 개발될수록 우리네 삶은 점점 더 바빠진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생길수록, 사람 하나하나를 속속들이 알아내는 도구들도 더 빨리 개발된다. ‘빠른 해결’이 ‘여유 있는 생활’을 위협하고 ‘보호’는 ‘감시’를 더 심하게 한다. 왜 그럴까? 이런 모순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역사

목숨을 던져서라도 지켜야 할 역사의 발전 방향은 있는가?
독심과 독단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공통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합리화를 한 적이 있는가
없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사는 공간, 우리의 지혜가 발휘되는 공간은 사건의 세계이지 이론의 세계가 아니다.
이론은 하나의 사건을 정리해놓은 것일 뿐이다. 우리가 진라라고 여기며 읽고 있는 것은 그것이 생산되는 그 순간까지만 진리였을 뿐,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찌꺼기에 불과할 뿐이다. 즉 이 세계에서 우리가 진짜 접촉해야 할 것은 이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바로 사건이고 감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삶을 살려면 좋은 삶인지 판단해야한다. 우리가 이시대의 청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게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지식이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닌, 스스로 사유하고 철학 할수 있는 힘, 일깨울 수 있는 힘으로 남으면 좋겠다.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질문하라 그것이 정말 당연한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물음을 던져라.

검정색은 그냥 검정색일 뿐이지만, 미국 사회에서 흑인은 그냥 흑인이었던 적이 없다.
여성도 그냥 여성이었던 적은 없다. 니체는 그것을 제3의 눈이라 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판단은 버려라. 그것은 네가 판단한 것이 아닌 습속이나 관습이 너를 통해서 판단한 것일 뿐”
바로 우리를 지배하는 총동, 사회적 의지, 문화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철학이 과거의 사상을 훈육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두 번째 판단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철학에서 반박 불가능한 진리란 없다.
열린 생각과 끊임없는 반성만이 더 많은 세상을 만든다”

3부, 저녁 프로그램

영화시청 ‘플레전트 빌’

하루나누기

새로운사람 소개 : 홍수경(사회운동과 청년문화에 관심이 많음, 진주외국어고등학교, 18), 김준상(느티울행복한학교, 18), 김연진(충북여고, 19) 정인욱(산청간디학교, 18)

강의 총평

형근 : 너무 좋았고 강사도 잘 부른 것 같고, 강사보다도 산과 소윤이강의가 훨씬 좋았어요. 오후 토론도 모두가라서 잘 나온 듯합니다.

건산 : 초반에는 집중이 안 되다가 점점 빠져드는 것 같아서. 생각할 시간 있는게 좋았고, 토론시간이 짧게 느껴졌어요. 강사는 두번째 뵈는데 강의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준상 : 강의랑 이야기하는 거 좋았는데 강의하시는 강사분이 질의응답시간에 역사팀 내용도 많이 나와서 걱정. 마지막까지 집중력 놓치지 말아야했는데, 그건 좀 아쉬워요.

김준상 : 좋았어요. 다 같이 토론할 때 학교에서 그런 일이 없었던 터라 좋았고, 우리학교에도 이런 수업이 있으면 싶습니다.

연희 : 저도 좋았고, 다른 학교에서 다모여서 이런 이야기 하는게 좋았어요.

성훈 : 또래가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좋았고 색달랐고, 우리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많이 즐겼던게 아쉽고 아깝지만 내일이 더 기대가 되네요.

유진 : 철학을 되게 쉽게 풀어 이야기 해주셔서 좋았고, 몇 번 토론을 참여해본적은 있는데 매번 새로워서 좋았어요.

지현 : 많이 어려웠어요. 친구들도 많이 어렵다고 했는데 영화 재밌었어요.

수자T : 산이 소윤이 고생했구요. 고생도 고생이지만 참가자들이 너무 훌륭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던 제친구들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건데 온 친구들은 자발적인 거잖아요. 돈 내고 시간 내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가단이 의욕적으로 참가해주고 연령층도 다양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 많이 뿌듯했고, 참가자에게 정말 감사했어요. 인문학은 내용이 겹칠 수 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본 영화도 여성주의라고도 해석할 수 있었던거기도 하고요. 내일도 기대할게요.

수경 : 버스가 밀려서 3시에 도착하는 바람에 앞에서 듣지 못한 게 아쉽고, 자유토론시간에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수 있어서 생각이 많이 열렸던 것 같고. 영화도 추천도서와 잘 맞아떨어진 영화라 좋았습니다.

소아 : 일단 좀 수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언도 많이 하고 질문도 하느냐에 따라서 얻어갈 수 있는게 달랐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덜 적극적이었던 게 저한테 좀 아쉬웠고, 생각해볼 거리를 자꾸만 던져주는 게 좋았는데, 생각할 시간이 적고 바로바로 넘어갈 수 밖에 없어서 아쉬웠어요. 내용들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흘러지 않고 되뇌어보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윤 : 정리가 안됐어요 사실 아직. 일단 되게 되게 고마웠어요. 어떻게 보면 이 하루를 위해서 2달간을 머리 싸맸는데 생각보다 되게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던진 물음에 대해서 생각해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부족하고 아쉬운 수업일수도 있었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했어요. 소아처럼 바로바로 생각할 주제가 아닌 것도 조금 아쉽긴 했어요. 저희가 드린 메세지처럼 두고두고 물음표 남겼으면 해요.

성지 : 저는 거의 저녁 전까지 수업을 듣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논술시험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총평을 듣다보니 대안학교친구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과 토론하는 게 신선하고 느낀게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깐. 저는 청주에서 또래친구들과 토론하는데 또래와 나누는 자리도 갖는 건 좋아요. 계기가 된 것 아닐까요?

연진 : 영화와 일정표만 보고 총평을 들었는데, 앞으로의 일정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들어보니까 강연하신 분들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별 : 아까 수자쌤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래 친구들이 마음 내줘서 와준게 고맙고 신기했다.

우리들끼리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강사는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채현 : 저는 뭔가 오전에 소윤이랑 산이가 이야기한 것을 듣고 영화를 보니까 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거구나 이어 지는게 좋았고 강사분 오셨을 때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도 있었는데 끝나고 처음 보는 분들과도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았어요. 참가자분들에게 고마워요

도운 : 저는 오늘 첫날이라 정신이 없어서 헤맸는데 철학 수업은 서기하면서 끄덕이며 들었고, 질문해주는 모습에 우리가 그리던 모습이 이렇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강사분이 제 주제를 끌어내는 질의응답시간을 해주셔서 당황하긴 했지만 수고했어요.

산 : 오전 강의한 입장으로서 아쉬움이 남고 죄송한 강의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아쉬운 게 많아요. 초반질문에 당황해서 준비한 만큼 못한 것 같아서요. 오후시간에 강의 듣고 이야기 나누게 제 아쉬움을 덜을 만큼 좋았고요. 전 강의체질이라기보다 강의 듣는 체질이란 걸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준학 : 소윤누나 산형아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오랜만에 고민을 이야기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가 기대돼요.

현선 : 철학 좋아하는 주제라고 기대 많이 했는데 준비하는 걸 같이 지켜봤지만 심오한 주제를 쉽게 풀어내려는 노력이 보여서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환기 시킬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진 : 제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뿌듯했고 참여해주시고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오전강의는 집중 잘했는데 오후에 조금 힘들어해서 죄송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토론에서는 조원들이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영서 : 강의도 잘 들었고 토론도 적극적인 모습이 좋았고 놀랐고, 영화볼 때 즐려서 못 볼 줄 알았는데 끝까지 봐버렸고 좋았어요.

소윤 : 우리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이야기가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갈 테니 빨리 친해져요 우리!

민수 : 좋았어요. 생각했던 것과 다른 시선을 볼 수 있어서 풍요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인욱 : 오전에 없어서 맥락을 못 짚었는데, 또 다른 간디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알아갈 수 있었어요.

수자T제안

-소감나누기하고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 같은 건의도 했으면 좋겠어요.

-수자T : 여기가 마리스타 수도회라고 수사님들이 모여계시는 공간인데, 여기계신 남자분들은 수사님들이라고 해요. 식당에 계신분들은 지역아주머니인데, 호칭도 서로 존중하는 호칭으로 써주시고 인사도 잘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려를 많이 받고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자는 비용을 되게 많이 할인해주셨어요. 좋은 관계 맺어주세요. 생활하는 거는 첫날이라서 그런데 당일참가들이 숙소에는 안왔으면 좋겠어요.

역·동적으로 사·알자 (부제)주체적으로 살기위한 역사

한별, 강도운, 유준상

왜 사회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지나온 역사들을 살펴보며 그 이유를 찾아보려했다. 당장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문제로 느끼고 있는 것들을 각자 주제로 잡아, 정치와 독재아래서 받았던 영향,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세 가지를 공부해보기로 했고, 예비캠프에서는 각자의 주제에서 정치무관심에 대한 원인을 찾아 공부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던 원인은 정치 양극화로 인한 정치 무관심과 독재 아래 무조건적인 경제성장 겪어 생겨난 경제'물질만능주의, 청년의 사회적위치 변화에 따라 설자리가 없어지는 현실의 모습 등 이었다.

예비캠프의 고민을 이어 본 캠프 때는 오늘날 우리사회가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공부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갖춰보려 한다. 더 나아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방정국 정치사

우리나라에서 정치라고하면 기득권만을 위한 정치, 사기꾼 등 좋지 않은 시선들이 먼저 나온다. 이분법적으로 나뉜 우리나라 정치현상에서 정치논쟁보다 친일파, 수구꼴통, 빨갱이 등 정치이념에 대한 편 가르기가 우선이 되며, 정치에 대한 불신감 때문이다. 과거에 어떠한 일로 인해 오늘날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역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경제성장이란 미명아래 용인된 독재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는 박정희 시대. 그가 이룬 '근대화'의 이면에서 우리가 잃은 가치들은 무엇이었는지 들여다보고, 그 성공과 잃어버린 가치의 영향이 우리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본다. 이를 통해 잃지 말아야 할 가치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다.

#시민의 권리

집단화된 '국민'이 아닌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알아보고, 시민사회의 역할과 드러난 시민의식은 어떤 것이었는지 공부해본다. 시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함께 이야기해보자. 시민으로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p>1.해방정국 정치사</p> <p>한국 현대정치사에서 '해방정국'이라고 불리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3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한다. 분명 해방 후 한민족은 좌우익 각자의 이념에 상관없이 자주적인 통일정부를 원하였다. 하지만 두 강대국의 이익에 의해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정치세력간의 갈등은 결국 분단의 길로 가게 만들었고, 한반도의 분단과 남북 적대적 관계는 오늘날의 정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떠한 사건들의 흐름이 오늘날의 우리나라 정치를 만들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p> <p>-일제무단통치시대 (1894~1945) -해방정국 (1945~1948)</p>
<p>2. 경제성장이란 미명아래 용인된 독재</p> <p>우리사회에서 평가가 극으로 나뉘게 된 '근대화'의 역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알고 싶어졌다. 근</p>

대화가 이뤄진 독재시기에 대한 평가는, 인권유린과 민주주의 억압이 끊이지 않았지만 경제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에 면죄해준다는 식의 생각이 지배적이다.

‘경제성장’은 만능부적과 같은 걸까? 독재시기 ‘경제만능주의’가 알을 낳아, 오늘날에도 돈, 경제, 물질의 논리는 그 어느것 보다도 앞서있다고 생각한다. 박정희가 추구했던 ‘근대성’에 대한 공부와 함께 박정희의 성과라 불리는 것들의 이면을 위주로 살펴볼 것이다.

그 성공 이면에서 우리가 잃은 소중한 가치와 문화들은 무엇이었는지를 보며, 앞으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가치도 되새기는 자리로 만들고 싶다. 어느샌가 나와 사회에 스며든 경제만능의 논리가 당시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조국근대화’ 박정희의 근대화
- 경제성장이 요원했던 시기를 지나
- 경제성장의 성과와 그 이면
- 오늘날의 경제성장의 논리, 경제만능주의

3. 시민의 권리

과연 진정한 시민은 존재하는 것일까? 버스노조파업 현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유럽- 프랑스의 노조파업은 승리를 기원하는 박수를 받고, 대한민국의 파업은 날카로운 시선을 받는다. ‘시민의 발을 묶는’, ‘불편함’을 감수해야하고 나의 시간에 지장을 준다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란 무엇 일까?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시민이 아닌가? 우리는 국가와 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을까, 집단화되어 국가가 있어야지만 존재하는 국민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을까? 이기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시민사회란 무엇인지 공부해보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품어야할 마음가짐을 나눠보고자 한다.

- 시민사회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
- 시민의식/생존의 권리를 지키기위한 싸움

활동

- 국정교과서 반대에 대한 활동

역:동적으로 사:알자

-주체적으로 살기 위한 역사

강도운, 유준상, 한별

1부,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 정치 무관심에 대하여
- 해방 정국이 현대 정치에 끼친 영향

2부, 경제 성장의 그늘을 바라보다

-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용인된 독재

3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 시민사회

활동: 한국사 국정교과서, 가만히 계실건가요?

*출발점, 고민의 시작

‘왜 사회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지나온 역사들을 살펴보며 그 이유를 찾아보려 했다. 당장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문제로 느끼고 있는 것들을 각자 주제로 잡아, 정치와 독재 아래서 받았던 영향,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세 가지 주제를 공부하기로 했고, 예비캠프에서는 각자의 주제에서 정치 무관심에 대한 원인을 찾아 공부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던 원인은 정치 양극화로 인한 정치 무관심과, 독재 아래 무조건적인 경제성장을 겪으며 생겨난 경제물질만능주의, 청년의 사회적 위치 변화에 따라 설 자리가 없어지는 현실의 모습 등이었다.

예비캠프의 고민을 이어, 본 캠프 때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공부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갖추려 한다. 더 나아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1부,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해방정국이 현대정치에 끼친 영향

1. 개요

우리나라에서 정치라고 하면 기득권만을 위한 정치, 사기꾼 등 좋지 않은 시선들이 먼저 나온다. 이분법적으로 나뉜 우리나라 정치 현상에서 정치 논쟁보다 친일파, 수구꼴통, 빨갱이 등 정치이념에 대한 편 가르기가 우선이 되며, 정치에 대한 불신감 때문이다. 과거에 어떠한 일로 인해 오늘날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역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2. 목적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해방정국’이라고 불리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3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한다. 분명 해방 후 한민족은 좌우익 각자의 이념에 상관없이 자주적인 통일정부를 원하였다. 하지만 두 강대국의 이익에 의해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정치세력간의 갈등은 결국 분단의 길로 가게 만들었고, 한반도의 분단과 남북 적대적 관계는 오늘날의 정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떠한 사건들의 흐름이 오늘날의 우리나라 정치를 만들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3. 목차

1장 <정치란 무엇인가>

- 1.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의 정치가 가지는 의미
- 2. 정치양극화란
 - 정치양극화 사례
 - 정치 양극화 특징과 문제점
 - 정치 양극화가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채동욱 검찰 혼외아들 사건, 세월호 유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
- 3. 정치양극화의 원인
 - 보수의 반작용
 - 민주주의의 한계
- 4. 정치양극화와 정치무관심의 관계
- 5. 정치양극화의 해결방안
 - 1. 일제무단통치시대 (1894~1945)
 - 강화도조약

2장 <해방정국>

- 갑오개혁
- 대한제국탄생
- 러일전쟁과 조선‘보호국’화
- 한일합방과 3.1운동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 사회주의세력의 등장
- 2. 해방정국 (1945~1948)
 - 해방
 - 정치세력의 분립과 통합운동
 - 새로운 세상을 위한 건국위원회
 - 좌익과 우익의 구분
 - 1) 좌익과 우익의 유래
 - 2) 해방정국에서 정치세력 구분
 - 우익세력의 활동

- 좌익세력의 활동
- 미군정
- 미군정과 좌우익의 이해관계
- 모스크바 삼상회의와 좌우익 대립
- 동아일보 신탁통치 오보사건
- 남한정부 단독수립
- 해방정국이 오늘날 정치에 끼친 영향
- 레드컴플렉스

1강, 정치란 무엇인가?

1. 정치란 무엇인가?

- 사전적 의미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1-1.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의 정치가 가지는 의미

- 사전적 의미로 상호간의 갈등과 이해를 조정한다고 되어있듯이, 정치라는 것은 크게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일이며, 작게는 개인과 개인사이의 토론들도 정치의 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로 보아 정치는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일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치는 우리에게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여겨진다.

2. 양극화란?

-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대표적으로는 소득의 격차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뜻하는 소득양극화가 있고, 계급의 양극화, 이런 양극화되는 현상들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들이 사회양극화도 있다.

정치양극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흔히 통용되는 정치양극화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적용시키기엔 약간의 어색한 부분이 있다. 지난 대선공약을 살펴보면 여야 둘 다 민생을 살핀다는 등의 비슷한 공약들이 많다.

따라서 두 당이 양극화되어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흔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정치가 양극화 되어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3. 정치 양극화란?

- 정치 양극화란 주로, 정당과 정치가 내용 없이 싸움을 위한 싸움이 되어 버린 것 혹은 여야 간 또는 계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적대적 증오를 동반한 정치적 언어나 행태'를 뜻한다.

대표적으로는 TV 뉴스나 신문에서 간간히 볼 수 있는 정치인들 상호간의 내용 없는 막말행태가 이 정치 양극화 현상에 속할 수 있다.

4. 정치 양극화의 사례

- 이탈리아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에 따르면 민주정치는 상호 의견간의 갈등을 서로 존중하고 조율이 가능한 의견으로 다루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그렇지 않고 갈등이 공존 불가능한 상태로 양극화되면 어느 정치 공동체도 통합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양극화 사례로는 나치즘으로 귀결된 독일의 바이마르 체제와, 베를루스코니의 집권으로 이어진 이전의 이탈리아 정치가 있다.

5. 양극화 된 정치의 특징과 문제점

- 이렇게 극단화된 정치는 서로간의 차이와 갈등이 공존 못하게 만듦으로써 민주정치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과도한 정치 양극화된 정치체계는 공적인 논쟁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런데 공적인 논쟁이 없어진다면, 그

공동체와 사회는 발전하기가 힘들고, 그 가치를 실현시킬 수 없게 됨으로 공동체를 망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정치 양극화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 정치 양극화의 문제점은 정당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고스란히 그 문제점이 드러난다. 상호 조율하고 합의해야 될 논쟁의 당사자를 고정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상호 비난을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정치를 지배하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증오의 감정만 남는다. 이럴 경우 상호 건설적인 비판이 아닌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에 더욱 집중을 하게 된다. 결국 논점이 주가 아닌 상대방의 도덕주의적 문제나 사생활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논란의 소재가 되는 일이 잦아진다. 대표적으로 채동욱 검찰 혼외아들 사건과 세월호 유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있다.

6-1. 채동욱 검찰 혼외아들 사건

- 2013년 9월 6일 의혹을 조선일보가 제기하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검찰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사표를 제출했다. 채동욱 검찰은 2013년 4월부터 9월 초 39대 검찰총장 재임기간 중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완납받고 전두환으로부터는 완납계획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눈 밖에 났기 때문이라는 소수 의견이 있다. 014년 검찰 수사 결과 혼외자로 지목된 아들이 채동욱의 아들이라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했다.

6-2. 세월호 유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

- 14년 9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의 저녁식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술이 곁들여졌었는데, 자정 무렵 안산에 사는 유족 두 명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도착한 대리기사가 30여분을 기다리게 하자 김현 의원 등 일행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 일부가 국회의원에게 불손하다며 대리기사를 나무랐고, 대리기사는 이 말에 반박하며 따지고 들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이어지자 유족측 일부가 대리기사에게 "국정원 직원이나"라고 말하면서 상대를 몰아붙였고, 이후 몸싸움이 거칠게 일어났다. 이후에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들과 집행부들이 연대책임으로 사퇴를 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의 공통점은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점들이 사건의 본질들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의 본질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고,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 사생활 등이 부각되어 사건의 본질보다 이슈가 되어버리게 되며, 자연스레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보다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버리게 되어버린다.

7. 정치적 양극화의 원인

1) 보수의 반작용

- 정치적 양극화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나 스타일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미국에서는 양극화의 시발점이 1960년대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그 출발은 '보수의 반작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서 왔는데, 1930년대 뉴딜정책과 1950년대 민권운동을 거치며 노동문제와 인종문제 그리고 사회복지 문제는 미국 정치의 중심 문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보수정당인 공화당이 무기력했다는 보수파와 자유주의자들의 불만과 위기의식이 팽배하게 되었고 이는 공화당 내에서 강경 보수주의를 앞세운 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회에서는 종교와 문화, 애국주의 등을 이슈로 내건 보수주의 운동이 표출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들로 인해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1990년대 부시 정부로 이어지면서 극단적으로 되었다. 한국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야당의 집권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되었다. 두 정부역시 IMF나 한미FTA, 이라크 파병 등 정책적인 측면에선 기존 여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파의 공격은 격렬했다. 사회적 보수주

의 운동의 한국판이라고 할 만한 뉴 라이트 운동과 보수 교단들의 집회나 시위가 등장한 것도 이때다.(어버이연합의 설립년도도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시기이다.)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비난과 경멸, 야유가 정치를 지배했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 역시 심화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보수의 반작용'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한국의 양극화 역시 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개인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민주당에 대한 사회 중하층의 지지율은 크게 약화되었다.(취임 40일 당시 대통령 지지율은 70%지만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서 2004년 지지율 조사에서는 여당인 열린 우리당의 지지율은 약24%, 야당인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31%였다.) 끊임없는 내부갈등으로 인해 중산층 가운데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불만은 늘어났고, 노동운동과 민중부문의 갈등도 심화되었다. 이후 선거에서 패배한 야당이 된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보여준 대응도 과거 감대중, 노무현 시기 보수파들이 보여주었던 대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경멸과 야유는 반복이 되었고, 공적 논쟁보다는 적대적 대립이 더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2) 민주주의의 한계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양극화를 여야 사이, 혹은 여야의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당파적 다툼을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막말과 다툼은 눈살을 찌푸려지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현상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양극화는 단순히 여야사이의 경쟁적 문제가 아니라 개별 정당 내부 혹은 시민사회 내부 안에서 일종의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 정치 양극화가 되는 결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분명 민주주의는 1인 1표에 의해 평등한 참여를 기반에 두고 있지만, 참여의 열정은 개개인마다 다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그 열정과 강도의 힘에 의해 늘 빼겨진다. 분명 민주주의는 다수원칙에 의한 '다수 지배'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그때의 다수는 '관점'에 의한 다수만이 아니라 열정과 강도도 같이 하는 다수여야 공정한 민주주의가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정치 양극화 역시 정당과 지지자 이렇게 일반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로 강한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견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면이 크다.

8. 정치 무관심과 정치 양극화의 관계

- 이처럼 정치 양극화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정책에 대한 토론에 있어 논점에 대한 관심보다는 상호간의 증오만 남긴다. 자극적인 가십거리만 남게 되고, 정치적 논점에서는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정치적 논점에 관심이 없는 것, 이런 상황 자체가 곧 정치 무관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대중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혐오감만 남기게 된다. 이런 심리들이 정치는 더러운 것, 싸움만 하는 정치,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들을 낳게 되고 정당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선호 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가 많은 상황을 낳게 된다.

• 2014-2015년 정당 지지도 - 연령별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15 1월~9월 조사)

9. 정치 양극화의 해결방안

- 우리나라를 역사를 보면 보수독점 정당체계에서 민주정권으로 바뀐 지 채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은 그 과도기의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 양극화는 사람 개개인 자체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싸움과 갈등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싸움과 갈등은 사람 개개인들이 획일화 되지 않는 이상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론과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치에 특별히 관심 있지 않은 이상 대중들이 정치를 접할 기회는 투표 때 말고는 현저히 적다고 할 수 있다. 공적인 논쟁과 정치에서 정치인 개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일어났고 어떠한 논쟁으로 이러한 갈등이 벌어졌는지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민주주의 에서 갈등과 싸움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임을 느끼도록 교육을 받아야 된다. 물론 나의 허점이나 논리적 모순을 지적받으면 내 의견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고, 기분이 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내가 믿고 있던 상식들이 부정이 된 것이니 말이다. 비판은 비판대로 받아드리되 내 처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이해시킬 수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2강, 해방정국이 현대정치에 끼친 영향

1. 일제무단통치시대

해방정국시대를 당시 상황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가 어떠한 외세에 침략을 받았으며, 당시 국제정세에 어떠한 흐름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이해가 쉽다. 따라서 일제시대의 흐름을 간략하게 아는 시간을 가진다.

강화도조약

흥선대원군으로 인해 쇄국정치를 펼치던 조선은 1876년 일본과의 강제계약으로 인해(강화도조약) 쇄국정치를 펼치던 조선이 열리게 되었고, 조선은 서양의 신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갑오개혁

이후 조선의 개화파들은 일본을 이용해 청나라에 대한 사대외교 폐지 등 자주적인 개혁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이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는 발판을 삼았다. 이런 일본의 독주는 다른 제국주의 열강들을 긴장시키게 만들었고, 특히 일본이 반도를 통해 대륙으로 힘을 뻗어 나가려는 것은, 만주를 통해서 남으로 진출하려는 러시아의 이해와 정면충돌했다. 이러한 국제정세와 나라 내부의 정세가 맞물려 조선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친러 정책을 펼쳤다.

대한제국 탄생

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이후 고종은 신변에 위협을 느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아관파천) 아관파천 이후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이 커지자 조선의 자주독립을 원하는 여론이 들끓었고, 고종은 다시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로부터 6개월 뒤 호를 광무로 정하고 대한제국 정부수립을 선포했다.

러일전쟁과 조선'보호국'화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은 끝내 '러일전쟁'으로 나타났다. 1904년 2월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인천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함대를 습격하고, 요동반도의 뤼순 항을 기습 공격했다. 전쟁의 승세를 타고 조선에 식민지 기반을 닦아가던 일본은 많은 전쟁 비용으로 인해 전쟁을 오래 끌 수 없었고,

러시아도 '2월 혁명'을 앞둔 불안정한 국내 정세 때문에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다. 일본은 미국에게 중재요청을 보냈고 동맹국 이었던 미국과 영국은 극동(중국, 일본 한반도등)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일본이 조선에서 탁월한 세력을 유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하여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승인해주었다. 이후 러-일 두나라는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조치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포츠머스조약을 맺었다.

한일합방과 3.1운동

1910년 8월 29일 일제는 을사늑약을 토대로 강제로 조선을 '병합'한 뒤 일제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한 학생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대대적인 만세시위가 펼쳐졌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3.1운동을 앞뒤로 나라 안팎에서 독립운동을 총괄하여 지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깨달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1919년 2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대한국민의회가, 상하이에서는 신한청년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세워지는 등 여러 조직이 생겨났다. 자연스럽게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해 9월에는 상하이에서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이 되었다. 임시정부는 수립 이래 파리강화회의와 태평양회의를 향한 외교운동,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 정부를 향한 외교운동에 큰 힘을 기울였다.(파리강화회의와 태평양회의)하지만 강대국들의 이익재조명과 일본의 방해 때문에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임정의 이러한 외교활동이 번번히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임정의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갈등이 펼쳐졌다. 임정의 외교활동을 비판하며 독립전쟁을 주장해온 민족주의자들과 무장세력들은 임정의 활동방향을 바꿔야한다며 주장하며 국민대표회의를 열었다. 결국 회의는 결렬되었고 그 뒤 임정은 나라 밖에 있는 수많은 독립운동단체 가운데 하나로 전략하고 말았다.

사회주의세력의 등장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은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의 민족해방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러시아 10월 혁명)1919년 3.1운동에서 민족주의세력이 보여주었던 무기력함에 실망한 국내민중은 해방을 이끌 새로운 사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러시아혁명과 국제혁명운동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가 국내에 수용되었다. 3.1운동이후 민중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일제의 식민통치에 따른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깊어지며 사회주의가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조선공산당등 사회주의 활동 당들이 창당되었다.

2. 해방정국

해방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갈 무렵 1945년 미국은 일본에 두 개의 원자폭탄을 투하했는데, 8월 6일 히로시마 시에 한 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렸고 8월 9일 나가사키 시에 나머지 한 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투하라고도 한다. 이후 일본은 8월 15일 연합국에게 항복을 선언했고 조선은 해방을 맞이하였다.

정치세력의 분립과 통합운동

오랜 세월 식민통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스 1945년 9월 12일자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을 단 한명도 살해하지 않을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치안의 유지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에 참여하였다. 해방과 함께 한국민의 정치참여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많은 정당 및 사회단체가 생겨났다. 1945년 11월 1일 당시 미군정청에 등록된 수만 해도 무려 250여개에 달하였다. 민중과 민족해방운동 세력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활동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으로 모아졌다.

민중은 전국 곳곳에서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새로운 세상의 기틀을 다지려고 여러 운동을 벌여 나갔다. 노동자들은 일제의 파괴행위를 막고 생산 활동을 계속하려고 공장을 관리하는 자주관리운동을 벌였다.

-자주관리운동-

1945년 해방 직후 전국 각지에서 주민들에 의한 인민위원회가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되면서 일제 소유의 공장 및 생산기관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노동자)자주관리운동’이 일시적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당시 일본인 자본가를 대신하여 공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므로, 자주관리운동에 많은 노동대중이 참여하였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용산공장, 조선피혁 등 등 영등포 지역 공장노동자들은 사택과 사무실에서 일제와 일제 자본가들을 상대로 금고와 창고 열쇠를 빼앗아 냈다. 또 조선인쇄주식회사 노동자들은 1945년 9월 11일, 일본인 지배인이 회사 자본을 몰래 빼내려 하자공장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직장을 접수하는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화순 탄광에서도 노동자들이 직장관리자치위원회를 만들어 탄광을 관리했다. 이때 직장관리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노동자는 1989년 4월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해방되니 일본놈들 두말 못하고 쫓겨갔제. 압박받고 살다 우리 세상 되니 만세도 부르고 좋아서 죽고 못 살았구만, 서러움 그만 당하고 우리도 좀 살아 보자고 맘먹고 직장관리자치위원회를 마로 맨들었제. 금께로 우리가 탄광 주인이 된 것 이었구만. 방대한 운영체계를 이끌었던 일본인이 일순간에 없어지니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곧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어. 실무 일을 거의 모두 한국 사람들이 해왔었기 때문에 금방 질서가 잡혀 오히려 일제 때보다 생산량이 더 늘어났어.’[말, 1989.4월호]

이러한 움직임들로 보아 해방당시에는 모든 민중들이 한 뜻으로 합쳐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한 건국위원회

이러한 흐름을 타고 제일 먼저 주도권을 쥔 쪽은 좌익세력들이었다. 해방되기 전 8월, 조선총독부는 자신들의 신변이 걱정되었고 당시 조선민중에게 신망을 얻고 있던 여운형에게 교섭을 요청했다. 일본의 패망을 확신하며 건국동맹(함께보는 한국근현대사, 역사연구소 저 255쪽)을 결성한 여운형은 3개월분의 식량 확보, 모든 정치, 경제범 석방 및 조선인민 활동 간섭금지 조항을 내걸고 교섭에 응하였다. 해방이후 여운형은 자신이 조직했던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건국준비위원회(건준)를 결성했다. 건준은 여운형을 위원장 안재홍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치안회복과 질서유지를 위해 지역별, 직장별로 건국치안대를 조직하고, 식량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1945년 8월 16일 창설된 건국치안대에 약 2천 명의 청년과 학생이 참여했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방치안대를 조직하려고 지방으로 내려갔다. 건준은 친일파와 부일협력자 등을 뺀 모든 정치세력이 참여한 민족연합전선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건준에는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언론인뿐만 아니라 지방유지와 지주까지 참여하고 있었다. 우익 성향을 지닌 인물까지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건준의 활동이 질서 유지 차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건준은 이러한 내부구성 때문에 정치적으로 통일하기 어려웠지만 민중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 미군정이 들어서기 전까지 실질적인 행정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처음 민족연합적인 성격을 띠었던 건준은 차츰 좌익세력이 주도권을 쥐며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파를 대표했던 건준의 부위원장인 안재홍이 건준에서 공산주의세력이 강화되자 건준을 탈퇴했다. 우파 정치세력이 탈락한 뒤에 건준은 사회주의세력이 주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공)으로 전환된다.

좌익과 우익의 구분

1) 좌익과 우익의 유래

프랑스 시민혁명(1789~1799) 당시, 국민 공회에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지롱드당이 의장석 오른쪽 자리에, 급진 개혁을 주장하는 자코뱅당이 왼쪽에 앉은 것에서 좌익과 우익의 말이 생겨났다. 그 이후 급진적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정당을 좌익이라 하고, 온건적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정당을 우익이라 칭하게 되었다.

2) 해방정국에서 정치세력 구분

해방정국에서 좌우를 구분 짓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일제잔재의 근절과 친일파 제거, 미군정과 의 관계,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좌우익의 구분을 짓는데 용이하다. 어떠한 차이를 보였는지는 각자 좌우익의 사람들이 건국을 위해 어떠한 노선을 걸어왔는지 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우익세력의 활동

한국민주당은 건준의 독주를 막기 위해 민족주의 우익세력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당 지도층의 대부분이 일제하의 대지주 기업인 조선총독부의 관리나 이른바 기득권을 가진 보수 세력으로 자연히 그 이념과 성격은 보수적 정치세력이다. 한민당은 건준이 조선총독부와 협의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을 들어 일본제국주의에 앞잡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8.15 해방은 민족의 독립운동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이 독립운동의 결정체가 임시정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임정을 중심으로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우익세력은 이승만이 귀국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1945년 10월 16일 가장 일찍 귀국한 이승만은 국외 독립운동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는 귀국한 뒤 좌, 우익을 자신이 앞장서 통일할 목적으로 10월 23일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결성했다.(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 역사연구소 저, 265쪽)

처음 이승만은 이 조직에 조선공산당을 참여시키려고 좌익세력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리하는 문제로 대립하게 되었다. 이승만은 무조건 단결하여 나라를 세운 다음 친일파를 처단하자고 주장하고 토지개혁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많은 우익인사와 정치세력들을 끌어 모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내세운 김구와 한국독립당도 해방정국에서 주요한 정치세력이었다. 김구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해방정국에서 여러 정파를 통합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은 1947년 말까지 이승만과 한민당의 반공적인 현상유지 정책에 동조했으며, 좌익정치세력과의 연합을 거부했다. 1948년 분단이 확정되어 가던 때에야 한민당 세력과 결별하고 좌익세력과 연합하려 했으나 때는 늦은 일이었다.

좌익세력의 활동

좌익세력은 한민족의 주관적인 능력이 아니라 연합국의 승리가 해방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파악했으며, 어느 한 국가의 문제는 세계문제의 해결과 분리 고립시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문제도 국제정세와 연관시켜 해결하려는 입장이었기에 동유럽의 사회주의화현상을 세계적인 추세로 받아드려 한반도에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정부를 수립하려 했다. 그 첫 출발이 인공의 수립 선포였다. 이들은 연합군이 상륙하면 대외적으로 연합군과 교섭할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부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기왕에 정부를 수립한다면 추세에 맞는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좌익진영은 일제 치하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 가장 많이 투쟁한 계급은 국내에 있던 노동자와 농민이기 때문에, 이들 국내 혁명세력을 중심으로 하고 해외 혁명단체를 받아드려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방 직후 좌익진영은 우익에 견주어 민중의 지지를 크게 받고 있었다. 일제 말까지 변절하지 않고 계속 저항했던 사회주의자들은 친일파가 많았던 우익진영에 견주어 도덕적 우위를 지키고 있었다. 또 당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이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한 사회주의자를 지지했기 때문이었다. 좌익세력은 1945년 9월 11일 박헌영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조공)을 결성했다. 조공은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되고 모든 진보세력이 참여한 민족통일전선(노동단체의 결집연합)을 바탕으로 하는 인민정부를 세우려 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부를 세우려 한 조공은 이승만, 임정과 협상을 실행하였으나 당시 이승만은 '선 통일 후 친일파 제거'를 협상원칙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협상은 실패로 끝이 났다.

미군정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자본주의를 발판 삼아 크게 성장한 미국은 전쟁이 끝난 뒤 경제위기를 맞았다. 미국 내에서는 전시경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생산기반이 흔들렸고,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13개국이 자본주의 진영을 벗어나 사회주의 진영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상품시장을 잃어버릴 위기에 부딪혔다. 이에 미국은 잃어버린 세

계시장을 되찾고 식민지에서 해방된 신생국가에서 사회주의가 뿌리내리는 것을 막아 자본주의 질서 속으로 편입시키려 했다. 따라서 미국의 세계정책은 반공, 반혁명을 통해 세계자본주의를 재편하는 길로 나아갔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전쟁 뒤 식민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제주의’라는 운동의 명목 하에 나타났다. 여기서 국제주의는 개별 국가의 이해를 초월하여 민족, 국가 간의 협조나 연대를 지향하는 운동을 말한다. 미국은 해방이전 한반도 평화해결의 일반적 방침으로 신탁 통치 안을 마련하고 연합국 회담에서 영국, 중국, 소련으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고 했다. 하지만 영국, 중국, 소련은 한국의 독립에 동의를 표했을 뿐 미국의 제안에는 정확한 합의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은 1945년 2월 세계 2차 대전 끝자락에 열린 얄타회담에서 당시 참전국 중 강대국이었던 미·영·중·소가 20~30년 동안 한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한국의 신탁통치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렇듯 미국은 ‘국제주의’원칙 아래 소련의 협조를 받아 한반도 전역에 친미정부를 세우려고 했다. 해방 이전 소련 역시 한반도 지역에 특별한 관심이 많았다. 소련은 한반도가 극동(한국, 중국, 일본 등)을 기점으로 삼아 소련에 압박을 가하려는 어떤 강대국의 전초기지로 전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독립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강렬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해방 후 한국정치는 이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두 강대국의 점령이라는 상황 속에서 전개되어 나갔다.

미군정과 좌우익의 이해관계

미군은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했다. 바로 전날인 9월 7일 맥아더 장군은 포고문 제1호에서 “점령군에 대한 반항운동이나 질서를 교란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이 무렵 국내 정치는 우익보다는 좌익세력이 득세해 정치를 이끌고 있었으며, 좌익세력은 건준을 인공으로 바꾸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던 시기였다. 미군정은 남한에 군정 실시를 선포한 데 이어 1945년 10월 10일 미군정은 남한에는 미군정이라는 ‘단 하나의 정부가 있을 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곧 인공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뜻했다. 미군정은 남한 혁명세력을 제거하고 남한 사회질서를 자신의 뜻에 맞게 만들려는 현상유지 정책을 펴 나갔다. 자발적으로 치안업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하던 건준의 치안대등 각종 단체들이 경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의 총독부에 관여했던 관료들이 재등장하기 시작했다. 미군정은 일제의 식민지배에 협력했던 친일관료, 식민경찰 등 부일협력세력을 군정청에 고용했으며 일재에 협력한 경력을 가진 이들은 미군정의 보호를 받아 다시 기득권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단적으로 1946년 당시 군정경찰의 경우 간부 82%가 일제경찰 출신이었다.

직위	1946년 총수	친일경찰출신	비율(%)
치안감	1	1	100%
청장	8	5	63%
국장	10	8	80%
총경	30	25	83%
경감	139	104	75%
경위	969	806	83%

(출처 : 윌리엄 맥건이 ‘한미회의’에서 한 보고 1946.11.1)

특히, 이들의 일부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현상개혁 내지 기존의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세력을 철저히 탄압을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군정은 일제 강점기를 답습한 꼴이 되었고 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미군정은 1945년 12월 6일 법령 제33호를 공포하고 조선에 있는 일본인 재산을 ‘적산’ 즉 적의 재산으로 규정하여 군정청 소유로 삼았다. 민중은 미군정이 일본인 재산을 적국의 재산인 적산으로 규정한 것에 거세게 반대를 했다. 민중은 일제의 재산이랑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착취한 것이므로 우리 민족의 재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법령으로 해방 뒤 민중이 스스로 일제와 일본인을 상대로 벌였던 자주관리운동이 불법화 되었다. 1945년 해방 뒤 자주관리운동으로 인해 생산량은 일시적으로 올라갔으나 그 허실이 금방 들어났다. 해방이 되고 일제가 물러나자 조선경제는 생산이 많이 줄고 물가가 오르는 등 커다란 혼란에 빠졌다. 조선경제를 지배해 온 일본자본이 철수하고 기술마저 부족한 상태여서 공업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농민과 노동자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이들의 생존권 투쟁이 활발히 벌어졌는데 이것은 9월 총 파업과 10월 인민항쟁으로 드러났다. 9월 30만여 명이 참가한 노동자 총파업과 10월 200만여 명의 인민항쟁에서는 처음에는 '점심지급, 임금인상' 등의 구호를 내걸었으나 나중에는 '정치범 석방, 테러행위 배격' 등 정치적인 요구도 같이 내세웠다. 이에 미군정은 경찰, 우익 테러리스트단체를 동원해 파업을 진압하였다. 10월 인민항쟁은 남한의 주요 도시와 농촌으로까지 번져 60일 남짓 계속 되었으나 전국적인 계획이 없어 고립된 투쟁을 벌이다가 마침내 실패하고 말았다. 10월 인민항쟁을 계기로 미군정은 지방인민위원회를 거의 다 분쇄하는 한편, 사회주의 세력을 더욱 탄압했다. 미군정이 사회주의세력의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자 이들은 지하로 몸을 숨겼다. 미군정의 도움을 받아 반대세력을 물리친 우익은 이제 힘에서 좌익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렇듯 미군정은 처음부터 좌익과 민중의 중심으로 진행된 국가건설운동을 철저히 탄압하고 일본의 식민통치 협력했던 관료계층과 보수정치세력을 자신의 동맹자로 키워 나갔다. 이를 통해 남한에 자본주의체제를 세워 반공기지를 만들려고 했다. 결국 미군정은 8.15 해방 뒤 친일파를 청산하고 민족경제를 확립하여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던 우리 민족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와 좌우익 대립

해방 후 좌우익은 세부적으로는 의견과 노선이 달랐을지는 모르나 그래도 궁극적으로 '자주독립'을 위해 서로 이합집산을 보이며 활동을 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양극화되며 분열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동아일보 신탁통치 오보 사건'으로 인한 신탁통치에 관한 의견 대립이었다.

미국의 기본입장은 한반도가 열강들의 이해가 상충하는 지역이므로 일국에 의한 지배를 막기 위해 연합국에 의한 신탁통치 또는 국제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영·소·중 대표들이 사법, 입법, 행정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신탁통치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소련은 한국의 정당,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한 다음 이를 통해 4개국 이원조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1945년 12월 28일 미·소는 모스크바 결정안을 확정했다. 모스크바 결정안의 핵심은 조선을 독립국가로 만들려면 먼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임시정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돕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신탁통치는 새로 수립될 임시정부와 협력하여 최대 5년 안에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신탁통치안

1.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임시적인 한국민주정부를 수립한다.
2. 한국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미,영,소,중 의 4개국 이 공동 관리하는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세부내용

- 조선인민의 민족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취할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 조선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남조선 합중국 관구, 북조선 소련 관구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그들의 제안 작성에 있어 그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조선 국가독립의 수립을 원조 협력(신탁통치)할 방안을 작성할 것도 또한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 및 조선민주주의 단체의 참여하에 공동위원회가 수행할 과업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개년 기간의 4개국 신탁통치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 영, 소, 중 제국 정부의 공동 짐작에 이바지하도록 임시 조선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출처 : 위키백과)

세부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신탁통치는 새로 수립될 임시정부와 협의 하에 최대 5년을 기한으로 하는 신탁통

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협의에 따라서 신탁통치는 임시정부가 거부하면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조항이었던 것이었다.

동아일보 신탁통치 오보사건

신탁통치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민당(한국민주당)의 기관지(기관 잡지 및 신문)라 할 수 있는 12월 27일 '동아일보'에서 "소련은 신탁통치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주장"이라는 내용으로 모스크바 회의의 한국 관련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이는 기본적인 사실부터 왜곡한 오보였는데 애초에 신탁통치안은 미국에서 처음 식민지 처리방안을 위해 만든 방안이었다. 게다가 미국은 처음에는 50년을 주장할 정도였다. 통치의 주체를 임시정부로 둘 것이냐, 4대국 협의체로 둘 것이냐는 문제도 소련의 입장이 승리해 임시정부가 주체가 되는 것이 승리했으며, 애초에 모스크바 회의의 본질은 신탁통치가 아닌 임시정부 수립이었다. 모스크바협정의 소식이 전해진 45년 12월 28일 이후 좌우파를 막론한 모든 정치세력들은 신탁통치에 대한 강한 반대태도를 표명하고 나섰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안 전문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한에서는 이미 반소분위기가 팽배해졌고 우익은 대중의 민족감정을 이용해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드세게 일으켰다. 우익은 모스크바 회의에서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한 것은 조선을 소련의 연방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선전하는 동시에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는 자는 조국을 소련에 팔아먹으려는 매국노라고 공격했다. 이같이 우익은 '모스크바 결정 = 신탁통치 = 소련의 적화야욕'이라고 선전했다. 이 과정에서 반탁대열에 적극나선 부일협력세력들은 민족감정에 편승하여 하루아침에 애국자로 편승했다. 좌파 및 공산당은 처음에는 같이 반대를 하였으나 모스크바 결정안의 중심내용은 신탁통치가 아닌 정부수립이었기에 1946년 1월 찬탁으로 입장을 돌아서는 입장을 발표했다. 모스크바 결정 안은 조건 없이 곧바로 독립하기를 바라는 대중의 정서에는 맞지 않았다. 일반대중은 신탁통치가 한국이 '제 2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라 생각 했으며, 자치능력이 없어서 신탁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좌익의 찬탁논리는 일반 대중을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오보의 원인 추정

일단 모스크바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터진 오보이기에 동아일보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당시 미국의 신탁통치 정책은 국제적으로도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에게 알려져 있어 이런 오보가 나올 이유가 없었다. 일각에서는 배후를 미군정으로 의심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도 그 당시의 미군정은 언론을 철저히 검사했으니 최소한 오보를 용인한 것은 분명했다. 미군정을 배후로 본다면 소련에 의한 견제를 목적으로 그랬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장 강력하다. 당시 신탁통치는 대중들에게는 절대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원래 일제청산을 위한 민족운동이 주된 운동이었다면, 신탁통치 오보 이후에는 친탁=친소=매국, 반탁=반공=애국이라는 이념 갈등이 주된 프레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자본주의를 세우려 했던 미국의 의도와 이해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 정확한 원인추정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다.

당시 한국인들의 일반적 정서는 그 어떠한 것도 독립의 열망에 우선할 수 없는 분위기였기에 좌익의 모스크바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은 그 속에 담긴 내용과는 상관없이 신탁통치를 지지한 것처럼 비춰지게 하였으며, 이 속에서 좌익세력들은 점점 지지기반을 잃게 되었다.

남한정부 단독수립

모스크바의 결정안을 둘러싸고 좌우익이 대립하는 가운데, 1946년 3월 20일 서울에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미소공위는 임시정부 구성을 두고 어느 정당과 단체를 회의에 참여시킬 것인가를 놓고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소련은 모스크바 결정 안에 반대하는 정당, 단체와는 협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구실로 소련 측 주장에 반대했다. 협의대상 문제에서 비롯된 미·소의 의견 대립은 그 뒤 소련이 한발 양보하여 '지금까지 반탁투쟁을 해 왔어도 모스크바 회의 결의에 지지하는 사인을 하면 임시정부를 수립하

는 협의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내용으로 타협을 봤다. 회의기간 내내 우익의 반대와 미·소의 의견대립으로 결국 결렬이 되었다. 미소공위가 결렬되자 남한에서는 테러와 반소·반공 분위기가 더욱 높아졌다. 지방을 돌고 있던 이승만은 1946년 6월 3일 ‘정읍 발언’을 통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될 것이다.”

(서울신문.1946.6.4. 출처 :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 역사연구소 저)

미·소는 1947년 제2차 미소공위를 다시 한 번 열었으나 결국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참여대상을 가지고 결렬되었고 이에 미국은 한반도 남쪽만이라도 친미정권을 세우려 했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넘김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려 했고 결국 미·소 합의로 독립 국가를 세우려 했던 모스크바 회의 결정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1948년 1월 8일 유엔이 남한에 들어왔으나 소련과 북한은 “미·소 양군이 철수한 뒤에 자주적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임시위원단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고 미국은 다시 남한만의 선거를 실시하자는 안을 내놓아 남한단독선거날짜는 5월 10일로 정해졌다. 극우세력을 뺀 모든 세력이 반대를 하였으나 미군정은 선거를 성공시키려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쌀 배급표를 주지 않는 다거나 ‘빨갱이’로 모는 등 온갖 방법으로 협박했다. 결국 이해 5월 3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였다. 7월 20일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을 뽑아 8월 15일 남한단독정부수립을 선포했다.

해방정국이 오늘날 정치에 끼친 영향

해방정국에서의 미군정을 통한 좌익의 탄압은 결국 공산주의=매국노라는 프레임을 낳았다. 남북간의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정부 수립은 이미 한국전쟁의 불씨를 잉태하고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단독정부수립과 동족잔杀的 전쟁 6.25가 일어나며 그 프레임은 남한에서 더욱더 견고한 입지를 가지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반공은 남한에서 선악을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반공이데올로기로 인해 빨갱이라는 명분 하나만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학살되고 살상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제주 4.3사건과 그에 이은 여순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빨갱이라는 반공산주의 프레임은 한국의 독재정치 강화에 무수히 사용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중요한 정치쟁점을 덮어버리고 애국, 매국으로 가는 도구로 사용이 된다.

1. 레드컴플렉스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는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되어, 진보주의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거나, 빨간색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극단적인 반공주의를 가리킨다. 6.25 전쟁이후 반공교육에서 붉은색을 공산주의나 혁명성을 나타내는 색깔로 삼고 북한과 공산당을 묘사할 때 ‘빨갱이’라고 비하해서 불렀다. 레드 콤플렉스라고 불리는 반공 이데올로기는 반공이라는 국시와 국가보안법이라는 강력한 반공법과 더불어, 분단 이후의 대한민국 사회 모든 영역에 침투되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왔으며 대한민국에서 노동 운동이 태동하던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노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을 동일시하였다. 그로 인해 혁신을 주장하는 진보주의 정당의 활동도 좌파에 대한 사회 전반의 거부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빨갱이는 남한 내에서 반정부, 친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정치에 대한 논쟁을 덮어버리고 색깔론으로 친북인지 아닌지가 우선이 되게 하는 색깔론으로 변질되게 한다.

2. 레드 콤플렉스 사례

1) 국가보안법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

제 1조 1항을 보면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국가보안법도 레드 콤플렉스가 변환된 것 중 하나이다. 해석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상을 억제하는데 악용이 되었다.

국보법 적용사례

1970년에 서울의 어떤 달동네 서민은 재개발로 집을 강제 철거당하게 되자,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서 철거반원들을 향해 “이 김일성보다 더 나쁜 놈들아!”이라고 내뿜은 것이 화근이 돼 반공법 제4조 1항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유인 즉슨, "북괴에서는 대한민국보다 나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되고, 그 곳에 가서 살아보겠다는 의사도 내포됐다 할 것이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2) 중복 혹은 공산주의자 혐의 덮어씌우기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이사장**...언론노조가 고발

노컷뉴스 43분 전 네이버뉴스

언론노조가 문제 삼은 것은 **고영주 이사장**의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 발언.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신년하례식에서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면..."

↳ **고영주 이사장**, 공직선거법 상 '허위...' 미디어스 | 3시간 전

↳ **언론노조, 고영주 이사장** 공직선거법... 뉴시스 | 5시간 전 네이버뉴스

관련뉴스 전체보기 >

중복 혹은 공산주의자 혐의를 씌우는 것도 레드컴플렉스 중 하나이다. 중복발언을 하면 당사자는 중복이 아니란 것을 증명을 해야하고 원래의 쟁점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결국 머릿속에 남는 건 중복혐의를 받은 당사자에 대한 의심만 남게 된다.

3) 빨갱이



이승환

11월 3일 오후 1:45

이게 그네들의 수준... 피식...

*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모양.



andrewhong2

15. 11. 3. 오후 1:39

@rkddb 반국가 선동의 선봉에 섰던
중복 가수 신해철이 비참하게 불귀의 객
이 됐다 다음은 빨갱이 가수 이승환 차례
이다

빨갱이도 레드컴플렉스 중 하나인데 국가가 하는 일에 반대를 하면 반국가 행위이고 그것은 곧 매국을 하는 일. 매국은 중복이며 중복은 빨갱이 공산주의자라는 놀라운 논리가 적용된다.

레드컴플렉스 극복방안

그렇다면 6.25를 겪은 세대는 그 시절의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 반감을 가질 수 있다. 6.25당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었으며 당연히 반공, 간첩에 대한 맹신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득권은 6.25를 겪은 그 다음세대, 다음다음세대이며 어쩌면 6.25와는 거리가 먼 세대들이다. 하지만 아직도 그 색깔론이 유효한 까닭은 무엇일까? 전쟁의 여파를 벗어나기에는 60년이라는 기간은 아직도 짧은 것일까? 어떠한

사람은 북한이라는 가상의 적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통일이 되어야 없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초등학교 운동회의 청군 홍군이 청군 백군으로 바뀐 것도, 경사 때 부조에 붉은 봉투를 사용하다 상가집 부조에 나 쓰이던 흰 봉투가 결혼식, 회갑연 등의 부조에 쓰이게 된 것도 모두 레드 콤플렉스 때문이었다. 상점 간판에조차 붉은 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종북 = 빨갱이 = 국가전복세력이라하여 빨간색마저도 무서워 한 우리나라는 2002년 월드컵 당시 붉은 악마라 하여 온 국민이 빨갱이로 대동하는 모습에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지난달 17일 “붉은 악마로 상징되는 한국의 월드컵 열기가 지난 수 십 년간 한국 사회를 억눌러온 ‘레드 콤플렉스’로부터 한국을 해방시켰다”며 “이제 붉은색은 한국을 상징하는 미래의 색깔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로 보아 시간이 어느 정도의 전쟁의 공포와 아픔을, 한국인을 레드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질의응답 및 토론

[1강]

-민주주의에서 열정과 강도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분명 많다 (예 : 조별과제)

민주주의에서 열정과 강도의 평등을 외치다 자칫하면 개인의 사정은 무시가 된 극단으로 된 평등주의로 변질 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열정과 강도의 차이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목소리 큰 사람’, 힘센 소수로 부터 자유로운가

-석원 : 개인차가 있는 것이니 해결 방안이 있을지 모르겠다. 어딜 가나 하는 사람은 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하는 거 같다.

-민수 : 민주주의는 조별과제처럼 과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 것과 조금 다른거 같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과제가 없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더 안하는거 같다.왜 민주주의가 중요한건지를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경 : 민주주의를 위한 법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인육 : 학교에서도 항상 마주하게 되는 문제인거 같다. 항상 하는 친구들만 하고, 안하는 친구들은 안한다. 탁월한 리더,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구성원이 되는게 더 어려운 거 같다. 좋은 구성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지금도 항상 마주하고 있는 문제이고 앞으로도 마주하게 될 문제인데 뚜렷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모르겠다.

-상현T : 주변에 영향은 누구나 받을 수 밖에 없는 거 같다 10명이 모여서 9명이 다른 얘기를 한다면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서 점점 자유로워지려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과정은 있는 거 같다. 완전히 벗어날 순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함으로써 조금 자유로워지는 거 같다.

정치 무관심은 과연 올바르지 못한 것일까

-그렇다면 모든 정치현안에 눈을 뜨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정치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어느 정도 일까)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의 순서라는 것이 있을까

-별 : 아직 청소년이지만 이제 곧 사회로 나가게 될 테니 지금 당장 일을 하진 않아도 앞으로 하게 될 일의 노동조건을 알아본다던지? 자기중심에서 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거 같아요, 우선 내 눈앞에 있는 것들로부터 나를 연결시키고 점점 넓혀나가야 한다.

-참가자1 : 반쯤은 무관심 한 거 같다.

학교에서만 봐도 회장 부회장을 뽑을 때 서로 깎아 내리고 하는 것이 너무 지겹고 싫어서 무관심 해 지게 되는

거 같다. 그래서 무관심 한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참가자2 :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것들도 정치와 연관이 있다고 배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일이라 생각한다.

-참가자3 : 학교나 사회에서 힘이 센 소수가 장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도 합리화 시키고 무관심 해졌던 거 같다. 하지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자기중심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참가자4 : 정치 무관심이 다르게 보면 중립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저는 정치에 중립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찌되었건 누군가를 지지하게 될 텐데 그럴 거면 제대로 알고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VS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지 않았다면 정치에 관심을 줬을 것
-어느 블로거-

자신의 생각은

-참가자1 : 저질스러운 지배자든 저질스럽지 않던 지배자든 따르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지배하는 사람들이 저질스럽게 바뀌는 거 같다.

-참가자2 : 우리가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정치적 관심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현선 :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해서 무관심해 지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 분노하는데도 변하는 게 없으니까 무기력해 지는 거 같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산 : 둘 다 같은 말인 거 같다. 정치에 있어서 스스로 관심을 많이 가지지는 않는 거 같다.

[2강]

질의응답

-인옥 : 해방이후에는 어쨌든 체제가 없어졌었는데 근데 두 개가 새롭게 체제를 만들어 나가게 된거잖아 근데 왜 우익이 민주주의를 뜻하고 좌익이 급진적으로 개혁을 한다고 해서 사회주의를 뜻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요.

-소윤 : 우리나라 왕정주의가 끝난 거는 일제 시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왕정주의가 없어지고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있고 행정기구가 있는 방식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정부 체제와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의 운영체제가 당시 미국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우익세력이 되는거고,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좌익이라고 제가 이야기 한 거였어요.

-수자T : 질문이 아니라 조금 얘기가 오가기 전에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 게, 여기 친구가 질문한 내용에서 민주주의냐 왕권이나 라고 하는 것은 정치체제의 구분이고 근데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라고 하는 것은 경제 체제의 구분이기 때문에 왜 우익은 민주주의를 고수 했고, 좌익은 사회주의를 고수했냐는 질문 자체가 조금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옥 : 질문을 잘못했어요. 왜 우익이 자본주의고 좌익이 사회주의를 택했는지를 질문하고 싶었어요.

-준상 : 그당시 우익 세력들은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단체가 한국 민주당인데 그들은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 개혁을 하긴 해야 하지만 조금 온건한 방법을 택하려 했죠. 그래서 우익 세력이라 했고, 좌익세력은 탄압을 받고 있는 민중들이었기 때문에 평등한 환경을 주장했어요. 이전까지는 평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급진적 개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좌익 세력이

라 이야기 하는거예요.

-수경 : 지금 보면 우익은 보수파고 좌익은 진보파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나라 정권은 지금 보수가 잡고 있으니 우익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진보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사회주의의 색을 가지게 되는 건가요?

-준상 : 아까 1강에서 이야기 했듯 2012년 대선 공약들을 보면 두 정부가 주장하는 점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어떤것들을 더 지키고 덜 지키냐의 차이인거 같은데 이때까지 보여줬던 모습들로 봐서는 저도 잘 예상이 안가요.

-지민 : 좌익이라던가 사회주의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주의 중에서도 급진적으로 사회주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회 민주주의가 있거든요. 그냥 어떤 정당이, 어떤 사람이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같아요.

-김준상 : 지금 우리나라가 지역마다 색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상도는 항상 보수고 전라도는 항상 진보잖아요. 그렇게 된 계기가 뭔가요?

-준상 : 그 이야기를 하려면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그 뒤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데 죄송하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공부하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빨갱이가 어디서부터 만들어 졌는지', '왜 정착하게 되었는지' 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도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수자T : 저는 보수나 진보나 하는 것들이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를 좌파라고 이야기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진정한 보수라고 읽어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보수는 우익, 진보는 좌익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영,호남의 문제도 사실 지역 감정을 부치기는 경향이 있긴 한데 지금까지 다수의 정권을 경상도 쪽에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야당의 역할을 해 왔던 호남이 여당의 입장에서는 계속 무언가를 갈구하고, 요구하고, 제안하는 세력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진보적이다, 빨갱이다, 라고 공격을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보가 다 좌익좌파다, 보수가 다 우익우파다 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앞서 토론자가 이야기 한 것처럼 정치사상이나 체계에 대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입장을의 차이도 스펙트럼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참가자1 : 아까 전에 동아일보 오보가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동아일보에서는 사과를 했나요?

-준상 : 만약 동아일보에서 사과를 한다면 자기들이 분단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과는 아마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부할 때도 사과를 했다거나 인정을 했다는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김준상 : 레드콤플렉스와 2002년 완화되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다시 심해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상 :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잖아요. 레드 콤플렉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게 박정희 정권이예요, 이 박정희의 사상이 박근혜 에게도 그대로 답습하고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국정교과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정권을 잡은 것으로 인해서 레드 콤플렉스가 심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정답은 아니예요.

2부, 경제성장의 그늘을 바라보다

-경제성장이란 미명아래 용인 된 독재

1. 개요

오늘날 우리는 박근혜 정권 아래서 살고 있다.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수만 가지 사건사고들, 평범한 일상들, 나를 행동하게 하는 생각들. 당장 내 삶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영향을 받거나 연결되어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그냥 눈앞에서 벌어지고 지나갈 뿐.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내가 어디를 딛고 서 있는지, 그것

을 닫기까지 어떤 역사들이 모아졌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엔 박근혜를 알고자 박정희 시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사회에서 평가가 극으로 나뉘게 된 '근대화'의 역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알고 싶어졌다.

2. 목적

근대화가 이뤄진 독재시기에 대한 평가는, 인권유린과 민주주의 억압이 끊이지 않았지만 경제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에 면죄해준다는 식의 생각이 지배적이다. '경제성장'은 만능부적과 같은 걸까? 독재시기 '경제만능주의'가 알을 낳아, 오늘날에도 돈, 경제, 물질의 논리는 그 어느 것보다도 앞서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샌가 나와 사회에 스며든 경제만능의 논리가 당시와 어떻게 이어져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강의에서는 헌법유린과 인권탄압 등 모두가 알고 있는 독재의 잘못된 역사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제성장의 성과에 대해서 바라보고자 한다.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는 '근대화'의 이면에서 우리가 잃은 가치들은 무엇이었는지 들여다보고, 그 성공과 잃어버린 가치의 영향이 우리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본다. 이를 통해 잃지 말아야 할 가치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다.

3. 목차

1. '조국근대화'

*근대화라는 것은 뭘까

*박정희의 근대화

2. 경제성장이 요원했던 시기를 지나

*먹고살기 힘들었던 50년대

*안보 : 선성장 후분배론

3. 경제성장의 성과와 그 이면

*농촌 근대화, 새마을 운동

-배경과 시작

-농가소득증대

-농촌환경개선

-농촌은 외면한 '농촌근대화'

-강제와 동의 사이

-농촌에 던져진 메시지

-오늘날의 새마을운동

*수출주도사업

-1억불에서 100억불 수출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성장을 받치던 것들

-저임금 과노동의 노동자들

-농촌인구의 이동, 도시빈민과 철거촌

-선성장 무분배? 빈부격차 심화

*베트남 파병과 중동특수

-배경

-성과와 대가

*가족계획

-1인당 GNP를 올려라

-영향

*오늘날의 경제성장의 논리, 경제만능주의

-용산 참사 등.

1강, 경제성장이란 미명아래 용인 된 독재

1. '조국근대화' 박정희의 근대화

- '근대화'라는 건 뭘까

근대화라는 말은 대체로 두 가지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봉건사회로부터 근대 자본주의사회로 이행해 가는 역사적 전개과정으로서의 개념이요, 다른 하나는 산업화를 토대로 현대사회가 전통사회로부터 어느 만큼 벗어났는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개념이다.¹⁾ 신분지배제도에서 얼마나 개인화 민주화 되었느냐, 산업의 발달로 얼마나 전통적인 생활양식에서 벗어났느냐를 보고 근대화를 이야기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선 근대화 시작에 관한 정설은 없지만, '사람이 하늘이다'고 외쳤던 동학처럼 조선말기 신분제폐지를 향한 움직임이 있었고, 일제식민지와 토지개혁 등을 통해 신분제도는 사실상 없어졌다. 이후 전쟁을 겪고 1960년대부터는 빈곤문제의 해결이 근대화의 첩경이라고 보고 경제발전에 역점을 둔 근대화를 추진했다.²⁾

1) [네이버 지식백과] 근대화 [近代化]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정희의 근대화

우리나라에서 근대화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60년대 들어 박정희 정부가 '조국근대화'를 추진하면서였다. 박정희는 1967년 <승리한 자는 중단하지 않는다> 연두교서에서 '근대화'라는 단어를 19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근대화에 집착했고, 1962년부터 1~3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시행하며 경제성장에 주력한다. 박정권의 근대화전략 연구 논문을 쓴 왕문현은 박정희의 근대화 사상에 영향을 미친 세 가지 요소로 군생 활에서 서방의 근대화사상을 접한 것과 쿠데타 이후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시도, 분단 상황에서의 북한의 경제성장에 대한 견제를 꼽는다.

또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비효율적으로 바라보고 싫어했으며 이는 후에 '한국적 민주주의'를 만들게 한다. 박정희가 말하는 한국적 민주주의란 경제개발을 이끈 그의 행동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으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니 민주주의는 제한하자는 것이다. 당시 국민들 수준도 성숙치 못해 1961년 조사에서는 대학생 중 86%가 서구식 민주주의에 반대할 정도로 국민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사치로 여겼다.

'박정희 신화의 핵심은 근대화, 다시 말해 경제개발이었다. 산업화는 경제적인 것을 특권화하는 과정이었다. 경제가 모든 영역을 압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상승했고, 이는 '경제적 욕망의 정치'가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³⁾

2. 경제성장이 요원했던 시기를 지나

-먹고살기 힘들었던 50년대

1950년대 전쟁을 끝낸 뒤 남한의 생산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되고 농업기반이 무너지며 생활을 유지하기위한 여건들이 열악했다. 남한 섬유공업의 경우 전쟁초기에 건물의56%, 시설의 58%가 파괴되었고,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전력시설은 80%가 파괴된 실상이었다.⁴⁾

해방당시 남한엔 1600만 명, 북한엔 9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추정되는데, 타국에서 온 귀환민과 피난민등의 정착과 베이비붐으로 1960년대엔 2500만 명으로 증가되었다. 인구의 증가는 식량문제와 실업난으로 이어졌는데, 당시 식량난등을 해소해준 방법 중 하나가 미국의 식량 자원 원조였다. 그러나 1954-1959년 사이의 미국원조가 국가예산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았고 그만큼 영향력이 커 이후 유상원조로 전환되자 정세가 흔들리고 곡물 값이 좌지우지 되는 등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은 4.19 부정선거와 맞물려 폭발하고, 이후 등장한 장면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위한 정책들이 실패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었다.

-안보 : 선성장 후분배론

1954년~1959년의 경제성장기록에서 1956년(0.4%)을 제외하면 남한은 매년 5%이상의 성장을 보였으나 전쟁이후 인구수 증가로 인해 1인 소득의 증가는 크지 않다. 그러나 같은 기간(1954~1960년)에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20%에 달했으며, 1960년 북한의 1인당 GNP는 137달러로서 한국 94달러의 1.5배였다. 남한과 대립구도에 놓여있는 북한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한국국민들에게도 경제성장의 열망을 일으켰다. 또한 이는 미국 정치가들이 남한이 북한의 경제를 부러워해 흡수통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오게 했으니⁵⁾ 경제 개발은 정권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했고, 때문에 박정희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며 국민들에게 경제성장을 빌미로 민주주의가 유보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지식인들은 대체로 이에 동의하고 있었는데, 여론조사에 의하면 33%가 찬성하고, 반대한 지식인은 24%였다.⁶⁾

2)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의 근대화 과정 (두산백과)

3) 권보드레 외 <1970, 박정희 모더니즘> p.91 '대중은 박정희의 성공을 욕망했다'

4) 석사논문, 왕문현, 한국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 국가전략 연구, 2015, p.6

5) 한용원, 한국의 군부정치 p.275

6) 한국정신문화원, 1960년대의 사회변화연구 p.198

3. 경제성장의 성과와 그 이면

-농촌근대화, 새마을운동

-배경

1969년 8월 박정희는 수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사업을 돌아보다 경북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마을을 보게 된다. 쓰러진 마을을 복구하며 마을길을 닦고 지붕 개량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든 것을 보고 감동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듬해 1970년 4월 한해대책 지방장관회의에서 '농촌새마을가꾸기운동'을 벌이자는 제안을 하게 된다.⁷⁾

당시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1·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에 국가주도의 수출 지향적 공업화를 추진하여 연간 평균 9%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 벽두부터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 집단과 전태일을 비롯한 산업화과정에서 배태된 노동자, 도시빈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다. 수출지향적정책은 저임금 과노동에 시달리던 도시노동자들과 저곡가정책으로 인한 농촌의 희생을 밑바탕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농가의 호당 평균부채는 1962년 4751원에서 1969년 1만 2518원으로 크게 늘어났고⁸⁾ 71년엔 빚을 지고 있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75.7%에 이르렀다.⁹⁾ 71년 총선에서 여전히 견재한 여촌야도 현상으로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었지만, 농촌의 여당 지지율은 63년과 67년 총선의 67%선에서 71년 총선에서는 58%로 크게 감소했다. 새마을운동은 이처럼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정치적 저항이 농촌으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고, 1971년의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농촌을 강력한 정치적 보루로 재건하는 정치전략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도 했다.¹⁰⁾

-시작

1970년 4월 박정희는 새마을운동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발표한다. 이후 그해 여름, 당시 정치자금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공화당 재정위원장 김성곤이 시멘트업계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고문제를 논했고(김성곤 그 또한 쌍용시멘트의 소유주였다.) 박정희는 30억으로 시멘트 1천만 포대를 사들인다. 70년 10월부터 71년까지 정부가 전국 3만 3256개 행정 리, 동에 시멘트 335부대씩을 지원하면서 본격적인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고, 무상으로 배포된 시멘트는 마을 진입로 확장, 작은 교량 건설, 농가 지붕 개량, 우물 개선, 공동 목욕탕 건립, 공동 빨래터 만들기 등 정부가 예시한 20여개의 새마을 사업에 한정해서 쓰였다. 물자가 귀했던 시절, 농민들은 자신의 자금과 노동력을 더해 마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 한 경우가 많아 기대 밖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박정희의 지시로 내부부가 각 마을 단위의 사업을 면밀히 평가한 결과, 약 3만 5000개 마을 중 1만 6000곳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박정희는 전국의 마을들을 기초, 자조, 자립 마을로 나누어, 성과를 얻은 1만 6000곳에는 마을당 시멘트 500포대와 철근1톤을 지원하는 반면 나머지 1만 8000개 마을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등 차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다.

근면·자조·협동을 기본정신으로 내세운 새마을운동의 공식 목표는 농가소득증대와 농촌 환경 개선, 정신혁명 등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들이 구성되었다.

-농가소득증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의 생활환경은 크게 향상되었다. 1970년에 전기가 들어오던 마을은 전체의 20%에 불과하였으나, 1978년에는 98%로 증가하였다. 정권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의 소득이 늘어나고 나아가 도시보다 잘 산다는 것을 통계로 나타내어 홍보했다. 특히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을 비교해 볼 때, 1970년~73년에는 농가소득이 낮았지만, 74년 이후로는 농가소득이 도시소득을 넘어섰다는 통계자료를 내세웠다.

7) 한홍구, '유신의 다른 이름, 새마을운동', <유신> p.287

8) 한홍구, <유신>(오유석, "박정희식 근대화 전략과 농촌 새마을운동", <동향과 전망>)

9)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1권> p.168 재인용

10) <박정희 정권시기 농촌 새마을운동과 '근대적 국민' 만들기. 고원 논문 p.6

농가소득 상승의 이유는 식량증산정책에 의한 추곡수매(국가나 공공단체가 상품의 가격이나 재고확보를 위해 자유시장을 거치지 않고 농민에게서 곡식을 사는 것)와 이중곡가제(추곡의 수매가격과 시장의 방출가격을 달리하는 것), 그리고 통일벼 때문이었는데, 1960년 한국의 식량난은 곡물수요의 5분의 1을 수입에 의존했고 1970년에는 전체의 3분의 1을 수입으로 해결해야하는 상황이었다. 1970년 한국은 1백만 톤의 쌀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체 쌀 소비량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양이었을 정도로 1970년대를 전후해 양곡수입에 드는 돈이 매년 2억 달러를 넘나들었다. 이에 전경련에서까지 농업 생산량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고미가정책을 요구했고, 1968년부터 고미가 정책이 시행된다. 1968년 애초 7% 인상으로 책정되었던 추곡 수매가 인상률이 17%로 높아졌고 이듬해에는 22.26%까지 올라감으로써 본격적인 고미가 정책이 실시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수출 경쟁력을 위해 저임금·저곡가 유지가 불가피했기에 고미가 정책은 정부가 농민에게서 비싼 값을 주고 곡식을 사서 싼 값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중곡가제가 되었다. 그 결과 고가로 수매하여 저가로 방출하는 데 따른 적자, 즉 양특적자(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1980년도에는 누적 적자가 1조원을 넘었다. 여기에 통일벼로 상징되는 다수확 신품종이 보급되면서 미질은 형편없었지만 생산량이 기존품종보다 40%가 많았던 통일벼를 정부가 고가로 매입하니 농가경제는 상당 수준 살아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1974년에서 1977년 사이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보다 약간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농가소득은 1978, 79년엔 다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보다 낮아졌으며 소득 상승의 근거도 통계적 기만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소득이 1인당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이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대가족이 많은 시골과 핵가족 수가 많은 도시와의 가구소득 비교는 소득차이를 대변해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구별 비교가 아니라 가구원 1인당 실질소득을 놓고 따지면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온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을 앞섰다고 알려진 1977년의 경우 전국 평균 농가의 1인당 실질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소득의 66%에 불과했다.¹¹⁾ 또한 통일벼 흉년으로 농가가 휘청거리는 78년 이후의 자료는 쏙 빠졌다. 사회복지교수 김주숙의 말에 의하면

“유신시대 농가소득은 그야말로 엉터리 발표였다. 농가 소득에는 농업소득 뿐만 아니라 자산 소득까지 다 포함시키면서 도시 근로자 소득은 오직 노동소득(월급)만 포함되어 부동산 소득이나 금융소득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 도시 근로자의 경우, 월수입 31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제외했으면서 농민소득은 300평 이하의 저소득층은 제외했다.”¹²⁾

또한 통일벼로 상징되는 농업 생산 증대책, 녹색혁명은 무엇보다 돈이 많이 드는 농법이였다. 유전자 교배로 인해 재생산이 되지 않는 통일벼 종자를 구입해야했고, 냉해에 약한 벼라 보온못자리용 비닐도 사야했으며, 병충해에 약해 농약과 비료도 더 많이 들어갔다. 이제 돈이 없으면 농사짓기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꾸고, 주택을 개량하고, 농기구와 영농설비를 들이는 새마을운동의 사업 대개가 농민의 경제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간 것도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 농가 소득이 10배 증가했지만 농가 부채 또한 21배 증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분명 소득은 늘었지만 그만큼 빚도 늘어난 것이다.

-농촌환경개선

1970년 당시만 해도 전국의 250여 만 농가들의 약 80%는 초가지붕이었다. 초가집은 벗짚을 엮어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썩기 마련이었고, 이로 인해 갖은 해충들이 들어 살곤 했다. 또한 귀귀한 냄새도 났기에 일년에 한 번씩은 지붕을 갈아야하는 수고로움이 따랐다. 따라서 새마을 운동 초기에는 “초가 지붕을 기와 지붕으로 바꾸는 것이 새마을 사업인 양 생각할 정도로 지붕 개량은 순식간에 전국의 마을에서 전개되었다.”¹³⁾ 박정희의 새마을 담당 특보였던 박진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하여 1975년에는 전국의 거의 모든 농가들의 지붕은 기와나 슬레이트로 바뀌지게 되었으며, 이 지붕 개량

11)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3권> 김주숙의 글 재인용

12) 김주숙, ‘한국 농촌의 여성과 가족’ p79~81

13)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 1권>. p264 -박진환, <새마을운동:한국근대화의 원동력> 재인용

으로 농촌의 모습이 극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지붕 개량 사업은 점차로 농촌의 주택을 새롭게 건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초가지집이 사라지고 기와집으로 바뀌지자 오랜 역사를 살아 오는 동안 '우리도 한번 기와집에서 살아봤으면....'하던 농민들의 소원이 이뤄졌던 것이다."

지붕이 바뀌고 주택이 개량되면서 농촌의 모습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또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칠해진 지붕은 마을 풍경을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따라서 70년대 중반까지도 여전히 남아있던 초가지붕은 조국 근대화의 걸림돌이자 낙후된 전근대를 상징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이 박정희의 초유의 관심사가 되고 이로 인해 새마을운동의 성과는 곧 공무원과의 진급과 연결되었고, 마을의 정부 지원 여부와도 직결되었다. 초가지집 개량이 초기 새마을운동의 주력 사업으로 여겨진 만큼, 주택 개량 성과를 내기 위한 압력이 생겨났다. 성과를 내어 우수마을로 선정되려는 마을 구성원으로부터의 압력을 받거나, 지붕 개량을 하지 않은 초가지붕을 공무원들이 뜯어내버려 어쩔 수 없이 슬레이트로 바꾸게 되는 사례가 있었고 그로인한 피해와 부담은 오롯이 농민의 몫이었다. 1978년 새마을 사업 실태 조사를 나갔던 충남대 교수 박진도는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방문한 집은 2년 전에 초가 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지붕은 빨간 페인트로 예쁘게 단장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처마 밑에 굵은 장대가 지붕을 받치고 있었다. 이유를 물어본즉 낡은 토담 벽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고 보니 지붕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집이 옆으로 기울어져서 그것을 받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초가지붕은 낙후한 농촌의 상징이라 하여 공무원들이 강제로 벗기도 다니는 형편이었으니 지붕개량을 하지 않고는 버틸 재간이 없었을 것이다."¹⁴⁾

또한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농민에게 전가했다. 빗을 얻어가면서 지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새마을운동에 의해 개량된 슬레이트 지붕이 석면문제로 떠올랐다. 2013년 10월 21일자 프레시안 기사를 보자

'통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건축물이 160만 동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건물의 18%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160만 동 중 농어촌 지방에 120만 동 정도가 몰려 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대전은 석면 지붕 비율이 1% 미만인데 반해 전남, 경남, 경북 등 농어촌 지역은 석면 지붕 비율이 15%를 넘었다.

왜 이렇게 많은 석면 지붕이 생긴 걸까? 대부분의 석면 지붕은 1970년대를 전후해 설치됐다. 특히 1971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농촌 가옥 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슬레이트 지붕을 얹기 시작했다.¹⁵⁾

초가지붕과 함께 전근대의 상징임과 동시에 낙후된 농촌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은 좁고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였다. 따라서 비포장도로를 넓은 포장도로로 만드는 것도 지붕 개량과 함께 농촌근대화의 징표처럼 여겨졌다.

내무부 자료(새마을운동, 1972)에 따르면 마을길 1미터를 넓히는데 2.1m(0.64평)이었다. 따라서 마을당 평균 270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5670m(1728평)이 들어갔다. 정부는 마을단위에서 전개되는 여러 가지 새마을 사업들의 부지로 들어간 토지에 대해 아무런 보상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 무상기부는 '기쁘게 버린다'는 희사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땅을 새마을 사업에 쓰이게 했고, 무상 기부에 일부 땅주인들이 반발하자 마을단위에서 공동재산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새마을 사업으로 조성되는 마을공동재산과 마을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농지세 등 지방세 면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¹⁶⁾

마을 도로가 넓어짐에 따라 리어카가 들어오면서 지게가 사라졌고, 주택개량으로 아궁이도 사라졌다.

-농민은 외면한 '농촌근대화'

14)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 3권> p.125,126

15) 프레시안 2013.10.25.'제2 새마을운동'? 석면 지붕부터 책임져야

16) 채영택.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관한 신문 사설 분석:-프레임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p.32

박정희가 아직 살아있을 때인 1979년 7월에 발간된 <신동아>에 실린 글은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인 농촌 근대화 전략이었다면 “1960년대 전반에 농촌인구 100명가운데 1.3명이 ‘헌 마을’을 떠났는데 왜 1970년대 후반에는 해마다 3.7명이 ‘새마을’이 된 농촌을 떠났는지 설명할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박정희는 늘 “새마을운동은 한마디로 ‘잘살기운동’이다”라고 강조했지만,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공업화, 농업과 공업 간의 불균등 발전, 농가부채, 비민주적 농정, 저농산물 가격 정책과 외국 농산물 수입 등 구조적인 문제는 손대지 않고 소득증대를 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¹⁷⁾

-강제와 동의 사이

1975년 이래 새마을운동에 참가한 마을은 3만 6000여 개로 한국의 대부분의 마을이 참여하였다. 새마을사업의 건수도 점차 늘어나 1972년에 3만2천 건에 불과했던 것이 1978년에는 266만7천 건으로 8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농민들의 적극적 참여의 근거로, 1971년부터 1982년까지 새마을운동에 투자된 52조 2583억원 중에서 51%를 정부가, 49%를 주민들이 투자한 것을 든다. 새마을사업이 외형적 성과를 낸 데는 노동력과 물질적 기반 까지도 제공한 국민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71년의 새마을사업 실적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22억 원인데 이 가운데 정부지원은 41억 원이어서 지원액의 3배 이상을 농촌 주민들이 부담하였고, 1972년에는 313억 원의 실적 가운데 주민의 노력투자가 211억 원으로 전체실적의 67%를 차지하였다.(내무부 1980).¹⁸⁾

국가입장에서 볼 때 근대국민국가라면 마땅히 국가의 예산으로 진행되었어야 할 도로의 포장이나 보수, 교량을 건설 등과 같은 사업이 새마을운동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토지와 엄청난 노동력이 무상으로 쓰일 수 있었다. 새마을운동의 기본 단위는 마을이었는데 전통적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한편 선별지원을 통해 마을 간 경쟁을 부추기는 전략을 펴기도 했다. 공동체적 압력을 활용하는 방식은 토지 회사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회사(喜捨, 기쁘게 버린다는 뜻이다. 공과 대를 위해 사와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 마을 공동체내에서 이뤄지게끔 만들어, 새마을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유지를 마을총회에서 자발적 회사 방식으로 강제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런 과정을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며 독려하는 분위기였다.¹⁹⁾

정부는 1972년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설치했고, 그 산하에 도-군-면-리로 이어지는 하부체계로 전국 농촌 부락에 개발위원회와 부녀회, 청소년회가 결성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자원과 지시가 신속히 마을의 개인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든 주민의 노력과 자원을 단시일 내에 동원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었다.²⁰⁾ 새마을운동이 박정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면서 각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에서 거둔 실적은 그들의 승진과 직결되었다. 이로 인해 새마을운동 초기에는 농민들의 자발성이 매우 두드러졌지만 해가 갈수록 농민들은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되었고 새마을운동의 수행은 거의 공무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런 점은 새마을운동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통·반장 1만 8000명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친역적인 인물을 대거 충원한 사례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²¹⁾

각 마을은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따라 기초,자조,자립 마을로 구분되었으며 차등적으로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 선별지원에서 탈락한 마을들은 일종의 비행집단처럼 낙인 찍혔고, 공무원들의 업무성과주의와 맞물려 공동체의 반강제적 동원을 이끌어냈으며 마을단위의 감시 또한 가능케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적 근대화’가 도덕적 배제와 일탈에 대한 공포를 통해 생활의 근대적 규율화를 꾀하고자 한 것이었다면, 국가·민족 담론과의 결합은 도덕적 실천과 관련된 자기의 긍정과 기쁨으로 승화시킴으로써 개인을 도덕적 주체로 구성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와 같은 양자의 측면이 일체화됨으로써 농촌사회의 효율적 대중동원은 가능할 수 있었다.”²²⁾

17) 한홍구, ‘유신의 다른 이름, 새마을운동’, <유신> p.292

18) 채영택,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관한 신문 사설 분석 : -프레임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19) 권보드래 외, <박정희 모더니즘>

20) 고원, ‘박정희 정권시기 농촌 새마을운동과 ‘근대적 국민’ 만들기’ p.7

21)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p.167

22) 고원, ‘박정희 정권 시기 농촌 새마을운동과 ‘근대적 국민 만들기’ p6

“새마을운동은 농어민 소득증대에 직결되어야 한다”는 박정희의 반복되는 연설에서 농민들은 새마을운동을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일상적 욕망의 채워줄 수단으로서 생각하게 했고, 이러한 농민들의 욕망과 맞물린 ‘동의’의 측면도 있었다.

박정희가 만든 새마을노래가 아침저녁으로 전국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새마을운동은 전쟁’이라는 당시 내무부장관의 언명에 따라 군수, 부군수, 읍면장은 전 지역을 순회해야 했고, 일반 직원들도 담당 마을이 있어 월 10-30회 가량 순회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공무원들은 아예 마을에 상주하면서 새벽부터 종을 직접 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²³⁾ 유신체제의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들이 여름에 덥고 돈도 많이 드는 슬레이트 지붕보다 초가지붕이 더 좋다며 지붕 ‘개량’을 하지 않은 집 지붕을 갈고리로 뜯어내거나, 통일벼를 심지 않은 못자리를 장хват발로 짓밟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새마을 운동의 관 주도성, 강압성, 전시행정, 성과주의 등은 박정희 사후에 내무부조차 공식적으로 인정한 새마을 운동의 대표적인 문제점이었다.²⁴⁾

-농촌에 던져진 메시지

국가주도사업이던 새마을운동은 농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박정희는 농촌의 가난과 삶 피폐하게 하는 원인을 농민들의 노력부족과 개인의 문제라고 이야기 했다. 사회적, 구조적 원인에 대한 문제에서 멀어지게끔 만들었다.

“내가 남보다 더 노력해서 한번 잘살아보자는 자조정신, 또 남한테 의지하거나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힘을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는 자립정신, 또 온 동네에 있어서는 온 동네 사람들이 서로 단결하고 협동해 나가는 협동정신, 이러한 정신이 갖춰지게 되면 우리 농촌은 불과 몇 년 이내에 완전히 일어납니다.(중략)안 일어나는 부락은 그 부락민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입니다.” (박정희, 1971.9.29. 벼베기 대회 치사)

또한 박정희는 컬러tv도입에 대해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잘사는 놈만 더 잘 살게 된다’는 거요. 컬러도 흑백 가진 놈들이나 살 것 아니요. 청계천 밑이나 농촌에 가보시오. 흑백도 없는데 어떤X들은 컬러를 본다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소.”²⁵⁾라며 농민을 위하는 대통령, 스스로 빈농의 아들이라 일컬었고, 이로 인해 농민들은 박정희의 농촌 및 농민 사랑을 직접적으로 느꼈다. 그러나 가난한 농민을 위해 컬러TV를 방영할 수 없다는 박정희가 그 가난한 농민들의 자식들이 도시의 공장에서 인권유린을 당하는 것에 대해선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그들을 빨갱이로 모는 일을 저질렀다. 박정희의 농촌에 대한 이중성을 농민들이 간파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농촌과 농민에게 가해진 불이익은 간접적이었으나 사회적이고 구조적이었던 점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이 남긴 것

새마을 운동은 UN에서 인정한 빈곤퇴치를 위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2013년,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진행된 새마을운동과정의 연설문과 보고서 관련자료 등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분명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외형적인 전근대모습의 탈피를 이뤘고, 통일벼증산을 통해 식량난을 극복하는 것에도 이바지 한 바 있다. 또한 ‘새마을 부녀회가 움직이지 않는 마을은 새마을운동이 없다’는 말이 생길만큼 여성이 운동에서 큰 역할을 맡음으로써 남녀평등에 기여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근대화’의 물결에서 소외되었던 농민들이 빈농의 아들 박정희에 의해 ‘일등 국민’으로 불려지는 경험도 굉장한 의미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자원배분을 통해 마을 안팎의 경쟁을 부추기면서 두레나 품앗이 같이 공동체 내에서 서로 돕고 돌보는 농민 자신들의 조직은 모두 깨져버렸다. 미신 등을 비합리적인 전근대문화로 몰아 농촌의 굿 문화는 사라졌고, 마을의 경조사 또한 허례의식이라 하여 간소화되었다. 농촌 고유의 전통적인 풍습과 생활들이 부정되고 들어내지면서 대신에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의 도시적인 소비문화가 자리하게 되었고 생활과 농업에서 자본에 종속되는 모양으로 바뀌었다.

23)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1권> p266쪽 재인용

24) 한홍구, ‘유신의 다른 이름, 새마을운동’, <유신> p292,293

25)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1권> p.107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 재인용

수출제일주의 정책

-1억불에서 100억불 수출에 이르기까지

1961년 11월 12일 한국은행은 세계 40개국의 국민소득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1인당 국민소득(59년 기준)에서 세계 1위는 미국 2천250달러, 2위는 캐나다 1천521달러, 3위는 스웨덴 1천387달러 등으로, 일본은 25위로 299달러였고 한국은 끝에서 다섯 번째로 78달러를 기록했다.

당시 발등에 떨어진 문제는 경제, 먹고 사는 문제였고 이는 정권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것이었다. 군사 정권은 62년 통화개혁 실패 이후 수출주도의 산업화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박정희가 ‘군사적 성장주의’의 방법론으로 택한 전략은 국가가 주도하는 외자 의존적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이었다. 이 정책의 특징은 1.수출 산업을 위한 제반 특혜, 2.외자에의 의존, 3.외국 시장에 대한 의존, 4.임금통제와 농산물 가격 안정정책 등으로²⁶⁾ 박정희 특유의 리더십과 결합하여 ‘수출의 전쟁화’를 낳았다.

한국의 62년도 수출액은 5천481만 달러였는데, 이중 천연물이 75%를 차지했다. 돼지 147만달러, 생선 345만 달러, 마른 생선 249만 달러, 조개류 181만 달러, 쌀 893만 달러, 김 75만 달러 등 식료품과 산 동물 수출이 2185만 달러였다. 또 생사 396만 달러, 고령토·흑연 등 광석 269만 달러, 중석 337만 달러, 철광 385만 달러, 돈모 99만달러, 한천 132만 달러, 무연탄 274만 달러 등 가공도 하지 않은 원자재 수출이 1천937만 달러였다. 이 두가지를 합친 4천122만 달러가 총 수출액의 75%를 차지한 것이다.²⁷⁾

한국경제인협회도 농업주도의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공업화와 수출주도로 가게끔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에 군사정부는 이전 민주당 정부가 짜놓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토대로 1962년부터 1966년까지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한다.

박정희는 64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수출 진흥을 위해 전력질주 할 것을 선언했고, 이후 수출기업에 대한 “차관 특혜, 세제 특혜, 금융 특혜, 수출원자재 특혜, 역금리 특혜 등 모든 특혜들이 주어지면서 인위적인 수출 진흥이 이뤄졌다”²⁸⁾

그 특혜의 정도가 얼마나 것이었는지 일례로 은행 대출을 보자. 64년 8월 말 현재 금성방직, 대한제분, 삼성물산 등 9개 재벌기업에 177억 원이 집중 대출되었다. 이는 당시 화폐발행고의 82%, 통화량의 43%,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 462억 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것이었다.²⁹⁾

이렇듯 수출 기업이 받은 특혜는 엄청난 것이었다. 일반 대출 이자율이 25%를 할 때에도 수출 특용 이자율은 6%에 불과했고,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는 세금을 전액 면제했고, 수출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80%나 감면해 주었다. 그 당시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던 해외여행도 수출전사 지휘관들에게겐 예외였다. 어디 그뿐인가. 수출전사 지휘관들은 밀수를 저질러도 그들을 처벌하는 게 수출에 지장을 줄 것 같으면 박정희는 검찰에 수사 중단 지시를 내리곤 했다. 법은 중요하지 않았다. 수출 전사 상황이었기 때문이다.³⁰⁾

이러한 기세에 힘입어 64년엔 목표 수출액이었던 1억 달러를 돌파했고, 65년 연두교서에서 박정희는 ‘수출 아니면 죽음’이라는 영국 수상 처칠의 구호를 인용하며 ‘증산·수출·건설’에 매진 할 것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66년부터 박정희는 매일 수출확대회의를 주관했다. 이후 매년 수출 증가율은 40%를 기록해, 67년 3억5859만 달러, 68년 5억40만 달러, 69년 7억280만 달러, 70년 10억380만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³¹⁾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수출품목에 변화도 생겼다. 60년대 초(61년 통계) 철광석(13%)과 생사³²⁾(6.7%), 오징어(5.6%) 등 1차 생산품이 주를 이뤘다면, 1·2차 경제개발 계획이 이뤄진 60년대를 거치며(70년 통계)섬유류(40.8%), 합판(11%), 가발(10.8%)등이 중심이 되었다. 60년대 초반에는 고작 생사 270만 달러를 수출했던 데 비

26)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1권> p.23 한배호, ‘한국정치변동론’ 재인용

27)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편 2권> p.254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 1’ 재인용

28)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편 2권> p.277 당시 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 이선희 증언

29)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편 2권> p.278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 1’ 재인용

30)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1권> p.25 중앙일보 97.9.8 특별취재팀 기사 재인용

31)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3권> p.15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2’ 재인용

32) 생사 : 삶아서 익히지 아니한 명주실. 네이버 국어사전

해, 70년에는 섬유류 수출이 3억4110만 달러나 되었다. 즉 1960년대를 통해 섬유류가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 매김했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수출이 섬유류, 합판, 가발 등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³³⁾

국민총생산(GNP)은 63년 27억 달러에서 67년 43억 달러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에 1인당 국민총생산(GNP)도 100달러에서 142달러로 늘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1962~1966) 동안의 국민총생산 성장률은 평균 7.9%였다³⁴⁾

박정희는 1964년 1억 달러, 1970년 10억 달러 수출을 이룬데 이어 1980년 1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잡고 “10월 유신에 대한 중간평가는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외쳤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행정, 생산양식, 농민 생활, 국민의 사고방식, 외교, 문교, 과학기술 등 정부의 모든 정책 초점을 100억 달러 수출 목표에 맞추어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³⁵⁾

수출 장려를 위해 75년 종합무역상사 제도가 만들어지며 종합상사에 대한 파격혜택들이 이어졌다. 종합상사로 지정받으면 시중금리 15-19%의 반도 안 되는 7-9%의 수출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전쟁하듯이 수출에 매달리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박정권이 노린 효과였다. 이 제도의 도입 결과 1977년 30대 재벌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5%에 이르렀다.³⁶⁾ 반면 중소기업은 가속적으로 몰락하였다. 재벌들은 이러한 중소기업을 흡수해 이른바 ‘문어발’ 수를 늘려갔다. 1978년 말을 기준으로 11개 종합상사 그룹들이 거느린 기업군은 럭키 47, 대우 41, 삼성 38, 현대 33, 쌍용 20, 국제 24, 선경 27, 금호 19, 삼화 30, 한일합섬 8개 등 모두 321개 업체에 달했다.

이후 1975년 총 수출액 50억 달러에서 1976년 77억달러를 거쳐 1977년에 목표시점을 3년 앞당겨 1백억 달러를 돌파를 달성하게 된다. 수출액과 함께 증가한 것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었다. 1973-78년간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9.9%의 성장을 보인 데 비하여 4대 재벌은 같은 기간 동안에 연평균 22.8%나 성장했다. 그 결과 GDP에 대한 4대 재벌 비중은 1973년의 9.8%에서 1978년에는 17.1%로 높아졌다. 규모가 큰 재벌일수록 빨리 성장했는데, 하위 25개 재벌의 연평균 성장률은 12.8%인 데 비해 상위 5대 재벌의 성장률은 30.1%에 이르렀다.³⁷⁾

1인당 GNP는 75년에 592 달러, 76년에 802 달러, 77년에는 수출 100억 달러 돌파와 함께 1011 달러가 되었다. 국민소득 1천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³⁸⁾ 1962년 국민소득 87달러에 불과하던 한국이 15년 새 1·2·3차 경제개발을 거쳐 1977년에는 국민소득 1000달러를 돌파 한 건 가히 기록적이라 할 만 했다.

-눈부신 성장을 받던 것들

박정희 정권이 집권이후부터 추진한 수출중심의 경제개발 계획은 ‘선성장 후분배’ 논리에 입각한 기업 물빵 성장 노선이었다.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 한 정부의 정책들은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대표적으로 71년 전경련의 요구로 진행된 8.3 사채동결조치가 있다. 이 조치는 당시 사채의 연 금리45% 이던 것을 16%로 고정시켰고, 사채의 원금을 3년 동안 갚지 않고 이후 5년간 분할 상환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기업들의 상환의무를 미뤄주고 사채이자도 기존의 1/3 수준으로만 내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연 금리 16%는 당시 물가상승률이 16%였기에 사실상 제로와 다를없었다. 각 기업에서는 사채를 신고해야 했는데 그 규모가 무려 4만여 건에 3500억원(당시 약 9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당시 나라 전체 통화량(현금과 예금)의 80%에 수준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제도권 금융이 제 역할을 못해 저축률은 낮았고, 이 때문에 사채 채권자의 90%이상이 영세한 소액 투자자였기에 이자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들의 비극적인 사연들이 줄을 이었다.

33)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p.76 통계청, ‘연도별 10대 수출 품목’ 표 참고

34)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p.77 통계청 ‘연도별 국민총생산…성장률’ 표 참고 및 인용

35)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3권> p.102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 재인용

36)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2권> p.290 역사학연구소, ‘강좌 한국근현대사’ 재인용

37)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2권> p.290 사공일, ‘세계 속의 한국경제’ 재인용

38)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p.195 참고

수출위주 경제 정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환경이 보장 될 수가 없는 구조였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조국근대화'를 위해 자신의 청춘과 건강과 임금을 희생해야했고,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에 맞는 저곡가정책이 수반되어 농촌의 가난을 야기했다. 이 때문에 60~70년대에 걸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급격한 도시인구 팽창은 빈민촌을 만들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저임금 과노동의 노동자들

한국의 노동자계급 연구를 해온 사회학과 교수 구해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60년대 말부터 산업전사, 산업의 역군, 수출의 역군, 수출의 기수 같은 새로운 단어들이 산업용어로 등장했다. 분명히 이 용어들은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수출 증진을 위해 노동자들을 동원하려고 만들어졌다. 이 새로운 단어들은 민족주의를 발전주의 및 군대식 수사와 결합했고, 산업 노동자들을 국방을 위해서 싸우는 군인들과 동일시했다.”³⁹⁾

당시의 구호가 말해주듯이 '수출만이 살길'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싹 노동력이었다. 군인이 돈 받고 일하지 않으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듯, 군인과 동일시된 수출 전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박정희는 노동자들을 추켜세우며 저임금과 과노동의 희생은 '조국 근대화'의 '수출 전사'로서 짊어질 몫이라는 메시지를 주었다.

노동자들은 '수출 전사'로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견뎌내며 자신의 청춘과 건강과 임금을 마땅히 희생해야했다. 또한 공장에서 일하는 공순이와 공돌이는 '배운것도 없이 가난한 농촌에서 올라온 촌년·놈'으로 인식되어 무시와 차별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에도 남녀차별이 있어, '공돌이' 보다는 '공순이'가 훨씬 더 사회적 푸대접과 폭력을 당했다. 임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75년 한국 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미국의 10분의 1, 일본의 7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는데, 그마저도 1977년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 노동자 임금의 41%에 지나지 않았다.⁴⁰⁾

여성노동자들은 '공순이' 딱지를 떼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다. 휴식시간에 잠깐 전화를 받으러 나갈 때조차 공장 유니폼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서 옷을 갈아입곤 했고, 공휴일에 영화를 보러가도 항상 시집이나 잡지를 들고 다닐 정도로 그 노력은 처절하다고 해도 좋을 것이었다.⁴¹⁾

평화시장의 여공은 '도시락을 먹으려하면 곧바로 먼지가 쌓이'고 빛 한 점 들지 않는 환경에서 하루 16시간 노동을 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 이렇게 대접받아야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다. 그렇게라도 일을 해야지 보리쌀에 콩나물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인간적이다. 1주일에 한 번씩은 쉬어야 하겠다 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했다.' 고 말한다. 국가의 경제발전 요구에 대가 없는 희생을 하고 그 결과 또한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게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안의 구조적으로 보지 못하는 인식을 자각하고 국가의 의도를 파악해가며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고, 전태일은 그 시작이었다.

전태일은 1964년 봄, 당시 16세의 나이에 서울 평화시장 내에 있는 삼일사에 견습공으로 취직했다. 그는 인간 이하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몸소 겪으면서 노동과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전태일은 자신의

39)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1권> p.24 구해근등 옮김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재인용
 40)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3권> p.141 이상록, '서글픈 공순이에서 당당한 노동자로'
 41)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3권> p.142 구재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재인용

일기에 이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끝 날이 인생의 종점이겠지. 정말 하루하루가 못 견디게 괴로움의 연속이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루 15시간을 칼질과 다리미질을 하며 지내야 하는 괴로움. 허리가 결리고 손바닥이 부르터 피가 나고, 손목과 다리가 조금도 쉬지 않고 아프니 정말 죽고 싶다.……육체적 고통이 나에게 죽음을 생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하기 때문이다.……언제나 이 괴로움이 다 없어지나.”⁴²⁾

또한 전태일이 1970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단사 100% 전원이 신경성 소화불량, 만성위장병, 신경통 기타 병의 환자”, “미싱사 90%가 신경통 환자임. 위장병, 신경성 소화불량, 폐병 2기까지”, “평화시장 종업원 중 경력 5년 이상 된 사람은 전부 환자이며 특히 신경성 위장병, 신경통, 류머티즘이 대부분임.”……사정이 이러하니 “평화시장 여공은 시집가도 삼 년밖에 못 써 먹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⁴³⁾

근로기준법을 알게 된 전태일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평화시장의 노동조건을 바꾸려 노력했다. 박정희에게도 편지를 쓰고 노동 감독원에게도 찾아가는 등 갖은 노력을 했지만 모두 외면당했다. 이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하며 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과 함께 불타올랐다. 그의 일기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고 적혀있었다. 이를 계기로 대학생을 비롯한 정재계 지식인들과 노동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정부 측에서 전태일의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에게 8천만 원(현재가치 16억원)이란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제시할 정도로 전태일의 죽음은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노동 분규 사건도 부쩍 늘어나서 70년에 165건이던 것이 71년에는 1656건으로 폭증하게 된다.

-농촌인구의 이동, 도시빈민과 철거촌

저임금, 저급가 정책으로 인한 이촌향도현상은 곧 도시빈민문제를 야기했다. 연평균 이농 인구 수는 1960-66년 사이에 매년 27만 명, 1966-70년 사이에 59만 명, 1970-75년 사이에 50만 명, 1975-80년 사이에 66만 명으로 추산되었다.⁴⁴⁾

서울 인구는 1955년 157만(전체인구의 7%)이던 것이, 1960년 244만(10%), 1970년 543만(18%)로 늘었고, 반면 농업인구는 1960년 전체인구 가운데 58.3%를 차지하던 것이 1965년 55.1%로 줄었고, 1970년에는 44.7%로, 1975년에는 37.5%로, 1980년 28.9%까지 줄어들었다.⁴⁵⁾ 박정희 정권을 거치며 전체인구 비율에서 농촌인구는 60%에서 30%로 절반이나 줄어든 것이다.

1967년과 1976년 사이에 약 670만 명의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였고, 갑작스러운 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해 야기 된 가장 큰 문제는 주택 문제 였다. 60년까지 주택 부족률은 40%미만이었지만 66년엔 50%로 급증하였다. 주택당 인구수도 58년 8.8명에서 66년 10.5명으로 늘었다.⁴⁶⁾

서울의 주택난이 가장 심각했다. 농촌에서 무작정 상경한 사람들은 대부분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서울 변두리에 판자촌을 형성하고 집단으로 거주했다. 1967년 이후 1970년 중반까지 3년 6개월 동안 서울에서는 14만여동의 판잣집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약 9만동이 철거된 것으로 집계되었다.⁴⁷⁾ 66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인구 380만 명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27만 명이 무허가 주택에 살고 있었다.

‘불도저’라는 불리던 서울시장 김현옥은 당시 상황에 대해 후일 다음과 같이 말했다.

“60년대 말 서울의 판잣집은 기어이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도심·외곽 할 것 없이 들어찬 판자촌은 한 마디로 서울의 행정을 마비시킬 정도였으니까요. 내 발상은 간단했습니다. 쓰러질 듯 누워 있는 판잣집을 번듯하게 일으켜 세우자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아파트지요. 당시에는 서대문 금화지구 7만 채를 포함, 서울시 1백만

42)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1권> p.99 조영래. ‘전태일평전’ 재인용

43)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1권> p.100 조영래, <전태일 평전> 재인용

44)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1권> p.28 ‘1970년대 민주화운동(1)’ 재인용

45)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1권> p.28,29 재인용

46) 같은 책 p.105 장세훈, ‘도시화, 국가 그리고 도시빈민’, <현대 한국자본주의와 계급문제>재인용

47)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1권> p.168 재인용

평 땅에 14만 5천 채의 판잣집이 널려있었습니다.”⁴⁸⁾

그러나 제대로 된 집을 구할 돈이 있을 리 만무한 이농민들은 무허가판자촌을 이루게 되고 이들의 사정보다는 미관상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앞서있는 정부에서는 대책 없이 강압적 철거를 진행하게 되면서 원주민들과 마찰을 겪는다. 대표적인 예가 무등산 타잔으로 알려진 박흥숙 사건과 광주 대단지 사건이다.

1977년 광주의 무등산자락 덕산골 판자촌에 살던 박흥숙의 가족은 철거에 순순히 응하고 있었다. 순순히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반원들은 집에 불을 질렀고, 집 천장에 넣어놓은 전재산 30만원(식모살이 2-3년 임금)을 찾으려하는 어머니가 반원들에게 가로막혀 쓰러졌다. 뒤이어 그들은 다른 집에도 불을 질렀는데 그 집은 거동이 불편한 노부부가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이성을 잃은 박흥숙은 자신이 만들어둔 위협용 총을 들었고 이들을 포박해 결과적으로는 쇠망치로 살해했다. 하지만 언론은 사건의 실상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폭력적인 강제철거 과정에서 방화가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추려했고 언론에 의해 ‘무등산 타잔’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박흥숙은 무당 아들이 되기도 하고 허황된 출세욕에 사로잡힌 과대망상증환자가 되기도 하고, 특공무술을 연마한 인간병기가 되기도 했다. 사건을 제도적인 문제와 연결 짓지 않기 위해 범인의 모습을 과장시키려던 노력이었고, 사건의 구조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으며 박흥숙은 80년 12월 24일 사형 당했다.

서울에서 이주민들의 분노가 분출되었던 사건은 70년의 광주대단지 사건이었다. 60년대 말 이농민들의 수는 서울 전체인구의 2/3에 330만 명에 달하게 된다. 오갈데 없는 이농민들은 어쩔수없이 서울의 산기슭과 하천변에 무허가 판자촌을 이루기 시작했고 이른바 ‘달동네’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무허가 판자촌에 상하수도나 전기 등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을리 만무했고 마찬가지로 치안·의료·소방 시설이 취약해 범죄·질병·화재가 잦았다. 때문에 ‘빈민촌’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사회적으로 차별 받아야 했다. 60년대 중반 서울의 무허가 주택은 전체의 38%에 달했고, 이때부터 서울시의 강제철거가 본격화된다.

주거권에 대한 보장없이 무조건적인 철거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었다. 부침도 자리를 옮겨 다시 세워지는 것이 판자집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장 김현옥은 68년부터 70년까지 경기도 광주군(현 성남)350만 평에 35만 명의 서울시 빈민들을 수용하는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광주대단지였다. 조건은 한 가구당 20평씩 평당 2천원에 분양에 입주 3년 뒤부터 분할상환 방식이었고,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등이었다. 소문은 도시빈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15만 명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주민들이 도착한 곳은 나무만 베어 놓았을 뿐, 도로도 상하수도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비가 오면 발목까지 빠지는 진창길로 변했고 눈이 오면 걸어 다닐 수도 없는 빙판이 되었다. 편의시설이나 상업시설 또한 없었고, 화장실이 있거나 수도물이 나오는 집은 전체의 20%이하였다. 망연자실 서있는 이들에게 서울시는 가구 당 하나씩 텐트를 던져준 게 끝이었다. 약속했던 공장도 지어지지 않았다. 막노동이나 지게꾼이라도 하려고 서울로 가려면 을지로 6가까지 1시간 반이나 걸리는 버스를 타야 했는데 버스노선은 풀랑 1개에 그마저도 하루에 6번만 운행을 했고, 왕복 70원이나 되는 버스비를 내고나면 아무 의미도 없었다. 노천 변소의 오물이 넘쳐 항상 악취가 풍겼고, 굶주림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상황이 어찌나 참혹했는지 굶주림에 인육을 먹고 있다는 괴소문까지 떠도는 형국이었다.

이에 더해 정부는 71년 대선과 총선이 끝나자 처음과 말이 달라졌다. 입주조건이었던 평당 400원의 40배에 해당하는 평당 16000원을 통보했고, 기한 내에 일시불로 내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금액은 32만원으로 당시 공무원의 2년치 연봉이 넘는 것이었으니,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시에 진정을 넣어도 묵묵부답이었고, 이에 8월 10일 이른 아침부터 5만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시위를 했고 파출소와 경찰차를 방화하고 관공서 건물과 차량을 파괴 탈취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서울시장이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발표해 6시간의 광란은 마무리되었다.⁴⁹⁾

48)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1권> p.51 월간중앙. 1994, 12 재인용
49) 오픈아카이브, ‘광주대단지사건-“산업화의 뒷안길, 도시빈민들의 처절한 투쟁”’

사실상 빈민·판자촌 문제를 초래한 건 정부의 경제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값싼 노동력과 경제성장을 챙기고 난 뒤에는, UN에서도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그 권리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주거문제에 대해 몰라라 했다.

-선성장 무분배? 빈부격차의 심화

71년 1월, 전태일을 시작으로 한 노동자들의 권리호소와 광주대단지사건 같은 빈민가의 폭동이 일어나던 해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정희는 이렇게 말했다.

“아직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70년대 후반기에는 지난날들의 땀과 노력의 대가를 알차게 돌려받는 혜택과 보상의 시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른바 ‘선성장 후분배’라는 ‘낙수효과’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낙수효과가 이뤄지진 커녕 70년대 들어 빈부격차는 건국 이래 최악으로 치달고 있었다.

1977년 소득세 대상자들을 보면 눈부신 경제성장과 상반되게도 절대빈곤층이 두드러지며 소득의 격차를 뚜렷이 보여준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세 면제 대상자’가 76년 74.6%, 78년 76.7%나 되었으며 반면에 전체 인구의 0.3%밖에 안 되는 고소득자들이 총 소득세의 43.1%를 부과하고 있었다.⁵⁰⁾

그 이유는 70년에도 이어진 국민의 희생을 통한 기업성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196,70년대의 1·2차 경제개발 계획을 거치며 다른 산업의 바탕이 되는 에너지원, 시멘트 등 사회간접자본이 성장하고, 경공업(섬유, 화학)이 발달했으며 이는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영세 시민들의 희생위에 자리한 것이었다. 박정희는 73년 연두교서에서 중화학공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71년 닉슨독트린으로 주한미군이 3분의 1가량 줄어들어 방위사업성장을 구상하게 된 것이 배경이기도 했다. 이는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72~77)과 겹쳐 1·2차 경제개발 계획 때 수출기업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었듯, 중화학공업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도 막대한 혜택이 주어졌다. 저금리 대출과 투자 첫 3년간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이후로도 50% 감면해주었으며, 수출 소득세와 법인세 또한 50%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기업에게 세금을 걷지 않는 만큼 민간의 조세부담률은 73년 12%에서 76년 17%로, 81년엔 18.2%로까지 증가하게 된다. 국민 4명 중 3명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어 기업면세를 대신 할 소득세를 거둘 수가 없었던 때였기에 정부는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여러 가지 소비세를 신설한다. 소비세는 물건값에 세금을 포함시키기에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하면서도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가 힘들어서 조세저항이 거의 없다는 게 특징이다. 그러나 세금의 또 다른 측면인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보자면 소비세는 빈부격차를 오히려 가중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세금이다. 소비세란 사람을 차별하는 법이 없어 소득이 차이가 나도 내는 세금은 같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실질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재분배에 신경 쓰는 선진국일수록 소득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겨 소득불균형 개선에 효과적인 소득세·법인세의 비중을 늘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면제, 감면하는 한편 그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소비세를 대폭 신설했으니, 이에 따른 빈부격차는 당연한 것이기도 했다. ‘선성장 후분배’를 외쳤던 우리나라에서 성장은 눈에 드러났지만 분배는 오리무중이었다. 한편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시행 첫해 6개월 동안에만 총 2415억 원을 징수하게 되어 당시 나라 세수의 14.4%나 차지했다. 이후 부가가치세는 모든 소득세와 법인세를 누르고 세수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기업성장정책에 힘입어 1973년부터 1978년까지 국내총생산(GDP)에서 46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9.8%에서 17.1퍼센트로 높아졌고,⁵¹⁾ 소득 상위 20%가 차지하는 비율도 65년 41.8%에서 78년 46.7%로 급상승한 반면 하위 40%의 소득점유 비율은 56년 12.2%에서 70년엔 19.6%로 개선 됐다가 78년엔 다시 15.5%로 낮아졌다.⁵²⁾ 또한 100억 수출과 국민소득 1천불에 달성한 1977년도 총 취업인구의 60%인 770만 명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당시 4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9만 7천원에도 못 미치는 6만 9천원이었다.⁵³⁾ 소득분

50) 최장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p334

51) 권보드레 외. <박정희 모더니즘> p.39 ‘박정희 시대의 국가:기업 관계에 대한 재검토’ 재인용

52) 동아일보 1980.6.25 3면 ‘소득분배 불균형 심화’ 기사 참고

배의 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65년 0.34에서 78년엔 4.0(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 심화)로 비슷한 경제성장을 보이던 대만의 0.28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사회불평등과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지며 악화되고 있었고 지니계수가 높아짐에 따라 세계은행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베트남파병과 중동특수

-배경

수출주도정책을 중심으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뤄 시기에 핵심적인 물적 재원이 되었던 것은 바로 베트남 파병(1964년부터 1973년까지)으로 번 10억 달러였다. 만일 베트남 전쟁이 없었다면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가 불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당시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정권의 당면과제는 미국의 신임을 얻는 것이었고, 특히 박정희에겐 자신의 좌익경력에 의구심을 갖는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내는 일이 중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61년 박정희는 케네디와의 정상회담에서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먼저 제안했다.

월남패망으로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던 73년, 중동전쟁으로 원유 값이 폭등해 오일쇼크가 왔던 해이기도 했다. 베트남 특수의 끝물에 놓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찾아낸 새로운 특수는 원유 값 상승으로 벼락부자가 된 중동이었다.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무려 400억 달러였다. 월남전 이후 주요 해외 송금 지역이 중동으로 바뀌면서 이후 경제 개발이 지속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베트남 파병의 과정

61년 케네디와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박정희는 “미국이 너무 혼자서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먼저 제안했고 1964년 통킹만 사건으로 정황이 다급해지자, 미국은 파병을 요청했다. 마침내 박정희 정권은 1964년 9월 11일에 의무요원 130여 명으로 구성된 ‘이동 외과병원’과 10명의 태권도 교관을 베트남에 파견했다.

본격적인 베트남 파병은 1965년 2월 2000여명의 공병부대를 포함한 비전투부대를 파견에서 시작되었다. 이른바 비둘기부대 파견이었다. 서울운동장에서 3만 여명이 모인 성대한 베트남 파병 환송국민대회가 열렸다. 65년 7월에는 다시 국무회의에서 1개 전투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야당은 전투부대 파병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파병동의안이 통과되었다. 2만여 명의 전투부대는 해병의 청룡부대와 육군의 맹호부대로 구성되었다. 정부는 파병 반대의 공론화를 막고 국민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번의 10배 규모에 달하는 30만여 명이 참가한 대대적인 환송회를 열었다.

1965년 10월 말, 미국은 한국에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 네 번째 파병이었다. 처음에 의료지원인력에서 시작해 비전투병으로 이어진 베트남 파병은, 점차 대규모의 전투부대 파병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66년엔 존슨이 추가 파병을 요청하며 방한을 했는데 당시 전세계적인 파병반대 반전운동이 이뤄지던 분위기와 다르게 한국에서는 열렬한 환영으로 맞이했다. 4차 파병으로 전투병력을 보내는 대신 브라운 각서를 통해 한국은 국군장비의 현대화, 1억5천만 달러의 장기차관, 베트남 군수물자 납품 수출할당·건설인력 파견 등 각종 사업참여 보장 등의 14개 조항을 보장받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66년에는 8월에는 백마부대가 파병되었다.

베트남 파병의 명분은 ‘보은론’과 ‘도미노론’이었다. 즉 한국전쟁 때 미국이 군대를 파견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는 논리와,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지 않으면 한국에도 도미노처럼 위협이 다가온다는 논리였다. 실제로 파병 결정시 야당이 불참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사회전반에 반공의식이 강했던 상황에서 파병에 반대하는 항의나 시위 등 국민적 저항은 없었다. 단지 전투병 파병에 따른 인명 희생을 우려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을 뿐이다.⁵³⁾

4차례의 파병 끝에 월남에 파병된 한국군은 무려 5만여 명으로 한국은 전쟁의 두 당사국을 제외하면 최대 파병

53) 김진국, www.한국현대사.com p.217

54)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p.82~86

국이었고 기타 우방국들보다도 3배나 많은 규모였다. 한홍구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파병한 5만 대군의 대부분은 전투 병력이었고 55만에서 57만의 미국 병사의 경우 전투병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 병력으로 따진다면 국군과 미군의 인원이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위험한 파병을 하면서도 모집과정에서 지원의 양식을 한 강제성이 드러난다. 파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결과는 '강제로 끌려갔다가 1/3이 넘었고, 그렇게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지원서도 쓰지 않았는데 차출된 이들이 60%를 넘었다. 또 지원서라고 해봤자 강제로 쓴 것이 1/3을 넘었다. 만약 어떤 대대가 지목 된다면 그 대대 안의 장병 전체가 파견되었던 것이다.⁵⁵⁾

당시 주월사령부 사령관 채명신은 "제일 많았을 때는 하루 50명 가까이 도망가곤 했다. 매일 도망자가 나왔다. 하지만 돈 있고 뺨 있는 자식들은 파병에서 제외됐다." 고 증언한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갔기 때문에 파병 군인들의 90%가 거의 못배우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파병의 효과

베트남 파병은 박정권에게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개발의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되는 계기였다. 또한 베트남 파병은 여러 측면에서 경제개발에 크게 기여했다. 현지 용역과 건설 등이 4억 달러, 베트남 수출과 군납으로 2억7천, 장병의 송금과 파병 지원경비가 2억 5천만 달러였고, 여기에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1억 5천만 달러의 장기차관이 합해져 베트남 파병으로 얻은 경제적 특수는 10억 달러에 달했다. 당시 정부는 달러유입을 높이기 위해 전 장병의 월급 80%를 고국에 송금하는 것을 의무화 해 파병 군인의 월급 등으로 외환 수입이 늘어났다. 파병으로 인한 외환 수입은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총 6억 2000만 달러에 달했고, 이 돈은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추진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적인 재원으로 쓰였다. 만일 베트남 전쟁이 없었다면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가 불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또한 일반 기업들은 물품 군납과 베트남 수출을 통해 이득을 챙겼다. 1965년에 1770만 달러였던 한국의 베트남 수출은 1970년에는 7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1970년 수출에서 베트남의 비중이 8.4%에 육박했다는 것이 베트남 특수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당시 한진그룹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 특수의 혜택을 받았다. 특히 한진그룹은 베트남에서 5년동안 1억 300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그 공로를 박정희에게 인정받아 1969년 3월에는 대한항공 인수라는 특별 배려까지 받게 된다.⁵⁶⁾

막대한 외자를 도입한 월남파병시기 GNP 성장률은 66년 12.6%, 67년 7.8%, 68년 12.6%, 69년 15%를 기록했다.⁵⁷⁾ 60년대 후반(65~69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1.8%로, 이는 60년대 전반기(60~64년)의 성장률 5.5%의 두 배가 넘는 것이었다. 외환보유고도 64년 1억2900만 달러에서 70년 5억8400만 달러로 급증했다.⁵⁸⁾

한편 전세계가 반전평화의 물결로 뒤덮였던 60년대 후반, 베트남 파병으로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는 심히 좋지 못했다. 제3세계 국가들을 물론 미국 의회에서조차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한국군을 '용병'이라고 지칭할 정도였다. 특히 1975년 8월의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남북한이 같이 비동맹 회원국으로 가입을 신청했다가 북한은 받아들였지만 남한은 거부당한 일은 한국 외교 사상 최악의 참사였다.⁵⁹⁾

-피의 대가는 정당했는가

당시 한국군의 1인당 유지비용은 미군의 38%에 불과했고 필리핀과 타이군 동일계급의 40%에 불과한 월급을 받았다. 당시 한국군은 이등병이 1일1달러, 대위가 5달러를 받았다. 이 액수는 미군의 1/20이고 베트남군에 비해서도 1/5밖에 안 되는 금액이었다. 또 전사자 및 정상자 보상금도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 전사한 사병은 11년

55)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04년 3월 28일 편

56)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편 3> p.270,271

57)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편 3> p.271 이종오, <반제반일민족주의와 6.3운동> 재인용

58)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편 3> p.271 정성진, <한국전쟁과 영구군비경제> 재인용

59) 한홍구, <유신> p.272 동아일보, 1975년 8월 27일자

전에 정해진 급여액만을 지급받는 기막힌 실정이었다.⁶⁰⁾ 한국군 사단장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월급여가 354달러 인 반면, 필리핀군과 타이군의 소대장인 소위는 각각 443달러, 389달러를 받았다. 일반 사병들의 경우는 남베트남군의 월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다.⁶¹⁾ 대만은 단 20여명을 파병했음에도, 한국이 얻은 베트남 특수는 대만이 얻은 특수를 약간 웃도는 액수였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단 한 명의 병력도 파견하지 않았지만 베트남 특수에서 배제되지 않았다.⁶²⁾

미국은 한국군의 파병으로 자국 군인들의 인명손실을 줄인 것은 물론, 막대한 비용절감 효과를 보였다. 주월한국군 1인당 유지비가 연간 5천 달러인 반면, 미군 1인당 연간 유지비는 1만3천 달러였으니 그 차액 8천 달러를 한국군 파병 연 인원 32만 명으로 곱하면 미국은 무려 25억6천만 달러의 경비절감 효과를 본 것이다. 국익을 위해 파병을 했다면 장병들의 생명보호와 처우 보장에 힘써야 할 대통령이 그들의 핏값조차 덤핑해버리는 현실이었다.⁶³⁾

베트남 파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도 짊고 가야 하지만, 우리가 치른 가장 중요한 대가는 파병이 아니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인명피해였다. 사망자 5066명, 부상자 11232명, 고엽제 피해자 70948명에 <한겨레 21>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민간인 학살의 명에 또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엄청난 대가가 아닐 수 없다. 베트남에서 귀환하는 한국병사들 간에는 ‘미국은 총알을 제공했고, 일본은 물건을 팔았으며 한국은 피를 팔았다’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⁶⁴⁾

-부끄러운 파병, 민간인 학살

한국군은 베트남전쟁에서 공식적으로 전사자의 8배에 가까운 4만여 명의 베트남인을 사살 했다. 한국군이 4만 명의 베트남인을 사살했다고 국내 언론들은 자랑스럽게 보도했지만 사실 이 중에는 9천여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⁶⁵⁾ 우리정부는 동의하지 않지만 베트남 정치국에선 한국군에 의해 집단학살 된 민간인의 수를 약 5천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겨레 21의 보도로 알려진 최근 자료에 의하면 약 80건의 민간인 학살이 일어나 9천 명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0년대 초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외교부장은 한국군의 공식적인 민간인 학살 건수가 약 3천 건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군의 학살은 한국군 주둔지였던 중부지방 4개 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1999년 한겨레21 273호에 실린 당시 파월장병의 증언을 들어보면

“우리 군이 한 명 죽거나 다치면 그 다음 날엔 줄초상이 났어. 마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죄다 잡아다가 죽였지. 여자들은 강간을 한 뒤에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쏘 죽이고..”

당시 동맹국이었던 미국의 증언에서도 나타나듯 한국군은 교전 중에 사상자가 발생하면 인근의 주민들을 보복적으로 살해했다. 이러한 한국군의 만행이 계속되자 남베트남군의 한 사단장은 베트남 양민을 보호하기 위해 남베트남군에게 한국군 발포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었다.

한국군의 학살은 같은 편인 남베트남군의 가족이 사는 안전마을에서도 이뤄졌는데 대표적으로 풍니·풍넛마을의 학살 등이 있다. 이외의 학살에서 한국군의 만행은 입에 담기 어려울만큼 실로 잔혹했는데, 심지어 학살 후 흔적을 지우기 위해 시체들을 탱크로 깔아뭉개기도 했으며 그 피해자들은 대체로 어린아이와 여성, 노인 등이었다.

베트남 파병은 경제발전의 초석을 닦은 무한한 영광의 역사로만 기억돼야 했기에 포로로 잡힌 국군이 실조된 민간인으로 둔갑하며 ‘단 한명의 한국군 포로도 없는’ 귀환으로 선전되었고, 부상으로 인한 전쟁의 상흔이나 고엽제 피해는 사회에서 묻혔다. 하물며 민간인 학살의 경우엔 20년이 넘도록 제대로 아는 이조차 없었다.

60)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2> p.248 최규장, <언론인의 사계>

61) 한홍구, <대한민국02> p.40

62) 네이버블로그, 베트남 파병의 대가작성자 포지티브

63) 한홍구, <대한민국02> p.41,42

64) 이규봉, <미안해요 베트남> p.269 후루타 모토오, <역사속의 베트남 전쟁> 재인용

65) 구수정, <베트남전 한국군 양민학살 : 한겨레 21 279호>

-중동특수

1973년 북베트남과 미국이 종전협상을 맺고 파월장병들이 귀국하면서 베트남 특수의 끝을 예감한 한국의 기업들은 새로운 특수를 일으킬 나라를 찾아나섰다. 마침 중동국가들이 오일쇼크로 벼락부자가 되었고 중동으로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며 세계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일협정이 8억불, 월남특수가 10억불이었는데 중동특수는 무려 400억불이었다.

1973년 10월 6일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터진 제4차 중동전쟁으로 오일쇼크가 일어 전 세계에 여파를 미쳤다. 10월 16일 원유 값은 70%나 올랐고 12월 23일에는 다시 128%인상되어 국제 원자재가도 덩달아 뛰었다. 우리나라는 중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서방국가들에 비해 피해를 적게 받았지만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이 펼쳐졌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의 성공적 추진에는 그때그때 구세주 같은 계기들이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극단적인 철혈 통제체제로 치달아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베트남 특수에 이은 ‘중동 특수’가 그 시기에 생겼다. 1973년 6월에 삼환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카이바·알올라 간 고속도로를 수주한 것을 비롯해서 토목·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중동진출이 시작되었다. 특히 현대건설의 중동 진출은 괄목할 만 했다. 현대건설은 1975년 바레인의 아랍수리조선소 건설 수주를 시작으로, 1976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9억 3000만 달러에 수주하는 개가를 올렸다. 현대건설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중동에서 51억 달러가 넘는 외화를 벌어들였는데, 현대 총매출 이익누계에서 해외건설이 60%를 차지했다.⁶⁶⁾

또한 국가적 지원 속에서 중동 건설의 총 수주액은 1974년의 8900만 달러에서 1975년에는 7억5100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했고, 1977년에는 33억 87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1975년에는 전체 건설 수출액의 93%, 1977년에는 96%를 차지하는 규모였다. 1975~1979년 사이에 중동 건설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 수입은 총 205억 700만 달러였는데, 이는 총 수출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이를 발판을 삼아 그동안 외화 보유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 경제는 상당한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⁶⁷⁾

월남전 이후 대부분의 해외송금은 중동 지역이었다. 정부는 중동에 파견된 노동자들에게 80%이상의 월급을 한국은행을 통해 송금하도록 하는 강제 송금 규칙을 적용하여 은행에 예치하는 금약을 극대화시키고자 했다. 파견 노동자들에게서 유입되는 송금액은 1973년 1억달러를 넘어선 뒤 75년엔 1억5800만 달러, 76년엔 3억300만 달러, 77년엔 5억8400만 달러, 78년 7억6900만 달러, 그리고 79년엔 11억5800만 달러에 이르렀다.⁶⁸⁾

그 외

-1인당 GNP를 올려라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의 입안과정에서 인구정책은 골격을 갖추기 시작했다. 1인당 GNP를 올리는 것은 반드시 해내야 할 군사작전과 같은 것이었는데 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날로 증가하는 인구수였기 때문이다.(1인당 소득증가율=경제성장률-인구증가율) 당시 경제기획원 담당사무관 조남홍은 이렇게 말한다. “당시 인구증가율은 연2% 이상이어서 3차 계획이 끝나는 연도(1976년)의 증가율을 1.8%로 잡았더니 부총리가 1.3%로 낮추라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야 1인당 GNP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희일 국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고, 연구 용역을 맡았던 서울대 측은 1.5%도 힘들다고 했어요.”⁶⁹⁾

1962년부터 시작된 가족계획의 60년대 슬로건은 “3살 터울 셋만 낳고 단산하자” 였고, 70년대는 둘로 줄어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루 앞선 가족계획 십 년 앞선 생활 안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의 구호들이 난무했다. 80년대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바뀌었다.

세계일보 논설위원 주태산의 말을 들어보면

66)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p.195,196

67)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p.195,196

68)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2> p.286 신광영,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민주화’ 재인용

69)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3권> p.16 주태산, ‘경제 못살리면 감방간대이...’ 재인용

“1976년도의 인구 증가율은 1.5%선에서 낙착을 보았다. 이 불가능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관 수술시 보상금지급, 콘돔 무료 배포, 산아제한 홍보 강화 등의 인구억제 정책이 본격화됐다. 그 결과 1974년 1.73%, 1975년 1.70%였던 것이 1976년에는 1.61%로 목표치에 근접했으며 이듬해인 1977년에는 1.5%대(1.53%)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일단 목표를 세우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달성하고 마는 박정희 시대 경제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⁷⁰⁾

소현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970년대 가족계획운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당시 방영되었던 모든 텔레비전 드라마의 부부는 두 자녀 이하의 자녀를 갖게 했고, 인구폭발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그리고 우표, 담뱃갑, 극장표, 통장, 주택복권 등과 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구내 등 일상 공간에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내일이면 늦으리! 막 아보자, 인구폭발’ 등의 가족계획에 관한 표어를 부착하였다. 또 도시마다 인구탑을 세워 매일 증가하는 인구수를 주시게하였다. 경제적 혜택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자녀를 적게 낳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1976년 후부터 두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소득세를 감면시켜 주었고, 하나나 둘을 낳고 영구 불임수술을 한 경우에는 공공주택 할당 및 금융 대출에 우선 순위를 주었으며, 그 자녀들에게는 취학 전까지 의료혜택을 주었다. 게다가 영세민들이 불임수술을 받을 때는 금전적인 혜택까지 주었다.”⁷¹⁾

그런 군사작전식 노력 덕분에 출산력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다가 1980년대 후반에는 재생산 수준 이하로까지 떨어졌다. 1955-60년 동안의 함께 출산율(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갖는 평균 출생아 수)은 6.3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1971-75년에는 4.0이었으나, 1976-80년에는 2.9로 떨어진 것이다. 1990년대 들어선 더욱 낮아졌다. 1960년대 초 3%였던 인구 증가율은 1990년대 이르러 1%미만으로 감소했으며 출산율로는 1.6으로까지 떨어졌다. 통계청의 ‘2001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출산율은 1.30으로까지 낮아졌는데, 이는 미국(2.13), 영국(1.64), 일본(1.33)보다도 낮은 수치다.⁷²⁾

물론 인구감소의 이유가 가족계획의 영향으로만 볼 수는 없다. 농촌의 가임 여성들이 대거 도시로 나가는 바람에 그들의 결혼연령이 높아졌고, 또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자식 많은 게더 이상 재산일 수 없는 변화를 몰고 왔다는 것도 감안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찌되었건 박정희 정부의 이러한 가족계획은 정권의 바람대로 ‘1인당 소득’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어 공약 실천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앞을 내다보지 않은 인구정책은 오늘날 국가의 존립까지도 위협하게 되었다.

-한·일 굴욕외교

일본의 강제 징용이 본격화된 1938년부터 조선전체 가구 수 519만 가구 중 총 200만명이 징용(150만)·징병(36만)·정신대(20만)로 징발되게 된다. 그리고 징발된 조선인 상당수는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당시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월급을 일본 은행 등에 예치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해방으로 인해 예치된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귀국해야 했던 것이다. 일본제철소에서 2년 동안 일했던 징용 노동자 여운택 씨는 “한 푼도 안 쓰고 저금한 돈이 495엔이었지만, 해방이 되고 나서도 이 돈을 찾지 못했다”고 회고한다. 당시의 495엔은 오늘날 약 15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처럼 징병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신고 받아보니 총 25만명 정도였고 피해액은 재산 피해액 3억달러, 미지급 임금·사망 보상금 18억 달러로 총 21억 달러였다.⁷³⁾ 한일회담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기위한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한일회담은 51년부터 비밀리에 실시되어왔고 이승만은 21억 달러를, 장면은 28억 5천 달러를 요구했지만 청구권 문제로 번번이 결렬됐었다. 일본은

70)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3권> p.16,17 위의 책 재인용

71)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3권> p.17 소현숙, ‘너무 많이 낳아 창피합니다:가족계획’

72)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3권> p.18,19 박경애, <인구변동과 사회변동>/소현숙, <너무 많이 낳아 창피합니다: 가족계획> 재인용

73) MBC, ‘이제는 말 할 수 있다’ : 2001년 6월 1일 편

‘종전 후 혼란으로 우리도 자료가 없다’ 며 ‘무엇이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잡아땀다.

질질 끌던 청구권 문제가 일괄 타결된 것은 62년 김종필과 일본 외상 오히라 간의 비밀회담을 통해서였다. 그것은 3억 달러의 무상원조와 3억 달러의 차관으로 총 6억불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비밀회담의 메모에는 자금 제공의 명목에 관한 언급이 없어 쌍방이 각자의 편익에 맞춰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 ‘청구권’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은 그 돈을 ‘독립 축하금’으로 해석했다.⁷⁴⁾ 64년 봄부터 박정희는 한일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국민지지기반을 위한 경제 개발에 쓰일 재원조달을 위해서도 필요했고, 미국의 압력 또한 중요한 이유였다.

학생들은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투쟁을 격렬하게 벌였으며 언론은 그 투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반대 투쟁에 대한 탄압, 그 탄압에 대한 저항, 그 격렬함은 확고한 신앙의 대결인지라 전쟁을 방불케했다. ‘민족 신앙’ 대 ‘수출 신앙’의 대결이라고나 할까? 그건 ‘굴욕’에 대한 감수성 같등이기도 했다.⁷⁵⁾ 야당, 사회·종교·문화단체 대표 2백여 명은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한일회담의 대안으로 ‘청구권 27억 달러, 평화선의 40해리 전관수역’을 제시했다. 장준하 등이 연사로 나선 서울 장충단공원 유세엔 70명의 인파가 몰렸고, 서울 대에선 4천여 명의 대학생과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 열렸다.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5.16에 대한 부정, 즉 박 정권의 퇴진요구로까지 이어졌다. 6월 3일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시위가 열렸고 그날 밤 서울엔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한일협정 반대 시위는 64년 3월부터 65년 6월까지 약 15개월에 걸쳐 대학생·고등학생·야당·사회·종교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총동원인원 수백만 명이 넘는 시위로 이어지게 된다.

65년 초 박정희가 기자회견에서 한일회담을 올해 안으로 매듭짓겠다고 선언했고, 끊임없이 반대시위가 이어졌지만 6월 22일 동경의 일본 수상 관저에서 양국 외무장관 이동원과 시이나가 서명함으로써 한일협정은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그리고 7월 14일 밤 공화당은 정부가 제출한 ‘한일협정 비준동의안’을 발의했고, 8월 14일 오전 한일협정 비준동의안은 여야 간 심한 몸싸움 끝에 야당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⁷⁶⁾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서도 “양국 간의 긴 역사 중에서 불행한 기간이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인 일”이라는 외상 명의의 성명서 한 장으로 끝내고 말았다.⁷⁷⁾ 이 협정에 의해 평화선(이승만라인)이 철폐되었으며, 한국 측의 40해리 전관수역 주장이 철회되고 일본의 주장대로 12해리 전관수역이 설정되었다.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영주권 문제 등도 일본 정부의 임의적 처분에 맡겨지게 되었다.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은 일제가 35년간 불법으로 강탈해간 모든 한국 문화재를 일본 소유물로 인정해 버렸다. 정신대·사할린 교포·원폭 피해 등의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못했다.⁷⁸⁾

물론 한일협정으로 받은 무상 3억불, 재정 차관 2억불, 경제 차관 3억불은 당시 한국 GDP의 20%나 되는 막대한 액수였으며 그 돈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지만, 타당한 금액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고사하고 그 성장의 가도에서 돈의 원래 주인들은 과연 얼마나 혜택을 받았던가? 무상 3억불 중 1%인 300만 달러만이 보상으로 쓰였다. 한 징용자는 이렇게 절규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우리 피와 땀을 내다 팔아먹은 것이다. 개인이 죽기까지 피땀 흘려 번 돈을 어찌 대한민국 정부에서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는건가”

4. 오늘날의 경제성장의 논리, 경제만능주의

-여전히 인간적가치 배제된 경제성장 환영

2015년 ‘전직 대통령 중 해방 이후 우리나라를 가장 잘 이끈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우리나라 국민 10명중에 4명(44%)은 박정희를 꼽는다.⁷⁹⁾ 응답자의 67% 박정희가 ‘잘한 일이 많다’며 그 이유로 경제

74)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편 2> p.291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참고

75)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편 2> p.287

76)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편 3> p.27,30,31

77)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편 3> p.28 김용석 ‘다시쓰는 한반도 100년:…’재인용

78)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편 3> p.29 김삼웅, <해방후 정치사 100 장면:…> 재인용

79) 한국갤럽, 15년7·8월 성인2300명 설문결과

발전(52%)을 꼽았다. 잘못된 일로는 독재·유신·민주화후퇴 (72%)와 쿠데타 군사정권(10%)을 꼽아 억압적인 독재와 민중탄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경제발전이 그 잘못을 덮을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근혜의 지지층을 대상으로 지지이유를 물었을 때⁸⁰⁾ 지지층의 10.5%가 ‘아버지가 훌륭해서’를 택했다. 인간적인 가치는 무시된 채 진행 된 경제발전에 대해 우리사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람은 아버지보다 시대를 낡는다.’

‘근대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박정희의 집권아래 우리나라는 분명 눈부신 경제성장을 했다. 군부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61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에 불과했던 반면 부하의 총에 의해 유신이 끝난 79년엔 1684 달러로 18년의 집정기간동안 20배 넘게 상승했다. 또한 동시기 수출은 4000만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늘어났다.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새마을운동에서부터 수출신화를 만든 수출주도정책, 그리고 베트남파병까지 박정희 정권의 업적으로 치하되고 경제성장을 이끈 주역들은, 괄목할만한 성과로 기록돼 오늘날에도 회자되지만 그 개발의 논리 아래 스러져간 대다수의 약자들이 있었다.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해 경제개발이 신앙처럼 받아들여지던 때, 그 어떤 가치보다 경제개발이 우선시 되었다. 경제성장이라는 명분아래 국가에 의한 국민의 희생이 강요되었고 기업에 대한 부의 편중이 조장되었지만 그 성장의 이익은 제대로 분배 되지 않았다.

군부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경제개발과 새마을운동 등의 국가주도 사업을 군대식으로 꾸려나갔다. 과정에 대한 사유 없이 목표만을 향한 군대식 전시행정으로 인해 농촌에서는 전통적인 문물에 대한 평가나 존중 없이 ‘공무원이 초가집을 뜯어내는’ 강압성이 있었고, 농촌의 생활모습은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바뀌었지만 오늘날 전통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경제성장 지표를 올리기 위해 진행된 무리한 인구조절정책은 오늘날 저출산 문제를 야기했고, 당장의 이득에 눈이 멀어 굴욕적인 한·일 협정을 맺음으로써 위안부와 식민지 징용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를 7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다.

어느 나라의 속담으로 전해지는 ‘사람은 아버지보다 시대를 낡는다’라는 말을 책에서 읽고 우리나라를 떠올리게 했다. 농민들의 가난을 조장하고 빈민들의 삶을 짓밟은 경제성장의 논리는 노동자들의 권리 또한 묵인 했고 그 분노가 70년 전태일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만들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경제논리로 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는 외면당하다 못해 그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고, 이젠 노동자들이 당할 부당한 처우를 늘리고 그것을 정당화 할 법까지 만들어지는 형국이다. 같은 논리로 폭력적인 철거와 빈민촌 이주정책의 논란은 재개발 붐으로 일어난 용산참사로 반복되고 있다. 국익과 경제적 수입을 명분으로 젊은 이들의 목숨을 판 베트남 파병은 똑같은 논리로 이라크 파병으로 이어졌다. 국익과 물질적인, 경제적인 이득은 그 어떤 것에 비해도 우선이 되는 경제만능주의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고 보여지는 단상이다.

60년대 먹고살기 힘들어 대두된 경제만능주의가 풍족하다 못해 넘쳐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국익과 경제성장이란 이름아래, 약자들이 당하는 부당한 폭력에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제만능주의야 말로 우리가 박정희시대를 지나오며 보고 배운 것이 아닐까?

경제의 논리가 앞선 사건들

-이라크파병

2003년 3월 20일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이라크 전쟁은 시작되었다. 미국이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보유와 9.11테러의 배후로 지목되는 알카에다와의 관련이었는데, UN의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이라크 공격에서 승전을 선언한 미국은 몇 달동안 이라크 전역을 뒤졌지만 대량살상무기를 찾지 못했고, 미 대통령 부시는 공식적으로 알카에다와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두 가지가 침공을 정당화할 조작된 명분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⁸¹⁾

80) 한국갤럽, 11년 2월 22일 1024명 설문결과

우리나라에선 2003년 4월 국내외의 높은 파병반대 여론 속에서도 이라크 파병안을 통과시켰고, 2003년 5월과 10월 비전투지원인력을 파병한다. 2003년 9월 미국의 전투병 추가파병 요청에 논란 속에 2004년 2월 자이툰 부대 파병이 결정된다. 그해 6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라크파병 계획을 확정지었고, 발표직후인 6월 22일 이라크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김선일 씨가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후 파병 찬반 논란이 거세졌으나 파병은 진행되었고, 파병은 4년 간 이어져 2008년 12월에 자이툰부대와 다이만 부대가 철수하게 된다.⁸²⁾

한국에서는 추가파병을 놓고 “명분 없는 전쟁에 한국이 추가파병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론과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요청에 응해야 한국의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찬성론이 대립해 국론분열에 버금가는 대논쟁이 벌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현안”이 있으므로 “어느 때보다 한미관계를 돈독히 해야”한다며 파병으로 인한 한미동맹의 효과를 이야기했고, 또한 그 지역에 매장되어있는 석유·천연가스 개발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파병을 주장했다.⁸³⁾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실리가 명분 없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말하고 있었다.

“앞으로 세계 질서도 힘이 아닌 명분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명분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명분이 아니라 현실의 힘이 국제 정치질서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국내정치에서도 명분론보다는 현실론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238차 임시국회 대통령 국정연설문」 2003년 4월 2일.⁸⁴⁾

-용산참사

2009년 1월 20일 용산 재개발 4지역에서 옥상망루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철거민 시위대와 경찰의 무력 진압과정에 화염에 휩싸여 농성자 5명과 경찰 1명이 죽은 사건을 말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개발논의에서 상가 철거민들은 권리금등이 포함되지 않은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에 자신의 공간에서 나가려 하지 않았다. 이에 용역은 영업을 방해하고, 집기를 부수고, 방화까지 하는 등 폭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철거민들을 압박했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은 바라만 보고 있었다. 2009년 1월 20일 새벽 건물 옥상 망루에서의 시위진압에 용역과 경찰특공대원등이 투입되었고, 경찰은 용역과는 상관이 없다 주장했지만 용역직원이 직접 물대포를 쏜 증거가 확인되었다. 또한 유족 동의 없는 시신 부검이 이뤄졌는데 화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장갑을 낀 손의 지문은 남아있던 점, 유품으로 라이터가 나온 점 등이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끝냈지만 국가의 시체부검으로 인해 증거를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청와대는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으로 용산여론을 무마하라는 지침의 이메일을 보냈고, 검찰은 용산참사의 보고서 1만여 쪽 중 3000쪽의 공개를 거부했다. 용산참사의 경찰은 무혐의처리 되었고,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들은 유죄판결 받았다. 아직도 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은 용산참사는 개발을 위한 공권력의 과도한 진압과 의혹을 국가가 감쌌고, 이전과 다름없이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목숨을 잃고 범죄자가 되었다.

용산참사를 목도하며 32년 전 무등산 자락에서 일어난 박흥숙 사건을 떠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silencewb’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이렇게 썼다. “무당골과 용산에서 벌어졌던 도시빈민의 비극은 많은 점에서 닮았다. 불이 났다는 점이 닮았고, 철거하려는 자와 철거당하지 않으려는 자가 있었다는 점이 닮았고, 누군가가 죽었다는 점에서 닮았다. 그곳에서 죽어갔던 이들은 살 수 있었다. 그들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이주 계획만 있었다면, 불만 지르지 않았다면.”⁸⁵⁾

81) 역사마을(<http://egloos.zum.com/mansoo2d/v/4662885>) 천재교육 웹진, 2003년 10월호 참고

82)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 ‘한국군 이라크 파병’

83) 구우회, 2012 석사논문 ‘해외파병과 국가이익 : 한국군의 이라크파병을 중심으로’ p.60, 65

84) 대통령 연설문, 「제238회 임시국회 국정연설」 2003년 4월 2일

85) 한홍구. <유신> p.234

-노동자탄압

오늘날에도 전태일은 '다른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을 보면, 2009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 3천여명의 정리해고가 이뤄졌지만 이후 경영난이 기술을 노리고 쌍용차를 인수한 상하이차의 회계조작 때문임이 드러난다. 이에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하지만 국가의 폭력적인 탄압을 받고, 이후 인도의 회사에게 또다시 매각되어 보상의 길은 요원해진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와중에 해고 노동자의 죽음은 스무명을 넘은 지 오래다. 2009년 3월 "오죽하면 회사가 해고하겠냐는 식으로 회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반대하면 조직을 위한 길이 아니다" 라고 한 이명박의 말처럼 노동자, 국민, 국가는 아직도 기업의 이해를 우선해야하는 존재처럼 다뤄진다.

또한 요즘 이뤄지고 있는 노동계약의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등 친기업적인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고, 노동자들의 문제나 파업 등을 바라보는 언론 또한 자본가의 입장에 철저히 맞춰져있다.

*박정희 정권아래 흘러간 18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영향과 흔적을 남겼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영향의 결과를 살펴보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역사는 어제의 기록이 아니다. 바로 오늘이며, 내일을 향한 나침반이다. 우리가 한국의 현대사를 모른다는 것은 오늘의 한국사회를 모른다는 것이며,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다.(...)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다.' -홍세화, 대한민국史 추천사

질의응답 및 토론

[질의응답]

-형근 :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 궁금해요. 베트남이 한국에게 요구한건 없어요? 보상이나.. 범죄 사실에 대해 따진다거나 그런거

-별 : 베트남 학살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조차도 피해자를 인정하면 학살을 인정하는 꼴이니까.

-민수 : 아까 비동맹 무슨 회의요, 북한은 가입이 되었는데 남한은 가입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기구인지 궁금해요. 왜 남한은 거부 당했는지.

-별 : 비동맹외상회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당시에 베트남전에 대해 반전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인데 그럼에도 한국은 미국에 종속되어 있던 처지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어요. 제3세계 국가들을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민 : 용산 사건과 닮았다던 그 사건에 대해서..

별: 무등산 타잔 사건이요? 철거반이 박흥숙 집에 불을 질렀고 박흥숙의 어머니가 종잣돈을 가지러 가다가 철거반에게 밀쳐진 이런 것들을 보며 박흥숙이 흥분을 했고 살인까지 이어졌던 사건이에요.

경제성장을 최고 우위에 두는 경제만능주의는 나쁜걸까?

-별 : 다른 가치보다 경제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나쁜걸까요? 박정희 정권은 경제가 아니고 모든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주의라던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침해했지만 경제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칭송을 받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가자1 : 저는 경제성장을 우위에 두었던 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경제성장을 통해 좀 더 나은 삶을 보장 받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서도 그 과정에서 누구는 더 열악한 삶을 살게 되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2 : 경제 성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박정희 정권이나 지금이나 GDP를 올리는 데만 초점이 맞춰지니까.. 개인의 생활수준은 나빠졌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석원 : 주객전도인거 같아요. 돈이라는게 물건을 거래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도구잖아요. 근데 그걸 만든 것도 인간이고 사용하는 것도 인간인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 뒤에 화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폐 뒤에 인간이 온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약자의 목소리가 묻히는 건 어쩔 수 없는걸까?

-별 :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힘든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하는 희생일까요?

-참가자1 : 너무 답이 정해져 있는건 아닐까요? 하하하

-철수T :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경제성장을 바라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가 많아요. 경제성장 논리를 당의 정책으로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게 참으로 아이러니해요. 경제성장 논리에 더 빠져있는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민 : 저소득층의 생각을 바꿔야 해요.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자본가나 위쪽 사람들의 자본을 불러주는 역할을 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당에 투표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을 착취하는 기득권층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고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하는데 개인의 생각을 바꿔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측면 보다는... 아까 오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감정 극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론 박정희 정권 때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질타를 받을까봐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싸움을 붙였던게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그래서 기득권층이 미디어와 교육을 통제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눈과 귀를 막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사회적 약자들이 진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상 :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득을 본 기득권층과 약자의 비율은 어떨까요?

-별 :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잘은 모르겠어요...

-준상 : 지금 힘이 센 사람이 소수고, 경제성장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소수들인데, 경제성장이 노동자나 지금의 취약계층인 다수에게 이득이 갔다면, 경제성장을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민수 : 나 자신을 위해 누군가가 희생되는 것은 나쁜 일이죠. 안되는 일이라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소운 : 다수의 노동자들이 힘 있고 의식있는 노동자가 되려고 하는게 아니라 소수인 기득권층이 되려고 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노동자 스스로가 소수자고 약자라고 인식하는 거 같아요. 사회도. 스스로가 강한 노동자가 되려고 한다면 사회도 분배에 대한 법을 만들테고 자연스레 평등한 사회가 오지 않을까요.

-형근 : 유럽 같은 선진국 보면 재벌이나 기득권이 사회적으로 기부도 하고 세금도 많이 내는게 착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하면 목이 날아가는걸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런거에 대한 인식, 일종의 두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죠. 기득권이 위기감을 느껴야 분배를 할 것 같은데 그런게 없어서.. 노동자 혁명이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원 : 재분배라는 개념 자체가 깨름칙해요. 기업과 기득권에게 이미 흘러들어간 돈을 다시 시민과 평범한 노동자에게 다시 분배한다는거 자체가 맘에 안들어요. 경제성장을 통해 기업과 기득권층에게 집중되는게 옳았는지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재분배를 생각하기 전에 기득권층에 흘러들어갔던 자본을 끊고, 평등하게 나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수T : 기업이 가진 주식을 통해서 기업의 자본금을 모집해요. 주식이라는게 많은 주주들이 공동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지, 오너의 소유가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에서 기업 몇몇이 독식하잖아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것을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것은 사회의 소유로 봐야 한다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본에 대해 일정한 통제를 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별이 아버님 : 우리나라 세금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기업들이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해요. 기업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면 좋은데 자꾸 기업의 편의를 보면서 법인세는 내리고 간접세나 서민의 세금을 올리는 형태로 되는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랑 국민들이 지고 있는 가계 부채량 규모가 비슷해요. 기업이 돈을 벌었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했다는건데, 그 이익이 정당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는거죠. 주주한테만 가고 있는거죠. 기업 개인의 돈이 아니라는거죠. 기업이 벌었으면 그 돈을 세금으로 정당하게 내야하는데, 예를 들면 전기가 부족했을 때 기업을 위해서 가정부터 차단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희생하면서 기업을 돕는 구조죠. 행복을 위해서 사회 전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익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정당하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린 : 약자의 목소리가 묻히기 시작한다면 약자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경제성장이 곧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우리 국민들은 정작 쓸 돈이 부족. 우리나라는 기업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도 엄청 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할수록 기득권층과 대기업들만 몸을 불리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효율적인 것은 좋은 건가? 효율성만 따져선 안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도운 : 효율적인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다른 가치를 저버릴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지키면서 어떻게 자신의 효율을 높일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정희 정권 설명할 때도 말했듯이 경제 성장이란 효율을 따지게 되면서 놓친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준상 : 효율 자체는 좋다고 생각해요. 효율적인 일을 하면 같은 일을 더 빨리 끝내고 내가 더 여유롭기 위해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일을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더 여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지만 효율 그 자체로는 나쁜 점이 없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편해요. 효율 자체로는 나쁘다고 생각 안해요.

-소윤 : 예를 들면.. 내가 장애인인데 돈을 많이 벌어요. 사회가 다수의 행복을 위해 굴러간다면 결국에 나도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아요. 효율을 따진다면 그 안에서 결국에 누군가는 피해를 볼 것. 그렇게 효율을 따지다보면 다같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준상 : 우리가 다같이 살려면 오히려 더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는거?

-소윤 : 사람들은 처해진 환경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다른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환경 같은 것도 효율을 따지다 보면 전기 물 막 써도 되는데 굳이 불편하게 생태 화장실 쓰고 전기 아껴 쓰는거잖아요. 어려운거지만 다 같이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별 : 99명이 전기를 쓰기 위해서 1명은 자신의 생활이 망가져야 해요. 밀양을 예로 들면 이런거 아닐까요?

-지민 : 밀양 같은 경우에도 한전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전력이 부족해서 송전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업용 전기 값은 왜 싼건지 등등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윤 : 저는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이익을 취하기보다 그렇게 지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나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니까 가서 돕기도 하고.. 희생하는 게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내가 조금 잃는게 있어도 다같이 행복할 방법을 찾는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날 사회문제를 모두 해결해주겠다는 현자가 등장한다. 더 이상의 선거도, 국회의 몸싸움도 필요 없다며 선진국처럼 살게 해주겠다고 한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

-성훈 : 신이던가 사기꾼이던가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진짜 전능한 사람이 있다면 따르고 싶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살면 원하는 걸 다 하게 되니까 중요한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 중요한 뭔가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아무런 고민 없는 삶이 행복할까? 자기가 싸워서, 노력해서 뭔가 얻어내는 데서 얻는 성취감도 큰 것 같아서..

-석원 : 저는 100%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회는 30%만 행복하던 세상이 50%가 행복해지고, 50%가 행복한 세상이 70%로 늘어나는, 발전하려고 마음을 내고 방향을 잡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말대로의 세상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소윤 : 지금 사회를, 어떤 메시아 있잖아요. 어떤 구원해줄 사람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 안해도 되고, 걱정 안하고 알아서 해줄 구원자를 찾길 바라서 누군가는 박근혜를 찍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한테 저런 사람이 나타나면 다시 한 번 의심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나린 : 종교가 있듯이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들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의외로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발전이 없지 않을까? 우리 인류가 점점 발전이 없어지고 가축화라고 할까? 노예화? 음.. 인간 존립 자체의 문제를 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준상 : 딱 저것만 놓고 봤을 때는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행복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폐같은 경우에도 남들이 보기엔 장애인이지만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다면 나름대로 괜찮은 삶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겪어보고는 싶어요.

-진한 : 행복과 불행이 사람에게 있어서 양면의 동전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 사이에는 분명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까지 해결해주진 못할 것 같아요.

-민수 : 저는 민주주의가 꼭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수가 지지하는 세상으로 가는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데.. 다수가 옳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수는 항상 옳은 생각을 할까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고, 학교만 봐도.. 민주주의, 다수가 과연 옳을까에 대해서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것만 봤을 때는 좋거든요. 더할 나위 없이. 근데 다수가 옳은건지는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3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시민사회

1. 개요

과연 진정한 시민은 존재하는 것일까? 버스노조파업 현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유럽- 프랑스의 노조파업은 승리를 기원하는 박수를 받고, 대한민국의 파업은 날카로운 시선을 받는다. '시민의 발을 묶는'. '불편함'을 감수해야하고 나의 시간에 지장을 준다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란 무엇일까?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시민이 아닌가? 집단화된 '국민'이 아닌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알아보고, 시민사회의 역할과 드러난 시민의식은 어떤 것이었는지 공부해본다. 시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함께 이야기해보자. 시민으로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2. 목차

1. 시민사회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

1-1. 시민의 등장/시민사회의 구성

1-2.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단체들의 등장

2. 노동운동의 대중성과 시민운동의 연대

-유럽의 경우

-시민사회의 특징

-고전적 시민혁명과 2015년 현재의 투쟁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와 IMF

-촛불집회의 등장과 시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3. 참고자료

(1)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 경제학을 비판하면서 1970년대부터 득세한 학파이다. 케인즈주의란 신자유주의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득과 실이 있으면서도 합쳐지지 않는다.

케인즈주의: 1930년대 대공황으로 기존의 고전학파들의 '시장이 언제나 완벽하다'는 이론이 흔들리자 케인즈가 『고용, 투자, 화폐에 대한 일반이론』(1936)에서 '규제되지 않은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전 가격 시장에서는 공급을 중시했지만 대공황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물량은 남지만 팔리지 않아 기업체들이 대량으로 망하는 사태가 일어난다. 기존의 경제학은 시장의 원리로 해결 되어야 하지만 기존의 시장원리로는 해결되지 않자 케인즈는 거시적 요인에 의해 미시적 행동이 제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유효수요라는 원리로 개인의 살 능력이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다며 정부의 개입(공공사업 실시, 제도 정비 등)을 증대시켜야만 이 상황을 풀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시장은 완벽하지 않으니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을 조정해야 된다는 이론이 케인즈주의다. 수정자본주의와도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2)부르주아지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과 1789년 프랑스혁명은 상공업자인 부르주아지들이 주도했다. 그들은 봉건적 신분제와 이에 기초한 정치제도적 폭압에서의 해방을 위해 투쟁했다. 이처럼 사적 이익의 추구가 봉건제 국가에 맞서선 투쟁을 낳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대의 시민들은 국가와 시장의 권력과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들의 횡포에 맞서 투쟁하는 '공익 지향적'인물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권력의 횡포에 대한 저항을 포함한 시민적 권리의 행사는 현대적 의미의 시민개념의 핵심이다. 메리엄-웹스터 법률사전에서 시민은 '국가에 신의를 지키며 정부의 보호를 향유하고 시민적 권리의 행사를 누리는 자격을 가진 토착적 개인'이라고 정의된다.

(3)시민-국민-민중 등 사회구성원의 여러 이름

군중 : 공통된 관심사나 주목대상 아래 비교적 한정된 지역공간에 일시적으로 밀집하여 정동적(情動的)으로 행동을 같이 하는 여러 개인의 모임.

시민 : 도시의 주민, 또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

국민 :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 또는 그 전체.

민족 :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문화적 공유성을 바탕으로 하여 전통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집단.

대중 : 계급·사회적 지위·직업·학력 등 사회적 속성을 초월한 이질적인 불특정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합체.

인민 : 일정한 사회에서의 일반 대중.

민중 : 세간의 일반사람·보통사람. 의미자체로 보자면 인민과 거의 같은 단어이다. 한국정쟁과 분단의 여파로 냉전구조가 정착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인민이란 단어가 금기시되었다. 1980년대 널리 쓰인 민중은 실제로 그 단어가 쓰인 맥락으로 보면 노동자, 농민, 빈민등 피지배계급을 총괄하는 개념이었으며 그런점에서 이데올로기적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중 : 특정한 쟁점이나 사건 또는 활동에 의해 영향을 입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들의 관심이 어떤 형태로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표명되고 정책결정시에 고려의 대상이 되는 다수의 사람들.

1강, 시민사회

1. 시민사회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

1-1. 시민의 등장/시민사회의 구성

시민과 시민사회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시민의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조선시대, 그전의 역사를 이야기해야 한다. 조선시대의 근대적 개인은 과연 존재했는가?

조선의 통치철학인 성리학이 민유방본이라하여 민을 국가의 본으로 상정하고 있었지만 민은 공역과 납세의 의무를 짊어지고 군주의 권력에 복종해야하는 집단이었다. 민이 없으면 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로 민심은 천심으로 천심은 천도로 정의되는 군주는 인민에 터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 민유방본, 또는 도덕정치 기본 논리였다. 오늘날의 국민과 국가의 모습이다.

언문은 한문과 구분되는 사회적 상상을 백성에게 제공한다. 사회적 상상이란 문자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새로운 성찰이라고 한다면, 그 새로운 성찰 속에는 지배권력의 허를 찌르고, 지배이념의 논리를 뒤집고, 전복까지를 꿈꾸는 혁명적 이상이 싹트고 있었다.

무너지기 시작한 봉건질서로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민란에 휩싸이거나 기존 체제에 모순을 느끼는 인민들, 서양문물에 경계심과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인민의 역사는 동학이라는 문을 열고 소설과 서민예술을 지양분으로 해서 정체성과 고우영역을 개척해나갔다. 인민의 역사를 썼던 주역은 주체의식을 갖추기 시작했던 자각인민들이었다.

-국민이 국가를 구성하는 제1의 요소라면 시민은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제1의 요소이다.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시민은 누구이며 시민사회란 무엇인가? 먼저 시민에 대해 살펴보자. 시민사회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다음에는 시민사회단체는 어떻게 생겨나고 운영되어 왔는지 알아보자.

시민은 누구인가? 주민등록상의 서울시에 거주하면 서울시민이 되지만 그들 모두가 우리가 얘기하려는 시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의무를 실천하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초점에 맞추어야 비로소 시민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민중이나 대중이란 말보다 시민이 더 가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민중이나 대중이란 말이 거의 자취를 감추면서 대신 시민을 많이 얘기하며 더 친숙해져 있다. 활기차게 활동 가능한 시민사회는 공공영역이 점차 확보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무렵부터다. 시민이 민중이나 대중을 대체하는 세대, 즉 우리는 시민의 시대를 살고 있다.

시민이란 인물이 활자화 되어 등장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민주주의 이론가 바버는 대중은 소란을 일으키지만 시민은 심사숙고하고, 대중은 충돌하고 대립하지만 시민은 관여하고 공유하며 기여한다. 면서 시민과 대중을 엄밀히 구분한다. 따라서 대중도 관여,공유,기여하면 시민이 되는 것이다. 참여하는 시민들이 있어서 시민사회 단체가 존재하고 시민사회가 지속성을 갖게 된다.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사회단체로 여러번 꼽혔던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10일 창립하면서 우리는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가 여러 시민들이 함께 모여 다같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조그만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경실련이 창립되던 1989년은 세계역사가 뒤바뀌는 ‘혁명’의 해였다. 그해 11월9일 동서독간 자유 왕래가 허용되면서 베를린 장벽이 마침내 붕괴의 길로 내달렸다. 이런 사회주의 붕괴의 과정을 지켜봤던 독일의 사회학자 다렌도르프는 ‘1989년 이후’에서 동구의 민주화혁명이 “제약받지 않는 토론, 평등 및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새로운 세계”를 가져다주는 희망인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시민권과 시민사회가 선거나 시장보다 더 중대한 진전을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렌도르프는 현대사에서 시민만큼 역동적인 사회적 인물은 없다며 시민은 지난 수세기 동안 새로 등장한 사회 집단, 봉건사회에서의 도시 유산계급, 18-19세기 새로운 산업계급, 의존과 박탈에서 자신을 해방시켰던 농노와 신민, 식민지 국민, 여러 소수민족, 여성 등 집단에 속했던 구성원이자 시민사회를 건설한 원동력이었다. 고 설명한다.

시민개념은 18세기에 일어났던 시민혁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시민은 근대 이후 사회에서 그 사회의 중심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프랑스 혁명 이후

만들어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는데,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기본원칙은 "인간은 자유롭게 또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제 1조)는 것이며 이 권리는 자유·소유·안전·압제에 대한 저항으로 명시되었다(제 2조). 시민혁명 당시에는 상업, 공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계층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일컫는 말이 되었다. 즉 시민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의사와 행동으로 근대 국가에 주체로서 참여하고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탄생의 역사는 시민사회 탄생의 역사와 같다. 시민혁명을 일컬어지는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과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상공업자인 부르주아지들이 주도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탄생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공직자들이 부정부패로 국가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위해식품을 생산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에 맞서 행동하는 시민이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시민사회를 확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평생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해온 아름다운재단의 윤정숙님은 “개인이 자기의 일상에서 ‘되게 부정의하다’ 그리고 ‘이건 누가봐도 내 삶을 억압하는 거다’라고 자각했을때, 그래서 개인이 자기문제를 사회적 아젠다로 만드는 그 순간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한다.

지난 2004년 학교의 특정 종교 강요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인 당시 고등학생 강의석의 사례를 들어보자. 이런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공감을 불러일으켜 사회적이슈가 되었다. 강의석처럼 자기 문제를 사회문제로 제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갖게 하고 공동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인물이 시민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말은 무엇일까? 도시에 거주하는 주거권을 가진 사람? 시민? 아니면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국민? 어느 쪽이든 맞는 말이다. 나는 주거권을 가지고 있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국민보다는 시민이어야 한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인의 시민사회 활동은 시민사회단체의 위기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최근까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시민운동 중심의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침체 국면으로 바뀌는 동향과 달리 시민들의 기부나 자원봉사 등의 활동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시민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이 균형을 이뤄가는 형국이다. 시민사회 전체로 보면,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침체보다 시민참여가 활성화된 덕분에 사회자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감소하고 기부나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줄어드는 등, 사회자본이 작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퍼트남교수는 이처럼 홀로 원자화된 사회적 분위기를 ‘혼자 불링하기’라는 비판적 주제로 분석했고, 많은 국가에서도 자국의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시민사회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한국인의 시민사회 참여 활동을 보기 위해 통계청이 조사한 1999-2006년 자료를 참고해볼만하다. 모든 참여 활동이 꾸준히 상승세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10퍼센트대를 넘어선 것을 볼수있다. 또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을 보더라도 시민의 참여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불런티어21의 자료에는 20세 이상 성인 자원봉사는 1999년 14퍼에서 2002년 16.3퍼, 2005년 20.5퍼로 크게 늘고 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처럼 일반 시민들뿐 아니라 중고생도 광장집회에 대거 동참했던 직접행동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다이내믹 코리아’의 특이한 ‘참여혁명’을 보여주었다.

1-2.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단체들의 등장

-시민사회에는 시민사회단체들만 있는것이 아니다. 무수한 비영리, 복지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문화예술기관

등이 있다. 스포츠, 레저 단체들도 시민사회의 주요일원이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에서 구분되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사람 중심으로 보면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공간이다. 일부 단체들은 자격제한을 두지만 기본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며 새로운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수 있다. 공직자나 직장인들도 시민사회의 시민이다. 소외층이나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자로 나서며 시민사회단체의 회원으로 참여한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유비쿼터스 성격을 띤다.

국가나 시장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 공동의문제를 서로 상의하거나 행동에 나서면' 거기에도 시민사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공동의 문제'는 사적 이해를 추구하는 모임보다는 이웃이나 공동체, 사회전체, 국가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해외의 문제에 해당한다.

시민운동이란

"Think globally, Act locally"

Think globally 란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를 생각하라는 뜻

시민운동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시민들이 운동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시민의식이란, 어원적으로 볼 때, 시민의 'citizen'과 자질의 'ship'의 합성어로서,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이는 개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라기보다는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 즉, 시민이라는 차원에서 요구되는 지질을 지칭하는 개념인 셈이다.

-1994년 9월 10일 참여연대 창립선언문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함께 열어갑시다

지금 우리는 시대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구실을 내걸며 3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던 군부정권은 마침내 국민의 결집된 힘 앞에 굴복했습니다.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 의 붕괴를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이 가속되면서 세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피땀 속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채 개혁의 과제를 표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 후에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경색된 공안정국의 분위기는 우리의 민주주의적 토대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시점에 선 우리는 민주주의의 알맹이를 채우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가야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온 현실을 직시하면서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대의 깃발을 들고자 합니다. 80년대까지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은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길거리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참된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행동은 사회와 정치무대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국민의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민주주의란 문자 그대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인이 머슴처럼 취급받고 국민의 공복에 불과한 사람들이 주인 위에 군림하는 시대착오적인 현상이 만연해 왔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 이러한 본말전도적 현상을 스스로 개선하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 스스로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함으로써 나라의 주인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실상부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국가권력이 발동되는 과정을 엄정히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인간성의 존엄이 실현되고 인권보장을 으뜸의 가치로 삼는 정치이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권력에 맞서 싸우면서 자유롭게 말하고 평화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는 과제는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도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수많은 사회문제, 인권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소외

된 자, 억압받는 자에 대한 무관심은 동료시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방기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 가야하겠습니다. 지난 몇 달에 걸쳐 우리는 지방자치와 남북통일, 복지사회의 미래상과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가슴을 열고 논의를 펼쳐 왔습니다.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토론의 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시민운동과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뜨거운 정열이 넘쳐흐르는 청년학도들, 권력에 의해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느끼면서도 병어리 냉가슴 앓듯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하던 시민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우리는 새로운 사회의 지향점을 '참여'와 '인권'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희망의 공동체 건설로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참여연대)'가 여러 시민들이 함께 모여, 다같이 만들어 가는 공동체의 조그만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 참여와 인권의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참여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려는 노력들이 모여 하나둘씩 시민사회 단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시민사회의 첫걸음인 것이다.

2. 노동운동의 대중성과 시민운동의 연대

사회운동이란 공통의 관심사, 혹은 보편성을 지닌 사회적 가치를 성취하기 위한 시민들의 집합적인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목표는 사회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익단체와 차별) 또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멤버십구성과 민주주의적 방법을 기본으로 한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기본이다. 정부나 공공기관 혹은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은 물론 정부와 시장, 이 둘의 힘에 대응하는 견제역할을 한다.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시민운동은 곧 사회운동이나, 모든 사회운동이 다 시민운동은 아니다. (정치나 권력자에 의한 운동은 구별되어야 함) 이를 보아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시민사회)는 결국 같은 맥락 안에서 서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대중적으로 발전하고 더욱 연대해야지만 비로소 하나가 되고 우리는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경우

국민이라는 말이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초반의 영국이었다. 프랑스 혁명시기에 등장한 국민(nation)은 국왕주권을 대신하는 새로운 주체로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결합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시민계급(부르주아지)이 정치적 권력을 잡기 위한 사회변혁에서는 구세력의 저항으로 인해 다소간의 폭력을 수반한다. 그러나 혁명과 그 전후의 계급들 간의 관계는 복잡하고 유동적이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란 현재 한국에서 '시민운동'이라 말할 때의 시민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만 한다.

후자가 주로 소시민인데 반해 시민혁명에서의 소시민은 프랑스혁명의 경우와 같이 자멸하던가 영국의 혁명이후와 같이 급진파로 남겨진다.

유럽에서 시민계층은 귀족층과 사회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면서 생겨났다. 귀족계급의 신분적 우월성, 고급스러운 생활양식에 대항하기 위해선 시민층으로서 고유한 코드와 양식을 발전시켜야 했다. 시민층의 정신적 무기는 시장의 합리성, 경제적 무기는 산업혁명을 통해 얻은 물질적 풍요였다. 그것을 이끈 것은 인문적인 전문가들과 부르주아 기업가들이었다. 곧 교양시민과 경제시민. 이 두 축이 시민사회를 만든 쌍두마차들이다.

이들은 귀족층의 이상주의와 퇴폐주의에 대항해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로 무장한다. 근검과 절약 그리고 전문적 교양을 통해 생활조건을 향상시키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속적 경건성을 찾아 사회의 바탕이 될 기본윤리를 세워나갔다. 유럽의 고딕양식 성당은 그런 경제시민의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다. 합리성을 가지고 생활을 조직한다는 자부심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귀족계급에게 앞으로 귀족이 아닌 부르주아 시

민들이 사회를 운영하겠다는 선언의 모습이었다.

지배계급을 놓고서 귀족과 시민이 100년에 걸쳐 대결을 하면서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통해 근대의 사회를 만들어 간다. 공익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공화주의가, 자유와 사익에 무게중심을 놓고 '타인에의 배려'를 동시에 추구하는 곳에서는 자유주의가 들어섰다. 1900년대까지 귀족과의 대결을 통해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을까. 교양시민과 경제적시민이 만들어놓은 시민적 공공성을 통해 국가가 생겨난다. 그리고 이후 20-30년 동안 사회의 주도권을 잡은 시민들은 농민, 노동자층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는다.

프랑스혁명

봉건적 신분들과 그 특권을 폐지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확립하며 광범위한 소토지 소유자(농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부르주아 혁명으로 간주되지만, 세번째 사항은 오히려 자본의 축적을 방해했으며 혁명정권 내부에서 루소적인 "그 누구도 지나치게 갖지않고 그 누구도 부족하지않은" 사회의 이상을 추구한 로베스피에르는 좌우로부터의 공격에 의해 자멸한다.

프랑스 혁명(1789년 7월 14일~1794년 7월 27일)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자본가 혁명이다. 프랑스 혁명은 엄밀히 말해 1830년 7월 혁명과 1848년 2월 혁명을 함께 일컫는 말이지만, 대개는 1789년의 혁명만을 가리킨다. 이때 1789년의 혁명을 다른 두 혁명과 비교하여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절대왕정이 지배하던 프랑스의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하에서 자본가계급이 부상하고(18세기에 모든 선진국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자유의식이 고취된 가운데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던 평민의 불만을 가중시켜 마침내 흉작이 일어난 1789년에 봉기하게 되었다. 도시민과 농민의 개입(대공포)으로 폭력양상을 띤 이 혁명은 2년간에 걸쳐 전 체제를 전복시켰다. 이 혁명은 혁명의 소문을 들은 피지배 민족의 자유와 독립 쟁취 의식을 고취하여 여러 민족을 거느린 주변 여러 강대국을 불안하게 하였다. 프랑스 혁명은 앙시앵 레짐을 무너뜨렸지만 혁명 후 수립된 프랑스 공화정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éon Bonaparte)가 일으킨 쿠데타로 무너진 후 75년간 공화정, 제국, 군주제로 국가 체제가 바뀌며 굴곡된 정치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역사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프랑스 혁명은 크게 보면 유럽과 세계사에서 정치권력이 왕족과 귀족에서 자본가계급으로 옮겨지는, 역사 분야에서 전혀 새로운 시기를 열어 놓을 만큼 뚜렷이 구분되는 전환점이었다.

영국혁명

영국에서는 1640-60년을 내란, 대반란 혹은 (국왕의)공위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엥겔스가 처음으로 이것을 영국 혁명이라 부르고 "프랑스 혁명의 본보기"로 규정했다. 이는 분명히 국왕의 재정정책에 대한 부르주아의 반란을 함의하고 국왕을 처형(1649년)하기에 이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퓨리턴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대로 국교회에 대한 비국 교회의 반란이라는 종교적 요소의 역할이 컸을 뿐 아니라 1660년의 왕정복고에 의해 군주정치도 국교회도 비록 특권은 축소되었다곤 하지만 다시 부활한다.

의회가 군주정치를 받아들여 주권을 확립하는 것은 1688-89년의 명예혁명에 의해서인데, 제도로서는 국왕도 귀족도 사교도 그대로였다. 이 두개의 혁명을 합쳐 영국의 시민혁명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프랑스 혁명에 비하면 타협적이지만 이리하여 온존된 재산(귀족과 무역상인)이 의회 주도의 증상주의 정책의 도움으로 산업혁명을 준비하게 된다.

프랑스 혁명이 현대 정치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프랑스혁명은 모든 시민들을 억압했던 것들, 즉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그 모든 것에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사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직 프랑스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고 외치는 역사가들도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시민을 위한 정치는 커녕 퇴보 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스웨덴의 전통적 사회운동은 계급사회가 안고 있었던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시민생활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실용적인 운동이었다. 이를 정치적 제도적 혁신으로 이끈 힘에는 스웨덴 나름의 독특한 운동 전략과 방법이 있었다고 본다.

고전적 시민혁명(4.19/5.18) 과 2015년 현재의 투쟁

1960년부터 1987년은 민주화시기까지 한국사회운동에 있어 하나의 주기라 할 수 있고, 이 기간동안의 주도 세력을 민주화 운동세력으로 명명할 수 있다.

4월 4일 대학생으로서는 최초로 전북대에서 부정선거 규탄집회가 열렸다. 전북대 정치학과3학년 학생들의 주도로 약 5백명 정도의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시위를 주도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이후 4.11일 김주열군의 시체가 떠오르고 2차 마산항쟁이 전개되자 4월13일 해인대(경남대)학생 백여명이 시청앞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미 2차 마산항쟁으로 경찰력이 무력화된 후여서 학생들은 제지없이 가두시위를 벌일 수 있었다. 당시 이 시위를 주도했던 해인대 학도호국단 간부들은 훗날 4월11일과 4월12일 걸쳐 계속 이어진 마산시내 고등학생들의 시위를 보고 상아탑에 안주하는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 시위를 벌였다고 회고했다.

4월18일에는 서울에서 고려대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날 고려대 학생 3천여명은 신입생 환영회를 이용해 교내에서 집회를 열고, 끝난뒤 일제히 가두로 진출했다. 이 중 천명 정도가 시내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하여 농성을 벌이다 저녁 무렵 해산했다. 그런데 학교로 돌아가는 고려대학생들을 약 백여명의 깡패들이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자유당과 결탁한 정치깡패들이 일으킨 이 사건으로 많은 학생들이 부상을 당했고 나중에 오보로 밝혀지기는 했지만 사망한 학생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이러한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 소식과 정치깡패들이 테러소식은 즉시 서울의 다른 대학과 고등학교학생들에게 알려졌고 다음날인 19일 아침 조간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날역시 대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먼저 시위에 나섰다.

뒤늦은 참여였으나 장차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성장할 대학생이 시위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졌다. 그동안 잠재력만으로 존재했던 지도적 엘리트 집단의 물리력이 드디어 현실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많은 희생을 치르며 독재정권을 무너트린 대학생들은 이 항쟁을 혁명으로 규정하고 주체임을 자임하였다. 정권이 무너진 이후 곧바로 '질서회복운동'에 들어간 것도 스스로를 주체라고 인식한 결과였다. 수습의 길은 대학생에게 있다는 자각하에 서울시내 각 대학생 2천명은 치안을 정돈하고 질서를 호소했으며 민간차량에 대한 불법적 횡포를 금지시켰다.

헌법 제 21조 1항. 시민사회의 중요한 의사표현 방식인 집회는 이처럼 두가지 시선으로 마주하게된다. 집회에 참가한 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거리행진을 하고, 구호를 외친다. 물론 역효과가 날때도 있고, 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들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확실한 것은 시위가 변질되게끔 만드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소위 '프락치' 라고 불리는 이들은 시위현장에 스며들어 과격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평화시위의 목적을 변질되게 만든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집회의 분위기에 이끌려 과격하고 거칠은 행위들을 일삼게 된다. 이로인해 도로교통의 체증이라던가, 경찰차벽, 지하철 등에서 경찰들이 배치되자 일반 시민들의 불편한이 커졌다. 시위현장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말 들 중의 하나가 그냥 조용히 먹고 살것이지 왜 나와서 이러냐, 니들이 매일 이러니까 국가가 더 안해주는 것 아니냐, 못할 짓을 한다는 말들이다.

과격했지만 박수를 받았고 과격했지만 지지했던 시위.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억눌리고 짓밟힌 것들을 한번에 표출해냈던 게 시위 였을 뿐이고, 폭발적인 혁명을 일으켰다는 것.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반감이라는 것. 불법 폭력집회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에선 당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나를 대신해 학생들이, 다른 시민들이 나서서 정의로운 주장을 대신 해주고 있구나. 라는 지지의식이 강했던 것이다. 억눌려있던 시기의 시위와 오늘날의 시위를 연관지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하냐..?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수 없다고

답하겠다. 시간이 지나면서 군사정부를 지나 점차 안정을 찾게 되니 집회의 주도자들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쉽게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촛불시위나 오늘의 집회들은 그런 영향을 가지고 탄생한 근대의 모습이지 않을까? 시위는 자기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분명 좋은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지회참가자들로 인하여 똑같이 힘들어하는 전경들이 있으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과격행위는 오히려 시민 개개인이 무관심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IMF

IMF는 지나친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의 무리한 지출이 이유가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하였다. IMF를 이겨내기 위한 경제적 자유주의 중 하나이다.

강한 정부를 배후로 시장경쟁의 질서를 권력적으로 확정하는 방법이었다. 케인즈주의와 반대되는 보수적 정권이 었다.

노동 시장의 유연화,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등을 내세웠으나 여기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기업이 비정규직을 쉽게 해고하고,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며,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하청업체가 문을 닫으면 해고가 되는 형태의 노동법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조직된 노동조합은 암묵적 해고사유로 인식되었고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은 권리투쟁을 위한 활동이 어려웠다. 노동운동을 탄압하기위해 노동자를 해고하는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생긴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했다.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사태, 이에 기초한 노동운동진영의 격렬한 비판과 저항은 정부의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노동운동을 개혁의 동반자가 아니라 회피대상으로 간주하였고 개혁적 시민운동과의 의사소통이 단절, 주요 상징적 개혁과제에 대한 무성의등이 원인이 되었다.

재벌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정리해고제등을 주장했지만 노동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하나인 노동조합의 정치참여, 공무원노조의 허용등을 과연 좋아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시민사회의 제일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을 민주화 정부 시절에 오히려 성장해나갔던 노동운동이 크게 주춤하는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다.

촛불집회의 등장

시위·집회 문화의 한 종류.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걸로 아는 사람이 많으나, 사실 꽤나 역사와 전통이 깊은 비폭력 시위 방법 중 하나이다. 외국에서 일어난 유명한 촛불집회 중 하나는 1978년 샌프란시스코의 시의원이었던 하비 밀크가 총격으로 사망한 후 3만 명이 모여 추모를 한 집회이다.

하지만, 이 시위가 대중화된 것은 1989년에 일어난 슬로바키아 독립요구 촛불집회 때문. 당시 슬로바키아 사람들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립하기 위해 프라하(체코의 수도)와 브라티슬라바(슬로바키아의 수도) 지역에 몰려와서 독립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벌였다. 이 이후 촛불집회가 시위의 한 방식으로 자리잡게 된 것.

한국 최초의 촛불집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월간 말 1997년 6월호(통권 132호)를 보면, 87년 6월 항쟁 때 이미 촛불집회가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에서 독재타도 호헌철폐를 외치는 촛불시위대가 전경에 맞섰다고 한다. 최소한 87년에 존재했다는 얘기. 이렇게 보면 한국 촛불집회의 역사가 상당히 긴 것을 알 수 있다.

1992년에는 케텔 유료화에 반대하여 촛불집회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PC통신 초창기에 케텔이 하이텔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때까지 무료였던 서비스가 1달 9900원을 받는 유료로 전환되었고, 그때까지 공짜로 PC통신을 사용하던 유저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효순이,미선이사건

이 사건은 당시 개최중이던 한·일월드컵축구대회와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열기에 묻혀 세간의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가 두 여자 중학생을 추모하자는 뜻으로 인터넷을 통해 촛불시위를 제안하였고, 이 제안이 네티즌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같은 해 11월 처음으로 서울의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추모집회의 성격을 띠었으나, 미군 법정이 사고 장갑차 운전병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반미(反美) 시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한때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적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과거의 폭력적 시위와는 다른 평화적 시위를 유지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었으며, 한국의 대표적 집회 및 시위 문화로 자리잡게 되어 이후 제16대 대통령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04년 3월 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이 일어나자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나 결국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이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참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2008년의 촛불집회는 5월 2일 청계천광장에서 청소년과 시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시위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계속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해명하였지만 집회와 시위는 확대되었다.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인터넷공간과 촛불집회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드러내었다. 인터넷동호회와 아고라 등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모인단체에서 부터 기존의 시위를 주도하였던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심지어 종교단체에 이르기까지 촛불집회의 참여자의 성격은 광범위하였다. 촛불집회의 지도부는 5월 6일 결성된 국민 대책회의였다. 그러나 국민대책회의는 실질적으로 촛불집회의 내용을 주도하지 못하였고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것은 자발적인 시민이었다.

촛불집회의 확산은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인해 기인하였다.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들은 통신수단인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에 기반하고 있지만, 의사소통의 내용은 인터넷과 촛불집회과정은 매개하는 상징을 통해 이뤄졌다. 상징은 개인과 정치질서에 대한 연계를 제공해주며, 개인들에게 다양한 동기화가 일어나게 하여 집단적 행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가정에서의 '현수막 걸기 운동'이나 '예비군 시위대'나 '유모차부대' 등의 의미화 실천을 통한 상징들의 출현은 촛불집회가 행위자와 관찰자에게 다양한 의미로 확산된다. 예를 들어 촛불집회참여자에게 자발적인 예비군의 출현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찰의 이미지와 대비되어 우호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국민을 지키는 집단의 이미지가 강화된다.

-경찰의 과잉진압논란

법을 집행하는 데 과도하게 사용된 공권력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다. 2008년 6월 1일 시위대가 청와대로 향하자 경찰은 진압 및 해산 과정에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였고, 경찰봉과 물대포, 소화기 등의 진압장비를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특히 일부 시위대에게는 3m 이내의 거리에서 물대포를 직사(直射)해 눈과 귀의 막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처럼 경찰이 집회 진압 및 강제해산 과정에서 근거리의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직사한 것과 관련해 많은 사회단체는 이를 경찰장비관리규칙을 어긴 불법 과잉 진압이라고 비판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물대포 사용시 발사 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해야 하며, 근거리(20미터 이내) 직접 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신설한 내부 지침인 물대포운용지침에 의하여 물대포를 직사할 수 있으며, 나중에 만들어진 물대포 운용 지침이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몇몇 법률 전문가는 물대포운용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고 외부에 공식 공개된 훈령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훈령이 폐지되지 않는 한 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은 "신체적 접촉에 의해 경찰 저지선이 뚫릴 정도가 아니라면 앞으로는 물대포를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위 당시 전경이 한 여성을 쓰러뜨리고 군홧발로 짓밟는 모습이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이로 인해 시위 진압의 폭력성이 크게 논란이 되었다.

정리하자면, 촛불집회는 순수하고 비폭력적인 집회의 방식이며 청소년들의 참여가 주를 이루게 된 문화 중 하나라는 것. 더 이상 변질되거나 폭력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본래의 의미를 생각해야한다.

촛불집회가 가두시위로 이어지고 과격화 되면서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되었고, 인근 상인들의 상권침해와 시민들의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는 요소가 되었다 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 1항 '모든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과격했지만 박수를 받았고, 과격했지만 지지를 얻었던 시위처럼 우리들도 현 상황에서 다른 방식으로 시작된 비폭력시위를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

결론

"인간은 자유롭게, 그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늘 그렇게 살아간다. 따라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가 아니면 사회적 차별을 둘 수 없다." - 프랑스 혁명 인권선언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왜 정부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국가의 제 1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구를 당당히 할 권력이 우리에게겐 있다. 똑똑해져야 한다. 멍쳐야 한다. 집회나 시위등의 의사표현방식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거나 욕을 하는 행위는 역사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처럼 탄탄한 역사를 가지고 시민의 뒤를 받쳐주는 든든한 복지정책은 없지만, 노력한다면 이뤄낼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이 살아남을 것을 먼저 생각한다.

흔히 하는 말로 요즘 개인은 누구나 자신이 자신의 경영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누구나 자신만을 구하고 다른 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거의 당연하다고 하겠다. 공동체의식이 앞으로 계속 분쇄된다면 우리 사회는 침몰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4.이야기

-“Be Korean!”/“Be British!”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먹고살기 힘든 대한민국에서 가져야할 ‘나’의 위치

-대한민국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시민사회의 영역(각자 역할을 부여해보자)

-시위에 참여해본적이 있다면 :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 시민의 과격행위가 먼저인지, 경찰의 과잉진압이 먼저인지. 가지게 되었던 반감들에 대해 나눠보자

-시민사회란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하나의 공동체이다. 내가 속해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학교 등) 나는 주체적으로 의견을 배출하는 편이었는지 아무렴어때! 하며 끌려가는 사람이었는지 나눠보자. (우리는 능동적인 사람일까, 수동적인 사람일까)

-나만의 이익을 위해 공공성 또는 남의 불의를 무시한 적이 있는가

질의응답 및 토론

Be Korean/ Be British, 한국인다운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연희 : 전체적으로 그냥 뭔가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것 같아요.

-별 : 내가 생각하는 한국인의 이미지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섭고 내가 지금 기쁘고 하는 감정을 옆 사람에게 말할 때가 많아요.

-나린 : 원래 한국인은 정이 많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시골에 내려가 할머니들을 보면 정이 많다고 하는데 요즘 사회는 전보다 개인주의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빨리빨리 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확 와 닿는게 빨리빨리 라는 뜻이 나부터 빨리 살자 라는 느낌이 들어요.

-형근 : 한국인답게 윗사람 말을 잘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중 하나가 되었지 않나 싶은데 ? 뭔가 선장의 말을 들은 것도 한국인의 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도운 : 그렇다면 형근이가 윗사람이었다면?

-형근 : 제가 윗사람이었다면 여성과 어린이를 먼저 구하고 근데 이거 왜하는 거예요? 하하하

-민수 : 개인의 양심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시민사회는?

-지민 : 저..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 되서 그런데 조금 범위를 좁혀주실 수 있나요?

청소년이라는 위치에서 어디까지가 나의 영역이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준상 : 제가 학교 교육과정으로 세월호 가족분들과 함께 지내는 인턴을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아.. 이분들은 대단 하구나 난 이렇게 못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매일매일 뉴스도 보고 관심 가지려 했는데 지금은 정체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아니깐 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필요하거나 이걸 아니다 싶을 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은 정체가 상태예요..

-푸하 : 저는 평소에 이것저것 관심가지고 찾아보는 편이긴 한데 어디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 시위를 하고 모이면 막상 내키지 않아요. 솔직히. 전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다 같이 집회 참여해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정도.

시위에 참여해 본적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 시민의 과격행위가 먼저인지, 경찰의 과잉진압이 먼저인지. 가지게 되었던 반감들에 대해 나누어보자.)

-연희 : 저는 시민의 과격행위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한국 쪽에서? 시민들의 평화적인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막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 노조 분들이 투쟁하고 말을 해도 무시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시민들의 과격행위와 경찰의 과잉진압의 힘이 같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참가자1 : 저도 동감하는게 저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500일에 노란행진? 이란걸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되게 평화적으로 시위가 끝났어요. 모든 시위들이 항상 평화롭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촛불시위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상대가 물대포를 쏘는데 어떻게 평화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어요.

-지민 :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폭력적인 지휘가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왜 국민들은 문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걸까요?

-용욱 : 애초에 과격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바라보지 이유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폭력에만 집중하죠. 언론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이 실리는거 같아요.

-형근 : 폭력에 대한 정당화? 이런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릴 적부터 집회를 많이 갔는데 다 때려부수고 계란 던지고 싶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행동들은 대중에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경찰들에게 대응을 한다고 해서 대응이 되는 것이 아닌듯해요. 어차피 폭력이라는 카드를 쓰는 순간 이미 시위는 변질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들에게는 비폭력이 가장 큰 무기고 힘이죠.

-석원 :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라는 체제에 있어 평화롭게 끝낼 수 있으면 좋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폭력 없이 시위가 잘 끝난 적이 있었나요? 여러 혁명들을 보면 폭력을 써야만 했고 폭력이 없었으면 성공을 했을까요? 이 문제가 우리가 시위에서 폭력을 쓰고 경찰버스 끌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시위에서 도구로서 활용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폭력이 좋다는 것은 아니고 무언가를 바꾸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용욱 : 저는 좀 반대하고 싶은 것이 프랑스혁명이나, 전두환,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소수이고 다수가 무관심하다면 평화적으로 가야해요. 저는 이번 시위에서 경찰이 끌려나와 시위대에게 맞는 것을 보고 오히려 시위대에 반감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해야 할 것은 폭력적으로 대항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민들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부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수경 : 동감합니다. 시위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써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의견을 전달하고 대중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취지를 알리고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뜻이 좋지만 방법적으로 좋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준상 : 아까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비폭력을 써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수가 되었을 때는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욱 : 그게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두환 때나 박정희 때처럼 다수를 번번이 탄압하고 이런다면 저항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소윤 : 경찰의 진압은 폭력보다 권력으로 느껴져요. 권력 앞에서 비폭력으로 대항을 해야 할지 목숨 바쳐 대항해야 할지 헷갈리고 생각해보면 전두환, 박정희 시대에도 그렇게 다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음,, 궁극적인 목표는 비폭력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현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 앞에서 과연 비폭력일지 생각해보게 되는 듯 해요. 폭력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형근 : 간디를 예로 들어볼게요. 인도가 영국에 지배당할 때 비폭력으로 몰아냈잖아요. 분명 비폭력이 시민을 끌어들이 수 있는 것 같은데 폭력으로 혁명을 일으키면 쉽게 무너진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비폭력으로 이루어냈을 때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소윤 : 저는 비폭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의 의지, 철학등 하지만 지금 이사회에서 비폭력을 따라주고 같이할 힘이 있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경 : 동감해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에 동감하는데 계란으로 바위치는 느낌인거 같아요.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비폭력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언론의 힘이 세지면서 인지는 몰라도 비폭력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요.

-준상 : 좀 욕심이 많지 않나? 프랑스 혁명은 2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열심히 싸우는 중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깐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욱 : 저도 동감하고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주위 친구의 부모님이 되게 시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는데 세월호 집회를 가면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깐 잘 하고 있다고 생각 되요.

-형근 : 비폭력의 강점을 말해보자면 지나가는 경찰들을 설득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촛불시위 당시에 병역거부? 탈영? 전경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비폭력 시위하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없다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분명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빠르지 않을 수 있어요 느리더라도 비폭력 시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소윤 : 그렇다면 어떻게 시위할 수 있고 시민의 의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비폭력 시위가 만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형근 : 저는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개인이 말해서 점차 바뀌어 가거나 간디 같은 사람이 확 잡아주거나 하지만 저는 첫 번째가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저희 아버지가 어제 시위를 다녀와서 '화염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0년대에 시위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좀 성공의 맛을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랑 입장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도 엄마 때문에 참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개인의 설득에 의해 한명씩 참고 바뀌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 비폭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석원 : 저는 너무 솔직히 말해서 이상적인 이야기로 밖에 안 들려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성공사례는 간디 하나 밖에 없는 것 같고 간디 같은 용기가 우리 사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폭력 물론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기득권층이 바뀔 것 같은가? 우리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 같아요. 비폭력이 느리

더라도 천천히 라고 하셨는데 느린 것이 아니라 안 바뀌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제 시위때 물대포를 맞은 사람 두 분 돌아가셨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시위도중에 사람이 죽는 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까지 비폭력을 해야 할까요?

-별 :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전 두 쪽의 입장을 너무 다 수긍해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 오늘날에는 지금 당장 카톡을 하면 1분 안에 답이 오는 연결되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고립되어있다고 생각해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폭력과 비폭력의 문제도 있지만 시민들의 연결지점? 공감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서로 연결되어있는 것이 많지만 제대로 된 통로가 없는 것 같아요.

-형근 : 그리고 어제 시위에서 돌아가신 분은 69세 노인 분이시고 저항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분이셨잖아요? 정말 더 화가 났어요. 근데 그분이 아니라 40대 젊은 분이 버스창문을 부시다가 그렇게 되셨다면? 물론 그래도 분노하고 화날 일이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같을까요? 전 이것이 비폭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폭력에 대해서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미 다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경 : 제 생각엔 요즘사회에서는 버티기가 힘들어요. 언론이 전부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폭력을 지향하긴 하지만 언론에서 왜곡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폭력적인 시위를 하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자극적이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들어줘서 인 것 같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깐 극단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결을 잘하고 시민의 식을 바꿔나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 영양가 있을 것 같아요.

-수자T : 엄청난 공권력과 교육을 짝 쥐고 있는 기득권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겨내기 힘들어요. 시민의 힘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해보는 거잖아요? 비록 세월호가 친척이 죽은 것도 아닌데 전국에서 공감하고 울고 하는 것을 보면 서로 연결되고 공감하는 힘이 공권력을 벌벌 떨게 하는 힘이 아닐까 생각해요. 시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지 고민이긴 합니다.

활동: 한국사 국정교과서, 가만히 계실건가요?

교과서를 검정 여부로 분류할 경우 국정교과서, 검·인정 교과서, 자유발행 교과서 등 세 종류로 나눈다.

-국정교과서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며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 위주로 개발한다. 또한, 한 과목에 대해 교육부 산하 위원회가 저술해 인정한 한 종류의 교과서로 학교에서 별도로 선정할 필요 없이 주문 가능하다.

-검·인정교과서 중 검정교과서 민간에서 개발한 도서 중 국가의 검정심사에서 합격한 도서로서,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그 외 과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 심사 업무는 각 시·도교육청이 심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검·인정교과서 중 인정교과서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서다.

-자유발행 교과서 출판사나 저자가 정부기관의 검·인정 절차 없이 출판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대만, 싱가포르 등은 국정교과서와 검·인정교과서를 혼용하고 있는 반면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국가는 대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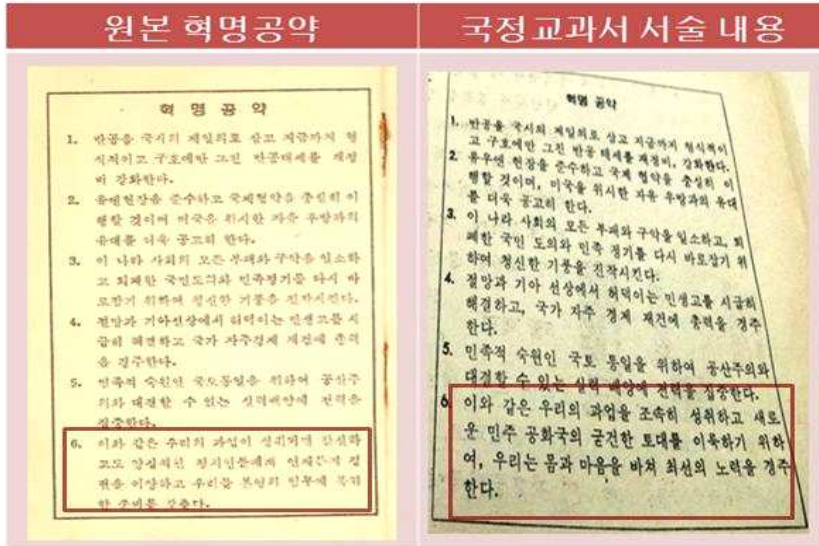
[네이버 지식백과] 국정교과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국정교과서의 역사

국정교과서는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시대에 등장해 2011년을 끝으로 검정교과서로 바뀌며 자취를 감추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10월 유신으로 초헌법적인 위치에 오른 박정희 정권이 국민의 생각을 통제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따라서 역사교과서의 내용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쓰이고 심지어 조작되기도 했다. 아래는 5.16쿠데타의 혁명공약의 내용을 바꿔 장기 독재에 정당화하려 했던 예라고 볼 수 있다.

박정희 국정교과서의 왜곡 증거



사진출처: 윤근혁, 국가기록원 '아이엠피터'

5.16쿠데타에 나온 혁명공약 6조를 (왼쪽사진) 보면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의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한다.”고 쓰였지만 1979년 국정화 국사 교과서 (오른쪽사진)에는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 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로 바뀌어 있다.

-민심을 이반하는 결정

국정화 발표 이후 반대 의견이 급상승했고,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10월 13일 반대가 44.7%, 찬성이 47.6%로 오차범위 내였지만 10월 20일 반대가 52.7%, 찬성이 41.7%로 반대가 11% 많았고,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는, 10월 13일 찬성과 반대가 42%로 같았지만 10월 22일 반대가 47%, 찬성이 36%로 반대가 11% 많았다.

또한 주목해야 할 조사 결과는 직접 역사를 가르치는 전국 역사교사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국정화를 반대한다’가 98.6%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교수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지 않겠다’, ‘교사는 국정 역사 교과서로 가르치지 않겠다.’, ‘학생은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배우지 않겠다’며 연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반대의견

1. 하나의 역사적 평가만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편협한 사고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뒤야한다. 역사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정신과 반대되는 처사이다.

2. 하나의 교과서가 오히려 역사 왜곡을 할 가능성이 크다.

-현 정권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역사 해석의 독점은 역사조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찬성의견

1.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

-현 집필진 대다수가 좌편향 되어있다. 개인적인 시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일부 학자들의 손에 맡기는 것은 잘못된 것.

2. 국론분열

-단체마다 해석이 다른 것을 젊은이들의 의식에 주입시키면, 국민 통합을 할 수 없다. 아픔만을 기억하는 역사책으로 배우는 세대가 그 역사책을 가진 나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청년들이 반대시위에 나온다고 기뻐하는 것은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을 위한 공간을 이념에 빠진 교육자들이 자신들의 가치에 따른 낙서를 심하게 하여 훼손시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이다.

3. 하나로 통합되면 시험성적에 도움이 될 것 같다.(학부모 찬성입장)

4. 국정교과서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현 정부를 믿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답함.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일지

	<p>2013년 6월 17일 박근혜 대통령, "교육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발언</p>
	<p>2013년 9월 4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역사교실에서 역사 바로잡을 방안 잘 모색해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시켜야 한다"고 언급</p>
	<p>2014년 2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중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p>
	<p>2014년 8월 28일 한국역사연구회 등 한국사 7개 학회, "국정교과서 발상은 국론 분열의 씨앗 뿌리는 일"이라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 촉구</p>
	<p>2015년 9월 10일 교육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검정제도 강화하거나 국정으로 전환하는 2가지 방안 모두 검토 중이라고 보고</p>
	<p>2015년 10월 5일 김무성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일성 주체사상 기술했다는 이유로 현행 검정 교과서 편향성 제기</p>
	<p>2015년 10월 12일 교육부, 국정 한국사 교과서 발행 계획 공식 발표</p>

한국사 교과서 향후 추진일정

<p>10월 12일 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화 행정 예고</p>	<p>10월 12일~11월 5일 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화 고시</p>	<p>11월 중순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도서 편찬 심의회 구성</p>
<p>2017년 3월 중고 학교 현장 적용</p>	<p>2016년 12월 교과서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p>	<p>11월말~2016년 11월 교과서 집필</p>

10월 11일

-공식발표 하루 전

교육부가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전환 공식발표를 하루 앞둔 11일 저녁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대학생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촛불집회를 열었다.

10월 17일

-청소년들, 거리로 나서다

17일 SNS를 통해 모인 학생 70여명이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를 거부한다'고 외치며 서울 인사동에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까지 행진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령은 다양했다. 서울과 김포 등 수도권은 물론 대구, 군산 등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상경한 이들도 있었다. 이날 이들은 '국정 반대' '대한민국 역사 교육이 죽었다'는 뜻으로 영정 모양의 손팻말을 들고 행진했으며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시간도 가졌다.

10월31일까지 총 4차례의 거리행동을 진행했다. 4차 거리행동에서는 5300여명의 10대가 서명한 국정교과서 반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 "건전하고 다양한 역사관을 지니고 살아가는 밝은 미래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국정화 TF팀

신고자는 "교육부작업실"이라고 밝혔고, 경찰 병력을 더 보내지 않으면 문책당할 것이라고까지 경고했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5일 밤 야당의원들이 교육부 '국정화 비밀 TF팀'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상황이 담겨있는 112 신고 녹취 자료 전문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아 28일 공개했다.

녹취자료에 따르면, 첫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25일 밤 8시 20분. 2,3차 신고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난다. "사무실 밖에서 20명의 사람들이 침입하려한다"는 것. 4차 신고에 따르면 경찰로서는 조금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타난다. "기자와 국회의원이 침입했다"는 다급한 음성. 하지만 무슨 일로 침입했는지 밝히지는 않는다.

확실한 상황은 8차 신고에서야 접수된다.

녹취자료에 따르면 오후 8시 2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총 10차례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에는 "현 정부의 꼴마니가 되지 말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는 시민으로 추정되는 신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남춘의원은 "당시 신고내용을 보면 여당 주장처럼 우리 의원들이 직원들을 감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부 측에서 무엇인가를 다급하게 은폐하고 없애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26일 오전 "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라며 "(일일점검회의와 관련해서는) 교육문화수석 차원에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비밀조직이라고 주장하는 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자체를 청와대에서도 알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인정한 것이다.

전날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저지 특위위원장이 공개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TF 구성, 운영계획안' 문건을 보면 '상황관리팀'의 업무에 'BH(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지원'이 포함돼 있다.

국정화 TF팀이 최소한 9월 말부터 운영되고 있었고, 청와대 일일보고와 청와대의 일일점검회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공식선언(10월 12일)하기 전부터 교육부와 청와대가 긴밀하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

*TF는 TASK FORCE의 줄임말로 군사용어이다. 각종 문제와 관련된 각 부서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일시적인 조직을 말한다. 원래 주어진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책을 수립하는 역할에 그쳤으나, 근래에는 해결책의 집행, 해결 및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권한이 부여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대부분 90일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 집중적으로 해결한다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역사학자, 역사교사들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전국역사교사모임 집필거부선언

서울대에서 열리는 국내최대의 전국역사학대회에서 20개 학회 대부분이 국정교과서 반대를 선언했다. 가장 역사가 길

고 보수적으로 평가받는 '역사학회'에서도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18일 성명을 내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이 모임엔 전국 초중고교 역사교사 6000여명 가운데 3분의 1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는 검정교과서 집필자 59명 가운데 37명이 현장 역사교사이다.

11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정부는 이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 주장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태진 전 국편위원장 "현교과서 8종 모두 중도-우파적"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태진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검정 역사 교과서를 '좌편향' '종북'으로 몰고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현행 교과서는 모두 중도 또는 우파 성향이다.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전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3년 현행 검정교과서 내용을 심의, 수정하는 검정 과정을 총괄한 총 책임자로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된다.

-학생의 날

강동 선사고 학생들이 손도장을 찍어 선언문을 만들었다. 인천의 청소년들은 '1103명 선언문'을 들고 황우여 장관 사무실을 찾았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청소년 긴급 기자회견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행동은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학생의 날이자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인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 10여명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부는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다"며 "우리가 배워야 하는 역사교육을 위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11월 4일

-문재인 "국정교과서 원천무효" 대국민담화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저와 우리당은 국정교과서를 막기위한 모든 법적, 제도적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국정교과서의 표본으로 삼으려는 교학사 교과서는 왜곡, 누락으로 인해 채택한 학교가 없었다. 이런 교과서를 국정화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아모레퍼시픽 불매운동

아모레퍼시픽의 면접장에서 응시자에게 "국정교과서 찬성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면접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됨이 뒤늦게 논란이 되어, 이런 질문을 던지는 화장품회사의 제품은 쓰지 말아야한다는 불매운동이 SNS를 통해 불거졌다.

*짧은 강의 후 모둠별 토론 활동이 이어졌고 국정교과서 반대 뱃지만들기 활동 후 소감을 나눴음

하루나누기

-준상 : 오늘 새로 오신 숙박 참가자 소개해주세요.

-옥지민 : 태봉고등학교 2학년 옥지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 : 역사를 안 좋아하는데, 오늘 집중해서 잘 들었어요. 생각보다 안 지루하고 안 졸리고, 잘 봤어요.

-채현 : 역사가 배울 수 있는게 많잖아요. 근데 배우는데 바라보는 시각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 같은 내용을 해도 왜 배워야 하는지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

-소윤 : 편향된 시선이 아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토론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고 좋았어요. 집중을 오래 못해서 더 잘 들었으면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성훈 : 역사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어서 관련된 생각이 많았는데 강의도 듣고 얘기 나누면서 제 생각이 구체화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유익했어요.

-준학 : 배경 지식이 없고 어려워서 잠깐 즐겼는데.. 유익한 시간이었고 토론하는데 다들 말을 너무 잘하셔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준상 : 한가지 사실에 대해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게 재밌었어요.

-지민 : 역사에 관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 했던걸 배워서 신선했고,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연희 :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좋았어요.

-수경 : 역사 되게 좋아하는데요. 근대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피티를 정성들여 쉽게 만들어 주셔서 좋았고 내용도 유익했어요.

-도운 : 수업을 준비하면서 아침까지도 걱정이 많았어요. 급하게 준비하느라 다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고, 하지만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잘 들어줘서 고마웠고, 토론할 때 생각이 많을 수 있는 주제라 많이 얘기가 안 나올 줄 알고 비중 있게 다루지 못할 줄 알았는데 깊게 다룰 수 있어서 좋았어요. 고마웠던 것 같아요.

-민수 : 워크북에 피피티나 강의 내용이 있었으면 앞에 놓친 부분을 따라가며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시민의 권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워서 놓치는게 많아서 아쉬워요. 토론이 어제보다 활발하게 진행된거 같아 좋았고, 앞으로도 토론이 많았으면.

-인욱 :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게 좋았어요.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역사라고 되어있지만 정치나 사회에 가까워서 얘기를 할 때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을 많이 못했는데, 토론이 잘 되어서 좋았어요.

-별 : 수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고민이 있었건데 두시간을 준비하면서 두 달을 들었던게 두달 준비했던게 오롯이 남았기 때문에 다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만 해도 욕심인가 싶어서 강의 내용을 덜었는데 잘했던거 같아요. 또 굳이 지목하지 않아도 알아서 얘기 잘 해주셔서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시간이나 머뭇거리다가 얘기를 못했던 친구가 좀 있었던거 같아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봤던 거 같아요.

-연진 : 활동같은 것도 스마트폰 인터넷으로만 다른 사람들 이런거 하는구나만 알고 있다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어서 좋았던거 같아요.

-나린 : 역사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만 한국사, 특히 근현대사는 관심이 제일 많아야 하는데 별로 없었던데요. 근데 꼭 짚어서 바로 알아야겠다 싶었던 역사를 알게 해줘서 고마웠고, 의제를 하나만 던져줘도 그 이상의 토론이 나오는게 너무 대단해요.

-지현 : 하루종일 어려워서 머리가 복잡했어요. 근데 뱃지 만들기 재밌었어요.

-유진 :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 현선 : 수업도 수업대로 좋았지만 토론하면서 참가자들에게 많이 배웠고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놓친 것도 있고,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의견을 물어봐서 당황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열심히 생각해보고 말할 거예요.
- 준상 : 수업 준비하면서 나한테는 분명히 재밌는데 참가자들은 재밌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 했어요. 일단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몰라도 저는 스스로 알아보면서 재밌었기 때문에 만족해요.
- 영서 : 오전 강의도 잘 들었고 토론하면서 예상치 못한 주제에서 활발하고 흥미진진하게 토론이 이루어져서 잘 봤고, 흥미진진하게 잘 지켜봤어요.
- 건산 :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웠고 토론이 좋았어요. 얻어가는 것도 많고.
- 산 : 원래 역사 좋아하는데 근현대사 안 좋아하거든요. 조선시대까지 좋아하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근현대사는 내가 판단을 어느 쪽으로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게 싫어서 내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꾸 미루게 됐고. 토론 하는거 보면서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활발히 진행이 되겠구나 싶었고 비슷한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형근 : 피티를 열심히 준비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럼에도 매번 좋아서 반성했어요. 토론할 때 자연스럽게 탄길로 새는 토론을 좋아하는데 그런 자유로운 토론이 좋았어요. 이 분위기가 제 파트 때까지 잘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소아 : 졸지 않게 되어서 참 좋았고, 스텝 하면서 집중을 길게 할 수 없었던게 아쉬웠지만 강의에 정성이 많이 보여서 좋았어요. 세심하게 어려운 걸 어렵지 않게 알려주려는 노력이 느껴져서 유익했어요. 수고 많이 했어요!

건의

- 소윤 :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강의 끝나고 친해지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 수자T : 절두산성지가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만 쳐박혀 있지 말고 산책도 하고~ 나가 놀시다~
- 준학 : 피피티 좀 보내주세요!

내일 가는 친구 인사

수경 인문학 총평 : 어제 3시부터 참가해서 오늘 하루만 끝까지 들어서 아쉬운데, 매 순간순간이 소중한거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관심 분야도 많은데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 생각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은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이런 자리 만들어주어서 고마워요. 학교가야 해서 중간에 빠지는게 좀 아쉬워요.

성장하다, 청춘!

1부, 우리가 만났던 사랑

- 사랑이란 무엇일까?
- 왜 성은 부끄러운 것이 되었는가?
- 섹스 그래프 _ 조별활동
- 사랑유형 검사
- 나의 사랑은 이랬다 _ 조별활동
- 이타적인 줄 알지만 이기적인, 이별을 받아들이자

2부,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랑

- 우리가 만나게 될 사회 속의 사랑 (한창 사랑할 나이 허락하지 않는 사회) (채현)
- 맞닥뜨릴만한 고민들 중, 토론이 될 만한 거리를 기사나 영화, 드라마에서 찾아오기 (소아)
- 첫 경험을 준비하는 자세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 올바른 피임법) ←이걸 OX퀴즈로 가져가도!

3부, 섹스토크

- sex talk
- 영화 감상
- 쉬는 시간

***수업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性장하다, 청춘 !

김소아, 김채현, 이건산

1부, 우리가 만났던 사랑

-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로버트 스텐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대하여
- 이별을 '잘' 받아들이는 법

2부,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랑

- 섹스 그래프 그리기
- 우리가 만나게 될 사회 속의 사랑
- 미디어 속 성 이야기
- 첫경험을 준비하는 자세

3부, 저녁 프로그램

- ♪ sex talk ♪

*출발점

‘삶’과 ‘성’은 뗄 수 없는 사이.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한 ‘성’이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성.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자. 누구나 해볼 법한, 늘 가지고 있던 고민을 함께 풀어보자.

‘성’이라는 주제에서 남녀의 몸, 관계 그리고 쌍방 간의 사랑이라는 좁은 주제로 이야기 해 볼 예정이다. 사실 ‘성’이라는 주제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남녀의 몸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 동성애, 페미니즘, 성폭력 등등 수많은 것들로 나뉠 수 있다.

‘성’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하면서 같이 고민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 원래 우리의 인문학 진행방식은 책에서 내용을 발제해 강의하는,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성’이라는 주제에서 정답이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성’이라는 것이 자신의 가치관이 많이 투영이 될 수밖에 없고 각기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문학은 위인의 명언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삶에서 자기 자신의 통찰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인문학에서 ‘성’을 다루며 누구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닌 참가자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성’이라는 주제가 모두의 공감대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른 인문학 주제들과 같이 성, 사랑, 연애, 결혼도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기 전에 충분히 상상해보고 예상해보고 준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부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성,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솔직담백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야기를 하기 편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프로그램도 병행할 것이다. 2부에서는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랑이 주제인 만큼 다가올 미래, 현실을 공부하고 고민하고 나름의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고,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고민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제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다.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데 있어 성관계는 빠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첫 경험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볼 것이다. 3부에는 여러 가지 선택점이 있을 것 같다. 1,2부 분위기를 고려해 각자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다면 살아오면서 숨기고 있었던 성에 관련된 고민, 걱정들을 털어놓으며 얘기해 볼 수 있는 ‘sex talk’를 해볼 예정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면 영화감상을 하고 얘기를 나눠 볼 예정이다. 다들 힘들어하고 지쳤다면 쉬는 시간을 주어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1부, 우리가 만났던 사랑

여는 활동_

포스트잇에 “나에게 사랑이란 ()다!” 적어보고 얘기 나누기

“화장품”

지현 : 어떤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예뻐지고 싶으니까 화장품이라고 적었어요.

“나에게 사랑은 한번도 못해본 것”

소아 : 정말 한번도 없었나요?(웃음)

성훈 : 의도적이든 아니든 알아채지 못 했을수도 있지만 그런 거 같다.

소아 : 저희는 사랑을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을 순 없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할거예요. 진행하면서 돌아보면

분명히 있을거같네요.

“사랑은 온갖 감정을 느껴보는 것이다”

참가자1 :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 모성애나 친구간 우정도 있고 존중감? 여러 가지 감정 느낄 수 있는 거 같았다.

사랑에도 공부야 필요하다

처음에 ‘성’과 ‘사랑’을 인문학 주제로 풀어간다는 것에 대해 막연한 어려움을 느꼈다. 분명히 철학, 역사, 사회와는 뭐가 다른지 몰라도 다르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찾아왔다가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이유도 설명도 없는 감정인데, 이게 어떻게 인문학이 될 수 있지? ‘성’이라고 하면, 왠지 부끄럽고 불편하고, 나와는 먼 이야기 같은데...” 라고 생각했으니까. 재밌는 이야기거리리는 될 수 있겠지만 ‘학문’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왜 사랑은 학문이 될 수 없을까? 여기 나의 고민을 덜어준 학자가 있다. 사랑도 ‘기술’이라며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던 에리히 프롬을 통해 왜 사랑도 ‘기술’이라고 말했는지, 그 기술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자.

연애에 있어 고민되고 힘들고 답답했던 경험, 다들 있을 것이다. 꼭 연애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짝사랑이든 외사랑이든, 아니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있어서든 사랑에 대한 고민은 늘 있어왔을 것이다. 그런데 다들 가지고 있는 그 고민, 그 감정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나를 찾아왔는지 궁금해서 책을 읽어보거나 강의를 듣는 등 원인이나 해결방안을 연구해본 적이 있는가?

사랑처럼 엄청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되었다가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마는 활동이나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이것이 다른 활동의 경우라면 사람들은 열심히 실패의 원인을 가려내려 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 활동을 포기할 것이다.

사랑의 경우, 포기는 불가능하므로,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적절한 방법은 오직 하나 뿐인 것 같다. 곧 실패의 원인을 가려내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미국의 인류진화학자 에리히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의 한부분이다. 프롬의 말대로 어떤 활동에 있어 과정이 아무리 근사해도 좋지 않은 결과가 정해져 있다면 사람들은 그 활동을 시작하지 않거나, 실패의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것이다. 그렇지만 연애에 있어서는 ‘누구나 우연한 기회에 경험하게 되는 즐거운 감정’이라는 생각에 학습하고 들여다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에리히 프롬은 사랑도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동안 사랑을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깊이 들여다 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

프롬은 사랑을 기술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오류에 대해 세 가지 원인을 꼽았다. 하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다. 그것은 사랑이 내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하는 문제가 아닌, 상대에게 원하는 만큼 받으면 된다고 하는 ‘착각’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더 예뻐 보일지 궁리하며 사랑스러워 보일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성은 외모를 가꾸기 시작했고 남성은 재력이나 능력을 과시하게 되었다. 또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고, 올바른 대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이라고 착각한다. 내가 연애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직 마땅한 짝이 나타나지 않아서이며, 연애를 하게 돼도 갈등이 생기면 이 갈등의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으려고 하게 된다. ‘아, 나랑 진짜 안 맞아’라는 식으로. 또 초기의 풋풋한 설렘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숙하고 편해지는 현상에 대해 혼동을 겪는 데서도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권태’라고 하는데, 초반의 설렘이 끝나면 사랑도 끝났다고 하는 착각한다. 권태 현상과 이별의 전조 현상은 다른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이별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우리의 경험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보통 사랑은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고, 그만 두는 것은 보통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다. 프롬의 말대로 포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욱 힘든 문제가 남았다. 사랑을 잘 하려면, 연애를 능숙하게 잘 해내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을 얻기 위한 실천으로 4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목공 기술을 다루든, 의학 기술을 다루든, 어떤 기술의 실용에는 공통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요청이 있다. 바로 ‘훈련’이다.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시도해보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어떤 특수 기술의 실용을 위한 훈련(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연습하는 것)과는 달리, 사랑은 전 생애를 통한 훈련의 문제가 된다는 데 있다.

‘정신 집중’이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데 필수조건이라는 것은 거의 증명할 필요가 없다. 어떤 기술을 배우려고 해본 사람은 누구든지 이 점을 알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당신은 책을 읽으며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하고 담배를 피우고 먹고 마신다. 세상은 우리를 더 이상 한가지에만 몰두하기 힘들게끔 만들었지만, 그럴수록 필요한 것이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이다.

기술을 숙달하려고 해본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일을 달성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빠른 결과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기술도 배우지 못한다. 그럼에도 현대인에게 인내는 훈련이나 정신 집중과 마찬가지로 어렵다. 우리는 늘 더 빨리 갈 것을 지향하며 더 빠른 것을 선호한다. 현대인은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할 때에는 무엇인가를, 곧 시간을 잃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렇게 해서 얻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끝으로 어떤 기술을 배우는 조건은 기술 습득에 대한 ‘최고의 관심’일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어떤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기술에도 필요하다. 늘 궁극적인 관심사로 두는 것, 전 생애를 통한 훈련을 거듭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에리히 프롬은 어떤 기술 분야에서 명장이 되려는 야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삶의 모든 국면을 통해 훈련, 정신집중, 인내를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이 기술을 전 생애를 통해 계속하여 터득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즐겁게 생각하고 훈련을 그만두면 결국 실패하게 될 행동에 천천히 익숙해지는 것이 본질적인 일이라고 당부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술을 스스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처방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지만 잘 알고 있다시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 혼자서 몸소 겪어야 하는 개인의 경험이다. 확실한 처방을 바랐던 분들에게는 실망을 안겨주었을지도 모르겠다. 준비하면서 완벽한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줄 수 없는 것, 혹은 근접한 것이더라도 알려드릴 수 없는 것이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자동차 운전이나, 악기 연주에 필요한 기술과는 분명 다른 성격을 띄고 있으니까.

제시한 기술보다는 늘 나름대로 사랑을 하고 있었지만 거듭 실패하고 마는 이유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더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바란다. 그럴듯한 해결책은 얻기 힘들었지만 프롬이 했던 문제제기 중에 처방전이 있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프롬이 말한 대로 늘 궁극적인 관심사로 두는 것이 ‘나름대로의’ 기술을 터득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여전히 “사랑은 즐거운 감정이야. 감기처럼 어느 날 앓다가 어느 날 낫게 되는 짜릿한 감정이야”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사랑도 자연과학처럼 재고 따져야 하나?” 하고 할 수도 있고,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무엇이 되었든, 사랑도 사람이 살면서 맺게 되는 관계의 한 부분이다. 그 관계를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를 성찰하고 상대와의 관계를 가꿀만한 고민을 남기고 노력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날 힘들게 한다면, 사랑 때문에 아파본 적이 있다면 ‘에이 똥뺐았네’ 하지 말고 나를 왜 아프게 했는지, 나는 거기서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랑을 하는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보고 필요한 행동을 또 연구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활동임을 느꼈으면 좋겠다.

로버트 스텐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기 전,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고민해보자.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과 호의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친구와 애인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러한 물음들은 수천 년 동안 문학이나 철학 분야에서 끊이지 않고 거론되어온 중요한 주제다. 하지만 실증적인 학문인 심리학에서는 비교적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짧은 역사에 비해 연애에 관한 실증적이고 괄목할 만한 연구 결과들이 있다. 그 대표로 로버트 스텐버그(Robert J. Sternberg)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자.

스텐버그는 사랑이란 '친밀감', '열정', '커미트먼트(결정과 관여)'라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했다. 그는 사랑이란 이 3가지 요소가 조합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사랑은 '친밀감'이라는 여태까지의 연구결과를 견뎌왔을 때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친밀감

'친밀감'이란 가깝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결합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상대방과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고 서로를 의지하고 잘 이해한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태도에 긍정적인 지지를 해주고 존중해준다. 정서적으로 가깝다고 느끼고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즐겁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태도에 긍정적인 지지를 해주고 존중해준다. 정서적으로 가깝다고 느끼고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즐겁다.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며 자신의 소유물을 상대방과 공유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친밀감이란 이러한 감정을 남녀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 이 친밀감 이야말로 연애 관계에서 따뜻하고 편한 느낌을 갖도록 해준다. 친밀감이 형성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물론 첫눈에 친숙하게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개의 경우 친밀감이란 시간의 산물이다. 그러나 일단 형성된 친밀감은 바로 사라지지 않고, 사라질 때도 서서히 사라진다. 따라서 스텐버그는 누군가를 사귀기 시작하면 서서히 친밀감이 형성되어 상승해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친밀감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보고 있다.

열정

열정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로맨스나 신체적 매력, 성적 황홀감과 관련된 현상으로 이끄는 동인을 가리킨다. 열정은 사람을 생리적으로 흥분하고 들뜨게 만든다. 월스틴은 이것을 '서로 합쳐지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 상태'로 칭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성적 요구는 이 같은 경험의 전제 조건이다. 열정은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다시 말해 로맨스나 성적 행동을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열정'이다.

열정은 형성과 소멸 과정이 친밀감보다 훨씬 급격하다. 강렬한 만큼 쉽게 달아올랐다가 쉽게 식어버린다. 첫눈에 반해서 뜨겁게 불타오르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헤어지는 연인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열정이란 보통 어떤 자극에 의해 촉발되는데, 매력을 보고 느꼈던 자극이 사라지면 열정도 사라진다. 가령 사랑이 단순한 육체적 욕구에서 비롯되었을 경우, 그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열정은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커미트먼트 Commitment/결과와 헌신

커미트먼트란 사회심리학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로 어떤 결정이나 행동에 관여한 정도를 의미한다. 쉽게 설명해 상대에 대해 헌신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애 관계에서 커미트먼트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는 결정을 의미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랑을 유지하겠다는 언질이나 약속 등을 의미한다. 그 결과 커미트먼트를 하면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이 생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과 헌신 두 가지 측면이 반드시 함께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사랑 약속을 하지 않고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에 대한 헌신 약속을 할 수도 있다.

남녀 모두 서로의 장래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또한 일단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약속하고 난 이후 두 사람의 태도에 따라 약속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얼마나 헌신적인 태도를 보여주는가에 따라 약속은 파기

될 수도 지속될 수도 있다.

사랑의 종류

사랑의 세 가지 요소는 조합을 고려했을 때, 여덟 가지 제한적인 사례를 만들어낸다. 각각의 사례는 또한 다른 종류의 사랑을 불러온다. 이 같은 종류의 사랑들이 사실은 제한적 사례임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관계도 순수한 사례는 없다. 이것은 표에 잘 나타나 있다.

사랑의 유형	친밀감	열정	커밋먼트
비사랑	NO	NO	NO
좋아함	YES	NO	NO
도취성 사랑	NO	YES	NO
공허한 사랑	NO	NO	YES
낭만적 사랑	YES	YES	NO
우애적 사랑	YES	NO	YES
얼빠진 사랑	NO	YES	YES
완전한 사랑	YES	YES	YES

① 친밀감이 높을 경우: 좋아함

사랑에서 열정과 헌신/약속 요소가 결여된 채 친밀감 요소만이 경험될 때 나타난다. 여기에서 ‘좋아함’은 말은 우연히 알게 된 사람, 지나치는 사람을 향해 느끼는 단순히 좋은 감정을 의미하기보다는 진정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종류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강한 열정이나 장기적 헌신 없이도 상대를 향해 친밀감, 결합되어 있다는 느낌, 따뜻한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② 열정 요소가 높을 경우: 도취성 사랑

“첫눈에 빠진 사랑” 또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상화하는 망상으로 치우치는 사랑이다. 친밀감, 결심/헌신의 요소가 결여된, 열정적인 흥분만으로 이루어진 사랑이다. 도취는 도취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잠시 생겨났다가 마는 것으로 비친다. 이는 거의 즉흥적으로 생겨났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갑자기 사라져 버릴 수 있다.

도취성 사랑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보기보다 이상화된 상대의 모습을 그린다는 것이다. 도취 상태는 미처 그 관계가 성숙되지 않았을 때나 관계에 어려움이 없을 때만 지속된다. 두 번째 문제는 홀린 듯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사랑에 잡아먹히고 소모되어서 다른 일에 투자해야 할 시간과 정력, 동기 등을 잃게 된다. 도취성 사랑의 이런 홀린 듯한 특성은 사랑받는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는 상대의 사랑이 자신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기보다는 그 사람의 욕구가 투사된 것이라는 점을 깨닫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제는 도취성 사랑으로 인한 관계가 보통 비대칭적이라는 것이다. 도취성 사랑은 상대를 이상화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비대칭적 관계로 사랑에 빠진 사람은 더욱 스트레스에 빠지기 쉽다.

③ 약속/헌신 요소가 높을 경우: 공허한 사랑

친밀감이나 열정이 전혀 없이 상대를 사랑하겠다고(사랑에 헌신하겠다고) 결심함으로써 생겨난다. 몇 년 동안씩 서로 간에 감정적 몰입이나 육체적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정체된 관계에서 가끔 발견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다. 헌신

은 의식적인 적응에는 비교적 민감하므로 사랑에의 헌신이 강하지 않았다면 그런 사랑은 녹아 없어졌을 것이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공허한 사랑은 대체로 오래된 관계가 끝날 때쯤 나타나지만, 어떤 사회에서는 장기적인 관계의 시작 단계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가령 조선 시대와 같은 중매결혼 사회에서 결혼 당사자는 서로 헌신하는 것이 관계의 시작인데 거기서 모든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허한 사랑이 반드시 관계의 종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생활에 오로지 헌신만이 남아 있고 다른 요소들은 사라져 버렸을 때, 결혼을 생기 있게 회복시키기 위해 다른 요소들을 재생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사람들은 가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만 그것이 헛된 희망임을 깨닫고 실망한다. 즉 그런 부부는 결코 서로에게서 친밀감이나 열정을 느낄 수가 없다.

다른 종류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공허한 사랑도 일반적인 사랑일 수 있다. 한 사람은 상대에게 진정한 밀착과 유대를 유지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헌신만을 느끼는 수가 있다. 그런 비대칭적인 관계에서는 상대에게 몰입하지 않는 사람이 더 몰입한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빚지고 있다는 죄책감이 더해질 때 특히 어려워진다.

④ 친밀감과 열정 요소의 결합: 낭만적 사랑

낭만적 사랑은 육체적 매력이나 그 밖의 매력들이 첨가된 좋아하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낭만적 사랑은 서로에게 육체적, 감정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신은 낭만적 사랑의 필수 부분이 아니다. 연인들은 영원성이 있을 것 같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며 단순하게 생각해 버린다. 가령 여름 한때의 사랑 같은 것은 매우 낭만적이지만 여름이 지난 후의 둘 간의 지속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려 하지 않는다.

⑤ 친밀감과 헌신 요소의 결합: 우애적 사랑

열정의 주된 원천인 육체적 매력이 약해진 오래된 우정 같은 결혼에서 자주 발견되는 사랑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낭만적 사랑은 차츰 우애적 사랑으로 변하면서 남게 된다. 즉 열정은 없어지기 시작하나 친밀감은 남아 있다. 열정은 오래 지속되고 깊게 느껴지는 헌신으로 거듭 대체된다. 우애적 사랑에 만족을 느끼는 정도에 있어서는 개인마다, 커플마다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사랑을 원하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그런 낭만적 로맨스가 계속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불만족을 경험하거나, 결혼은 유지하면서 외도를 하거나, 결혼생활을 점점 소홀히 하고 새롭고 신선한 낭만을 찾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다.

⑥ 열정과 헌신 요소의 결합: 열빠진 사랑

할리우드 영화나 급행 구혼에서 접하게 되는 종류의 사랑으로, 친밀감의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즉 남녀가 어느 날 만났다. 곧 서로 약혼하고 또 곧 결혼한다. 둘의 관계가 발전해가는 데 시간을 요하는 상대에 대한 몰입 없이 열정에 근거해서 헌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것은 실체가 없어 보인다. 열빠진 사랑은 우울에 특히 민감하다. 열정이 식어갈 때(그것은 거의 피할 수 없는 것인데) 남아 있는 것은 헌신뿐이다. 그러나 그 헌신은 장기간에 걸쳐 성숙되고 심화된 헌신이 아니라 아직 어리고 얇은 수준이다. 간혹 여기서 친밀감이 성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그 커플이 원하고 있는 관계에 대한 기대가 친밀감을 발달시키기보다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그들은 관계의 기초를 열정에 두었고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실망한다. 그들은 속았다고 생각한다. 즉, 자기가 준 것보다 덜 받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문제는 한 가지(열정)를 지나치게 많이, 그리고 다른 한 가지(친밀감)는 부족하게 주었기 때문이다.

⑦ 친밀감과 열정과 헌신 요소의 결합: 성숙한 사랑

성숙한, 또는 완전한 사랑은 사랑의 세 요소가 모두 존재할 때 생긴다. 우리 모두가, 특히 낭만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다. 성숙한 사랑을 얻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지키기는 더욱 어렵다. 우리는 모든 사랑 관계 또는 대부분의 관계에서 성숙한 사랑을 발견하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사랑은 가능하면 가까이 도달하고 싶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려 한다.

양과 균형에 따라 다른 사랑 삼각형

사랑 삼각형의 기하학은 두 가지 요소, 사랑의 양과 균형에 달려 있다. 사랑의 양 차이는 사랑 삼각형의 영역 차이로 나타난다. 즉 사랑의 양이 크면 삼각형 역역도 커진다. 세 종류의 사랑 균형에서 차이가 나면 삼각형의 모양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균형 잡힌, 성숙한 사랑은 정삼각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 사랑에는 하나의 삼각형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삼각형이 개입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들의 일부에만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관심을 둔다. 이를테면 실제적 삼각형과 이성적 삼각형은 서로 대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삼각형뿐 아니라 그 관계에 대한 이상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삼각형도 가질 수 있다. 이상적인 삼각형은 같은 종류에 속하는 과거 관계의 경험에 바탕을 둔다. 또 친밀감에 대한 자신의 기대가 드러날 수도 있고 자신이 인식한 삼각형과 남이 인식한 삼각형이 다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관계에서 한 사람의 감정은 다른 사람이 감정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부응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삼각형과 행동의 삼각형을 구분하는 건 중요한 일이다.

이별을 '잘' 받아들이는 법

어느 날 우연히, 운명같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내 감정을 쏟게 되고 서로의 몸을 쓰다듬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하지만 사랑이 영원할 수 있을까? 물론 영원한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쓰러린 이별의 경험을 하고 있다. 주위 친구들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이별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서 볼 수 있다. 이별 후에는 어떤 감정이 생길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시작할 때 상대방에게 쏟았던 좋은 감정들만큼 이별 후에는 상대를 미워하고 잘 되지 않기를 바라고 심하면 증오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랑이 시작 될 때는 어떤 감정으로든 대체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가도 배신과 상처로 얼룩진 실연자들에게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감정이라고 치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너무 안타깝지 않은가? 아름다웠던 사랑의 순간들, 기억들이 이별 후 상대에 대한 미움, 증오 등에 묻히게 된다.

사랑의 경험이 나쁜 기억으로 남게 된다면 자신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별의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남는 성장지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다가오게 될 수 있는 이별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이별을 맞이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보았다. 나는 사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별을 '잘'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찾아보았다.

첫 번째 문제는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할 대상을 찾기보다는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어느 날 기회가 되어 자신을 사랑해줄 대상을 찾았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받기만 할 수는 있을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것이다. 사랑은 둘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서로 이것저것 챙겨주고 잘해주며 열심히 사랑을 말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사랑받기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의 모든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랑은 보상과 대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둘의 사랑은 거래관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결국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는 대상만을 찾아왔던 사람은 내가 주는 사랑만큼 상대가 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랑에 위기가 오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자신이 쏟은 감정에 보답받기를, 대가를 바라게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자신이 사랑할 대상을 찾게 된다면 그렇게 억울해 할 필요가 없다. 착각하지 말자 사랑을 주는 것은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다.

두 번째 문제는 사랑하는 연인을 필요이상으로 배려하여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사람의 몇 가지 특성을 뽑는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연인과 전화통화 후 상대 전화기에서 딸깍 소리가 난 후에야 비로소 전화를 끊는다. 둘째, 마음을 다 드러

내지 않고 자기 사랑을 조금씩 감추면서 상대에게 부담을 덜 주려 한다. 셋째, 분명 화낼 일인데도 화로 분출하지 않고 대신 섭섭함만을 짙짙하게 드러내다가 마침내 상대가 짜증을 내면 혼자서 서러워한다. 이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상대에게 나타내지 못한다. 늘 자신을 감추거나 낮추다가 다가가는 것도 멈춘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어설피게 미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에 집중하지 못한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려는 노력이 오히려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내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받겠다고 할 수 있을까? 난 이런 사람들이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힘든 사랑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배려라는 미명하에 자신을 숨겨가며 상대를 대하면 원만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듯 싶지만 결국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애인이 사랑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랑받는 능력이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사랑에 집중하는, 그런 별거 아닌 능력인 것 같다.

위 두 문제점들의 공통점은 '이타적인 줄 알지만 이기적인' 모습들이다. 그 많고 많은 이유들 중 왜 이런 문제점들을 고르게 되었을까?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 자신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사랑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상대를 사랑하는 대가로 사랑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주체가 되어 사랑하는 행위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사랑하는 과정에 '나' 자신이 없었다면 이별이 찾아올 때 상대에 대한 미움, 증오, 고통으로 찾아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당연하지 않은가? 사랑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었다면 결국 대상을 닮아갈 것이 분명하다. 심지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더욱이 그럴 것이다.

세상에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을 것 같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었던 사람과 멀어지는 과정이 어찌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 떠나간 사람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보고 싶어 힘들어하고 울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내가 '잘' 사랑했다는, 사랑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적어도 상대에게 미움, 증오 등 나쁜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별은 아픔이 전부일까? 진짜사랑은 사랑 이외의 전부를 가르친다. 신뢰와 존경과 배려와 안정과 노력하는 법과 나 자신을 읽는 독법과 고통을 견디는 내성까지. 사랑으로 사랑을 배울 수는 없지만, 사랑 그 외의 것은 배울 수 있다.

이별은 훗날 찾아올 사랑을 더욱 성숙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마냥 힘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실연을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대상이 나에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었다고 생각하며 좋았던 기억들은 추억으로 나뉘었던 기억들은 경험으로 남기며 이별을 받아들여보자.

왜 성은 부끄러운 것이 되었을까?

누군가 야한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남자든 여자든 눈을 반짝거리고 귀를 쫑긋하게 된다. 가장 궁금하지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음지에서 먼저 눈을 뜬 선배들에게 친구들에게 전설같이 전해져 내려오는 '카더라' 하는 얘기로 배우는 수밖에 없다.

성욕은 식욕, 수면욕과 같이 기본적인 욕구다. 더군다나 동물은 발정기가 있어 그 기간에만 성욕이 왕성해 지는데 인간은 동물 중 유일하게 발정기가 없다.(365일 성욕이 왕성하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도 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욕구를 퐁퐁 숨기고 살아야 한다. 혹여나 몰래 포르노 영상이라도 보게 된다면 죄책감마저 들 수 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좀 더 개방적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성은 법과 도덕의 감시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종교에서부터 온다. 종교에서는 섹스를 자손 번식을 위한 목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적 쾌락을 죄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에서는 부부간의 사랑과 일치, 자녀 출산을 목적으로만 성행위를 인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의 몸을 거룩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혼전성교나 동성애, 자위, 혼외성교, 근친상간 등과 같은 성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무분별한 성적 자유로움은 가족관계의 혼란을 통한 공동체의 파괴를 초래한다고 한다.

모세의 십계 중 하나인 '간음하지 말라'는 육체의 쾌락을 탐하는 것이 죄임을 선언한다. 심지어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조차도 쾌락에 대한 종교적, 도덕적 죄의식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성에 관한 도덕과 윤리와 규범이 생기고 성 욕구의 충족이 제한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 작가 대럴 레이는 '침대 위의 신'에서 종교가 인간의 성적 본능을 억압해왔음을 주목한다. 그는 "가서 신이 없는 섹스를 즐겨라!"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인간의 성적욕구를 수치심과 죄의식으로 억눌렀던 종교적 편견에 문제를 제기하고 본능에 충실한 자연스러운 성행위를 강조한다. 또한 고전 평론가이신 고미숙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욕은 곧 국가생산력인 까닭에 반드시 합법적인 부부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민족과 국가의 최소 단위는 '가족'이다. 고로 가족 바깥에서의 성생활은 국가적 낭비다!' 이 주장 역시 국가 경쟁력이라 불릴 수 있는 자녀의 출산을 목적으로만 성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 오롯이 자손 번식에만 사용해야 할 성욕을, 가족을 이루지 않는 단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는 성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한 인식을 따라 법이 만들어졌고, 성욕을 느끼는 순간 죄책감도 같이 느끼도록 교육받아왔다. 자라나 사랑에는 성욕이 개입할수록 타락해 버린다는 생각까지도 만들어졌다.

우리의 머릿속에도 생각보다 깊고 강력하게 성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기에 선뜻 입밖에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성욕을 느끼거나 궁금증을,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나는 성을 보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찌 되었건 성은 그 누구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니까!

2부,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랑

우리가 만나게 될 사회 속의 사랑

동의보감에 따르면 인간의 자연적 생체 리듬은 남녀 모두 10대부터 상승곡선을 타다가 30대 후반 부터는 하강곡선을 긋기 시작한다. 그런 기준에서 보자면 딱 지금 우리 나이가 가장 혈기 왕성할 나이라고 한다. 사랑에 나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지만 10대와 20대가 사랑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이이긴 한가 보다. 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어떠한가. 에너지가 넘치는 10대 20대에는 입시와 취업, 먹고사는 문제에 휘둘리며 욕망을 거세당한 채 살고 성적 에너지가 하강곡선을 긋는 30대 후반이 되어야 간신히 욕망의 주체가 되는 격이다. 20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성년과 성년이라는 엄격한 단절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에 따라 10대 중반쯤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혼인을 하는 게 수순이었고 어찌면 우리도 대부분 아들, 딸 한명씩은 있었을 텐데 말이다. 춘향전만 하더라도 이팔청춘 16세의 이몽룡과 성춘향의 이야기이지 않은가. 하지만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들어오면서 성인과 청소년의 사이는 날카롭게 단절되었고 10대는 더 이상 이팔청춘이 아니라 오로지 청소년일 뿐이다. 그리고 미성년은 다시 소년, 청소년, 청년 등으로, 나아가 어린이기, 유아기로 세분화되기에 이르렀다. 근대 권력은 인구 전체를 촘촘하게 통제, 관리하는 일종의 생체 권력이다.

인구가 곧 생산력이라는 계산 하에서다. 특히 청년의 힘과 열정은 생산의 원동력이자 토대에 해당한다. 따라서 절대 그냥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라는 제도를 통해 전면적으로 포획 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이 문명의 초석이 된 건 이 때문이다. 학교의 탄생과 더불어 모든 구성원은 반드시 학교 교육의 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생산력에 필요한 자질을 두루 갖추 수 있다는 계산 하에서다. 따라서 당연히 청년기에는 남녀 간의 결연이나 결혼 따위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한다. 만약 성춘향과 이몽룡처럼 욕망을 제멋대로 발산하게 된다면 국가생산력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걸 거꾸로 추론해 보면 국가생산력이란 다름 아닌 청년의 성

에너지를 흡수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아직 사회로 나가보지 않은 우리에겐 막연한 기대감과 환상만 있고 이런 이야기들은 남의 이야기, 먼 이야기처럼 느껴 질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일반학교에 다니는 10대들만 봐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연애를 하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무슨 연애냐며 헤어지라고 압박을 준다던가(삶에 중요하지 않은 시기도 있나?), 성교육 시간엔 구구절절 피임법만 가르치면서 미성년자는 인터넷으로 그 흔한 콘돔하나 살 수 없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 초 한 시장조사 전문 기관이 솔로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솔로들은 데이트 비용이 부담돼(59.9%) 연애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18~49세 미혼 남녀 가운데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비율은 남성이 33.8%, 여성이 35.6%다. 성인 남녀 열 명 중 고작 세 명만 연애를 하고 있는 거다. 연애는 안 해도 죽지 않지만 취업은 당장 밥줄의 문제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발표한 연구 내용을 보면 근래의 이 연애포기 현상은 생각보다 치명적이고 심각하다. 청년층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점점 더 연애불가능 구조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작 30%에 달하는 커플의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지며, 비정규직 보다는 정규직이, 그리고 중소기업 근무자 보다는 대기업 근무자가 그나마 연애를 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연애도 철저하게 호주머니 사정에 좌우되는 셈이다. 연애종말의 시대가 왔다. 청년 실업률 10%의 시대. 연애가 로망과 낭만의 카테고리를 벗어난 건 이미 오래전 일이 되었다. 우리는 삼포세대를 살고 있다 이야기 한다. 삼포세대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치솟는 물가, 등록금, 취업난, 집 값 등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를 돌볼 여유도 없다는 이유로 연애, 결혼, 출산 세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한다. 더 나아가 오포세대는 인간관계와 집, 칠포세대는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세대를 뜻한다. 쓸쓸하지만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걸 보면 현실인거 같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세상은 바뀌어 가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도 벅찬 청년들은 중요한 가치들을 뒤로 미루고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 박탈당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그저 사랑은 나에게 사치라 얘기한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린 어떤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시대가 변화해 가며 바뀐 연애의 특징들이 있다. 바로 ‘쿨’한 연애의 모습들이다. 썸, 어장관리, 밀당 등 지금은 아주 익숙하고 사랑에 있어 연애에 있어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단어들이지만 사실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된 건 불과 몇 년 전 일이다. 아마 우리가 점점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혹은 손해받기 싫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사랑하는 모습도 달라지고 있는 거 같다. 계산적인 사랑 속에서 순수하게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상처받고, 손해보고, 당한다. 바꿔 말해 다 퍼주면 바보가 되는 사회가 되었다.

관계를 저울로 재면서 ‘내가 이만큼이나 희생했으니 이만큼은 해 주겠지’ 하고 상대방에게 받은 만큼만 주려고 하고 내가 준 만큼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바라게 된 순간 그것은 희생이 아니고 교환이 된다. 특히나 남들에게 보여 지는 것을 중요시 하는 이 사회에서 연애라고 뭐 다르겠는가. 대결이라도 하는 양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만 엄선하여 각종 sns에 기록하기 바쁘고 여기저기 비교하면서 등급을 매기기도 한다. ‘결혼 정보 회사’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지 않을까. 그뿐만이 아니라 근래에는 조건에 맞는 사람을 골라 연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남녀가 늘고 있다고 한다. 괜히 이것저것 재느라 시간, 돈 낭비하는 대신 애초에 계산에 맞춘 타깃만 만난다는 거다. 연애도 투자대비효율을 고려해야 하는 행위가 되었다. 나에게 얼마나 헌신적인지가 (얼마나 많은 선물을 하는지, 얼마나 많이 이벤트를 해 주는지 등)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일종의 거래관계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리에게 사랑은 대상의 문제이다. 사랑에 실패하는 것도 애인이 나와 맞지 않아서, 내가 대상을 잘못 골랐기 때문이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랑을 못 해본 건 100% 나에게 맞춰진 이상형을 만나지 못해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는 노력만 해 왔지 주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인스턴트적 사용과 즉효약, 그리고 인스턴트적 만족을 즉석에서 제공해주는 제품을 선호하며, 단기간의 노력, 아주 간단한 조리법, 그리고 모든 위험 보험과 함께 환불 보증서가 붙어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우리의 소비자 문화에서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기란 아주 드문 일이다.”

<액체근대>의 저자인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 사회속에서 우리가 진짜 관계를 맺는 것에 이토록 어려워진 것이 소비자적 합리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말마따나 우리의 소비자 문화에서는 사랑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판에 몸만 쏙 들어갔다 실패하면 그대로 몸만 쏙 빠져나오길 원한다.

지금은 연애지상주의, 연애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연애만 하면 만사 행복할 것 같고, 따라서 연애를 하지 않는 게 대단히 큰 문제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다. 따라서 무거워지는 동시에 가벼워지고 있으며, 어려워지는 한편으로는 더없이 쉬워지고 있는 이 시대의 연애, 사랑에 대해 돌이켜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미디어 속 성 이야기

1. 영화 <청춘정담> : 총각딱지?!

	<p>입대를 앞둔 윤성은 아직 '총각딱지'를 떼지 못했다. 윤성에겐 여자친구 은주가 있지만 아직 잠자리까지는 하지 않았다. 입대 전 총각딱지를 떼지 않으면 놀림을 받을거라 생각한 윤성은 친구들에게 끌려 집성촌에 들어서지만 결국 나오게 된다. 그리고 머뭇거리던 은주에게 맞집에 가자며 길을 잘못 든 척, 모텔에 데려간다.</p>
--	--

'총각딱지'라는 것은 무엇일까? 군대 가기 전에 성경험이 없는 것이 놀림 받을 만한 일일까? 아직도 여성에게 처녀성을 요구하는 문화가 남아 있는 이 사회에서, 여성과는 반대로 성경험이 없으면 흠이 되는, 남성의 '총각딱지'는 무슨 의미일까?

2. 영화 <오늘의 연애> : 남녀 사이에 친구는 가능할까? 애인의 남자친, 여자친은 어디까지 허용?

	<p>준수와 현우는 매일 같이 술을 마시고 밥을 먹고 서로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도 아는 사이지만 18년 동안 친구 사이이다. 하지만 유부남과 아슬아슬한 로맨스를 즐기는 채원에게 승기는 점점 빠져든다. 친구라고만 생각했던 채원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감정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p>
---	---

최근 '남사친', '여사친' 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애인을 뜻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이성일 뿐인 친구를 구분하기 위해 남자사람친구, 여자사람친구를 줄여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늘 영화와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남사친', '여사친'의 관계는 처음엔 편하게 내숭 없이 지내다가 점차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그렇다면 이성간의 친구 사이란 정말 존재하기 어려운 것일까? 내 애인의 이성 친구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

3. 영화 <러브픽션> : 과거를 묻지 마세요.

	<p>1. 주월은 어느 날 우연히 희진의 대학 시절에 대해 듣게 된다. 사진학과에 재학하던 희진은 남자 모델들의 누드 사진을 즐겨 찍고 모델이 되어준 남자와 잠자리까지 즐기던, 이른 바 ‘스쿨버스’라는 별명이 있었던 것. 주월은 사실대로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핫김에 말해버리며 갈등을 빚는다.</p> <p>2. 주월과 희진의 첫날밤, 주월은 희진의 몸에 입을 맞추다가 겨드랑이에 난 털을 보고 놀란다. 희진은 알래스카에서 살다 왔고, 알래스카에서는 여자도 털을 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p>
--	---

애인의 과거는 흔히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된다. 자칫 호기심으로 상자를 열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걸 보면 어딘가 닳긴 닳았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다. 알아서 좋을 것이 없는 애인의 과거는 왜 궁금한 것일까? 희진의 과거를 주월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주월은 희진의 과거를 모른 척 덮어줬어야 했던 것일까?

4. 영화 <러브픽션> : 남자는 상관없고 여자는 상관있는 것.

여자도 제모를 하지 않는 알래스카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제모를 하지 않은 효진. 남성도 여성도 2차 성징과 함께 몸에 거뭇거뭇한 털이 자란다. 여성이 겨드랑이, 다리, 팔, 인중에 난 털을 제모하지 않는다면 흠이 될까? 오히려 남성의 털이 더 두껍고 많은데, 왜? 남자는 제모에 있어 자유로운데 여자에게는 필히 요구되는 것일까?

5. 영화 <500일의 썸머> : 사랑스러운 하트모양 점이 바퀴벌레 모양 얼룩으로 보이는 순간, 사랑의 유효기간

	<p>“나는 썸머를 사랑해. 그녀의 미소를 사랑해. 그녀의 머리칼이나 그녀의 무릎도 사랑해. 목에 있는 하트모양 점도 좋아하고 그녀가 가끔 말하기 전에 입술을 핥는 것도 사랑스러워.”</p> <p>“그녀의 뽀뽀뽀한 치아도 싫고, 60년대 헤어스타일도 싫고, 울퉁불퉁한 무릎도 싫어. 목에 있는 바퀴벌레 모양 얼룩도 싫어.”</p>
--	--

인생을 바꿔줄 운명적인 사랑이 나타날 것이라 믿는 순수청년 ‘툼’과 사랑도 남자친구도 눈곱만큼도 믿지 않고 구속받기 싫어하는 ‘썸머’의 사랑 이야기다. 연애 초반 툼은 그녀를 천생연분이라 확신하지만, 그녀에게 빠지게 만든 썸머의 수많은 장점은 점점 지긋지긋한 단점으로 변해만 갔다. 장점이 단점으로 보이는 순간, 권태가 찾아온다. 이 권태는 피할 수 없는 것일까? 권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사랑은 영원할 수 있을까?

6. 영화 <건축학개론> : 작업의 정석



“여자한테 술을 먹여서 취하게 만들어. 취하면 업어. 침대에 눕혀. 끝”
 남자가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한 작업의 방식이다. 자신의 의도에 다르게 성폭력 피해자가 된 그녀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남성의 구애를 받아들인 여성이 되고 만다.

납득이의 작업의 정석은 철저히 남성 중심적 시각에 기초한 것이다. 주인공 남성에게는 자신이 아닌 다른 남성을 선택한 그녀가 ‘쌍년’으로 기억된다. 성폭력 현장을 방관한 주인공 남성에게는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납득이의 연애방식은 남자들이 여자를 얻기 위한 노력일까? 성폭력으로 시작되는 사랑일까?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작업을 거는 방법은 무엇인가?

7.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 자기야, 난 섹스를 원하지 않아



지해수의 전 남자친구는 자신의 양다리는 인정하면서도 ‘사랑하는 여자와 30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잠자리를 참는’ 것이 고통스러웠다고 호소한다. 그리고 지해수는 자신이 비정상이라 이야기한다.

지금 사회에서는 지해수가 정상이 아닌 걸로 간주된다. 하지만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야하는 연인이 ‘섹스’로 싸우고 있을 줄이야. 사랑과 성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일까?

8. 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 : 하룻밤 인연, 평생 연인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녀가, 우연한 기회의 ‘원나잇’ 만남에서 임신이라는 후폭풍을 맞게 되는 스토리를 유쾌하게 풀어낸다.

우리나라 성생활 중 ‘원나잇’ 문화가 일어났다. 생전 처음 만난 사람끼리 육체적 관계를 맺어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다.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이 결합되어야 완벽한 성관계인데, 사랑하지 않고 오직 성욕을 풀기 위해 하는 성관계문화는 괜찮은 것일까?

첫경험을 준비하는 자세

만나왔던 사랑과 만나게 될 사랑을 성관계로 나누는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의 성관계는 성인이 기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2부에서 첫 경험을 준비하는 자세를 이야기 해보게 되었다. 사랑에도 배움 필요하듯 성관계에 있어서도 가져야 할 마음가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이해하고 올바른 피임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 첫 경험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하여 알아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OX퀴즈

우리의 성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자. 쉽게 말해 조금 진부하다고 생각 될 수 있는 성교육 시간이다. 서로의 몸, 남녀의 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까? 생각보다 서로의 대해 잘 모르는, 잘못된 성지식이 있을 수 있다. 혹시 알고 있다면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 남성은 포경수술을 꼭 해야 한다. (X)

음경의 끝을 귀두라 하는데, 귀두는 표피로 덮여있다. 표피와 귀두 사이 공간에 이물질이 끼면 청결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이 표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된다.(소수의 국가들) 어렸을 때는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피가 아직은 작은 귀두를 덮고 있지만 19~20세가 되면 대부분 자연포경(귀두가 표피를 뚫고 나오는 것)이 되는데, 그 시기까지 자연 포경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꼼꼼히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2. 여성은 첫 성관계를 가질 때 출혈을 경험한다. (X)

처녀막은 여성의 성기 중 외음부의 소음순과 질의 경계를 이루는 '질주름'을 말하는데, 가운데 작은 질 구멍이 있어 그 주변을 원형으로 싸고 있다. 그 크기나 탄력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첫 경험을 한다고 해서 꼭 출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출혈 증상 하나만으로 여성의 처녀성을 논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처녀막에 집착하는 것보다 첫날밤 사랑의 진실성으로서 본인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것임을 기억하자.

3. 음경이 발기되면 반드시 사정을 해야 몸에 해롭지 않다. (X)

발기 한 후 사정을 하지 않으면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발기 이후에 사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질병이나 증후를 만들지는 않는다. 오랫동안 사정하지 않고 성적으로 흥분해 있으면 불편하거나 중압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불편함은 사라진다.

4. 콘돔과 페미돔을 함께 사용하면 피임율이 증가한다. (X)

여성의 피임기구인 페미돔과 콘돔을 같이 쓰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파손을 염려해 콘돔을 두개 겹쳐 쓰는 경우도 있다. 페미돔과 콘돔은 고무 재질이기에 서로 마찰하게 되면 파손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여 하나의 콘돔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안하다면 여성이 미리 살정제를 삽입하거나 루프를 착용하는 등 다른 피임방법을 병행하여도 좋다.

5. 피임약의 복용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X)

예방을 위한 피임약은 약국에서 구입하여 사용법을 보고 사용 가능하다. 다만 관계 후 먹는 피임약(경찰 신고, 산부인과 처방이 필요한 약이며,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못하게 차단하는 피임약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임약이라고 보기 힘들다) 과 붙이는 피임약은 전문의의 처방이 꼭 필요하다.

6. 청소년에게는 콘돔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X)

현재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일반 콘돔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구매가능하다. 사정지연제 등 약물이 들어간 특수콘돔과 성기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성인용품 등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형 포털 사이트들은 일반콘돔과 특수콘돔을 구분하지 않고 콘돔 자체의 정보접근을 차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일반콘돔과 특수콘돔 콘텐츠를 다 걸러내기는 어려워 성인인증을 하고 있지만 로그인을 하면 청소년 유해정보는 제외된 채 정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7. 생리중에 성관계를 맺으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 (X)

생리 중 관계를 갖게 된다면 임신확률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강제배란” 중요한 것은 피임보다 질의 건강이다. 생리 중 자궁과 질은 약해지고 자궁입구가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의 균이 자궁 안으로 침투하기 쉽다. 따라서 생리 중 관계를 맺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길 바란다.

8. 페니스의 크기와 성적 만족도는 관계가 있다. (X)

일반적으로 질의 길이는 7~9cm이며 질 입구의 일부만 자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페니스 크기가 크다고 해서 성적 만족도가 크진 않다. 또 남성의 페니스가 발기했을 때 약 7cm 정도만 되면 관계를 가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9. 윤활제가 없을 때, 베이비오일이나 바디로션을 사용할 수 있다. (X)

콘돔은 고무 재질이고 지용성 물질, 기름에 약하다. 따라서 윤활제는 모두 수용성이다. 베이비오일이나 바디 로션, 외음부 향생 연고 등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파손의 우려가 있다. 꼭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자.

10. 생리 중에는 배변활동이 활발해진다. (O)

생리를 시작하면 자궁내막에서 '프로스타그란딘' 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평활근이란 자궁의 근육을 수축시켜 생리혈을 부드럽게 배출해주는 작용을 한다. 이 호르몬이 체질적으로 많은 여성의 경우 자궁과 가깝게 있는 장이나 직장의 벽에도 함께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변도 부드럽게 나온다.

11. 임신 중에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 (O)

생리 중 관계를 갖게 된다면 임신확률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생리가 끝난다면 살아있던 정자로 인한 임신이 가능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피임보다 질의 건강이다. 생리 중 자궁과 질은 약해지고 자궁입구가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의 균이 자궁 안으로 침투하기 쉽다. 따라서 생리 중 관계를 맺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길 바란다.

12. 피임약의 복용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X)

예방을 위한 피임약은 약국에서 구입하여 사용법을 보고 사용가능하지만 관계 후 먹는 피임약과 붙이는 피임약은 의사에게 처방 받고 사용해야 한다.

13. 여자는 폐경이 되면 성욕이 급감한다. (X)

.우리사회에는 젊음만이 섹시함의 비결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많다. 폐경이 되면 더 이상 여자가 아니며 섹스도 끝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이때쯤이면 자녀들이 독립을 하여 부부만 남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신혼기처럼 왕성한 관계를 맺는 커플들도 많다.

14. 여성의 자궁 내에서 정자의 생존일은? 1. (1일) 2. (3일) 3. (7일) 4. (10일) 5. (보름)

정답 : 2번

-피임의 종류와 올바른 피임법

콘돔



음경을 고무막으로 덮어씌워 정자가 여성의 질 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줌.

*성병 및 에이즈를 막아주는 유일한 피임법.

구입 방법: 지하철, 약국, 온라인매장, 편의점,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판매함. 오백원~오천원 (1개)

사용법: ① 음경이 발기가 되었는지 확인. ② 콘돔 유효기간 및 찢어진 곳 없는지 확인. ③ 음경이 질 입구에 닿기 전에 씌우기. ④ 콘돔 끝 부분을 비틀어 공기를 빼고, 음경 끝까지 씌우기. ⑤ 사정 후 음경이 작아지기 전에 콘돔 잡고 빼기.

주의 점 및 부작용: ① 유효기간 및 찢어진 곳 확인 ② 성관계 중 콘돔이 찢어졌을 경우는 임신의 가능성이 있음. ③ 사정 후 콘돔을 잡고 빼지 않을 경우 콘돔에 틈이 생겨서 정액이 여성의 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 ④ 1회용임.

먹는 피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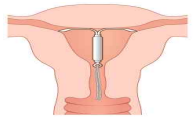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토젠이 함유되어 난소에서 난자가 성숙되어 배란하지 않도록 하며, 자궁 경부의 점액을 끈끈하게 하여 정자가 자궁내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함.

구입 방법: 약국에서 구입 만원~ 만오천원 (1달분)

사용법: ① 첨부된 사용설명서 자세히 읽기. ② 월경이 시작되는 첫날 먹기 시작하기. ③ 하루에 1알, 매일 비슷한 시간에 먹기. ④ 21알 먹고 7일간 쉬기.

주의 점 및 부작용: ① 약 먹는 것을 1번 잊었다면 다음날 2개를 한 번에 먹기 약 먹는 것을 2번 이상 잊었다면 피임 효과 X ②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월경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무월경, 월경과다 등) 메스꺼움이나 두통 유방통을 느낄 수 있음. 식욕 변화로 체중 과다나 감소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 있음.

루프



자궁 내 정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수정란의 착상을 막아줌.

구입방법: 산부인과에서 시술 오 만원~ 삼십 만원 (5년사용)

사용법: ① 산부인과 진찰 받기 ② 자궁 내에 삽입 시술 받기. ③ 6개월에 한 번씩 진찰받기.

주의 점 및 부작용: ① 6개월에 한 번씩 진찰받기. ②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월경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 (위와 같음)

붙이는 피임약

먹는 피임약의 피임 원리와 비슷함.



구입방법: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 삼 만원~사 만원 (1달분)

사용법: ① 산부인과 진찰받기. ②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서 구입하기. ③ 월경 시작일에 정해진 부위 (등, 허벅지, 등)에 부착하기. ④ 매 주 같은 요일에 교환하기. ⑤ 3주간 한 후 1주 쉬기.

주의 점 및 부작용: ① 붙인 패치가 느슨해지거나 떨어졌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새로 붙여주기. ② 24시간이 지나면 피임효과 없음. ③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먹는 피임약과 비슷한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체중의 변화나 여드름과 관련된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함. 그러나 최근 혈액 응고 등의 부작용등이 밝혀지고 있음.

살정제



정자가 자궁과 난관으로 이동하기 전에 질 내에서 정자의 활동을 약화시키거나 죽음.

구입방법: 약국에서 구입 육 천원 (1팩,12알)

사용법: ① 성관계가 있기 15분전에 질내에 삽입. ② 1시간 정도 효과가 있음.

주의 점 및 부작용: ① 시간을 잘 지켜야하기 때문에 피임실패율이 제일 높음. ② 과민성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음. ③ 1회용임.

월경주기법



난자는 배란 후 24시간, 정자는 성관계 후 72시간이 넘으면 죽기 때문에 여성의 월경주기에 따른 배란일을 계산하여 난자와 정자가 만나지 않도록 함.

사용법: ① 자신의 최근 6개월의 월경주기를 계산하여 다음 월경 일을 계산함. ② 월경예정일에서 -14일을 한 후+5일을 임신이 가능한 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 내 성관계를 하지 않음.

주의 점 및 부작용: ① 월경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음. 특히 청소년의 경우 아직 월경주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함.

첫 경험을 준비하는 자세 & 준비해야 할 것들

스무살, 앞자리 숫자만 바뀌는 것일 뿐인데 어쩐지 해방처럼 느껴진다.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한 경험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런데 자유와 어울리지 않는 듯 어울리는 단어가 하나 따라 붙는다. 바로 '책임감'이다. 누군가에게 별 거 아닐 그 '미지의 세계'는 어색하고 부끄럽고 쑥스러울 수도, 짜릿하고 황홀하고 아득할 수도, 간절하고 진지한 과정일 수도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것이 싫은지, 지금 좋은지, 싫은지, 성관계를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상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하고, 진지하게 들어주어야 한다. "그래, 나도 알아!" 하며 다 아는 뻔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외로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성 상담게시판에 올라오는 고민의 절반가량은 서로 솔직히 말하고 진지하게 들어주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이번 시간에는 '자신을 위해' '상대를 위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관계에 임해야 하는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얘기해보고 성관계 결과를 미리 예측해보며 자신의 성을 주체적으로 다스리고, 책임 있는 성적 의사결정권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길 바란다.

신뢰하기(나 자신에 대한 신뢰), 장소, 분위기(무드), 배려, 지식(성에대한), 시간 타이밍, 사전지식(피임, 테크닉), 임신했을 경우를 생각하는 책임감, 서로의 대한 신뢰(호기심 때문에 X), 재력, 이벤트(분위기조성), 사전준비(샤워 등),대화, 분위기, 체위 배우기, MT, 담요, 피임약(콘돔), 마실 것 준비(와인), 속옷, 편지, 가그린, 정서적 안정, 와인필수(분위기를 위해서), 마음이 통해야 한다, 콘돔사용, 눈빛교환(상호작용), 신중함, 신뢰심, 개념, 서로에 대한 확신, 사랑, 침대, 기술, 힘, 테크닉, 술, 담배, 돈, 리듬, 인내심, 정력, 지구력,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 말빨, 야한 속옷, 지식, 피임법, 콘돔, 서로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 사랑, 신뢰, 믿음, 후회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세 등

성관계를 위한 스무고개

1. 성관계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심리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
2. 성관계에 동의했다라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다.
3. 상대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다.
4. 충동이나 호기심만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
5.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
6.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한다.
7. 서로의 성행동에 대해 불안이 없다.
8. 파트너와 서로의 성 욕구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9. 서로 좋아하는 성행동이 무엇인지 안다.
10. 나의 벗은 몸을 상대방에게 당당히 보여줄 수 있다.
11. 질외사정으로 임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12.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헤어지지 않는다.
13. 임신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 안다.
14. 임신했을 경우 아기를 낳아 키울 수 있다.
15.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위험과 후유증에 대해 안다.
16. 성병의 증상과 예방법을 안다.
17. 상대와 의논하여 피임방법을 선택한다.
18. 여러 가지 피임방법의 장단점을 알고 있다.

19. 콘돔 사용법을 정확히 안다.

20. 콘돔 구입처를 알고 있고 혼자 살 수 있다.

올바른 콘돔 사용법!

모두 잘 알고 있듯이 피임은 중요하다. 사랑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다. 위에서 여러 가지 피임법을 알아보았지만 알아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피임은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피임법 중 주변에서 가장 구하기 쉽고 값이 싸고 성병에 안전하다고 생각 된 피임법인 콘돔 사용법을 조금 더 공부해 본다. 먼저 콘돔착용 법을 영상으로 배우고 주의할 점을 짚어준 뒤 콘돔을 오이에 끼우는 실습시간을 가져본다. 이번 실습을 통해 훗날 갖게 될 관계가 안전하고 아름답길 바란다.

콘돔사용중 주의 할 점 8가지

1. 눈에 보이는 파손을 확인하지 않는 것

패키지를 뜯는 과정에 손톱이나 반지 등에 의해 콘돔이 찢어질 수 도 있으니 일단 눈으로 보이는 파손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는 것

콘돔의 유통기한은 보통 3~5년으로 날인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경우 라텍스 소재 자체가 파손되었을 수도 있고, 제품이 건조해져서 사용 중에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3. 너무 늦게 착용하는 것

콘돔이 없는 상태로 삽입을 했다가 사정할 즈음에 콘돔을 착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정전에도 미량의 정자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서도 삽입 전에 콘돔을 착용하는 것이 임신과 성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정액 받이를 신경 쓰지 않는 것

콘돔을 착용하기 전, 반드시 정액받이를 살짝 잡아 비틀어 내부에 공기를 빼줘야 합니다. 정액받이에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사정을 하면 콘돔이 터져버리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 콘돔을 거꾸로 착용하는 것

거꾸로 콘돔을 착용하면 윤활제 때문에 섹스 중에 콘돔이 탈락될 확률이 지극히 높아집니다.

6. 유분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

유분 성분의 윤활제(일반 로션, 베이비오일, 바셀린 등)를 쓰는 것 또한 콘돔 파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윤활제는 라텍스 소재와는 상극이라 콘돔이 터지는 수도 있습니다.

7. 사이즈에 무심경한 것

나와 맞는 사이즈의 콘돔을 사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타일과 사이즈의 콘돔을 구매하여 한 번씩 사용해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보는 것이 어렵다면 나, 혹은 파트너의 페니스 사이즈를 측정 한 후 그에 기반을 두어 인터넷상에 기재되어있는 각 제품별 치수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8. 가장 큰 실수

콘돔과 관련해서 가장 큰 실수는 사실 아예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겠죠? 콘돔 사용이 워처럼 복잡할 수는 있고 고려할 것도 많죠. 그렇지만 콘돔은 "아 됐어"하고 치울 것이 아닙니다. 콘돔을 앞두고 흥분이 푹 끊길 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몸과 마음을 다지세요. 한 번의 무모한 쾌락을 위해 당신의 성생활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모듬활동- 이야깃거리

자신이 생각하는 이별을 ‘잘’ 받아들이는 법

나는 사랑하는 방식에 문제점을 짚으며 이별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생

각일 뿐 수많은 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별, 사랑과정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보자.

이별의 예의

이별에 예의가 필요할까? 자신이 사랑한 대상에게 지켰던 예의, 배려, 이해가 있었던 만큼 이별을 맞이하게 될 때도 지켜야할 예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왜 '찼는가' '차였는가'에 집착하는가?

찼는가, 차였는가. 이 부분이 이별을 '잘'받아들이는 과정에 방해요소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 도대체 왜 내가 사랑하고 내가 헤어졌는데 왜 자꾸만 옆 사람들이 '찼는지', '차였는지'를 더 궁금해 할까? 어쩌면 자신도 이 부분에 있어 연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왜 찼는가, 차였는가에 집착하는지 알아보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 '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엔 '음란죄'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성욕을 흥분·자극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의 총칭인데 크게는 (1) 공연음란죄(형법 245조):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공연'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부부간·애인간의 행위라도 타인의 눈에 띄는 장소에서의 행위는 공연한 음란행위가 된다. 다수인 앞에서 성기(性器)를 노출하는 행위, 전나체의 스트리킹·스트립쇼 등은 이 죄가 성립한다.

(2) :음란한 문서·도화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죄.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예컨대 섹스 위주의 소설이나 잡지, 성교사진, 성교장면을 찍은 필름, 자위용(自慰用) 물건 등을 출판·판매·임대 또는 전시하는 죄이다.

(3) 음란물건 제조 등 죄(244조):반포·판매 또는 공연히 전시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하는 죄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강제추행죄, 준 강제추행죄 등이 있다.)

성욕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중 하나인데 왜 원하는 대로 해소할 수 없을까.

성욕만 특별하게 도덕과 법의 감시아래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술과 외설 사이

미적 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모든 창조활동을 우린 예술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예술 활동 가운데 사람의 성욕을 함부로 자극하여 난잡하게 한다는 뜻의 외설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다.



프랑스의 예술가인 귀스타브 쿠르베(Gustave Courbet)의 작품 중 '세상의 기원'이라는 그림이 있다. 여성의 몸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작품인데 예술과 외설사이에서 논란이 된 대표적인 작품이다.

또한 쿠르베의 '세상의 기원'은 성기묘사가 사실적이지 않다며 세상의 기원 그림 앞에서 '기원의 거울'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퍼포먼스를 보인 벨기에의 드보라 드 로베르티스라는 여성 행위예술가도 있었다. 그녀는 '여성의 성기를 그리는 것은 예술이고 보여주는 것은 왜 외설이

냐'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 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렇듯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과 외설 사이에서 인간의 몸에 대한 표현을 보다 자연스럽게 대중적이며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성기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작품을 보면 불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왜 일까?

'청소년 관람불과'등급의 영화는 정말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일까?

질의응답 및 토론, 활동진행

[1강]

-참가자1 : 세 요소 중 하나가 열정인데 정의를 보니 굉장히 섹슈얼한 개념이 많은데, 그러면 사랑이란 거에도 섹슈얼.. 사랑이라 명명가능한가요?

-소아 : 낮은 형태의 사랑도 존재하지만 다른 친밀감이나 그런게 크게..

-참가자2 : 근데 섹슈얼한 사랑이 없어도 성숙한 사랑 안 되나요?

-소아 : 요소끼리는 상호작용할 수 있고, 요소가 준 균형이 성숙한 거. 라고 말하고 있다.

-소운 : 불균형적 형태 보여주는 것도 사랑은 사랑. 그런 사랑도 사랑일수 있나요?

그것도 사랑인데 그렇게 진단했을 때 난 조금 더 열정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열정의 요소를 높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보면 좋을지 각자 판단해보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죠.

-소아 : 더 질문 있어요? 다음 바로 활동으로 사랑 유형 검사 테스트지 나눠줄거예요. 이쯤 되면 고민이 될 텐데 포스트잇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랑은 다양한 모습인데 각자 생각해볼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테스트하기 전에 조별로 각자 이름은 아나요? 참고로 이 조가 오늘 하루 종일 유지될 거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도 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 가져요.

사랑유형 테스트

-소아 : a부터 f까지 중에 가장 높은 것인 분이 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a는 뭘 것 같아요? a는 에로스라고 해요 낭만적인 사랑을 뜻하고 가장 열정적인 사랑이에요.

b는 유희적 사랑을 뜻해요. 이 유행에게 사랑은 게임 같은 사랑, 열려있는 사랑이라고 할까요?

c는 '스트로게'라고 하는데요 우정적 사랑을 의미해요. 친구관계에서 발전된 사랑을 뜻합니다. 친밀감위주의 편안한 사랑을 중요시한다고해요. 배려심 있는 사랑, 사랑의 손상이 적어요.

d는 '마니아'라고해요. 소유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상대방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집착이 강하지만 헌신을 쏟죠.

e는 실용적인 사랑, '프레그마'를 뜻해요. 경혼정년기가 가까워질수록 높아져요. 실리주의자들이 많대요. 논리적으로 사랑을 한다고 해서 낭만적 가치를 중요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뒷전인건 사실이죠.

f유형은 '아다페', 헌신적인 사랑을 뜻해요. 상대가 자신에게 고통을 줄때도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헌신적이라고 해요.

모든 테스트가 그렇듯이 지나치게 단정적이긴해요. 각자 나름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별로 본인이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 얘기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게요~

[2강]

-소아 : 여기까지 사랑이 뭔지 두 학자들을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 자기 사랑 유형 검사도 해보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가지고 있는 유형은 뭔지, 잘 안 맞는 유형들 정도 알아봤는데 이걸로 제 강의는 여기서 정리하겠고, 다음으로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겠죠. 이별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건산이가 진행해요.

-준학 : 이별해봤어요?

-건산 : 좀 해봤습니다.

-다연 : 어떤 이별을 했나요.

-건산 : 좀 다양했던거 같은데 이별할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좋은 이별을 찾는 건 힘들 거 같다고 생각해 과정에만 집중했던 것 같네요.

-참가자1 : 그러면 이별 후에 배운건 뭔가요.

-건산 : 저도 모르게 많은 걸 배운 듯 해요. 지금은 생각이 안 나네요.

이야깃거리로 넘어갈게요. 위크북 보면 설명 써 있는데 이 글은 사랑하는 방식에 문제점을 두고 얘기 한거입니다. 제 생각이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조별로 얘기해봤으면 합니다.

[3강]

-소운 : 옷은 왜 입어요? 추운거 말고

-채현 : 성경에 보면 예전부터 있는데 그런 인식들이 있으니 따라서 자연스럽게 옷을 입고 감추는게 당연하다고 해요. 그런게 아닐까요?

-소운 : 공부하면서 배운거 말고 개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은 왜 입어요?

-채현 : 저도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입겠죠?

-소운 : 공부하면서 편견이나 개념이 타파됐나요?

-채현 : 내가 왜 그런 생각이 있구나 하는걸 알게 됐죠. 근데 저도 아직은 부담스럽고. 수치스러움이 느껴지고 하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나눠보고 싶었던 거예요.

-참가자1 : 모든 섹스토이는 판매가 금지돼있나요?

-채현 : 잘 몰랐는데 법을 알아보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선 그렇다고.

-소운 : 자기 몸이나 성적인 것들이 사적 영역이 아닌거네요. 어떻게 보면 몸을 가리거나 성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는 게 사적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앞에서 말하는 건 “사적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그동안 내 몸이나 부분에 대해선 사적인 거라고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당당히 얘기해라 내놔도 된다고 하는게 왜 내 프라이버시면 안 되는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옷을 입는 이유가 내 몸은 내 꺼고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건가? 강의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채현 : 드러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적인 감정인데 그게 태어날 때부터 벗은 몸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인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얘기하고 싶었던거죠. 생각해보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고 부담감은 내려놓아도 된단 말입니다.

성욕은 왜 원하는대로 해소할 수 없을까?

-참가자1 : 혼자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채현 : 혼자 하는게 아니라서.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참가자2 : 중요한 게 우리가 성욕을 마음대로 해소할 수 없다는 전제는 좀 아닌거 같아요. 모텔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공공장소 라는게 중요하죠. 왜 공공장소에서 맘대로 못 푸나가 중요한 거 같네요. 365일 인간이 성욕 있다고 하지만 성행위는 그 당사자들만 품고 있는건데 그걸 공공장소에서 하는건 좀..두 번째로는 경건한 마음으로 있고 싶은데 그 사람을 침해하게 된 거 같아요.

- 채현 : 근데 사실 청소년기엔 모텔출입도 안 된다. 사회적 인식도. 그런데 왜 생겼을까요.
- 준상 : 윤리적 금지가 아닐까요. 근거가 잘못된 걸 수도 있겠지만 근친끼리 성행위를 갖고 유전자가 어찌고 하는데. 잘못 된건지 진짠지.
- 참가자3 : 함부르크 가문이란 데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근친혼만 했다. 집안에 기형아들이 많은데.. 이 가문은 잘못된 건가?
- 참가자4 : 제가 알기론 근친하면 양쪽 유전자에서 장점을 나눠야되는데 같은 유전자끼리 만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참가자5 : 준상이 말 듣고 떠오른건데 근친상간에 결과로 자녀 건강 안 좋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나쁠순 있더라도 가족 간의 사랑이 잘못된거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란 생각도 갑자기 들었어요.
- 참가자6 : 제가 본건데 실제로 기독교에서는 태초 인간이 하나라고. 점점 인류가 부는 과정에서 근친이 있었다고 하네요. 종교에서 그렇게 적혀있는데 왜 종교에는 근친이 금지인지...
- 채현 : 저도 사실 기독교 아니라 자세한건 모르지만 기독교에선 가장 중요한 것이 자손 번식을 목적으로 한 성행위이죠. 부부바깥 성행위가 죄라고 하니 그 이유에서가 아닐까요?
- 참가자 : 근친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게 만약 잘못된 사랑의 부분이라면 그것이 그리고 자식에게 태어날 피해 때문이라면 남녀가 만나는 것만 정상된 사랑인가? 남남 여여도 그런데.
- 채현 :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한다고.
- 성훈 : 성욕만 특별히 다른 욕구에 비해 제한적이고 감시아래 있는게 제 생각엔 성은 결국 생명이랑 직결되니 제한을 두는게 아닐까요. 식욕 수면욕은 먹고 자면 되는데 성욕은 아니니까.
- 민수 : 근데 그걸 국가가 제한할 수 있나요? 성행위를 규제 하는게 국가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 참가자9 : 국가는 자손번식을 목표로 해야 하잖아요.
- 민수 : 낳는게 좋은거 아닌가?
- 성지 : 중국은 산아 제한하는데 필연적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을 듯해요.
- 참가자11 : 국가에 특별하게 다루는 게 성 자체는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특별한 게 아닐까요. 피해자는 고통스러운 거잖아.
- 인욱 : 성훈이형 말대로 생각했을 땐 법으로 관리하는데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건 윤리적 문제랑 직결돼있으니 좀 더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관리하는 듯하다.
- 참가자12 : 청불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 유해하다고 생각. 그게 진짜라고 볼 수 있잖아. 영화는 자극적 인거 나오니까 진짜 저럴 수 있겠구나 하고 착각할 수 있으니 걸어둔다고 생각해요.
- 참가자13 : 아까 질문에 이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성문화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공공장소 애정 표현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성에 대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이 포르노같이 자극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게 되면 안 좋은 거잖아. 받아들이기에. 청불 같은 경우엔 교과서적 얘기지만 미디어가 웬만큼 자극적이지 않으면 관심을 못 끌잖아요? 상업적이기 때문이기 아닐까 합니다.
- 참가자14 : 경우에 따라 다른 거 같은데 청소년이란 게 육체적인 것만, 나이만 따지잖아. 정신적으로 성인일 수도 있는데 그 경우를 명확하게 할 수 없으니. 감추기 때문에 더 유해한건가요?

활동_섹스 곡선 그래프

섹스곡선그래프는 말 그대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는 성적 경험, 혹은 사건들을 곡선에 따라 그려보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그려보는 활동이다. 이 경험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경험일수록 중심선 위에, 부정적인 경험일수록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단순한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이라는 것에는 생물학적인 섹스(Sex), 사회적인 성역할을 뜻하는 젠더(Gender), 개인의 성적취향을 뜻하는 섹슈얼리티(Sexuality)를 포함한다. 또 앞으로 결혼은 언제 할지, (동거를 할 수도, 아예 안 할 수도 있겠다) 아이는 언제 얼마나 낳을 생각인지, 혹은 언제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눌 것인지, 신

혼여행은 언제쯤 갈지 등의 미래까지 설계해볼 수 있다. 끝도 없이 많을 수도, 막상 기억해내려면 떠올리기 힘들 수도 있겠다. 떠올리는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적기까지 망설여지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해질 때 새로운 세계로 들어설 수 있다. 또 타인의 경험, 인생을 듣는 일에도 용기가 필요하고 서로 복돋아줄 수 있어야 한다. 진지하게 자신의 섹스곡선그래프를 그려보고, 유쾌하게 경험을 나누고 들어보자.

'섹스'라는 단어가 주는 부끄러움, 낯선 느낌이 스스로와 성은 무관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잘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과 성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너와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란 것도 알 수 있다. 우리는 다 다른 듯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잘도 숨기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부끄럽고 낯선 주제라서 '섹스'를 말하는 것이 불편했던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며 불편한 마음을 덜어내는 계기가, '섹스'는 가볍고 재밌는, 농담 따먹기나 흥밋거리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사람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새롭게 고민해볼 수 있는 고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소감 들어보고 싶어요. 어땠어요?

-명아 :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서 좋았어요.

-소아 : 저는 해보면서 섹스라는 단어가 주는 부끄러운 느낌이나 낯선 느낌이 스스로는 성과 무관하다 여기게 될 순 있지만 다른 사람들 이야기, 내 삶도 돌이켜보면서 삶과 성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나누면서 그렇게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걸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했던 경험 남들도 해봤고. 티놓고 얘기하기 힘들었지만. 그동안 숨기고 있지 않았나 하는데 섹스라는 주제가 좀 부끄럽고 불편하게 느껴졌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서 덜어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고, 뒤에서 얘기할 때 노가리까지 좋은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겐 미래까지 계획하고 돌아봐보는 고쳐낼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루나누기

-채현 : 하루가 진짜 길었던 거 같아요. 생각했던거 보다 내가 너무 못했는데 참여를 너무 잘해줘서 원활했고.. 아 조금 있다가 할래요 정리가 다 안됐어요.

-지민 : 수업이 설새없이 휘몰아쳐서 식석. 재밌었어요. 미디어속의 성에 관련해서 토론했는데 재밌었다.

-연진 : 여덟 개 영화 드라마 해서 토론했던게 신선했어요. 영화 드라마 오락성으로 느껴졌는데 주제 뽑아서 얘기한게 재밌었고 섹스토크도 볼 끄고 얘기하니깐 부끄러워도 활발하게 얘기가 나온거 같아요.

-영서 :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걸 어렵지 않게 풀어낸 거 같고 많이 얘기 못 하고 못 들은거 같아서 아쉬워요.

-지현 : 오늘이 다른주제 보다 쉬웠고 재밌었어요.

-나린 : 개인적으로 우리조가 얘기를 덜 나눴는진 모르겠는데 속 터놓고 얘기하는 분위기는 못 느꼈구요. 친구들이 우리사이에 금기시된 섹스나 연애관계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아까 근친얘기도 나왔고 그런데 오히려 색다른 주제 같았어요. 동성애 같은걸 사회적인 이슈로 바라봐서 그런 분위기로 접한게 많기 때문에. 마지막 섹스토크에서 얘길 못 꺼낸 것도 아쉽고. 하지만 좋은시간 이었어요.

-소윤 : 휘몰아치는 강의였다. 활동 많은 수업이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색달랐어요. 실습해보는거. 느낌이 이상했는데 해봐서 좋았어요. 의제가 너무 많다보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이 안 나왔던 것 같고 자유롭게 토론이 안 된건 많이 아쉽습니다. 나린이 말대로 내가 만날 섹스와 연애에 포커스에 맞춰진건 조금 아쉬웠고 사랑의 종류라든지도 많이 얘기해보는게 좋을거 같았어요. 섹스보다 와닿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고, 수고를 많이 한거 같아요.

-진 : 저희 조가 주제를 얘기한게 많았는데 하나하나 짚는 것보다는 수다 떨듯이 했던거 같아서 또래사람들의 연애한 얘기를 재밌게 들어서 좋았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사랑에 대해 나눠봐서 좋았어요. 수다떨듯이 얘기

하는게 아니라 몰랐던 사람들이랑 그런 얘기를 나눈다는거 자체가 의미있었던 거 같구 활동이 많아서 와닿았던 것도 있어요.

-현선 : 섹스그래프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친구들이 열심히 적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적을 만한게 생각이 안났구요. 그동안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구나 느꼈고 오늘을 통해 좀 더 저에게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준상 : 동성애나 이렇게 거리가 멀고 관심 없는 주제여서 연애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게 좋았어요. 처음부터 인문학 주제 중에서 성을 가장 기대했어서 참고했고 대체로 재밌었어요.

-건산 : 인문학 캠프 3일 했는데 가장 시간이 빨리 흘러갔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강의할때도 생각만큼 안떨고 오히려 건방졌던거 같아요. ox퀴즈하는데 너무 집중이 안되고 주위가 시끄러워서 화날뻔 했는데 그래도 즐거운 하루였어요.

-산 : 섹스그래프하면서 나름 많이 적었는데 좀 더 생각 성찰을 해 볼 수단 인거 같았고 기회가 다시 된다면 다시 해보고 싶어요. 우리조가 얘기가 잘 나와서 진행자가 우리 조 신경 안 써준다고 투정도 부렸는데 열심히 말해줘서 고맙고 약이 있는데 다 떨어져서 마지막활동에 많이 참여 못해서 아쉬워요.

-형근 : 활동이나 강의 봤을 때 준비 많이 했구나 느꼈고 이런 분위기를 내일 아래로 끌어내릴 생각하니 죄송스럽고 부담이 많이되요. 걱정되는데 그래도 오늘 캠프는 더할나위 없었던거 같아요.

-인욱 : 사실 강의 때마다 조금씩 졸았는데 오늘은 한번도 안 잤어요. 처음으로. 얘기하기 힘든 주제라 보통 이런데서 얘기를 잘 나눌까했는데 막 잘하진 않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된거 같긴 한데 정작 나는 말하진 못해서 미안한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민수 : 오전이나 오후 내내 템포가 너무 빠르다는 느낌을 받았구요. 그 부분에선 뭔가 조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버릴거 버리고. 사실 흥미있었던 예술이나 외설이냐는 주제를 제대로 이야기 못한게 아쉽고 섹스토크는 조금 더 준비를 해왔더라면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생각이 들어서 아쉽네요.

-별 : 섹스그래프 그리는 게 참신했다. 인생그래프 그린다고 하면 뻔하단 생각도 들었는데 성 날이라서 내가 생각하는게 드러나는 게 좋았고 섹스나 성 하면 다룰거 같은 사회적 문제에 얘길했는데 지나온 삶에서 연관된 걸 뽑다보니 지금 내 행동 생각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구나 했고 토론이 가장 많았는데 토론에 대한 주제가 결국 자기얘기라 그것도 재밌었지만 참가자들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연희 : 오늘 주제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라 생각해요. 중요하지만 해보지 않아서 새롭고 좋은 기회였어요. 이별에 대한얘기도. 섹스토크시간에 남자애들한테 군대 얘기나 소라넷 같은거 물어봤는데 혹시 오해할까 해서.. 너네가 그랬다는게 아니라 진짜 그런 사실에 충격받아서 남자들 얘기를 듣고 싶었던거예요.

-성지 :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맘 먹고 왔는데 너무 생각보다 내 얘길 많이 해서 당황했구요. 그래서 어떤의 도로 섹스토크를 준비했는지 궁금했고 중간에 어색한 정적이 흐를 때 마다 얘기를 해야겠다는 압박감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토론을 진행해와서 그런지 그런 압박감을 느껴서 개인적으로 불편 했고 행사자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도운 : 어제 발표가 끝나고 긴장풀려서 다운됐는데 조금 멍때렸던거 미안하고 우리학교에서 준비한 거니까 오히려 오버해서 말한 것도 있는데 그게 좀 부담이 됐었구요. 주제가 고민하는게 많은거 같기도 하고 다양하게 시도한건 좋았는데 많은 주제를 파바박 따라가니까 힘들었고 콘돔 실습 해보는 건 중2학년땠가 성 수업 들으면서 했었는데 그땐 우리 학년 애들이 이상한수업이라고 다들 나갔었는데 어느새 다 커가지고 같이하고 있는게 신기하기도 했어요.

-성훈 : 사랑이랑 성에 대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얘기 나눌 상황이나 기회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를 이런 양지에서 건강한 방식으로 나눈게 재밌고 즐겁고 색달랐어요.

-김준상 : 평소에 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 하는데 내내 저한테 어렵게 느껴졌어요. 수업자체가. 배워 가야 될게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소아 : 시작할 때부터 욕심이 많았는데 욕심대로 진행했구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따라와줘서 진짜 고맙고 성이라는게 특히 개인의 경험을 빚대어 얘기할 수밖에 없는거 같아서 진행자 역량이 중요했는데 좀 더 뻔뻔하지

못했던게 많이 아쉽고 섹스토크가 일부러 자유롭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그럴 줄 알고 준비를 덜 한 것도 있는데 뭐가 원인인질 잘 모르겠는데 예캠부터 제일 큰 과제처럼 느껴졌었구요. 역시나 예상대로 매끄럽지 못했고 아쉬워요. 이 시간쯤 되면 해방일줄 알았는데 만감이 교차하고 공들여 쌓은 탑을 발로찬기분이네요. 차야하는 탑이었지만... 멍하다.

-수자T : 개인적으론 생물학적으론 여잔데 내가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한건 나이 서른이 넘어서예요. 10대까지야 그냥 그렇게 살았고 20대까지도 활동하고 운동하면 웬만한 남자 후배나 동기는 무서워하는? 마초 같은 삶을 살았구요. 여성운동이나 다양한 운동을 접하면서 여성이라는 또 다른 정체성이 있구나하는걸 느꼈어요. 내 정체성을 확인해가는 과정 같아요. 인생이. 대선 때 스물 넘어서 투표를 처음할 때 내가 정치적 주체구나도 느끼고. 친구들 인문학 한거 보면 어제는 시민이라는 주제로 준비했다면 오늘은 나도 성적인 중요한 주체구나. 상관 없는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계기가 되었다면 좋겠고. 사회속에서 나를 확인하면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게 앞으로도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수고했어요.

-준학 : 성이란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솔직할까 그랬는데 많은 남녀가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는걸 느끼고 개인적으론 이렇게 익숙치 않다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궁금한데 말을 잘 못해서 아쉬워요. 끝나고 채현누나랑 계속 얘기했는데 이런 이야길 해볼수있어서 좋았어요.

-다시 채현 : 아직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오전에는 해온것보다 훨씬 많은걸 참가자들이 해주는 것 같아서 고맙고 신기했어요. 오후에도 그랬고. 나도 강의하다가도 참가자들하고 수다도 떨고 재밌었어요. 철학하고 역사, 성. 다 먼 주제들인데 같은 틀에서 얘기가 흘러가서 내일 내일모레 강의도 기대가 된다. 성지가 느꼈던 부담감을 나도 느끼고 있었는데 다른사람 한테도 내가 부담스러운 걸 느끼게 한거 같아 미안해요. 준학이랑 끝나고 얘기하면서 이런얘기 같이했음 좋았을텐데 못 들어준거같아 미안했어요.

건의

-채현 : 양해를 구할게 있는데 어제 온 졸업생 09학번 친구들 중에 어머님 한분이 새벽에 돌아가셔서 부고가 왔어요.. 부산에 잠시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 내일 강의를 하루종일 빠질 것 같네요.... 오늘 짐 챙기러 집에 갔다가 내일 밤 11시 정도에 돌아올 것 같아요.

사회 오전 / '합법적 땡땡이'
부제: 음모론 같은 교육의 실체 강의 및
한국 교육과 사회의 상관성에 대한 토론

조영서

강의 소개

1부

다들 공교육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때 사실인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걸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생각이 다 자라기 전의 어릴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교육이다보니, 분명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어렴풋이 느껴지지만 그것이 명확히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12년 학교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우리는 왜 학교를 가야 하는지, 학교의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2부

앞으로 우리가 나가 살 사회는 거의 모두가 공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어찌 보면 희한한 얘기입니다. 교육의 정의는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지식, 기술, 기능, 가치관 등을 대상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방향은 나라가 정합니다. 한국의 바람직한 방향은 입시입니다.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 참된 진리의 추구, 정신적 성장 등은 뒷전입니다. 어찌 보면 현재 한국 사회의 병폐가 우리나라 교육에서부터 출발하진 않았을까요? 학벌 중심의 사회, 우리나라의 교육, 흥미로운 주제로 토론합니다.

저녁프로그램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합법적 땡땡이

—음모론 같은 교육의 실제 강의 및 한국 교육과 사회의 상관성에 대한 토론

조영서

1부 음모론 같은 교육의 실제

1. 들어가며
2. 학교교육의 음모
 - 학교교육의 시작
 - 그들의 생각
3. 기업이 원하는 학교
4. 학교교육이라는 무기
 - '학교교육'과 '교육'
 - 쓸데없는 교육
 - 길들이기(습관적으로 훈련하기)
 - 방해하기(집중력 떨어트리기)
 - 시험과 순위
 - 학교교육의 부정적 영향
5. 학교가 없어도 될까?

2부 한국 교육과 사회의 상관성

1. 우리나라는?
2. 한국 교육과 사회의 상관성에 대한 토론 (한국 사회의 무기력함, 학벌 중심 사회, 각종 폐해의 원인 등이 교육에 있지 않을까)

1강, 음모론 같은 교육의 실체

1. 들어가며

앞으로 할 얘기는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는데 12년동안이나 학교에 다닌 경험을 부정적으로 말할 예정이지만 그것이 학생분들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일부 대목에선 좀 비약적으로, 과장적인 학교교육의 제도적, 계획적인 부분에 비판할 예정이고 각자의 경험에 대입해서 진짜로 그런지, 이런 부분이 그랬을수도 있겠다, 등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강의에서 주로 미국의 학교교육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데, 왜냐하면 강의를 진행하며 차차 설명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해방 당시 일본의 교육제도에서 비롯했고, 일본의 교육제도는 프러시아에서 비롯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프러시아의 교육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해 갖고 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의 의도도 미국의 의도와 비슷한 부분이 많고, 문제점 또한 그렇습니다.

입시가 싫어서 대안학교를 찾아갔다.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에 입시가 싫다고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학생분들도 사실 비슷하시진 않았나요? 공부 안하고 놀 수 있다는 얘기에 혹해서 대안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데 일반학교, 학교교육이 다들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만, 또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걸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다. 교육의 정의는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지식, 기술, 기능, 가치관 등을 대상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 짚으로 볼 수 있다.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지금의 공교육은 바람직한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만약 학교에 '문제'가 없다면? '바람직한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에게 정말 학교가 필요할까? 교육이 아닌 학교, 하루, 일주일 꼬박 5일, 일 년에 아홉 달, 모두 12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학교교육 말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인가? 읽고 쓰고 셈하려면 학교에 다녀야만 할까?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넘는 홈스쿨러들이 아주 잘 지내고 있다. 혹은 12년의 시간을 학교에 쏟아붓지 않고 성장한 위인들도 많다. 조지 워싱턴, 벤저민 프랭클린, 에이브러햄 링컨 등이 그렇다. 에디슨 같은 발명가나, 카네기나 록펠러 같은 거물이나, 마크 트웨인 등의 작가도 그렇다. 세계 곳곳에서 중고등 시절을 의무교육 체제에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교육의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그렇다면 공립학교의 목적은 정확히 무엇일까?

학교가 학생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심혈을 쏟아 만든 무기라는 은유는 아직 널리 퍼져있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위험한 곳이라는 개념은 이제 반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감을 얻고 있다. 학교가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실제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다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세세한 정보 없이 인상으로만 전해진다.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제부터 본 강의에서 허황된 얘기처럼 들리는 사실들을 얘기하고자 한다.

2. 학교교육의 음모

-학교교육의 시작

근대식 학교교육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군국주의 국가 프로이센에서 학교 교육제도의 원형을 찾게 된다. 프로이센은 유럽 변방에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경쟁위주의 근대 교육체계를 최초로 도입하여 독일 제국의 뿌리를 만들었다.

19세기가 끝날 무렵, 사업으로 거대 제국을 이룬 미국 기업인들은 먼 미래를 바라보며, 오래전부터 꿈꿔오던 유

토피아를 실현할 계획에 착수했다. 이 계획에는 독일에서 개발한 심리학이 전략적으로 이용되었다. 이들은 젊은 이들의 마음을 식민지로 삼고, 뒤죽박죽인 머릿속을 싹 갈아치워 새하얀 도화지처럼 다시 쓰이도록 했다. 조지 피바디(19세기 미국 금융가이자 자선사업자로, 피바디 음대를 비롯해 수많은 기관을 설립했다) 같은 사람들이 의무 학교교육이 퍼지도록 자금을 두루 지원했다. 그 이유는 프러시아식 시스템이 순진한 유권자와 말 잘 듣는 노동자를 만들고 더 나아가 어리석은 소비자를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당시 미국의 다수의 재계 거물들이 공교육을 통해 순종하는 무리를 기르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중에는 앤드류 카네기와 존 D. 록펠러도 있었다.

-그들의 생각

2차 대전 이후부터 고위관리 층이나 학계에는 대다수 대중이 치료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상태가 박약하다는 믿음이 팽배했다. 대중의 지적 수준은 기껏해야 열두 살 정도에서 딱 막혀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졌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는 것은 없을 텐데 굳이 수고를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굳이 생물학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일에 스트레스를 주면서 아이들과 부모를 괴롭힐 이유가 있을까?

다윈은 생과 죽음을 두고 벌어지는 지속적인 경쟁이 자연의 방식이라 주장하여 제국주의, 세계화정책, 인종주의, 식민주의, 자유무역 경제 등 19세기 영국이 패권장악에 끌어다 쓴 갖가지 동력에 과학적 정당성을 실어주었다. 다윈의 가설은, 이미 대중을 '인적자원'으로 취급하던 정책가들이 인권을 어리석기 짝이 없는 개념으로 무시하는 데 정당성을 주었다. '우생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 동식물의 육종에 대한 이론을 인간에게 적용할 근거를 제공한 사람이 다윈의 사촌 프랜시스 골턴이다. 프랜시스 골턴은 1865년 교배기술로 동식물의 품종을 개량하듯 최고의 자질을 가진 인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192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신박약자의 불임 시술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해, 당시 스물한 살의 캐리 벅은 강제로 나팔관을 절제 당했다. 이후 미국 전역에서 32개 주가 잇달아 유사 법률을 제정했고, 1950년대 후반까지 여성 6만여 명이 강제 불임시술을 받았다. 2차 대전 후 나치전범들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이 사건을 선례 삼아 '결함 있는 사람' 2백만 명에게 불임 시술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 판결 당시 연방대법관이 올리버 웬델 홈즈이다. 캐리 벅의 강제불임시술을 승인한 다음의 판결문에 홈즈의 시각이 담겨 있다.

“사회 적응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자손이 범죄를 저질러 처형되거나 혹은 저능으로 인해 굶어죽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들의 출산을 금지하는 것이 사회에 이익이 된다..... 삼대가 저능으로 판명된 때에는 출산을 금지할 이유가 충분하다.”

문제는 이러한 견해를 '교육심리학'을 창시한 콜럼비아 교육대학의 에드워드 손다이크, 프린스턴대학 심리학과장 H. H. 고다드, 하버드대학 총장 제임스 브라이언트 코넬트 같은 학계의 거물들 또한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록펠러와 카네기 같은 거대기업 재단도 이런 견해 위에 서 있었다.

3. 기업이 원하는 학교

어느 시대에나 부와 권력을 거머쥔 사람들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마련이다.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길러 불만을 부추기고, 만족시키기 힘든 욕망을 일깨우기 때문이다. 1872년 4월, 미 교육국이 발행한 <교육계 동향보고Circular of Information>에 '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의 문제'라는 주제가 다루어지면서 이런 태도가 낱알이 드러났다.

노동자가 정확한 지식을 깨우치면 “자신의 불만을 인식하고 계산”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노동자는 노사갈등에

서 “가공할만한 적”이 되리라고 교육국은 내다보았다. 그런 일은 결코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1885년, 상원 교육·노동 위원회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강력한 의견이 담겨있었다.

“본 위원회는 교육이야말로, 노동계급 사이에 퍼져 지난 시대의 불만을 유발한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지식의 폭을 넓히는 수단, 깊은 분석을 통해 자기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을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지도자의 욕망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었다.

왜 미국의 내로라하는 가문들이 나서서 이런 일을 기획했을까? 프러시아의 틀에 맞추어 강제 학교교육을 실시한 사람들은 대개 명망 높고 고귀한 집안사람들이다. 이후 아이들 수천만 명의 운명을 봉인한 기저에는 매우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경제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관념은 과잉생산이다. 본질적으로 과잉생산은 고객의 수요 이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든다는 말이다. 과잉생산이 일어나면 가격이 내려간다. 과잉생산의 정도에 따라 가격은 계속 내려가다가 생산비 이하로까지 떨어지며, 심지어 생산을 위해 끌어 모았던 자본이 모두 거덜 날 때까지 떨어진다.

한편 작은 사업체나 가족농장보다 거대 기업에 유리하게 조성된 경제에서는 대량생산에 기반을 두면서 막대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다만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대량소비가 있어야 하는데, 20세기로 접어들 무렵까지 대다수 미국인에게 실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는 행위는 이치에 맞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언제든지 필요 이상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두 집단이 있다. 다른 아닌 중독자와 아이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는 중요한 공장이다. 학교는 소비를 증진해야 하는데, 소비를 자극하는 최고의 조건은 지루함이다. 상상력과 고유한 삶의 방식이 끝없는 기억훈련에 마비되고, 지속적인 시험, 보상과 처벌을 통한 조건화, 승자와 패자의 게임이 합체하면 지루함의 효과는 극대화된다. 학교는 아이들을 중독자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낸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교육쪽에 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다. 록펠러는 사업을 진행하며 악덕 사업가로 악명을 떨쳤지만 인생 말기에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좋은 사업가로 이미지가 바뀌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 재산을 환원하는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교육을 위해 투자한 것이다.

4. 학교교육이라는 무기

-학교교육과 교육

학교교육과 교육을 따로따로 나누어놓고 보면 유용한 차이점이 보인다. 학교교육은 습관과 태도훈련의 문제이며, 외부에서 안으로 일어난다. 교육은 먼저 자아숙달, 그런 후에 자아확장으로 이어지는 문제이며, 인간의 정신이 이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탐구와 이해의 영역으로 나아갈 때 자아초월로까지 확장된다.

학교교육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지정한 주제를 늘 최우선으로 충족해야 한다. 학교교육의 공백은 쉽게 채울 수 있으며, 그러나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런 길로 들어서며 속수무책으로 착취당하고 이내 실패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 학교교육과 교육은 다른 것이다.

-쓸데없는 교육

학교교육에 숨겨진 큰 비밀은 학생이 배우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비밀은 학교는 학생이 결코 자기 스스로 방향을 찾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학교는 실제 사용되는 맥락에 전혀 맞지 않고 아무 쓸모없는 비활성지식을 지적 성취의 기준으로 여긴다.

각자의 경험을 떠올려본다면 쉽고 세련된 화술이 읽기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학교는 실생활에 별로 관련 없는 내용을 가르친다. 학생들도 그 사실을 안다. 학교는 점을 연결해 그림을 완성하는 일은 가르치지 않고, 날개의 점만을 암기하라고 가르친다.

교실 안에서 하는 공부는 중요한 공부가 아니다. 학교담장 밖에서 만난 문제는 사실 늘 삶의 핵심인데도 주변부로 밀려난다. 이렇게 공부를 개인의 갈망과 두려움, 경험과 호기심에서 동떨어진 ‘교과’ 중심의 추상적 과정으로 만들면 학생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내용, 내가 궁금하거나 배우고 싶은 내용과 동떨어진 내용을 강요받게 되어 배움에 대한 열의가 식고 또 무관심해진다.

-길들이기(습관적으로 훈련하기)

학교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오싹하리만치 수동적인 모습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 심지어 대책 없고 불길한 미래에 더 기괴하리만치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벼룩을 얇은 용기에 두면 밖으로 튀어 나간다. 그러나 뚜껑을 잠시 덮어두면 벼룩은 빠져나가려다 머리를 박고, 너무 높이 뛰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금세 터득한다. 그리고 이내 자유를 향한 탈출을 포기해 버린다. 뚜껑을 없앤 다음에도 벼룩은 뚜껑이 있던 높이 이상으로 뛰어오르지 못하고 갇힌 채로 지낸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자기 신념에 따라 규제된 환경에 머리를 박다가 마침내 지쳐서 포기해 버린다.

교육받은 사람은 효과적으로 논쟁하며 스스로 생각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늘 의구심을 품는다. 원칙이 확고한 사람은 자신의 도덕을 건드린다면 어떤 일에도 꺾이지 않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는 그 의존도를 신뢰할 수 없다. 이들은 당장에라도 이렇게 주장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건 잘못된 일이야. 나는 하지 않겠어.” 창의성이 두드러진 사람도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자면 비슷한 결함이 있다.

그렇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이상적인 피고용인은 반사적으로 복종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경지에 이르도록 훈련시키는 첫 단계는 ‘하지 마’다. 끝없는 가능성과 다양한 삶을 탐구해야 할 초등학교 어린 나이의 시기에 ‘하지 마’라는 단어를 들으며 모든 일이 제한되어 있음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뛰지 마라, 말하지 마라, 나무에 오르지 마라, 거칠게 놀지 마라, 손들기 전에 말하지 마라, 초조해 마라, 자리를 뜨지 마라, 창밖을 내다보지 마라, 신발 벗지 마라, 수업 중에 먹거나 마시지 마라, 웃지 마라, 너무 오래 걸리지 마라, 앞서 읽지 마라, 경로이탈하지 마라, ‘지루해요’라는 말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장난감 가져오지 마라. 하지 마를 암시하는 상황도 부지기수다. 너의 생각대로 하지마라, 튀려고 하지마라, 독립적으로 하지마라, 선택하지 마라 등등.

이처럼 학교는 학생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길들이는다. 저마다 개성 있고 특별한 아이들을 반복훈련을 통해 몰개성하게 거듭시킨다. 또한 학교생활동안 계속되는 권태를 받아들이게 하고 서로 질투하게 만든다.

-방해하기(집중력 떨어트리기)

시간계획이 조밀하게 짜이면 집중하는 모습에만 주의를 쏟으며 실제 집중의 정도에는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된다. 시간활용이 방해받으면 조각조각 던져진 정보를 하나로 완성하는 일은 바랄 수도 없다. 날개 정보의 공식적인 의미를 기억하는 일은 가능하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 안에서는 자신의 결론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없다.

시간활용을 파괴하는 행위는 대규모 교육이 보유한 또 한 가지 주무기다. 집중할 수 없으면 이해도 어려워져서 계속 하던 일을 계속하기 보다는 그만두는 습관이 생긴다. 수업에 집중하다가도 매 교시마다 시끄럽게 울리며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라는 학교 종, 확성기, 교실문을 쿵쿵 두드리며 전달하는 소식,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 방문객, 야유와 괴롭힘 등 다음에 어디서 내가 하는 일이 방해받을지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환경에서 12년 동안이나 지낸다면 어떤 심리적 효과를 불러일으킬지는 안 봐도 뻔하다.

혼자 활용하는 시간은 이론을 만들고 가설을 검증하며,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하나로 이어붙이는 데 필요하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일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영국 낭만주의 시인인 새뮤얼 테일러 콜리지 Samuel Taylor Coleridge는 대작이 될 수도 있었던 <쿠블라 칸 Kubla Khan>을 일필휘지로 써내려가던 중에 단 한 번의 노크 때문에 시작을 망쳤다는 얘기도 있다.

-시험과 순위

학교는 조직사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이며 그 안에는 승자와 패자라는 잣대로 모든 아이들에게 순위를 매기는 잔혹한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학교의 중요목표는 고도로 표준화된 시험성적을 양산하는 일이다. 그러나 시험에는 가치라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다. 시험과 등수는 학생들 사이에 서열을 조장하고, 방심한 학생을 엄청난 부담으로 짓누르곤 한다. 학습과정을 극도로 왜곡하며, 반면에 가치 있는 정보는 전혀 만들어내지 못한다. 시험으로는 누가 의사가 될지, 대학교수가 될지, 또는 택시운전사가 될지, 치킨집 사장이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사람들은 차츰 종잇조각에 인쇄된 표시가 인간의 수준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알려주는 공정한 대리물이라 여기게 되었다. 시험으로 인한 순위 매김에는 시험이 그 사람의 실력을 보증해준다는 거짓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숫자놀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제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방법은 판을 미리 짜놓는 것이다. 건물설계, 편도선제거, 또는 가르치는 일 따위에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통한 고득점자에게만 자격을 준다면?

2007년 4월 27일자 미국 주요 신문은 MIT가 유명 입학처장인 머릴리 존스를 해임한다고 보도했다. 존스는 MIT에서 28년이나 재직했으며 그 기간 뛰어난 실적을 쌓아 대학으로부터 최고의 표창을 받았고, 전국의 대학입학 업무에서 훌륭한 여장부로 명성을 쌓았다. 여학생의 입학이 쉽지 않은 공대에서 존스는 여학생입학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며, 재임기간 중에 여학생 등록률을 세 배나 늘렸다. 존스가 해고될 즈음에 언론은 학생과 교수진의 말을 인용해, 존스가 “사랑스럽고” “둘도 없는” 사람이라는 등 온통 칭찬 일색의 평가를 보도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도대체 왜 해고되었을까?

존스는 MIT 임용 당시에, 세 개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했다고 학력을 위조했다. 사실, 존스는 뉴욕 주 벽촌의 밤무대 가수였다. 존스라는 사람의 가치는 이론이 아니라 28년간의 실적으로 입증되었지만 모두 부질없었다.

이처럼 시험은 단지 수험생에게 ‘과학적’으로 순위를 매겨 인간자원으로 쓰이도록 분류하기 위한 작업일 뿐이다. 정신력이라든지 모범시민다운 품성의 계발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시험과 실제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분별력이 뛰어나다고도 할 수 없다.

-학교교육의 부정적 영향의 증거

2차 대전 개전 초기에 미국 성인남자 수백만 명이 군복무를 앞두고 병무사무소에서 기초학력 시험을 치렀다. 병력동원이 최고 수치를 기록한 1942년에서 1944년 사이에 복무한 미군은 대부분 1930년대에 학교를 다녔다. 1,800만 명이 시험을 치루고 이 중 1,728만 명이 군복무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읽기능력을 갖추었다는 판단을 받았으니 문맹률이 4%에 이른다.

2차 세계대전은 1945년에 끝났다. 5년 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수백만 명이 병역을 위해 다시 시험을 치러 60만 명이 탈락했다. 이 기간에 모집 대상자의 문맹률은 4%에서 19%로 대폭 상승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불과 몇 년 사이에 성인 문맹률에서 나타난 문제는 그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국전 참전군인 대부분은 독일과 일본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던 1940년대에 학교를 다녔다. 그 시기에 미국의 취학기간은 더 늘어났고 학생들은 전문 교사집단에게 수업을 받았으며 교과서는 더욱 과학적으로 편집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이 짧았던 2차 대전 참전군인보다 학력수준은 더 낮았다.

1960년대 중반에 미국은 베트남에서 또 다른 전쟁을 치루고 있었다. 전쟁 말기인 1973년, 안전수칙과 도로표지를 읽고 명령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다시 말해 문맹이라고 판정받아 탈락한 사람의 수는 전체 징병 대상의 27%에 달했다. 베트남전 참전군인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학교를 다녔으며 앞선 두 시기 참전군인에 비해 학교교육의 강도는 훨씬 높았다. 그러나 1941년 4%의 문맹률은 1952년에 19%에 이르더니, 27%를 기록했다.

1940년 국가조사에서는 백인 문맹률이 4퍼센트였고 흑인은 20퍼센트였다. 흑인 다섯 명 중 네 명은 차별로 물든 그 힘든 시기의 역경에 불구하고 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60년 후에 성인 문해조사와 전국 교육성취도 평가에서는 흑인 문맹률이 50퍼센트로, 앞선 수치보다 2배 이상을 기록했고, 백인 문맹률은 17퍼센트로 4배 이상이나 된다. 반면에 학교교육에 지출된 돈은 명목상 350퍼센트나 증가했다.

미국 흑인의 문맹률이 급격히 높아진 사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다음 사실을 눈여겨보자.

2차 대전 당시 미국 공립학교들은 도시학교에서 시작하여 점차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가며, 영어를 가르치는 방식을 음성학적 방법, 즉 소리와 철자를 대응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비음성학적 방법으로 바꾸어 단어를 통째로 외우도록 하고 낯선 단어는 추측해서 의미를 파악하도록 했다.

백인은 이미 300년 동안이나 집에서 소리와 문자를 짝짓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글을 깨우쳐 왔고, 학교가 이 방식을 없앤 후에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 흑인에게는 백인에게 있던 예비 수단이 없었다.

노예제가 있던 시대에 흑인은 글을 읽을 수 없었고 1930년대가 되어서야 고작 평균 3, 4년 정도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그때 학교를 다니면서 효과가 있던 음성학적 교수법을 배우며 글을 읽을 수 있었지만, 점차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학교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음성학적 방법이 학교에서 사라지고 나서 흑인들은 의지할만한 수단이 사라진 것이다.

미국경제가 1960년대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실제 지출로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실질급여는 “30년 동안 전혀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제호황기인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인구의 20퍼센트는 구매력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나머지 80퍼센트 인구의 구매력은 오히려 13퍼센트가 떨어졌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고 쳐도 1995년 맞벌이 부부의 구매력은 1905년 ‘독신’ 노동자에 비해 겨우 8퍼센트 오르는데 그쳤다. 지난 90년 동안 치열한 학교교육에도 불구하고 보통사람들의 부의 수준이 오히려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부모는 집을 떠나 일터로, 아이들은 일찌감치 어린이집과 학교로 보내져 긴 시간을 지내야 했다.

학교는 단절이며,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졌다. 미국의 초대 교육국장 윌리엄 토리 해리스는 자기 소외가 학교교육의 목표라고 선언했다. 아이들은 가족과 전통, 지역사회와 종교, 그리고 타고난 지원군인 바로 또래 아이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며 자신들의 흥미에서, 끝없이 많은 것들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위대한 역사상의 발견을 가져온 용기와 모험으로부터 단절된다.

5. 학교는 없어도 될까?

메리 셸리Mary Shelley는 거의 200년 전 열여덟이란 나이에 프랑켄슈타인 이야기를 썼다. 오늘날, 이 작품은 심오한 문학작품으로 인정받으며 대학에서 연구되고 있다.

페르디난드 데마라라는 사람이 있다. 데마라는 한국전쟁 동안 ‘군의관’ 신분을 사칭해 연안작전 중인 캐나다 군함에 승선했다.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데마라는 응급 맹장수술을 맡아야 했다. 기상조건이 나쁘고 작은 배안의 의료실인 데다가 함상임무에 따르는 멀미, 파도하고도 싸워야 했기 때문에 수술에 열악한 환경이라 진짜 의사라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실, 데마라는 해군도 의사도 아니었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사기꾼으로, 예전에도 항공기 조종사, 철도기술자, 수도사 등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전력이 있었다.

이런 불리한 상황을 무릅쓰고, 데마라는 혼자 힘으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환자의 목숨을 살리고 캐나다 해군의 최고 훈장을 받았다. 데마라가 까다로운 수술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는 수술방법이 도해된 교재와(진료실 책꽂이에서 발견한) 강한 담력(사기꾼에게 있기 마련인), 여기에 읽고, 사진을 판독하고 교재의 지시에 따르는 일 뿐이었다.

캠프라드는 난독증 진단을 받았고, 아무런 학위도 없이 자전거로 생선을 팔러다니며 자립을 시작했다. 성냥을 팔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팔면서 캠프라드는 사업품목을 조금씩 늘려나갔다. 그러나 취급상품의 목록이 점점 늘어나면서 캠프라드에게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아름답고 실용적인 상품을 살 수 있는 매장을 차린다는 아이디어였다. 난독증이 있던 생선팔이 소년은 자산가치 310억 달러 규모의 이케아IKEA를 설립했다. 캠프라드가 대학을 마치고 버젓한 대기업을 다녔다면 고달픈 인생이 좀 나아졌을까?

미국에서는 매일 7,00명이 학교를 그만둔다. 때론 세상에 당황하고 분노하기도 하지만 모두 용감한 사람들이다. 매년 150만 명,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그만둔다. 교실을 거부하며, 탈출의 대가로 비웃음과 모욕, 끊임 없는 차별을 감수하려 한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들은 그저 비참한 미래를 짊어져야 할 낙오자에 불과할까? 만약 우리가 들었던 대로 학교가 생사에 직결된 문제라면, 중퇴자들의 성공신화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미국만 봐도 이미 300만명이 넘는 홈스쿨러들이 어린 나이부터 각자의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 사실 유아기, 청소년기같이 어린 사람들의 성장기간을 계획하고 구분지은 것도 최근의 일이다. 공장식 학교교육이 등장하기 전, 그러니까 17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은 열살 초반의 나이가 되면 성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토론하고, 일을 배우는 등 어른들도 평등하게 대해줬다. 아이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성 팀에서 강의한 것처럼 아이들은 10대 중반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미 결혼을 하고 자기만의 인생을 확립해 살아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렇게 이른 나이에 이미 사회, 공동체 내에서 어른들과 소통하고 배우며 자연스럽게 성숙해지는 교육의 과정을 거쳤었다.

***본 캠프 진행에서는 1부 질의응답 및 토론이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2부를 생략했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짧은 자료 첨부합니다.**

2부, 한국 교육과 사회의 상관성

1. 우리나라는?

한국 입시위주 교육의 뿌리는 메이지 일본의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다. 메이지 유신 이후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며 규모가 팽창하던 일본에서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동력이 더 필요했고, 이로 인해 평민들을 산업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개조과정에서 프로이센의 교육을 채용했다.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6.25 전쟁을 거쳐 국력이 붕괴한 한국에겐 북한의 남침 위협이 심했고, 이 때문에 범국민적인 산업화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비슷하면서 초고성장을 기록하던 일본의 교육체계를 따라가는 것이 한국에 적합한 교육제도를 찾는것보다 비용으로 보나 시간으로 보나 훨씬 쉽고 간편했었다.

이것이 입시위주 교육이라는 현실적인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을 빠르게 산업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필요한 것을 속성으로 암기시키며 경쟁시켰다. 당시 독재 체재로서 이만큼 안전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당시 정부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길러서 국가에 대한 비판의식을 기를지, 아니면 당장 제조업에 필요한 산업역군이 필요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

2. 한국 교육과 사회의 상관성에 대한 토론

-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평소 생각했던 것들을 풀어놓아보자.
- 대학교를 가야만 할까? 가는게 좋을까, 안 가는게 좋을까? 각각의 선택에 관한 의견
- 비주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 현재 대학이 지니는 가치(학문적 탐구, 또래 친구들과 사는것)가 과도한 등록금을 감당할만한가?
- 진정한 교육, 배움과 성장은 어떤 환경에서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 교육, 배움은 평생토록 이어지고 해야하는 것인데, 사회에 나가 살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질의응답 및 토론

[질문]

-참가자1 : 학교 교육에서 자퇴를 해서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학교 교육을 탈출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말할 수 가 있는지 묻고 싶구요. 성공한 사람들만 보고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탈출을 해서 성공했다 해도 데이터와 같은 정보 없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거라 생각하구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만약 학교 교육이 입시교육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정말 교육의 본 목적인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학교가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서 : 우선 성공했던 사람들을 통계수치 없이 보여드린 것은 사실 저도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장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인생이 고달파진다는 흔한 관념을 반박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입식 교육이 아닌 진정한 교육으로써의 의미를 가진 학교라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가자2 : 일단 공교육이 공교육 체제 안의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취지에서 강의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빈곤층의 교육해택을 늘림으로써 브라질의 상황이 굉장히 나아진 사례가 있거든요. 그건 공교육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영서 : 네, 맞습니다. 이어 진행될 토론에서도 그렇다면 ‘학교가 나쁘기만 한 것인가.’ 에 대해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참가자3 : 그리고 제가 바로 12년 동안 교육제 안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질문이 많은데 강의를 들으면서 자퇴한 사람들이 비참한 낙오자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 제도교육 시스템 안의 학생들이 말씀하신대로 수동적이지만은 않아요. 홈스쿨링으로 성공하신 분도 있지만 그들도 자신의 생을 열심히 꾸리고 이겨나가며 쌓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공교육 내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행동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 주체들은 교육제를 만든 사람들이 어떤 목적에서 제도를 만들었다 해도 그 속의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벗어나려 노력하거든요. 선생님들 역시도 토론수업과 같이 자발적인 생각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여기 대안교육 받은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영서 : 저 역시 강의시작 전에 걱정되고 일반친구들에게 부정적으로 다가갈 것 같았어요. 저도 인턴 때 깨달았어요. 만났던 사람들이 일반학교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동의해요. 다만 날카롭게 말하는 제 강의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옆 친구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역시도 학교의 목표 안에 있고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것이며 잘못되어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참가자4 : 그것을 느끼는데 그것을 느껴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용기지만 그 속에 남아있는 것도 용기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서 : 저도 학교를 자퇴하는 것보다 일반학교 속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토론]

자유주제

-산 : 일반학교에서는 야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일반학교 친구들에게 야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연진 : 혼자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습시간이 그나마 그날 공부한 것을 복습할 수 있고 다음 날 공부를 예습할 수도 있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 그 시간을 빼서 다른 활동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습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했던 것 같은데 어떤 때에 짜고 싶냐면... (웃음) 예를 들어 모의고사를 봤는데 3학년들은 남아있는데 1, 2학년들은 집에 보낼 때 짜고 싶어요.

-성지 : 애들이 그래요. 집에 가면 놀 것 같아서 야자를 하기는 하는데 이걸 강제로 시키면서 야자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재수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야간 강제 학습이라고 하면 그냥 할 텐데.

학교교육이 필요할까

-연진 : 학교교육이 나쁘다고만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저는 대학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대학에 가면 원하는 공부를 할 때 전에 미리 배워뒀던 것들이어서 학교교육이기 때문에 일찍 배울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민수 : 학교교육... 필요하죠. 굉장히 필요하고. 그 안의 내용이 물론 알아봐야겠지만 공교육은 필요하고 네 필요합니다.

-형근 : 저도 앞서 말한 것처럼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꼭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의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인욱 : 서로 억압하고 무시하는 사회의 방면을 가장 처절하게 보여주는 게 공교육인 것 같아요.

-성지 : 홈스쿨링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사회성인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그것을 잘 기를 수 있냐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인간관계 같은 게요. 대안학교 친구들을 보면서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것에 반해 일반학교 친구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주저한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별 :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학교가 학교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학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생활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학교교육 자체는 필요하다고 봐요.

-석원 :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말씀하신 게 서로를 이해하지 않는 것도 제도교육 하는 사람들의 계산이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계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근대에 들어 학교가 가지는 것이 근대식 학교 교육인데요. 복장, 두발, 일반화하는 것들. 이유가 부려먹기 편하게? 생산적인 사람을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할 때 교육은 지식이 목적이기 보다 가장 먼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게 진정한 교육이라 생각하고 근데 지금의 교육은 그런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있다고 생각해요.

-연진 : 사교육이 공교육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사교육 없이는 따라가기가 힘든 현실이 되었어요. 어차피 학원가서 배울 건데 하며 자는 친구들도 많아요. 공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사교육이 빼앗고 있다고 생각해요.

-소운 : 대안교육 역시 대안교육만의 어떠한 인간상을 가지고 있고 그 또한 새로운 차별이 될 수 있음을 느꼈어요. 굳이 대안교육 과정에서 해야 하나? 졸업하고 하렘과 같은 말들이 상처였고 대안학교 내에서만 놀 수밖에 없는 거죠. 대안교육 역시 마땅한 인간상이 있구나 하고 배신감을 느낀 것 같아서 대안학교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석원 : 확실히 대안교육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유들로 어떤 것들 어떤

것들 일일이 말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넘어가면 어쨌건 대안교육도 대안교육이니까 옳다 하고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대안교육이 시작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사실 대안학교에 대해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항상 성공하리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실패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패한 후에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다시 성공할 수 있도록 다시 노력하고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지금의 대안학교는 대안학교마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정반대의 모토를 가진 학교들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학교는 보통 일반화된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 대안학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가 대안학교 학생이라는 게 저희가 대안학교를 다닌다고 하는 게 배신감을 느끼셨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대안교육과 대안 학교라는 것이 생긴 지도 얼마 안되었고 계속해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를 직면했을 때 대안교육이 대안교육이 아니라고 부정하기 보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려 목소리를 내고 바른 방향으로 가기위해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자세가 없다면 어느 제도나 어느 단체를 가도 문제점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다시 말해 이문제가 잘못됐으니 대안이 아니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공교육도 마찬가지로 그 속의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거지 모든 이에게 평등한 교육을 주는 공교육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대안교육도 마찬가지 같아요. 물론 대안교육도 문제점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바뀌기위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린 : 대안교육과 대학에 대해 대립되는 생각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고등부가 되며 사회에 나갈 기회들이 자주 생기면서 들었던 얘기가 '나린이는 획일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 또한 공교육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인옥 : 앞선 말을 들으며 질문하고 싶은 건데 대안학교는 선택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들어올 때 학교가 가지는 철학에 다들 동의하며 들어올 것 아니에요. 개인의 선택으로 들어와서 이 시스템은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잘못 됐어 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성지 :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택해놓고 편입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사람들은 현실적이 되라 말하지만 이상을 항상 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을 품는다고 해서 몽상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인지하며 살아가면서 대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똑바로 인지하고 내가 꿈꾸고 있는 이상을 실현하기위해 노력해야한다'라고 하거든요. 대안학교든 일반학교든 선택을 해서 들어가서 거기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면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다만 다르다고 비판만 하고 부정만 하는 게 아니라 주체롭게 살아야겠죠.

-석원 : 이어가고 싶은 말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곳의 가치관과 생각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이 체제를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 이미 갖춰지고 만들어진 상태에 나에게 맞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 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만들어 놓은 체제에 가만히 있고 불평만 할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바뀌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살아내야죠. 다만 관건은 그러한 목소리들이 나왔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차이인데 일부가 아닌 공동체가 이해하고 설득될 때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연진 : 어디서 들었는데. 교육감 선거만큼은 학생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인옥 : 어른들이 한다 해도 결국 다들 경험한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전 현재도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석원 : 저는 그렇더라도 고등학생이 선거에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중, 고등학생은 이런 체제에 주체가 되기엔 미성숙하다고 말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학교의 체제에 대해 생각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더더욱 선택권이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별 :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정부가 학교 공교육을 모두 통일화 시키는 마당에 학교에 입김을 불어서 지워하지 않을

까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걸 일단 배제하고 봤을 때 교육을 안 받는 사람보다 받고 있는 사람이 좀 더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라면 오히려 색깔론이 있을 수 있는데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공약과 같이 교육감을 판단하는데 옳을 것 같아요.

<군대가기 싫어요>

진행자: 은형근

주제: 군대

날짜: 11/17(화) 오후

군대로 인문학 캠프를 하는 이유!

- 군대가기 싫은 청년들, 군대가 싫은 사람들과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
- ‘병역 거부’와 ‘병역기피’는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정말 다른 건지 알아본다.
- 현 군대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안책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본다.

캠프의 진행 흐름

군대 가기 싫은 이유와 군대의 싫은 점을 가볍게 나누며 시작을 한다.

1강에선 주로 병역거부와 병역기피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함을 중심으로 국가의 강제성, 인간의 기본적인 공포,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나오는 이유들에 대해 강의를 한다.

2강에선 병역기피자와 병역 거부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만족 할 수 있을 대안책에 대해 강의 한다. 대체 복무제, 모병제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을 살펴봄에 현실적으로 한국에도 적용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강의한다.

이후 관련해서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자리를 가진다.

생각해볼 것

- 병역거부와 병역기피는 무엇이 다를까?
- 군대가 가기 싫은 것에 대해 왜 우리는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까?
- 군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 모두가 피해를 볼 필요가 없어도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이 평등일까?

0.들어가기 전에-이 군대로 인문학캠프를 하는 이유

토론. 군대 가기 싫은 이유-군대의 싫은 점

- 1.병역거부와 병역기피는 다르면서도 같다.
- 1.1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의무
- 1.2살상훈련에 대한 공포
- 1.3'비겁하다'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생각인가
 - 남자답지 못하다
 - 징병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병역기피
- 2.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대안
- 2.1대체복무제

2.2전쟁국가 대체 복무제 사례

- 미국
- 영국
- 2.3군사적 긴장 국가 대체 복무제 사례
- 대만
- 독일(동독●서독)
- 2.1모병제
- 2.2모병제 사례
- 미국
- 우루과이

질의응답 및 토론

군대 가기 싫어요

은형근

1부, 병역거부와 병역기피는 다르면서도 같다

1.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의무
2. 살상훈련에 대한 공포
3. '비겁하다'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생각인가
 - 남자답지 못하다
 - 징병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병역기피

2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대안

1. 대체복무제
2. 전쟁국가 대체 복무제 사례
 - 미국
 - 영국
3. 군사적 긴장 국가 대체 복무제 사례
 - 대만
 - 독일(동독●서독)
4. 군 인원 감축과 모병제

3부, 질의응답과 토론

*출발점

군대를 주제로 잡은 이유

나는 군대가 싫다. 아니 싫었다. 사실 군대도 싫었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부터 정말 끔찍하게 싫었다. 유치원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근처 초등학교로 진학하는데 이상하게 학교라는 공간이 무섭게 느껴졌다. 그 이유를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폭력이 허용되고, 계급이 나뉘져 있으며,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목표를 향하는 것이 싫었던 것 같다. 유치원 졸업 몇 달 전에 사촌누나가 선생님에게 혼나는 과정에서 귀를 잡혀서 귀가 찢어진 것을 봐서 일지도 모르겠다. 그 당시에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내 공포를 설명했고 나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일반 학교 입학식 까지 갔었지만 결국 대안 학교인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 입학했다. 너무도 좋았다. 할머니한테 대안학교가면 회초리 50대 맞기로 한 각서가 떠올라 무섭기도 했지만 그 보다 일반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해방감이 더 컸다.

그렇게 초, 중, 고를 대안학교에서 보내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의무는 납세와 노동과 국방이 남았다. 공교육의 압박에 벗어난 후 나에게 남은 압박은 군대였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나는 아빠 손에 이끌려 반전 집회를 종종 나갔고 나는 아직도 죽은 아들의 주검을 안으며 울고있는 이라크 아저씨의 그림이 잊혀지지 않는다. 군대에 가면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커서 그 군대에 가야한다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

나는 군대에 가기 싫다. 나는 평화나 종교 같은 거창한 이유와 신념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병역기피자'이다. 많은 사람들은 군대에 가기 싫어한다. 그 이유는 당연히 군대에 가면 각종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공부하고 취업을 해서 먹고살기도 쉽지 않은 20대에 2년의 시간을 버리는 것은 정말이지 싫다.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것이다. 그래서 가기 싫다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면(거부하면) 또 다른 불이익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전과자가 되고 사회부적응자로 찍혀 취업에 큰 지장을 준다. 일상, 혹은 인터넷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비겁하다' '남자답지 못하다' 등등 많은 욕설과 질타를 평생 받고 산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은 스스로 군대에 대해 좋게 생각하거나 꼭 가야하는 것이라고 단정 지어 버리거나 포기해 버린다.

과연 그것이 전부이고 정당한 비난일까?

그렇다면 병역거부는 당당하고 정당한 것일까?

예전에 엄마 직장 동료 한 분이 '병역거부자'였다. 그분은 감옥까지 갔다 왔다. 아빠는 예전부터 군대가지말고 감옥가면 책도 좀 읽고 고독속에서 나오는 자신의 철학이 생긴하며 감옥에 가는 '한국식 병역거부'를 추천했다. 그런데 난 감옥가기 싫다. 나는 군대도 가기 싫지만 그만큼 감옥 역시 가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감옥을 가지 않고자 하는 병역기피는 비겁한 것일까? 내가 간디학교 3학년 때 군대가기 싫다고 하니 어떤 한 선생님께선 "너가 병역거부에 대해서 이렇다할 신념이없이 무턱대고 군대가기 싫다고 하는 것은 병역거부가 아닌 비겁한 병역기피일 뿐이다"라고 하셨다. '나는 비겁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계속 던졌다. 병역거부자들을 만나 물어봤다. 그분들 역시 나와 비슷한 이유들로 병역거부를 하고 감옥에 갔다. 나와 다른 점은 일단 병역거부 성명서에 멋있는 말을 많이 쓰셨고 본인의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풀어 쓰셨다. 내 생각을 남들에게 설득시키는 것은 물론 중요하기에 멋있는 말은 아니어도 '병역기피자'인 병역의무에 대해 가지는 기피감에 대한 담론을 풀어보고자 한다. 인문학 캠프가 나 개인의 담론을 펼치는 자리가 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간디학교 남학생들에게 병역의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야메로 인식조사를 했는데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난 결론적으로 나와 같은 세대, 심지어 군대에 있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 역시 병역의무에 대한 거부감은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다시 말해 병역기피에 대한 담론은 병역거부 담론 못지않은 '개인적인 것이 아닌 우리 세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담론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며 군대로 인문학 캠프를 하게 되었다.

갈 때 가더라고 내가 왜 억지로 끌려가야하는지 내가 2년의 시간을 투자할 정도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

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한다. 내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은 국가 폭력이 아닌가? 사람 죽이는 연습을 즐겁게 해야 할까? 징병제가 정말 유일한 해답일까? 평소에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당연했던 것들이 옳지 않았을 수 있다.

이 캠프의 목적은 군대 가기 싫은 청년들, 혹은 군대가 싫은 사람들과 내가 함께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나는 진행자로서 토론을 진행하고, 강의를 통해 내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할 것이다.

1부, 병역거부와 병역기피는 다르면서도 같다

한국 사회의 병역거부 역사에는 반전, 평화, 반 군사주의에 대한 기피자와 탈영자가 빠져있다. 1964년 박정희 독재 정부 시절 베트남 전쟁 파병을 거부(기피)하면서 일본으로 밀항 한 뒤 망명을 요청하였다가 거부되어 북한으로 간 김동희의 경우는 병역거부자 인가 기피자 인가? 남과 북이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과 군사정권의 통치 하에서 탈영자, 기피자와 거부자의 구분은 무색하다. 이들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은 군사 독재 정권에 위협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신념에 따른 병역 기피자'의 존재 여부와 그 정도는 나타나지 못했다. 민주화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재조명이 이뤄지고, 병역거부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식적인 집계에는 병역거부, 징집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에 따른 처벌을 받는 남성들만이 포함 되어있다. 종교적 신념이나 반전사상에 기반해 국가와, 제도와 싸우고 끝내 감옥까지 가는 병역 거부와 달리 병역 '기피'는 '비정치적'이고 사회 흐름 안에서 사소한 것이 되어 버렸다, "군대가기 싫어서" 병역을 피하려는 낙인과 모두가 따르는 의무를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분노로 이어질 뿐 군대 가기 싫어하는 이유와 감정들은 질문되지 않는다.

병역거부와 기피라는 구분이 무색한 역사와는 달리 국어사전에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조나 반전 사상의 입장에서 병역의무를 거부 하는 일'로, 병역기피는 '병역을 꺼려서 피함'으로 정의 되어있다. 병역법 제 86조에서 병역 기피는 도망, 신체손상, 사위행위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국가 방어자'의 역할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신성한' 병역의무를 대체할만한 신념과 이유들이 요구되는 것이다.

보통 병역기피자들은 비폭력적 신념이나 종교적으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지만 보통 군대 내 폭력과 위계, 성폭력, 사회와의 단절, 살상 훈련에 대한 두려움,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두려움 등 각자 다양한 이유로 군대를 가기 싫어한다. 그래서 군대를 안 가려고 이빨을 뽑거나 손가락을 자르거나 망명을 하거나 정신이상자인 척 연기하거나 학력을 속이는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군대 내 각종 폭력과 가혹행위, 위계질서, 사회와의 단절, 경쟁에서 뒤쳐짐, 살상 훈련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것들이 병역거부의 '평화', '종교'의 양심적인 이유들과는 다르게 '개인적'이고 '사소한' 것 일까? 때문에 병역거부와 다르게 합당하지 못하고 무시당해 마땅한 것일까?

1.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의무

대한민국 헌법전문에는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어 2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나와 있다.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그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꼭 국방을 위해 군대를 가야한다는 것이 현재 한국의 군대이다.

하지만 징병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무시한다. 많은 병력을 보유해야 북한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안보논리로 강제 입대를 시키고 있다. 사람은 각자 다 다르고 각자 나름의 뜻이 있다. 안보에 대한 논리도 무조건 많은 군사가 안보 즉,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 본인의 선택으로 군 입대를 결정하기에 군 입대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는 모병제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할 경우 아무도 군 입대를 하지 않을 것 이라는 생각 때문이

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인식이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강제로 군대에 보내버리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 모병제이지만 왕족들이 군대를 감으로서 국민들에게 국방의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는 영국처럼 국민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스스로 가게끔 설득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지 '수가 많아야 산다'라는 안보논리를 강요하며 집어넣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무시한 국가 폭력에 그치지 않는다.

2. 살상 훈련에 대한 공포

살상 훈련. 사람을 죽이는 훈련이다. 군대는 적으로부터 방어를 하든 공격을 하든 적을 죽인다. 적은 해석에 따라 건장한 남성일 수도 약한 어린이나 노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군대라는 조직에선 적으로 정해지면 차별 없이 일단 죽여야 한다는 훈련을 받는다.

거기에 양심에 가책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적을 향한 조준이 흔들리게 되고 그럴 경우 1분 1초를 다투는 순간에선 치명적일 수 있다. 조금 과장하면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경우 전쟁에서 패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미 육군 마셜준장이라는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독립전쟁, 남북전쟁, 2차 세계대전까지를 분석했는데 실전에서 적을 정확히 조준하고 쏘는 병사의 비율은 50%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공포' 역시 지적한다. 남북전쟁에 쓰인 머스켓 총은 쇠포창이로 탄약을 장전한 다음 발포를 하지 않고 다시 장전하면 고장이 난다. 그런데 남북 전쟁이후 50%의 총이 고장난 상태였다고 한다. 반면에 다친 병사를 옮기거나 탄약을 나르는 일에는 성공률이 높았다.

북한이 있건 없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에 거창한 언어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나? 처음부터 폭력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내가 당할 폭력이든 가할 폭력이든 간에 말이다. 하지만 군대라는 공간 안에서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빌미로 폭력적인 살상훈련이 허용된다. 본능적인 폭력에 대한 거부감을 억제하고 '적을 죽여야 한다'라는 정신교육에 의해서 살상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인간으로서 가지는 도덕성과 양심을 제쳐두고 적에 대한 증오와 공포만을 불러 결국 전쟁 옹호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본인이 평소 평화나 전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간에 군대에 가게 되면 군대라는 기구의 필요상 주입하는 것들에 대해 거부 할 수 없다.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구조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키기 힘들다. 상사의 지시에는 옹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따른다. "이런 군대에서 2년 지내다 보면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 역시 있을 수 있다.

군대는 합법적인 살인 조직이다. 정당성을 떠나서 살인을 하기 싫은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해줘야 한다.

3. '비겁하다'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생각인가

-남자답지 못하다

1793년 프랑스 혁명의 직후 세계적으로 처음 징병제를 도입했으나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프랑스는 "우리가 약한 여성과 아이, 노인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자. 당신들은 국가와 여성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이다."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져온다.

이런 군사활동에 기초한 '국가 방어자'로서의 남성성은 '잔혹한 착취자'의 모습 보다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도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훌륭한 '기사도 정신'의 소유자로서의 남성성에 가깝다. 미국의 윤리학자이자 정치 철학자인 엘슈타인은 남성적 권위가 공격적인 지배의 유형이라기 보다는 타인을 위해 희생과 위험을 각오하는 것에서 온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종속된 여성의 역할은 억압과 착취를 견디거나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보호자 역할을 약속하는 남성에게 동경을 보내는 것이다. 이처럼 군사 활동에 기초한 남성성은 국가를 지키는 숭고한 것으로 의미화된다.

‘적’에 대한 두려움이 곧 보호자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하고, 보호자의 역할을 지배적인 권위자의 위치에 놓으며 피보호자들은 그들의 희생에 기꺼이 감사하게 만든다. 군대는 기본적으로 적에 대한 방어를 전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역할을 위계화, 성별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군대라는 공간은 남성-보호자 여성-피 보호자 라는 남성이 우위에, 중심에 있는 위계구조를 만들어 낸다. 그럼으로 다수의 남성들에겐 남성임에도 병역의무를 거부 하는 사람들은 남성 전체의 위계에 대해 저항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군대를 가야 멋있고 남자다운 ‘진짜’남자가 된다는 사회 흐름속에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것은 남성성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당당하게 거부한다는 의미의 ‘거부’와 달리 ‘기피’에는 이미 ‘남성답지 못한’ 행위라는 낙인이 덧씌워져있다. 맞서 싸우거나 저항하기 보다는 무섭거나 두려워서 회피하는, 명예롭지 못한 행위라는 사회적 의미가 존재하는 것이다.

처음 병역거부 운동이 시작될 때 “우리는 병역기피자가 아니다, 군사훈련을 제외한 어떤 의무라도 용감하게 수행하겠다.”라고 외치며 운동이 시작 되었다. 마치 “우리는 비겁자가 아니다” 라는 것으로 남성성을 증명 받는 방식으로 ‘남자다운 병역거부’를 인정받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저항하고 당당하게 싸우는 ‘거부’와 무섭거나 두려워서 회피하는 명예롭지 못한 ‘기피’를 강조하고 나눔으로서 기존의 남성주의에 저항은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병역기피자들의 군대가기 싫어하는 태도와 이유들은 군 복무가 요구하는 집단화된 남성성, 군사 활동에 기초한 방어자 역할에 대한 저항과 변화의 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징병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병역기피

징병제는 과거 프랑스 혁명 이후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민주주의 제도로 떠올랐다.

“귀족의 아들이건, 대장장이의 아들이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배움이 높건 배우지 못했건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젊은이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방이라는 숭고한 의무에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등과 민주주의의 본뜻이다.”

이것은 20세기 초에 징병제의 도입을 주장하던 어떤 영국 지식인의 호소이다. 참으로 올바른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이런 평등한 징병제에 대한 비판은 병역의무의 평등성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왜 하필 국방의 의무에만 평등이 적용되어야 할까?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회에선 다른 분야에서는 엄청난 경쟁과 차별이 엄연하게 존재하는데, 왜 국방의 영역에만 평등과 민주주의가 강조되어야 하는가? 형제애에 기반 한 평등한 사회구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주 이상적이다. 하지만 징병제가 과연 평등과 형제애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

군에서 평등과 형제애를 익히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도록 한 제도를 60여년이나 지켜온 우리 사회는 평등과 형제애에 기반 한 민주사회인가?

그렇다면 지역이나 학벌, 빈부의 구분 없이 형제가 된, 더군다나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단일민족이 지역감정에 그토록 골머리를 썩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도 논리적인 답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징병제는 평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지만, 일부 잘못된 사례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 첫 번째 대답이다. 따라서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하면 징병제는 그 본연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치고, 징병제에 대한 보완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군대에서 평등한 형제애를 익히는 것에 성공한다고 하자. 하지만 사회는 어떤가? 한국사회는 평등한가?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공정하게 받으며 빈부격차와 같은 것이 없는 평등한 사회인가? 그렇지 않은 사회라면 징병제는 오히려 그 안에서 각인되는 것은 차별과 서열화, 그리고 복종과 폭력을, 그리고 적자생존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열함과 비굴함을 학습시키며 가정, 학교, 기업, 남녀관계, 정치, 사회 각 분야에 군대에서 각인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국방의무의 연령을 10대 말이나 20대 초로 설정한 이유는 바로 징병제가 제국주의와 전쟁, 지배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20대 초반이 신체적으로 가장 활력이 넘치기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이는 아주 부분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아직 배우는 단계이고, 배우는 것을 습득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20대에게 남성성, 폭력성에 기반한 폭력 문화를 심어버리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국가의 명령에 따르게끔 만드는 것이다.

캐나다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완전한 독립국은 아니었지만, 영국의 자치령으로 의회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다소의 갈등은 존재했지만, 의회를 중심으로 영국 출신과 프랑스 출신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이때 유럽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했고 캐나다 역시 당시 연합군 편에 서서 참전을 결정했다.

당시 캐나다는 지원병 제도였지만 전쟁의 참상이 전해지며 지원병의 수가 줄어들면서 많은 프랑스인이 주로 거주하는 퀘벡 중심의 자유당과 기타 프랑스 어권 출신의 의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징병제가 통과되었다. 반대했던 자유당과 퀘벡에 대한 국수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공격이 자행되었고, 퀘벡의 중심도시 몬트리올은 거의 폭동 상태에 빠졌다. 징병 문제로 캐나다는 민족 간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인 것.

민주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징병제 이후에 통과된 후속 법률이다. 1917년 9월에 통과된 병사 투표법과 전시 선거법은 병사들에게 주거기간과 나이에 상관없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투표권을 확대했다. 반면에 가족 내 군복무자가 없는 경우는 투표권을 상실했다. 이는 잠재적 징병 반대자를 배제하고 징병찬성을 높히려는 시도였으며 곧 치러질 연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조치였다. 1917년 12월의 선거에서 병영의 병사들은 각종 협박과 폭행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부지지를 강요당했다. 하사관이 투표를 관람하는 반 공개 투표가 자행되었으며, 그 결과 병사들의 투표는 92%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정부의 선거 승리를 이끌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징병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선거권의 박탈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징병대상의 캐나다인들은 징병을 회피했다. 총 404,395명의 징병대상자 중 92.7%에 달하는 380,510명이 면제 사유를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해 4월에 모든 면제사항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선거 직전에 정부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민의 아들들은 징병에서 제외”할 것을 여러 차례 약속해 농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옥을 경험한 병사들은 정치인을 혐오하게 되었고 군사적인 모든 것을 증오했다. 전쟁 이후 캐나다에서 징병제는 저주받은 말이 되었다.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야당이던 보수당은 징병제의 재실시를 강력히 주장했다. 당시 자유당 출신 수상 킹(M. King)은 1942년 4월 27일에 징병제의 도입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퀘벡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찬성해 징병법이 통과되었지만, 수상은 징병제의 실시와 군대 파병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했다. 2차 대전 당시 캐나다에서 약 12,000명이 징병대신 수용소의 강제노동을 선택했다. 캐나다정부는 ‘피의 평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떤 징병 반대자는 다음과 같이 외쳤다.

“전쟁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반면, 농민들의 땅은 황폐해져간다. 우리에게 ‘피의 평등’을 요구하기 전에

‘재산의 평등’을 실시하라.”

우리는 2년여 간의 군대 복무를 징병의 전부로 생각한다. 아니다. 징병의 본질은 전쟁이다. 그리고 징병이 요구하는 것은 피다. 우리 사회를 지키는 힘은 강요된 ‘피의 평등’이 아니라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평등한 사회’의 구현이다.

이상 캐나다의 경우처럼 징병제는 평등하고 민주사회를 발전시키는 제도가 아닌 오히려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평등한 권리와 자유는 자신의 선택이 아닌 국가의 강요인 징병제와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한 파병, 사회 위계화, 기득권의 이익, 국가주의를 만들어내는 제도이다. 국가는 ‘피의 평등’을 요구하기 전에 ‘재산의 평등’과 같은 평등한 사회 구현에 힘을 쏟아야 한다.

군필자들은 군 복무의 상처와 열패감에서 오는 분노를 같은 피해자인 병역기피자에게 향하는 것에서 멈출 것이 아닌 징병제도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져야 한다. 징병제를 멈추기 위해선 모두가 군대에 가지 않으면 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캐나다의 경우처럼 40만명중에 1만2천명이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택하는 ‘병역 기피’야말로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찾기 위한 행동일 것이다. “나도 가고 너도 가자”가 아니라 “나도 안가고 너도 가지말자” 일 수는 없을까?

2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대안

군대의 문제점, 징병제의 문제점이 이렇게 수두룩하다. 앞서 말한 것들이 모두 다 맞는 말이라고 치고, 그래서 모두가 군대를 안 가면 되는 걸까?

한반도는 북한과 냉전중이어서 현실적으로 앞서 말한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전쟁했던 나라, 아직 냉전중인 나라가 한반도 밖에 없을까?

1. 대체복무제

대체 복무제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군복무를 하는 대신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요원 또는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로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군사적인 일을 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쓰인다. 하지만 소수의 병역거부자들은 군 복무이든 대체 복무이든 대안적 대체 복무이든 모두 다 군대와 연관되어 있으며 국가가 결국 강제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이들을 완전 거부자 또는 이중 거부자라고 한다.

현재 18개월 넘게 복무하는 나라는 25개국 정도만 남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 한국처럼 대체복무제도 없이 강제징집하는 국가는 북한을 포함해 약 9개국뿐(북한, 쿠바, 앙골라, 차드, 에리트레아, 아르메니아, 투르크메니스탄, 예멘, 베트남)이다. 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대부분 가난하거나 인구가 적은 후진국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경제 규모 14위, 5000만 인구로, 그런 나라와 비교조차 불가할 정도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단지 전쟁을 쉬는 중이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보다 당연히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아무리 다른 징병제 국가들이 대체복무제를 한다고 해도 한국에선 대체복무제를 통해 군인 수가 줄어들면 전쟁이 발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과연 그럴까? 전쟁중, 그것도 무려 두 번의 세계대전 중에도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 한 나라도 있다. 그것도 전쟁에 소극적으로 참전했던 나라도 아닌 가장 적극적으로 참전한 나라중에 하나인 나라들이다.

전쟁중은 아니지만 한반도의 현실과 흡사한 몇몇의 나라들 역시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했다.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 역시 본인의 신념과 양심을 증명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군대 내 각종 폭력과 가혹행위, 위계질서, 사회와의 단절, 경쟁에서 뒤처짐, 살상 훈련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것들이 '개인적'이고 '사소한'것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대안책은 아닐 수 있으나 그 범위는 법률에 따라 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는 사유들도 대체복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다.

2.전쟁 국가 대체복무제 사례

-미국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징병제도를 실시했던 미국은 전통적으로 평화주의 종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대해 비전투복무를 인정하는 입법을 하였다. 병역거부는 인정하되 병역거부의 동기를 좁게 한정하고 민간 대체복무는 인정하지 않는 절충적인 형태의 입법이였다. 이 법안에 따라 1917~1918년의 전쟁기간동안 총 65,000명이 양심적 병역거부 등록을 했고 이 중 57,000명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았다. 그들 중 30,000명이 신체검사를 통과했고 그 중 21,000명이 비전투복무를 위한 입영처분을 받았으나 가혹한 처우와 부대장들의 설득에 의해 약 80%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고 전쟁에 참여하였다. 비전투 복무까지 거부한 약 2,300명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노동력이 부족한 곳의 추수를 돕는데 투입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군인신분이었지만 실제로는 민간대체복무를 하였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미국은 다시 한 번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와 부딪혔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보다 훨씬 완화된 병역법을 입안했다. 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를 내용으로 한 것이였다. 았았고 민간대체복무를 인정하여 폭넓은 병역거부를 가능케 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72,354명이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 등록을 했고, 그 중 66,000명가량은 비전투 또는 민간대체복무를 인정받았다. 이 중 약 25,000명은 군대 내의 비전투 요원으로 근무하였고, 약 11,950명은 민간대체복무에 근무했다. 약 20,000명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공인되지 못했으나 대부분 자기 직업의 특수성이나 가족 부양의무 등을 이유로 군복무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선교사 또는 목회자 지위에 기초한 병역거부권 인정을 요구한 여호와의 증인 4,441명은 감옥에 가게 되었다.

-영국

영국은 1916년 병역법상 지방특별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지방특별법원은 병역면제, 민간대체복무, 비전투복무, 병역거부 불인정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불인정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만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1914~1918년까지 법정 선 병역거부자들은 약 15,900명이었고 이들 중 6,261명이 체포되어819명이 최소한 2년이상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나머지 병역거부자들 대부분은비전투복무 또는 민간대체복무를 수행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제1차 세계대전 때와 동일한 법적 절차가 적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약 62,310명이 양심적 병역거부 등록을 했다. 완전 면제된 대상은 전체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에서 약6.04% 정도 밖에 안 되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민간대체복무를 인정받았다. 법적절차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와 다를 것이 없었지만 처우는 월등히 향상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과 영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병역거부자들의 폭이 넓어졌다. 전에는 소수의 전통적 평화주의 종파의 구성원들이

병역거부를 했지만 제1차 세계대전 즈음에는 주류 기독교 교인인 병역거부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들이 새롭게 병역거부의 대열에 합류했다. 또한 병역거부와 관련해서 조직적인 저항이 일어나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초가 되었다. 1919년 미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된 수형인들이 알카트라즈 감옥 내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자 30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및 일반죄수들이 파업을 일으켜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1916년 병역법이 통과할 즈음 영국에서는 165개의 징병반대지부에서 참석한 청년들 약 2,000명이 반대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3. 군사적 긴장 국가 대체 복무제 사례

-독일(서독/동독)

2차 대전 후 분단된 독일에서 동서독은 각기 다른 시기에 국방부를 부활시키고 군대를 창설하였다.

동독에서는 1962년부터 징병제가 실시되었고 서독역시 1964년에 징병제를 도입 하였다.

서독은 군축정책을 실시와 함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한 이후,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해 오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평화주의 물결에 따라 서독의 여러 주들이 병역 거부권을 헌법과 법률에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1946년에 헤센 주 헌법, 1947년에 바덴 주 헌법, 1950년에 베를린 헌법 등이 각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였다. 당시 반전·평화의 분위기는 1949년에 제정된 서독 헌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침략 전쟁 금지규정으로 뿌리내렸다. 그럼으로 독일헌법 제4조 3항에는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전쟁 복무를 강요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게 되었다. 아울러 1960년에는 대체 복무의 범위와 역할을 상세하게 규정한 대체복무법도 제정하였다. 의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규정한 병역법 제25조를 모태로 하여 1983년에 병역거부법을 제정함으로써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에 대한 법제를 완비하였다.

서독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 제4조 제3항의 양심적 결정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무조건적 의무로 체험하는 바, 선/악의 범주를 지향한, 즉 윤리적으로 진지한 결정’을 의미 한다.

복무 영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 배려, 보호, 간호를 제공하고, 위급 상황을 배제하거나 예방하는 활동이다. 사회적 영역의 봉사로서 인하여 병원이나 요양원에서의 대체 복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대체 복무 이외에 이를 대체하는 다른 수단도 존재한다. 재해 구호, 개발 봉사, 해외 봉사, 자원 봉사, 경찰 근무, 자발 근로제 등이 대안적 대체 복무다.

자발 근로제는 완전 거부자를 위하여 1969년에 도입되었다. ‘자발 근로’를 도입하여 스스로 적절한 봉사 활동을 선택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자발적 근로제는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 에서 대체 복무보다 최소한 1년 이상 추가로 근무할 것을 요구 한다

동독 인민군에는 건설사병(Bausoldat·바우졸다트)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1964년 건설사병제가 도입되었다. 건설사병제는 퀘이커교도, 개신교회 인사를 비롯한 동독 종교인들, 평화주의자들이 주도하여 마련한 것으로 양심상 무기 들기를 거부하는 젊은이에게 허용된 대체복무제였다. 대체복무의 초기 형태가 총 대신 삽을 들고 토목건설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었기에 이 명칭이 붙었으나, 후기에는 산업체·농장 등에서 일하는 건설사병도 있었다. 서독에서는 대체복무가 광범하게 인정되어 많은 대체복무자들이 현역병보다 긴 기간 동안 각종 시설 등에서 공익요원으로 복무했으나, 동독 건설사병제는 이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대만

대만은 중국이 공산화 이후로 1987년에서야 계엄령이 풀릴 정도로 중국과 냉전중이다. 대만은 자주국가로 독립하기 위해 미국의 힘을 빌리는 추세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경고의 의미로 대만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수시로 진행하는 중이다. 2000년 7월 군 현대화, 청년 사회활동을 이유로 대체복무제가 통과되었다. 종교, 가정, 전문기술자격, 자원봉사, 일반자격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종교의 경우 2년이상 신앙을 가진 사람이여야하고, 복무기간은 현역22개월보다 4개월 긴 26개월이다. 가정사유의 경우 한국처

럼 계속 가정을 돌봐야하는 사람이여야 한다, 가정사유로 신청 한 사람은 현역과 같은 22개월을 복무한다. 전문 기술자격은 국가가 정한 전문기술을 가져야 한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와 관련된 일을 1년이상, 150시간 이상 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관련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 4가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일반 자격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일반 대체복무의 경우 현역 22개월보다 2개월 긴 24개월을 복무한다. 하지만 일반자격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을 갖추거나 자원봉사를 많이 해서 자격 요건을 갖추고자 한다.

대만은 거짓으로 대체복무를 지원했을 경우 처벌을 한다. 종교의 경우 2년의 징역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인지 현재까지 거짓으로 지원한 경우는 없었다.

대만의 대체복무자들은 마을 순찰, 수용소 경비 같은 경찰업무, 재난시 환자를 구하는 소방업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돕는 사회복지 업무, 환경을 조사하고 돌보는 환경업무, 산이나 섬같은 외진 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의료와 교육업무를 본다. 그 외에 행정원이 정한 곳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대체 복무 이후에 일했던 곳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인력난도 해결됐으며 인원 보충이 되지 않던 곳에도 대체 복무자들이 보충됨으로 사회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었다. 동시에 역지로 군대에 가지 않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의 가혹행위나 폭력도 감소했다.

하지만 대만의 대체복무 역시 현역병의 수를 채운 후 남은 인원을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4. 군 인원 감축과 모병제

징병제의 장점은 적은 돈으로 많은 수의 군사를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강제로 끌려가야하기 때문에 강제성의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군대를 가고 싶게끔 해서 가고 싶은 사람만 가게 할 순 없을까?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러한 고민 끝에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했다. 모병제가 유행하게된 이유는 현대 전쟁 자체가 병사의 머릿수가 아닌 탱크와 전투기, 미사일, 핵폭탄 같은 신무기와 과학기술이 승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1,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에서는 국민 모두가 강제로 병역 의무를 져야 하는 강제 징집의 형태를 띄고 있는 '징병제' 국가가, 지원병과 징집병으로 이뤄지는, 징병제와 모병제가 합해진 '징모 혼합제' 이거나 모병제 국가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징병제의 숨은 비용, 즉 징병된 젊은 남성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징병제가 폐지되고 모병제를 도입했다. 미국이 과거 1,2차 대전 이후의 유럽 국가들처럼 비무장을 목적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모병제를 도입 한 것은 아니다. 미국 역시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가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비용과 군사적으로도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서서 그런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 총 침공군수는 미군 15만, 기타 다국적군 11만을 합쳐 26만으로, 63만 한국 상비군의 절반도 안 되는 병력으로 2주 만에 수도 바그다드를 함락시키는데 성공했다.

포클랜드 전쟁은 1982년 아르헨티나가 자국과 가까운 포클랜드 섬(혹은 말비나스 섬)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하며 침공한 전쟁이다. 이 전쟁은 2개월 만에 아르헨티나군의 항복으로 종료되었다. 아르헨티나의 패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원인이 다름 아닌 징병제였다. 역지로 전장에 끌려온 아르헨티나 군인들은 전투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반면에 영국은 모병제를 하고 있는데다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둘째 아들인 요크 공작 앤드루가 직접 전투기를 몰고 맨 앞에서 참전하였으므로 영국 국민들의 포클랜드 전쟁에 대한 동기부여가 매우 충만했다. 이 전투의 패전에 심하게 충격 받은 아르헨티나는 이 전쟁을 일으킨 레오폴드 갈티에리는 패전의 책임을 지고 실각했으며, 패전의 원인이 되었던 징병제도 역시 폐지되었다.

이런 전쟁의 승패는 병역제도라기보다는 첨단무기의 싸움으로 결판났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징병제나 모병

제나 하는 병역제도 자체가 전쟁에서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모든 국민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징병제가 국방력의 기본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오해이며 착각일 뿐이다.

대만은 228만명의 중국군을 상대하고 있지만 그 병력은 현재 21만5000명으로 중국군의 10% 남짓이다. 대만도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한국군 못지않게 50만 명에 가까운 대군(1996년 45만2000명)을 유지하였다. 대만은 부사관 또한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다. 이것은 대만의 군사적 목표가 중국본토를 수복하는 목적인 '공세작전'에서 대만 본섬 방어를 목표로 하는 '수세방위'로 바뀌며 대규모의 보병 위주에서 신속대응능력이 뛰어난 해·공군과 경량화된 지상기동부대를 주축으로 하는 구조로 재편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때 조중연합군에 대항한 유엔군은 50만~52만 명이었고 그 중 한국군이 23만~25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군이 전시도 아닌 평시에 63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조중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치른 유엔군의 수보다 더 많다.

정전 뒤 한국군의 병력 상한은 1960년 한미 합의로 60만명으로 되었다. 그런데 이 60만명 규모는 한국군이 조중연합군을 상대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조중연합군을 상대하는 시나리오는 비현실적이 되었고 군에서도 폐기되었다.

그런데도 6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유지하는 것은 전쟁의 목표와 군사전략이 대북 방어에서 대북 공격과 점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격적인 군사전략은 이전 정부에서는 공식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사상 처음으로 '적극적 억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공식화되고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보다 더 공격성을 띤 '능동적·선제적 억지전략'과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공식화되었다.

한국에서 모병제를 실시하려면 먼저 병력을 30만 이하로 줄여야 한다. 북한 공격 및 점령을 목표로 하는 공격적 군사전략은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에도 위배된다. 병력을 30만 명 이하로 감축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 공격적인 무기 도입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국가재정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또 남북간 군비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변국의 한국에 대한 경계심리를 완화하여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당장 모병제를 실시하려면 30만 병사에게 현재 25대1의 경쟁률인 경찰 공무원(순경)의 1호봉 월급인 1,327,400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인건비만 4조7천억원이 더 들어간다. 현재 43만 병사의 인건비인 7000억원에 6배가 넘는 엄청난 예산이 추가 소요 되는 것이다.

어떻게 4조7천 원이라는 큰돈을 만들 수 있을까?

2014년 책정된 병사 인건비는 7000억으로 전체 국방부 예산인 35조7천억의 1.9%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교와 부사관 인건비는 7조9천억으로 국방부 예산에 22%를 차지한다.

오죽하면 '합법적 노예'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거기다 장교들은 줄지 않고 장교 인건비는 매년 평균 1151억 원 증가하고 있다. 군납비리는 최근 인기 드라마 <송곳>에도 나오듯 공공연하게 많이 벌어지며 USB하나에 95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각종 수법으로 국방비가 세고 있다. 이러한 군납비리와 장교와 부사관 인건비&연봉 감축한다면 비용이 나올 수 있다.

그래도 비용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국방비 예산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호주는 군사 긴장 상태도 아니지만 국방비가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와 같은 10%이다.

다소 외람되지만 대전광역시 동구청 건물 짓는 비용에는 664억이 소모됐다. 성남시청, 강릉시청은 이 규모의 수십 배에 달한다. 현재 기준면적에 두 배가 넘게 지은 행정청사의 숫자가 76곳이다. 이처럼 국가예산이 부족해서 국방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닌, 국가예산을 잘못 조정해서 국방 예산이 부족한 것이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시골에는 몇 명 다니지도 않는 학교 운동장에 역대 인조잔디를 깔거나 테니스장을 짓는다. 복지를 위해 없는 돈 모아가서 만드는 것이 아닌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많기에 그런 것이다. 물론 소수의 학생들과 어르신들에게 여가거리를 제공하는 것 과 같은 복지도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선 안 되겠지만 그보다는 군사적으로 보나 인권적으로 보나 모병제를 위해 좀 더 예산 책정을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을까?

더불어 청년들이 2년동안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그것으로 오는 국가적 경제이익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16조원대의 GDP 성장을 기대 할 수 있다고 한다. 경제적인 비용은 모병제가 4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병제는 필요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군대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추가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모병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그전에 청년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다. 4조는 큰돈이지만 20만 청년들이 군 문제에 있어서 자유를 얻는다면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당장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더라도 따져보지도 않고 무작정 징병제를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느 제도가 군사력과 국방력에 더 효율적인지로 따질 문제이다. 마치 징병제만이 해답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질의응답 및 토론

[1강]

-민수 : 선택의 자유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모병제는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지, 모병제가 된다면 최하계층이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텐데 오히려 차별이 아닌지, 그건 과연 옳은 것인지..... 과연 모병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형근 : 맞아요. 저도 모병제가 최고의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2강을 보시면 아실텐데 제 나름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근데 모병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사회 최하계층이 전쟁의 도구도 전락되면서 더 과장하면 국가와 끌리는 그런 도구가 되는건데 저는 그거는 군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문제가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병제가 될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사실 사회에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돈을 못 버는 사람이 패스트 푸드점에서 알바를 하고 돈을 많이 못 버는 것도 정당하지 못한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자본주의는 원래 그런거니까. 자유주의는 원래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자본주의를 되게 싫어하기는 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없어지면 모병제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자본주의가 있는 이상 모병제가 현실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민수 : 결국은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되는건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나은지 저는 잘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들보다 나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돈을, 국가가. 국가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거니까. 국민이 최하층에게 돈을 주고 너희 몸을 바쳐서 국가를 지키라는 것이 정당한가? 그게 바로 자본주의의 논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국방의 의무마저 자본주의의 논리로 진행이 되어야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근 : 맞아요. 정확한 지적이시구요. 징병제는 그럼 자본주의의 그런 돈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운지에 대해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모병제의 문제들 다 맞는 말이고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징병제는 근데 거기서 더 자본에 놀아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징병제는 일단 임금이 싸죠. 징병제를 하게 되면 최하계층이든 최고계층이든 일단 2년 동안 사실 저는 노예라고 보거든요. 한 달에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돈

을 받고 일하는거는 노예에 가깝다 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모병제는 사회의 최하계층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돈과 명예 이런 것이라도 주니까. 물론 전쟁의 도구로 그런걸 주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최소한의 복지는 주지만 징병제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돈도 못 벌고 시간도 뺏기는? 그럴바에는 모병제하고 돈 많이 받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모병제에 대한 100% 확신은 없어요. 군대 자체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병제든 징병제든 대체 복무제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군대라는건 똑같기 때문에 결국 군대로써 오는 전쟁으로써오는 그런 문제들은 어떤 제도로 하든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무엇이 좀 더 모두에게 좋은 것일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일지. 그렇게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강]

-민수 : 아까 모병제를 하면 북한과의 경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나요? 그리고 강의자분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징병제가 모병제보다 낫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형근 :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처음거는 뭐 대답 안하셔도 되요.) 그럼 저는 둘다 하고 싶으니까. 저는 일단 징병제가 가장 별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이 대체 복무 그다음 모병제, 제일 좋은게 군대 없어지는거 라고 생각해요. 글썄요. 대체복무제가 포용할 수 있는 폭은 국가마다 제도마다 다른긴 해요. 대만의 사례로는 자원봉사 많이 하면 자원봉사 하게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지원자가 꽉 채워지면 그냥 일반적인 이유로 큰 사유 없이도 대체 복무를 허용하기도 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으로 분단되어 있을 때부터 서독은 대체복무제에 대해 허용하는 폭이 넓고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병역 기피자잖아요.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나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만 대체복무제 해주면 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 욕심으론 대체복무제가 이왕 될거면 포용할 수 있는 폭이 넓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폭이 가장 넓어지는 끝에는 아예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병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간 경쟁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처음 핵..... 처음 핵 만든 나라가 미국인가요? 처음 핵무기 만든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만드니까 그다음 만든 나라가 아마 러시아겠쥬? 그다음 소련이 만들고 그러다보니까 그다음 순서는 모르겠지만 인도, 중국, 북한 등등 유럽에도 많이 있고 그런식으로 핵무기를 막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니까 그건 뭐냐면 미국이 만들었기 때문에 소련입장에서는 미국이 핵 쓸 수도 있으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핵 하나 정도는 있어야 안전하지 않겠냐, 또 중국 이런데는 미국이랑 소련 다 있는데 우리도 하나쯤 있어야겠다. 그것이 군비경쟁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어느 한 쪽에서 반대로 흐름을 타서 낮추는 쪽으로 흐름을 잡는 순간 재정적으로 그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들 군비경쟁을 낮추고 국가 복지에 더 취중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민수 :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징병제가 더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체복무를 허용한 징병제가 대체복무를 허용하다 보니까 그게 모병제와 같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징병제와 모병제는 아예 다른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병제는 아까 얘기 했듯이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나면 국가가 돈을 줘서 용병을 한다 라는 느낌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옳은 건지 국가 사회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돈으로 사서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제를 폭넓게 한 징병제가 되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모병제가 과연 지금 군대가 군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인가? 라는 것에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형근 :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프랑스에 2001년인가 2003년에 워크북에 나와 있지 않나요? 2001년인가 2003년에 모병제가 됐어요. 앞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프랑스가 가장 먼저 징병제 한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2000년도 초반에 들어서 징병제를 없애고 모병제를 도입을 했는데 그 이유는 거기 대체복무제 폭이 되게 넓었거든요? 대부분이 사람이 다 대체복무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

오는거예요. 이렇거면 모병제를 하지 뭐하러 징병제를 하나. 어차피 징병제를 해도 다 군대 안 가는데,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는데 그럴거면 차라리 모병제를 해서 가는 사람들만이라도 좋게 갈 수 있게 하자 이런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근데 다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저도 처음하게 되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성지 : 저는 방금 얘기한거랑 다르게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유지하는 건 군사적인 경계를 지속적으 강화에 나가는 북한을 단순히 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게 아니라 오히려 권력 유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시대 때 처음으로 칠사남북공동선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으로 냉전 체계가 풀어지고 있을 때 그게 일어났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후에 바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발표했고 그리고 박정희는 그 해 10월에 10월 유신을 발표했잖아요.

지금 권력층들은 자신들의 세력에 반하는 소리를 내는 민중들을 종북이다, 빨갱이다 라는 색깔론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대북관계를 이용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군대를 더 이런식으로 굳이 파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형근 : 저도 군대를 징병제를 특히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엄청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큰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구요. 약간 한국에서는 다른 국가랑 분리 된 국가 안에 있는 부서라는 느낌보다는 군대 자체는 국가 위에 있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건들 수 없는 신성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법무부나 환경부나 여성부나 사실 그런거잖아요? 군대도. 근데 그런게 아니라 사회 안에서 범접 할 수 없는 어떠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워 질 수 있겠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한국의 군대를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적으로 이용 될 수 없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제가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군인들 장비 향상과 복지 향상에 측정해 났던 예산들을 그대로 정신교육경연대회 이런 것들로 쓰는 예산 이동을 했는데 정신교육경연대회라 함은 새누리당이 아닌 정당들은 모두 다 종북이고 빨갱이다. 그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즉 문재인이 집권을 하게 되면 전쟁이 난다. 북한과. 전쟁이 나게 되면 너희는 다 죽는다. 너희는 다 예비역이든 제대했든 다 죽게 된다. 이런식으로 겁을 주고 이기면 상을 주고 포상 휴가 주고 집가서 부모님한테 꼭 말씀드려라. 이런 식으로 정치적 행동을 한거죠. 그리고 제가 아는 형은 군대 갔다왔는데 뭐 오마이뉴스가 안 들어가진다 그러고 일베는 들어가지고 알 수 없는 오류로 오마이뉴스는 안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진짜 오류일 수 있는데 사실 좀 깨름칙하죠. 군대라는거 자체가.

-성지 : 저는 군대 자체가 다른 부서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 이유가 저는 국가 안보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사실은 그게 되게 위험한 법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비인간적이고 비인보적인 행동을 했을 때 아무리 군대가 상하명령을 받는 구조라고 할지라도 그거에 불복종한다는 것이 국가 안보법으로 사형을 처할 수 있고, 국가 안보법이 우리나라 법 중에서 되게 특이한 법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제제를 한다는 거는 저는 되게 비슷하게 느꼈던게 독일나치 정권들이 항상 얘기하는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내가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라며 말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잖아요. 근데 그 국가 안보법이라는게 군인들을 그런 식으로 불복종하지 못하고 명령만 수동적으로 받아드리게 하면서 완전 위험한 사상으로까지 끼어들 수 있게 열어두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노무현 정권 때 그걸 패지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마 이명박 정권 오면서 패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형근 : 네 그렇죠. 사실 저는 모병제를 주장한지 며칠 못됐지만 제가 생각하는 모병제의 이점은 사실 모병제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병처럼 되고 어쩌면 군대자체가 사회의 기업까지는 그렇고 분리되는 그런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신입사원이 되는 거예요. 신입 군인이. 신입사원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 그렇게 갈구거나 선배이지 징병제로 오는 그런 똑같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군대 민주화에서도 모병제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징병제를 쪽 이어오다가 러시아는 가혹행위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가혹행위 때문에 모병제로 바꾸게 됐다는 얘기도 들어서 모병제가 그런 이점도 있는 거 같아요.

-석원 :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징병제나 모병제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사실 아까 민수가 말했던 것처럼 모병제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단점도 많고 오류도 많고 문제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모병제가 그나마 징병제보다 낫다고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걸 다 빼놓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징병제로 이루어져있는 군대가 내부 폭력도 폭력이지만 구조적으로 되게 개인에게 뭐라 해야되지? 그 군인이 군대 가서 받는 월급을 가지고 국가에서 보상을 해줬다 안해줬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싶은 건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대 가면 10만원 30만원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봤는데 이제는 군대에서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돌리고 거기다 쓰는 치약, 속옷, 비누 그런 생필품을 전부다 돈을 내고 사야한대요. 심지어 세탁기 돌리는 것도 돈을 내고 써야한대요. 저는 솔직히 한 달에 10만원주면서 그런 정도까지는 너무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아까 강의하신 내용 중에 징병제에서 그런 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방비 예산을 늘리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에는 반대를 하는게 사실 저희 나라는 이미 국방비 예산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 같고 국방비 예산에 쓰일 돈을 차라리 저는 복지나 교육이나 그런 다른 것들을 개선하는데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군 장교 같은 그런 쪽의 임을 낮춰서 하는 방식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형근 : 예 저도 국방비 예산 늘리는 거 어렸을 때부터 안된다고 미국이 국방비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 아빠한테 맨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국방비 예산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난데 제가 말씀드린 국방비 예산을 늘리자 라는 건 무기 살 돈이나 미국에서 ?기 아세요? 레이더를 다 피해가서 엄청난 이익을 내는 그 ?기가 몇 조 되거든요? 한 대에 5조인가 3조인가 그런데 저는 그런거 사지 말고 모병제 징병제 떠나서 병사들 인권이나 그런 걸 향상 시키는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국방비 예산에서 병사들의 인건비가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국방부 너네가 정 못줄이겠다면 차라리 국방비 예산을 늘려가지고 대신 늘린 만큼 다 병사 인건비에 넣어라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발표 했던건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민수 : 그 군대의 가혹행위나 그런 문제들이 징병제로 인한 문제인지 정권에 인한 문화적인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가혹 행위나 그런 문제들이 징병제가 원인인지? 그렇게 보시는지?

-형근 : 사실 제가 여기서 군대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세요. 병역 거부 운동이랑 다른 의미인데 저는 그게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군대라는 조직 자체에서는 아까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적은 죽어야 되는게 정당하고 적을 죽어야만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명령과 빠른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민주화 될 수 있기는 한건가? 모르겠어요. 모병제를 하면 조금 나아질 것 같다는게 제 생각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러시아에서 모병제 됐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요. 근데 징병제 때문에 가혹행위가 많이 생기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병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나요?

-준상 : 징병제 때문에 그래도 가혹행위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모병제는 자기가 있을 자유라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회사도 퇴사 자유가 있듯이 모병제로 바뀌면 군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거 맞나요?

-형근 : 자유롭게 나갈 수 있죠!

-준상 : 자유롭게 나갈 수 있으니까 서로 눈치도 볼 것이고 가혹행위는 줄어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형근 : 제 생각에도 약간 월급도 적게 받고 그러잖아요. 인간 취급을 못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모병제가 되면 최소한의 인간취급은 받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사람으로 보게 되면 사람으로써 할 수 없는 가혹행위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군대 안에서 가해자의 심리는 군대안에서 있는 당했던 것이거나 월급이 적거나 곧 나갈 사회에 대한 불안 같은 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되어서 가해지는 것 같은데 모병제가 되면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석원 : 그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징병제는 다 군대 와야하는 거잖아요. 다 와야하는거고 징병제 해서 다 왔는데 사실 사회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폭력을 행하지 않는 가치관들이 군대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직급으로만 연결이 되고 사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군대 가면 서럽다고 자기보다 어린 애들

한테 맞고 그래서 서럽다고. 만약 모병제가 됐을 때에는 아예 해결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병제가 되면 어느 정도 직장의 개념이 있잖아요. 다른 직업과 직장의 개념이 생기는 거라서 군대지만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같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정도로 심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사실 군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민수 : 모병제 하면 직장화가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 그냥 민영화를 시키면 안되나요? 군대를 기업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과 모병제는 무엇이 다른지

-준상 : 개인에게 군대가 들어가면 자본주의 형태에서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체계로관리하고 아예 큰 힘이 관리를 해야지 개인에게 너무 권력을 쥐어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김준상 : 엄청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ROTC라고 장교와 ?를 따로 나누잖아요.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하려면 이게 없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누가 쫓로 살고 싶겠어요. 평생. 이왕이면 장군 별까지 달고 살고 싶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제가 평소에 생각이 있거든요. 모병제가 되려면 ROTC 육군 사관학교를 다 없애야 된다. 그런 생각이.

-형근 : 그게 있어요. 일본이나 몇몇 나라들이 세계대전 할 때 장교가 전체비율에 반이 넘나 그래서 장교정예부대 이래가지고 다 별은 모르겠는데 장교들이 되게 많아서 장교 쯤 되면 총도 잘 쏘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효율적이고 되게 센 부대다. 특수 정예 군대다 이렇게 밀고 가는 나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나라에서는 모르겠어요. 만약 폭주 하지 않을까요? 사관학교에 가려는 지원자가

-김준상 : 실제로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교가 너무 많아서 라고 들었거든요. 비율이 더 높아져서 징병제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장교가 더 많아진다고 명퇴도 없으니까

형근 : 글썄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훈 : 이 얘기에 추가해서 얘기하면 징병제가 없어지면 지금도 잉여 장교, 잉여 장군들이 넘친다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징병제가 없어지면 사병의 수가 줄고 사병의 수가 줄면 장교도 줄어야하고 장군들도 줄어야하고 근데 장교들과 장군들은 밥줄인거잖아요. 쉽게 말해서는 장교나 장군들에게는 징병제가 없어진다는건 자신의 직장이 없어진다는 거와 직결 된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징병제를 없앨 수 없는 이유도 있는 것 같기는해요.

-형근 : 새로운 거 같기는 해요. 저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지금 63만인데 그 중에 병사들은 43만인가 46만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병제가 되면 일단 60만 군대로 모병제를 하는 거는 진짜 무리라고 생각하고 일단 30만으로 줄였다 치고 그러면 병사의 수는 20만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요. 그렇게 되면 병사만 따로 대우를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ROTC나 그런 장교들이 확률이 되게 낮아진다가나, 장교로 많이 입대하는 것을 막지 않을까요? 어찌되었건 그런 것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징병제 모병제와 관련 없이 그런 잉여 자원들은 사실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진한 : 육사, ROTC같은 문제는 아예 군대랑 합쳐진다면 그런게 적어지지 않을까요? 군대가 모병제가 되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기업의 승진 시스템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게 ROTC 같은 경우에는 ?랑 비슷하게 병사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걸로 하고 육사 같은 경우에는 군대의 병사로 시작해서 좀 더 높은 직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나 필요할까 이런 교육을 받아라 이런식으로 군대와 합쳐진다면 모병제의 이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인욱 : 사실 장교가 많아서 병사를 줄이면 안 된다는 말은 어떤 모순인데 그 모순이 이게 똑바르게 고치려면 모순이 생기는데 그 모순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고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교가 되는게 쉽다는 거일 수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그 장교들이 원래 장교들은 직접전투에 참여를 잘 안하잖아요? 위에서 그냥 책상에 앉아있지. 근데 만약 모병제가 된다면 장교가 되는건 훨씬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그러면 직접전투에 참여하는 인원이 모병제를 통해서 적게 선발되면 그 인원들이 육사에 들어간 인원만큼이나 적어지거나 아니면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훨씬 전투력이나 그런 것에서 ? 될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교가 많아서 징병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장교 수를 줄이는 게 맞는 얘기지 잉여 자원이나 그런 것도? 그리고 아까 형이 말한 것처럼 아예 장교부대로 밀고 나간다가나 그런 식으로 원

래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있는 사람보다 전투력이 뛰어나야하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성훈 : 장교가 많아서 징병제가 유지 되어야 한다는 그런게 아니라 장교가 많기 때문에 징병제 패지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소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징병제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해서 모병제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군대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고 되게 이상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형근 : 장교문제는 줄여나가야되는게 맞다 생각하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아까 말했던 문제들도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장교부대는 그게 재정적으로 되게 힘들고 가성비도 떨어지고 이래서 많이 진 걸로 알고 있어서 장교부대 아마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그랬거든요. 근데 다 장교들이 되면 그 안에서도 낮은 장교들이 있고 그럼 병사처럼 되지 않나?

-진한 :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병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전투방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병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형근 : 네. 지금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지금 전쟁이 날 경우에 가이드북이 있대요. 그때 3분에 1인가 반절인가 휴전선으로 집합을 하고 지금 실제로 대부분의 병사들이 휴전선 인근에 다 배치되어 있죠. 최전방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쟁이 터지면 몸으로 막는 거예요. 그리고 순신률이 70%. 장교들이 체감 순신률이 70%라 하는데 순신률이라고 하는 거는 죽거나 아니면 중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군대 안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 아주 오래 된 50년, 60년 전에 전략인데 그것이 없어져야하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면 징병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징병제를 하는 것이 저는 안보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알고 있을거예요. 장교들도 아무리 할배들이어도.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징병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거는 아까 성지가 말했던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빌미, 핑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진한 : 그러면 지금 징병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미 퇴색되고 변질 되었다는거네요?

-형근 :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저도 잘 모르니까 책 몇 권 읽은거가지고 확정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정황상 볼 때 퇴색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한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형근 : 군대 가기 싫어서 이러는거 아니구요. 오해하시면 안돼요.

-준학 : 징병제, 모병제 되게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군대가 그렇게 안 좋은 곳인가..... 되게 다녀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묻고 싶어요.

-형근 : 저도 안 가봐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군필자의 심리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짜 군대가 잘 맞았거나 군번 제대로 풀려서 선임, 후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죠. 군대도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솔직히 별로였는데 갔다 왔는데 별로였다 이러면 아까 말했건 남자로써 가오가 안 살잖아요. 찌질해보이고 찡찡대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2년 동안 다녀왔는데 좋게 생각하고 싶잖아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괜찮았어 이러면서 병장 때만 떠올리면서 편안 순간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사람이 편한 순간을 기억하게 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4년을 했는데 1,2학년 때는 괴로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기숙사. 약간 그런 심리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갔다 와서 찡찡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민수 :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군대에만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북한 때문에 있는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국민이 지킨다는 개념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모병제가 걸리는게 뭐냐면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국방의 의무를 약자들, 소수에게만 지우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걸려요. 모병제를 얘기 할 때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게 큰 것 같아요.

-형근 : 미국에서는 징병제 재도입이 진지하게 나오고 있는 추세이고 사실 맞는 말이에요. 진짜로 모병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쩌면 또 하나의 선택의 여지? 또 하

나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지만 모병제가 되면 그 취약계층에게 또 하나의 길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나 전쟁터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무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성훈 : 징병제도 아까 보면 평등이나 민주주의 프랑스 사례 있었잖아요. 보면 피해 평등이라고 그런 사례도 워 크북에 나와 있는데 징병제도 평등을 위장한거죠. 돈이 많은 적든 가야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재미있는 얘기 들이 있잖아요. 현역을 가면 평범한 직장인의 아들이고 공익을 가면 정치인, 기업인의 아들이고 면제를 받으면 신의 아들이다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결국은 현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군 비리, 병역에 대한 논란 을 항상 가지고 있고 아니라고는 하지만 대기업의 자식들은 대부분 공익을 가거나 면제를 받았고 이런 실제 사 례들이 있잖아요. 보면 징병제도 결국은 가진 사람들은 피할 수 있는 허점들은 일부러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는 징병제는 모병제는 취약계층은 그 런 점에 있어서 항상 취약 할 수밖에 없는거죠. 결국은 자본주의의 문제이니까

-민수 : 근데 저는 모병제가 그걸 좀 더 극대화 시킨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예 그냥 돈 없으면 이거라도 해 라 라는 느낌이 계속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돈을 받고 사람을 쏜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걸 돈을 받고 사람을 쏜다는게 정당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대체복무제가 폭 넓게 허용 된 징병제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걸 돈을 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서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데 정당한가? 올바른가? 그리고 윗사람들의 병역 기피가 과연 징병제의 문제인지 대체복무 제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문제인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구요. 징병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 은 생각이 듭니다.

-수자T : 저는 질의응답 다음에 토론 주제가 뭔지 알아서 토론까지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질문인데요. 국방의 의무가 모든 국민이 해당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일정 연령대 남성에게는 징병, 누구나 가야되니 까 국방의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모병제잖아요? 일정 분야에 대해서는 모집을 하잖 아요. 그게 법리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하는데 문구 자체가 남성에 한해 서 라고 되어있지는 않잖아요.

-형근 : 그렇죠. 모든 국민으로 되어있어요.

-성지 : 언제 한번 나오지 않았어요? 왜 여자는 군대를 가지 않는가에 대해서 판례가 있는데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형근 : 제가 그걸 봤는데 판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안됐을 거예요. 잘렸고 되었으면 지금 다 가있겠죠. 잘 렸는데 문제는 대구의 남성 단체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되게 혼란이 왔었어요.

-수자T : 저도 여성도 군대를 가야하나 말아야하나 토론으로 가고 싶지는 않구요. 헌법 문구상에 있는 거에 대 해서 법리상으로는 그 모든 국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건지 이룰테면 여성들이 후방 이라고 할 수 있는 각자 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상을 잘 지키는 것조차도 국방의 일조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해석이 되는 건지. 단순히 질문인거예요.

-형근 : 그거를 처음 만든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입장을 물어보시는 거죠?

수자 : 공부 하셨으니까 뭐 생각해보시거나 알아보신 게 있나.....

-형근 : 그거는 아마 약간 가부장적인 생각에서 헌법 만들 때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아요. 그래서 여성들 도 사회서 일을 하거나 내조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여성스럽게 여성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지고 남성은 남 자답게 남성답게 총을 드는 것. 그런 뜻에서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라고는 하지만 남성만 가는게 아닐까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문장이 이상하구나 생각이 되기는 하네요.

-성지 : 저도 제가 알기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여권신장이 이루어 졌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2차 세계대전에서 여성들이 전쟁에 후방에서 지키는 여군으로써 전쟁에 참여하는 전쟁에 참여한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이 여성들이 그런 전쟁에 도움이 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적 권리가 인정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어디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 도 사실은 여성도 국방의 의무 하는 것을 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꼭 군대를 가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야한다는 거는 의문이 들어요. 그니까 남자도 군대가 가기 싫을 수 있고 여자도 가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남자도 가니까 여자도 가야한다? 그래서 저도 모병제를 옹호하는 이유가 남자, 여자가 똑같은 선택지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방의 의무를. 군대 가는 건 의무가 아니지만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대체복무가 그런 거고.

-인옥 : 아까 장교가 많은 게 국방비 예산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라고 하셨잖아요. 국방비 예산에서 장교에 지출하는 게 많아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장교들이 계급이 높아지거나 그럴수록 무조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밑에 몇 명이 있어야 계급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소령이면 밑에 몇 명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장군들의 숫자가 적다고 들었는데 이게 장교가 정해진 은퇴시기가 없다고 했잖아요. 잘리지 않으니까 계속 장교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건지.

-형근 : 장군 숫자에 대해서 명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일단 명예퇴직은 있을 것 같은데.

-성훈 : 딱히 명예퇴직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재대, 전역 이라고..... 그니까 명퇴라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 사직도 명퇴고 자기가 사직서 써도 명퇴긴한데 정년 안 채우고 나가면 다 명예퇴직인데 군인은 전역이라고 하지 않나요?

-형근 : 근데 그 표현은 딱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암튼 저는 장교와 부사관의 인건비를 줄이자 이것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별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가장 나올거라고 생각하지만 웬만하면 안 줄이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22%를 차지하는데 그 정도는 차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문제는 그에 비해서 징병 된 병사들의 인건비가 너무 작아서 그렇지 사실 부사관 인건비, 부사관 연봉 조금씩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동시에 병사들 인건비도 올라가야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장교나 부사관 잡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혹시 이 중에 부모님이 장관이시거나 이러면.....

-성훈 : 예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군 복지 예산 중에 사병한테 들어가는 부분이 5%, 나머지 95%가 장군들한테 쓰인대요. 골프장 짓고, 품위 유지비 이런 걸로. 사실 그런 것들만 줄여도 사병들 월급 충분히 올릴 수 있잖아요. 국방비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국방비 자체의 분배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군들 월급은 높일 수야 있겠지만 그 사람들 품위 유지비 없애고 하면 징병제로 인해서 생기는 국비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식으로 쓸데없이 지출되는 비용들이 되게 많다고.

-형근 : 네 그래서 군납비리 이런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엉뚱한 곳에서 새고 있는.

-준상 : 질문인데 아까 모병제가 국가가 돈으로 용병을 쓴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치면 지금 징병제도 월급을 주고 있잖아요.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그럼 이미 국가가 10만원을 주고 용병을 구입한 것 아닌가요? 의무면 아예 돈을 안 줘야 하는 거지 이미 적은 돈을 주고 있는데 무슨 차이인지 헷갈리기 시작해서.

-형근 : 저는 노예 고용과 용병 고용의 차이로 보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징병제는 노예를 고용하는 것이고 모병제는 용병을 고용하는 것이다. 즉 군대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잘못된 목적으로 고용을 하는 조직인데 고용을 하는 체계는 군대가 있는 한 사라질 수 없다. 그렇지만 노예로써 일하는 것보다 용병으로써 일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예요.

-별 : 저는 오늘 교육이랑 군대가 국가가 우리에게 강제하는 것들 이라는 키워드로 묶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선거도 치르고 학생들이 꼭 반영 되는 것일 아니더라도 이게 훗날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군대는 안보라는 명목하에 모든 제의하던지 토론의 장들이 많이 차단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궁금한데 모병제와 같이 체제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는 것이 공론의 장에서 얘기 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형근이의 경우에는 군대 가기 싫다는 생각이 왜 당연하지 않은 것인가 그 다음에 대안에 대해서 모병제에 대해서 내놨는데 현실에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싶은지 듣고 싶어요.

-형근 : 전문가랑 비전문가의 차이가 뭘까요? 국가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여야지만 설득력이 있거든요. 이미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군대라는 것 자체는 함부로 얘기 할 수 있는 거라고 박혀있는 것 같아

요. 어쨌든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고 저 같은 일개 19살짜리가 공론화 시키는 건 쉽지 않죠.

-별 : 예를 들어 학교랑 비교를 해봤을 때 학교는 교육감 선거 같이 정책이 반영되었을 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군대 국방부 장관 우리가 선거를 통해 뽑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군인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군대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건 군대에서 찍히는 행동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민간 차원에서 제시하는 거 말고 국민의 의견이 수렴 될 수 있는 제도 자체에 대한 게 이루어진 적은 있는지.

-형근 : 헌법소원이 그나마 법적으로 접근을 하는거여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병역 기피자인데 병역 기피자랑 병역 거부자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도 우리는 국가의 노예가 되기 싫다. 그러니까 대체복무까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소원을 걸어도 아무 것도 안돼고 있죠.

-소운 : 내부 고발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형근이가 군에 가요. 군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선동을 하는 거죠. 내부 고발자가 되게 필요한데 그만큼 우리가 힘을 실어 줘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근이가 가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형근 : 실제로 그런 분이 계세요. 문제의식을 느끼고 군대에 가서 소운이가 말한 그런 분들이 있고 군대 갔더니 진짜 아니다 싫어서 병역 거부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최대한 기피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군대도 안 가고 감옥도 안 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욕을 덜 먹을 수 있을지. 이거 세가지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 중인데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소운 :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대를 가고 싶어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걸 공론화 하지는 못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자답지 못한 것, 찌질 한 것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걸 아는 사람들이 가서 얘기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형근 : 예 그런 생각 하시구요.

-석원 :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병역기피자와 거부자의 차이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군대를 가기 싫은 것은 둘 다 똑같은데, 그렇게 자기가 군대를 가기 싫은 이유와 함께 군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군대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차이. 뭔가 이걸 바꿔보려는 노력 없이, 그냥 솔직히 회피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거기에 맞서는 데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는 확실히 병역기피자와 거부자가 나눠지는데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근 :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병역기피와 회피는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저는 약간 의아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군대가 회피하고 싶은 곳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여자 분들도 알고 계시겠죠. 군대를 회피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MC몽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MC몽한테 아쉬운 건 딱 하나예요. MC몽도 그냥 저같이 군대 가기 싫은 건 똑같았을 텐데, MC몽같은 사람이 숨기지 말고 공연 때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 솔직하게 말했으면, 사실 사회를 움직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운한 건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느 날 MC몽 신보가 나오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룸메이트랑 MC몽 욕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너는 왜 병역거부에 대해선 동의하면서 왜 MC몽같은 사람을 욕하느냐. 군대 안 가려는 것은 똑같은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 그런가?”하면서도 “MC몽은 비겁하잖아”라고 말을 했는데, 그 비겁하다는 것이 결국 강제로 우릴 군대에 징집하는 것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가가 자행할 수 있는 가장 비겁한 폭력이 징병제이지 않을까.”

[토론]

형근 : 질의응답 더 이상 없으시면 이제 토론거리로 넘어가 볼게요.

“모병제가 유일한 해답일까?” 저도 모병제가 유일한 해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군대가 사라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확신이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어

떠한지 듣고 싶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가자1 : 군대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는 걸 말씀하신 거죠?

-형근 : 한국만 없을 수도 있고, 남한만 없을 수도 있고, 전 세계가 없을 수도 있겠죠.

-준상 : 저는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군대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상상해보더라도 위의 권력이 너무 커질 것 같거든요. 이건 또 이것대로 싫고, 그렇다고 군대 가는 것도 싫지만 차라리 지금처럼 여러 나라들이 함께 하면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지금이 제일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형근 : 그럼 세계평화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 : (박장대소)

-형근 : 저는 군대가 없는 나라들이 하나씩 늘어날 경우엔 세계평화가 쉽게 찾아올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참가자2 : 세계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형근 : 저는 사실 국경을 가르는 것에 군사적 이유가 없다면 필요 없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민 : 우리나라에 안보가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어느 선까지 필요할까요.

-참가자3 : 저는 한 국가가 존재한다면 그 국가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국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석원 : 전 세계에 군대가 모두 없어지고 평화로운 상황이 온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들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힘들 것이라는 것도 다들 알고 있을 테고, 제가 군대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외세로부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옥 : 사실 우리사회가 논리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라면 군대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살인이 일어나는 논리가 통하지 사회에 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군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가싶어요.

-석원 : 그래서 세계적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UN이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전쟁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UN이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기보다는 선진국에 정당성을 만들어주는 기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화는 더욱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게 아닐까싶어요.

-참가자4 : 저도 공감하는 것이 UN도 사실 UN평화유지군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옥 : 전쟁이 합법이 될 수 있나요?

-참가자5 : 선전포고를 했을 때는 합법적인 전쟁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기습공격을 했을 경우엔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인옥 : 저는 전쟁이 합법화될 수 있는 것조차 이상하다고 생각돼요. 전쟁이 합법화되어있으니까 군대 또한 존재하는 것 같고.

-준상 : 그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합법적인 전쟁인가요?

-형근 : 전쟁의 당위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들을 하고 있죠. 저도 정당한 전쟁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성지 : 제가 주말에 논술 시험을 보고 왔는데, 그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와 있었어요. 전쟁이란 건 국가 간에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팔레스타인은 국가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무력투쟁이라고 명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비인도적이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의 보복이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을까요?

-석원 : 정당방위라는 것도 굉장히 애매하고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일 수 있는지도 의견이 분분할 텐데, 저는 사실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당방위의 개념으로 많이 와 닿았어요.

-형근 : 마지막으로 짧게 “여성도 군대를 가는 것이 평등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진한 : 여성도 군대를 간다고 평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여성처럼 군대를 가는 것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인옥 : 남자가 군대 가니까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 약간 못된 심보 같고, 평등하게 만든다면 둘 다 강제가 아니라 둘 다 선택을 하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형근 : 군대에 총 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무 업무도 있을 것이고, 회계 같은 일에도 사실 남성이나 여성에 차이가 없을 텐데 왜 여성은 군대에 가지 않을까요.

-석원 :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군복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이걸 그냥 군대를 가느냐, 총을 드느냐의 개념으로만 국가에서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형근 : 그렇다면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남자들 : 별로 좋지도 않을 것 같은데(웃음).

-여자들 : 뭐 어쩔 수 없는 거지(웃음).

-형근 : 더 하고 싶으신 말 없으시면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여성 징병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이 말씀하시길 여성도 징병되어 군대에 가는 건 맞는데, 여성은 전방이 아닌 후방에서 비 전투복무만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남성들의 자존심문제라고도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명분인거죠. 이렇듯 여성이 군대에 간다고 해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부족한 캠프 진행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

하루나누기

-별 : 오늘 하루는 토론이 많았는데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서 교육에 대해 이야기한게 좋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아쉬웠고 토론을 오후까지 이어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았다.

-진 : 오늘 밖에 접수하느라 오전중반에 들어와서 초반에는 집중을 못했는데 토론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좋았고, 오후강의는 실은 진짜 조금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해를 못 한 부분도 있고 서기하느라 집중하지 못해서 좀 아쉬워요.

-소아 : 강의를 파악할만한 자료가 없는데 아주 많이 아쉬웠고, 이야기 하고픈건 많았는데 이야기를 할 틈을 찾을 못한게 아쉬웠고, 오후는 강의가 좀 벅찼어요. 아는 배경지식도 별로 없고 잘 모르는 이야기라서 집중을 해보려고는 했는데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준상 : 오늘 두개다 강의는 재밌었는데 마지막에 영화보는거가 좀. 강당에 모기가 많아서 밖에서 있었는데 영화를 못본건 아쉬웠지만 재밌었어요.

-건산 : 두 주제다 공감되고 와 닿는 주제라 재밌게 들었던 것 같고 영화도 좋았어요.

-인옥 : 영화 보다가 울 뻔 했고, 아마 집에서 봤으면 평평 울었을 것 같아요. 영화 보면서 진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반학교 다니다가 대안학교 다니면서 처음 왔을 때 받는 느낌이랑 비슷했어요. 일탈 같은 느낌이랑 비슷했고 하루동안 생각한 시간 중에 영화볼 때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토론도 재밌었어요.

-현선 : 새로운 것을 한번에 많이 넣으려고 했던 것이 벅찬 감이 있었지만 나름의 의미를 찾자면 처음은 어렵지만 반복해서 듣다보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낯설었지만 내 것이 되는 시작인 것 같아서 의미 있었어요.

-민수 : 오전에 교육은 강의는 했는데 대안을 나눠보거나 나름의 대안을 가져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고 군대도 생각해보고 토론했던 주제긴 했는데 제 생각이 아닌 다른 이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던 게 새로웠어요. 저녁영화는 중간에 잤지만 마지막까지 봐서 좋았어요.

-연진 : 두 친구가 강연을 정말 열심히 준비한게 느껴져서 좋았고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며 이런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눴었는데 이번에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나와서 사고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어준 듯 해요.

-도운 :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따라 너무 피곤해서 집중을 못한 게 미안하고 교육 같은 건 워크북에 이야기가 담겼으면 좋았을 거 같아서 많이 아쉽네요. 긴 시간동안 영상과 사진을 찍느라 놓친 부분을 따라잡기가 어려웠어요. 다양한 환경의 친구들이 모여서 토론 하는게 좋았고, 확실히 군대 같은 경우에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생소한 주제였지만 이야기가 나름 많이 나온듯 해서 좋았습니다.

-소운 : 별이랑 마찬가지로 집중이 흐려진게 아쉽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캠프의 의도가 잘 드러난듯 해요. 일반학교, 대안학교 친구들과 교육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촉박했던게 아쉬웠고 군대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해준 말들처럼 공감도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다른 친구들이 가진 다양한 시선을 들을 수 있어 좋았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유진 :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제가 실제로 인문계 학교를 다니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어 좋았어요. 군대이야기는 이번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현 : 오늘 맨 처음에 교육은 재밌었는데 군대가 거리감 있는 이야기라 집중을 못하고 졸았어요...

-산 : 앞뒤주제 너무 좋았고 확실히 강의가 연결 되는 것이 있어서 흐름을 놓치면 따라가기가 힘든 점이 있었어요. 집중을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나조차 힘들었고. 군대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놓쳐서 이야기에 참여하지 못한게 아쉽네요. 좋은 강의 감사하고 영화선택이 좋아요.

-준상 : 오늘 오후에 군대 이야기할 때 약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듣는 내내 군대는 저에게 약간 공포감으로 다가오고 몇년 남지 않아서 더욱 그랬는데, 들으며 재밌었어요. 사실들도 알게 되고.

-지민 : 저 같은 경우는 대안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좋았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어 좋았어요. 군대는 남자기 때문에 적용되지만 회피하고 싶었는데 그런 문제를 새롭게 짚어주니까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약간 아쉬웠던 점은 질의응답과 토론을 구분하던데 그 두 내용이 연결된다면 질의응답에서 자연스럽게 토론과 연결되도록 유도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어요.

-준학 : 일단 군대에 관련된 이야기는 형근이형의 생각을 들어보고 경험이 될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심각하게 생각 안했는데, 조금 생각해 볼 문제로 다가왔고, 교육은 말은 안했지만 가장 기대했던 주제였어요. 스스로 들었던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야기 할 타이밍을 못 잡아서 발언을 못했지만 글을 적어보았다. 조금 뜬금없고 길지만 한번 들어주세요.(두리번 두리번, 다들 함박웃음)

-저는 교육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왜 할까하는 고민에서 대안학교를 갔고, 여전히 교육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다 이야기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희 학교는 인가를 받은 학교라 일반교육의 틀 안에서 교과과정을 재편하는 과정을 아는데, 제가 느끼기엔 이겨내고 견뎌내는 느낌이에요. 질문을 하기엔 차라리 도서관에서 책을 내내 읽는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수동적이지만 한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는 이겨내면 된다고만 이야기하니까. 선배들은 어떻게 삶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대학진학과 사회의 틀에 대한 두려움을 깨는지도 궁금했고 제천간디학교 선배들은 비인가 학교인데 사회에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일반학교에서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이하 생략)(이후 마지막 날인 내일 진로파트에서는 말을 제때에, 많이 할 것을 다짐함)

-나린 : 저는 예비캠프 때 사회파트를 맡은 두 친구가 제일 재밌었던 터라 기대를 많이 하던 친구들인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교육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생각할 거리들을 얻어서 좋았고, 군대시간에는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구나 신기했고. 어제 늦게 잔 바람에 집중을 못하게 아쉽네요. 질의응답과 토론이 함께 이뤄지는 것 같아서 길어지는 동안 집중을 못해서 아쉽네요.

-성지 : 교육주제는 전략을 잘 짰어요.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똑똑이.(다들웃음) 두 번째 주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게 많이 느껴져서 멋있었어요. 오늘도 제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스스로 맘에 안 들었구요. 저는 좀 토론할 때 이야기도 듣고 제가 이야기도 하긴하지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었는데 발언할 때 의지도 있지만 어색한 분위기가 싫어서 말하는 듯 한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어요.

-수자T : 오늘 주제 제목은 국가권력이 어울렸구나 생각했고, 저도 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권리와 의무가 헷갈리는 시기가 나와요. 저 또한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대한민국사회의 영향도 있지만, 권리와 자유와 선택인 것과 의무와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을 선택하는 자유와 선택의 권리가 있어야하는데 의무로 있어서 불편한 것 같아요. 사회에서도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겐 결혼이 그랬는데, 법으로 지정되어 있진 않지만 의무처럼, 인간도리처럼 되어 있는거죠. 대학도 그렇죠. 거부든 판단해서 진학하든 이러한 갈림길에 계속 서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요.

-성훈 : 학교교육과 군대 둘 다 우리가 겪고 있고 겪게 될 문제라 삶과 맞닿아있는 문제라 평소 생각했었는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생각에 새롭게 추가해주는 부분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교육에서 대안학교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안학교에 대한 회의감을 나만 느낀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군대는 형근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게 느껴졌어요.

-영서 : 아쉬운 점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고, 생각보다 강의는 말을 좀 버벅 거렸지만 잘되었던 것 같고 토론 또한 그랬어요. 토론주제를 많이 가져왔는데 내가 가져온 주제가 일반, 대안학교 학생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각자의 이야기가 나올거 라는 걸 생각 못했는데 너무 감사했고 시간이 부족했던 게 아쉬웠어요. 영화도 어쩌다보니까 감명 깊게 본 분이 많아서 좋았다.

-형근 : 공부를 많이 한건지 몰랐어요. 허허 상대적인거라 몰랐는데. 사실 인문학캠프가 수업을 진행하고 강의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야기하고 진행하는 분위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여자친구들이, 아 여자사람친구들이 공감하기 쉽지 않은 주제를 택한 게 아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이야기 많이 해줘서 제가 원했던 것과 가까웠고, 영서 교육도 같이 준비하면서 잘 알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강의 듣고 토론하다보니 준비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화도 재밌었어요.

건의

-내일 총평과 뒷풀이 어찌할것인가요?

-준상이 생일 몰카 시작!!! 성지 건의로 문을 열었어요.

헤헤 입시는 개뿔 논술시험도 있긴하지 주말에. 참여를 하면서 재밌고 준비열심히 하는거 느꼈는데 토론에 참여하는 거 자체가 나 스스로한테 안 좋은 생각도 들고 감정이 안 좋으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불안감도 커지고 오늘 집에 간다고.....??? 돈 문제 같은 건 환불 안 받아도 되고 집에 가서 입시 준비할게요!!(빠밤)(반장과 회계가 나가서 얘기 중)(참가자 친구들과 마무리 준비, 느끼던 문제들 토로하기)(심각하게 남아서 주최 측 회의중..... 준상의 반장 자질 문제 지적!! 중간에 형근이 나갈려고 함. 준상이 빠침)(슬슬 무르익어 갈쯤 지현이가 문을 두드리고, 성지와 다른 친구들이 케익 들고 등장)

"꿈꾸고픈 청년들의 홀로서기"

전진 안현선 정나린

20대를 앞둔 우리들이 가지는 불안과 고민을 나누고 청년들이 홀로서기 버거운 사회의 현실과 그 속에서 꿈을 키워나간 사회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우리의 진로와 미래를 고민해본다.

수업 시간표	
오전	<p>독립과 자립은 주체적인 삶을 살기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여전히 독립이 막막하고 두렵다. 청년들이 독립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서의 낯선 감정 때문일까?</p> <p>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청년들이 현 사회에서 홀로서기 힘든 요인들을 당당히 마주하여 알아보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일자리 없는 우리나라 고용시장 / 청년 실업 2.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생긴 강요 된 선택지 / 열정페이 & 비정규직 3. 밑바닥 노동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일까? / 최저임금 & 알바
오후	<p>< 태영철 금산간디학교 교장선생님 > 현 사회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진로의 틀</p>
	<p>< 허경 최계바라 기획사 > 우리들이 마주할 사회와 현실을 앞서 나아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청년(사회 선배)들의 이야기</p>

추천도서 : 십대 밑바닥 노동 <야 너로 불리는 이들의 수상한 노동 세계> / 이수정 외

※ 진로 수업 날의 변동되는 전체일정

진로 수업 일정		
오전 수업		AM 10:00 ~ 12:00
점심		12:00 ~ 1:00
오후수업	강의	PM 1:00 ~ 4:00
	마무리 프로그램	4:30 ~ 5:30
저녁		5:30 ~ 6:30

꿈꾸고픈 청년들의 홀로서기

안현선, 전진, 정나린

1부

청년 일자리 없는 우리나라 고용시장

- 청년 실업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강요된 선택지

- 열정페이&비정규직

밑바닥 노동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일까?

- 아르바이트&최저임금

2부

현 사회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 진로의 틀

- 강의: 태영철 (금산간디학교 교장)

우리들이 마주할 사회와 현실을 앞서 나아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사회 선배들의 이야기

- 강의: 허경 (최계바라 기획사)

부록

- 우리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서

*출발점

우리가 인문학캠프에서 얘기해보고 싶었던 주제, '진로'

'진로'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실현할 미래라고 생각했다.

이 '진로'라는 단어를 딱 보았을 때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가?

앞서 예비인문학캠프를 진행하며 사람들과 '진로'에 대해서 얘기해봤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고민은 바로 '독립과 자립'

'독립과 자립' 즉 홀로 선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지만, 우리의 대화 속에선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들다는 사회를 두려워하면서도 이를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이 '진로'를 생각했을 때 꿈과 가치관보다는 현실적인 얘기에 관심사가 달아있었지만 그 현실적인 문제를 바로 마주하려 하지는 않았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잡은 진로에서의 가장 큰 주제는 "청춘들의 홀로서기"

진정 내가 홀로 선다는 건 결국 나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갈 우리사회의 모습을 바로 알고 마주보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었다.

여기서부터 동기를 삼아 인문학캠프를 준비했고, 먼저 "곧 사회로 나갈 우리들이 마주할, 대한민국 청년들이 살아가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다 같이 마주보고 바로 알자."라는 의미로 청년실업, 열정페이와 비정규직, 최저임금과 알바, 이 다섯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체적인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란 의제를 던지면서 토론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앞서 생각하기에 좀 뜬 구름 잡는 말같이 보일지 몰라도 이 의제를 함께 생각해봤으면 한다.

1부

1강, 청년 일자리 없는 우리나라 고용시장

청년실업

2015년, 올해 대한민국 고용시장의 통계율.

실업자 120만 명, 전체실업률 4.6%,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 주당 17시간미만의 초단기 근로자는 11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런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현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른 올해 2월을 기준으로 실업자는 120만3000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의 통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다. 실업률 역시 지난해 3%대에서 올해 2월 들어 4.6%로 늘었는데,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숫자가 경제활동인구이기 때문에 실업자 증가를 경기 회복의 징조로 본다고도 하지만, 이 많은 실업자들이 취업자로 이동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업자의 숫자만 늘어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상황. 실제로 숨어있는 실업자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월을 기준으로 12.5%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만 보더라도 배로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역시 숫자상 607만 7000명으로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당 1시간에서 17시간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지난해 117만7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선 120만 명까지 늘어났다. 하루에 평균 두세 시간만 일을 하거나, 일주일에 고작 이틀 정도만 일을 하면서 생계가 막막할 정도의 돈을 벌이를 하는 사람들, 불안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인데, 이런 경기 속에서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공식실업률은 11.1%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체감실업률. 체감실업률로 봤을 때의 실업률은 공식실업률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체감실업률은 실업자에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취업가능자, 그리고 잠재구직자를 포함한 수치로 취

업준비자, 입사시험 준비생 같은 사실상의 실업자까지 감안한 수치를 보면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2.9%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청년층 공식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인 것.

이렇게 공식실업률의 통계로선 청년 10명 가운데 1명은 실업자, 체감실업률로 보면 10명 가운데 2명이 실업자라는 통계가 나온다. 이와 같은 모습에 거의 90년대 말 이후에 최고치라 하는 것을 보면 예전 경제위기 때만큼이나 상황이 나쁘다는 건데, 보통 선진국에서도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의 2배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실업률이 4.6%인데 청년실업률은 11.1%로 2배를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통 경제위기가 있는 나라에서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도 2015년 4월을 기준으로 전체실업률이 25.6%, 청년 실업률은 53.2%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실업률이 훨씬 높기는 하지만 그리스도 청년실업률이 2배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지금 당장 경제위기에 닥친 그리스에 선 불리 비교하는 게 아니냐.”고 볼 수도 있으나 우리도 이런 청년실업률의 수치만 가지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 역시 장기적으로 보아서, 구조적으로는 경제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닐까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레 “청년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뭘까?”라는 물음이 생긴다. 물론 이에 대한 이유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합적이겠지만 단순하게 경제흐름에 따른 기업의 상황을 풀어보자면 일단 우리나라 경제 흐름에 따라서 기업사정 역시도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걸 일단 첫 번째 문제로 꼽아보자.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수출이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성장을 하며 기본적으로 우리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에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에 당연히 신규채용규모를 줄일 것이고, 이 신규채용규모가 청년실업률하고 직결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신규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우선 이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한 번 보자면, 이제는 인력이 소요되는 대부분의 일자리를 기계라던가, 정보기술, IT기술 같은 걸로 충당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웬만하면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이 같은 모습을 ‘고용없는성장’이라고 하는데, 선진국 대부분에서도 이런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 역시도 “본격적인 ‘고용없는성장’의 단계로 들어서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단어 중 하나가 ‘고학력인플레이션’이란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는 요즘 사회. 고등학교를 졸업한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대학을 간다고 하는데, 우리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청년들의 경쟁은 계속해서 심화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지금의 노동시장 자체가 대학교를 졸업한 고학력구직자들에게조차도 안정된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청년실업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엔 어떻게 될까. 먼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못하면 고용시장에 점점 고령화가 진행된다. 이럴 경우 사회 역시 전체적으로 활력을 잃고 불안정해진다고 하며, 청년들 역시도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질이 나쁜 일, 예를 들어 일본의 프리터족같이 아르바이트 같은 돈벌이로 연명을 하게 될 텐데, 정말 말 그대로 당장 오늘 먹고 살기위해서 돈벌이를 하게 되면서 저축은 엄두도 못 낼뿐더러 연애, 결혼, 출산까지 쉽지 않은 선택이 된다.

여기에 인간관계랑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다고 해서 5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난 상황. 심지어는 이와 관련해서 청년실업자와 신용불량자를 같이 섞은 신조어로 청년실신이란 단어도 있다고 하는데, 참 블랙코미디같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청년실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하는가. 물론 자신 있게, 획기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이에 관하여 말하는 듣기 좋은 소리는 어디든 널리고 널렸겠지만, 어찌됐든 청년실업은 앞으로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

이고 장기적으로 청년실업이 해소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알고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 같이 알아보자.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도 당연한 소리지만 교육환경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 대학을 진학하곤 졸업 후에 일자리가 없어서 잉여인간, 잉여인력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서부터 개인의 적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텐데, 우리나라에선 부모, 선생, 그리고 학생들까지도 대학에 대한 인식이 살벌하기 때문에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꼭 이렇게 정답을 내놓고 무조건으로 따라가는 교육환경이 계속해서 바뀌어야 한다.

또 요즘 정부가 제 2의 중동 붐을 언급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청년일자리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가. 물론 지금 한국의 상황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겠다고 개인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선 그들 개인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한국 안에서 한국의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권에서 “중동에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은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화가 나고 웃긴 얘기일 것이다. 정부는 분명히 요즘 청년들이 관심가지고 있는 분야를 더 키우고 확대시켜서 해외취업이 아니라 국내취업수요를 늘릴 의무가 있다.

사실 노동정책엔 늘 궁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전혀 안하게 되면 당연히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악용 당하게 되고, 너무 과한 경우에는 사용자들의 일자리수요가 줄게 되면서, 곧 노동시장에 규제가 강해지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비정규직문제가 비정상적으로 커진 상태. 비정규직, 그리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열정페이에 대해선 이어지는 내용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 정부와 기업이 편의상 방관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일단 기업은 쉽고 싸게 인력을 구할 수 있으니까 비정규직을 늘렸고 정부는 고용률이나 실업률 자체에는 도움이 되니까 이를 그냥 내버려두었다.

그러나 이런 임시방편적인 일자리들이 막 생겨나는 것이 실업해결의 해법이 될 수도 없을뿐더러 이 문제를 실업해결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도 꾸준히 봐야할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심지어는 정부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면 취업난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말은 잘 하고 있으나 이 양극화문제만큼이나 중요하게 같이 개선되어야 하는 게 노동시장의 기본질서일 것 같다.

무조건 정규직을 끌어내린다고 해서 해결이 될게 아니라 예를 들어 노동시장이 일주일에 60시간, 70시간이 넘어가면서도 월급은 100만 원대라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에 비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게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노동이 벌어지는 실제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말은 잘 하더라도 정작 청년들의 노동의 질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 “청년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고용의 질을 끌어올리기위해서 노동시장의 법과 원칙, 그리고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에도 초점을 맞춰서 실업해소와 동시에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노동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노력도 앞으로 필요하다.

우리들 역시 졸업을 하고 20살이 되고나면 고스란히 겪게 될 사회문제들이다. 또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처럼 어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와는 또 다를 것 같다.

이제는 이 문제를 좀 더 파고들어서 청년실업이라는 큰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마주할 또 다른 문제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런 불황 속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또는 좋지 않은 일자리에 놓여있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모습들.

2강,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강요된 선택지

-열정페이&비정규직

열정페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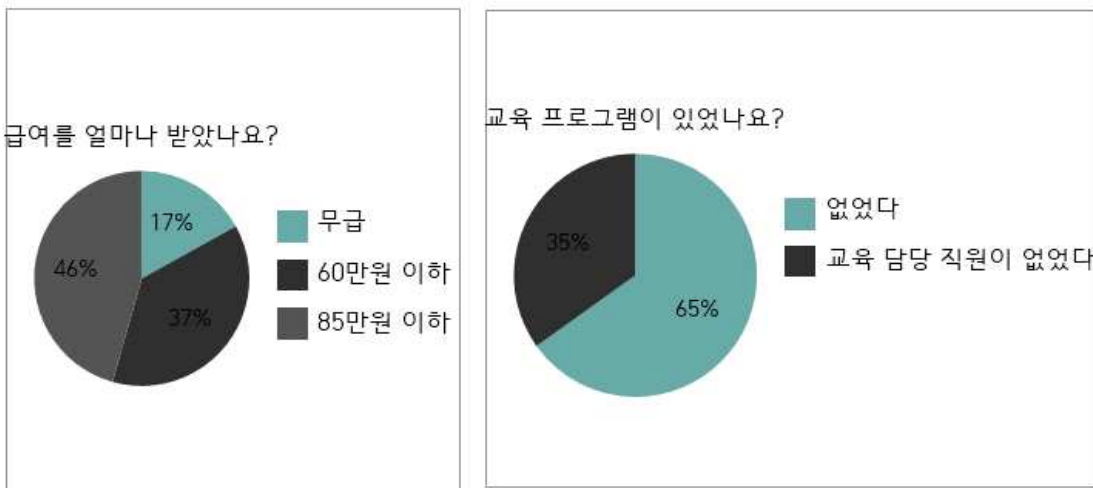
열정(熱情)과 페이(pay)가 결합한 신조어다. '좋아하는 일(열정)'에 대한 경험을 '돈(pay)' 대신 주겠다는 뜻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최근에는 의미가 확대되어 청년층의 저임금 노동 착취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된다.

열정페이 논란의 시작

대중적으로 '열정 페이'란 단어가 쓰인 계기는 이상봉 디자인실 논란 이후다. 이상봉 디자인실이 야근수당을 포함해 견습 10만원, 인턴 30만원, 정직원 110만원의 급여를 준다는 등의 내용이 공개 되었다. 이후에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여러 가지 사례가 언론에 올랐다.

열정페이의 문제점

청년 유니온과 청년허브가 인턴, 실습 경험자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래 그래프의 결과가 나왔고 또 인턴, 실습이 채용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람이 73%였다.



기업들은 청년들에게 일하는 법과 경험을 쌓아준다는 이유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데 인턴을 경험해본 청년들은 모두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없거나 담당자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인턴을 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교육이 아닌 그저 회사 잡무를 하고 있었다. 기업에서 해준다는 교육도 받지 못하고 회사 직원들만큼 일을 하는데 인턴들은 자신의 노동을 인정받지 못하고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왜 청년들은 급여도 주지 않고 취직과 잘 연결되지도 않는 불안한 인턴을 한번이라도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일까?

열정페이가 지속되는 이유

현재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 추세는 산업화와 자동화로 인해 사람이 하던 기존의 일들을 컴퓨터와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했고, 국내에 공장을 건설하던 기업들은 각종 세금 혜택과 저임금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해외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결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의 수는 줄어들고 국내 노동 시장의 구조는 기업에 유리하게 재편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고 교육비용이 적게 드는 경력직과 고스펙자를 골라가는 상황이 되었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학점, 공인영어점수, 여러 자격증 등뿐만 아니라 인턴, 수습 등으로 사회 경력을 쌓는 것이 이젠 필수가 되어버렸다. “이력서에 한 줄을 추가하기 위해”, “정식 채용을 위해”, “교육을 위해” 등 인턴과 수습을 하는 목표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그들이 바라는 최종 목표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이다.

청년들의 약점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요즘 사회가 취직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년들의 열정은 이용당하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돈이 중요해?”, “네가 하고 싶은 일 시켜주는거야”, “경험을 쌓을 기회를 주는거야” 하며 청년들의 노동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받아야 마땅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존중 받아야하는 꿈을 이용당하고 있다. 경험이 곧 스펙이 되고 스펙이 가장 우선인 이 사회에서 청년들의 노동은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이 사회는 청년들의 약점을 잡고 있다. 꿈이라는 약점.

자본주의는 청년들에게 ‘꿈’을 꾸라고 강요하고 그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거의 공짜로 착취한다. 꿈은 자본주의가 청년에 깔아 놓은 가장 잔인한 덫이다.

-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추천사 ‘꿈은 이 시대 청년의 덫이다’ 엄기호

극단적인 피라미드 구조 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각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다가 마치 탄식처럼 ‘열정 노동’이라는 말이 새어나왔다.

이 말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뜻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이 사회가 얼마나 사람들의 열정을 당연하다는 듯이 착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이기도 했다.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수해야한다”는 말이야말로,

사람들의 신음 소리를 틀어막고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었다.

-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여는 글 ‘굴러다니고, 널브러지고, 발에 치이는 것들’ 최태섭

비정규직이란?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따위가 이에 속한다.

비정규직의 증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심각한 실업문제와 고용불안은 노동유연성 강화와 신규고용 억제에 따른 청년실업 확대 등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를 가져왔다. IMF 극복과정에서 도입한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노동자단체 등에서 반대하였지만 1998년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가 합법화되면서 기업이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를 비롯하여 노동시간, 임금에 관한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 강화 등 노동자의 희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크게 증가되었다.

비정규직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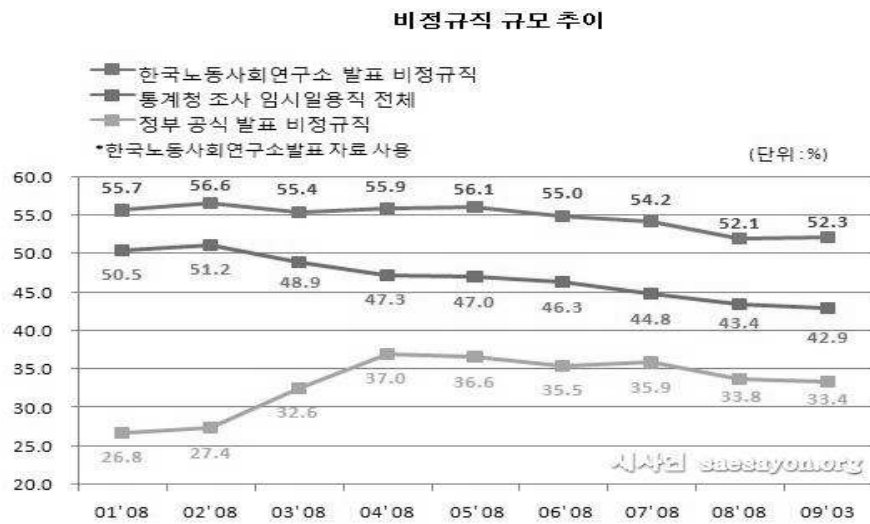
기간제고용 노동자: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이 통계청 통계에서 비정규직이 53%라고 이야기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3개월, 6개월,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할 뿐 실제로는 장기근속하는 경우가 많다.

간접고용 노동자: 파견과 용역, 사내하청, 시설관리, 도급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정부 통계에서조차 그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사회보험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이다. 자본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등을 들이밀며 이들에게 사업자등록을 강요한다.

영세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도 부분적으로 밖에 적용받지 못하고, 임금 수준과 고용조건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 최근 벤처열풍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100만 명 가량 늘었다는 보고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노조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노조연대의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완전보장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점: IMF 이후 비정규직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노동자의 반 이상이 비정규직이지만 이들은 사회에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출근하는 기간도 정해져있는데 불구하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 정규직과 같은 일, 또는 더 힘든 일들을 오래 해도 정규직보다 한참 낮은 임금,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쳐도 개인이 책임져야하는 부당함 등 비정규직은 언제나 불안한 노동을 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도 나오듯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자리가 부족한 이 사회에서 아무런 스펙도 경력도 없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다. 어떠한 부당한 일들 당해도 다시 구하기 힘든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있지만 아무런 효과도 못 내고 있으며 오히려 사용자들의 핑계거리가 되기도 한다. 애매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좀 더 명확하고 더 강화 시킬 필요가 있다.

2015 노동법 개혁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법의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개정안에 반대를 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박근혜 정부 추진안

일반해고 요건 완화 (쉬운 해고)
성과 차등임금제
비정규직 사용 2년 → 4년
파견대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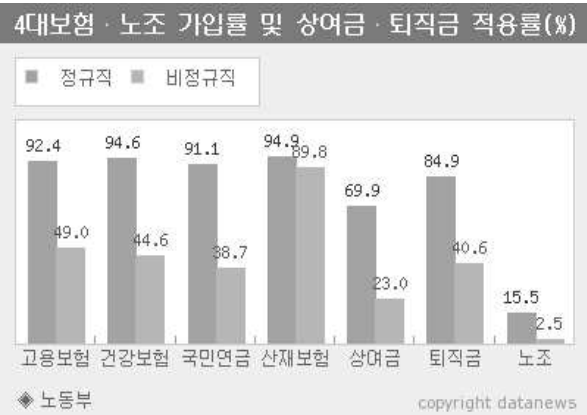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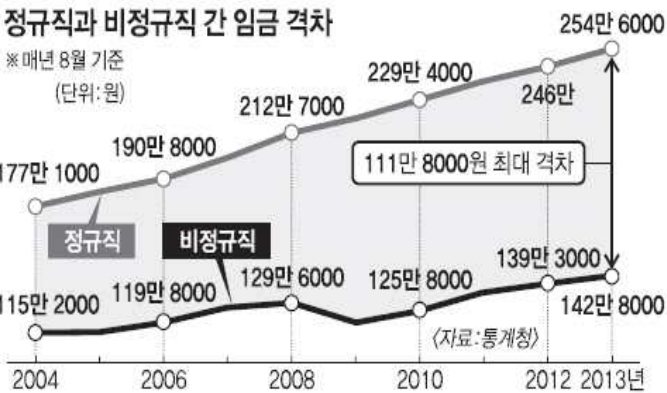
노동자 요구안

해고요건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상시업무 정규직화
파견 노동 근절

그 누가 봐도 정부 측에서 추진하는 안은 노동자의 의견은 단 한 가지도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다. 노동자를 위한 법인데 어째서 노동자의 의견은 듣지도 않는 것일까?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기간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다. 일을 못하면 쉽게 해고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간을 줄여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안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기 좋게 포장한 기업을 위한 안이다. 위 내용이라면 노동법 개혁이 아닌 노동법 개악이다.
 비정규직도 행복한 사회, 노동자들이 불안하지 않게 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정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3강, 밑바닥 노동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일까?

‘밑바닥 노동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일까?’라는 물음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의 사회적 문제를 파고들어가다 보면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진다. 엮히고설켜 문제들은 서로 무관하다는 듯 각각의 문제들로 떠오른다. 그러는 사이 근본적인 문제의 실체는 흐릿해졌고 문제의 근원이 희미해지자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를 문제들만 우리에게 주어졌다.
 청년들이 홀로서기 힘든 요인들 중에서도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노동인 아르바이트와 아르바이트 노동의 대가인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하려 한다.
 아르바이트를 밑바닥 노동이라고 표현했다. 왜 현사회 속 아르바이트를 밑바닥 노동이라고 표현했는지 그리고 그 밑바닥 노동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 문제의 근원 즉 시작은 어디인지에 대해 생각하며 들어주길 바란다.



아르바이트

누가 아르바이트를 할까? 아르바이트는 용돈을 벌기 위한 청소년에서부터 노후걱정으로 ‘황혼 알바’에 뛰어드는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며 살아간다. 그 중에서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청년들의 일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다수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 더 이상 부모님의 손을 벌리기 미안한 이들은 학자금대출도 갚아야하고 월세, 교통비, 식비 등 자신의 생계비용을 모두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아르바이트는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닌 생계수단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르바이트의 부당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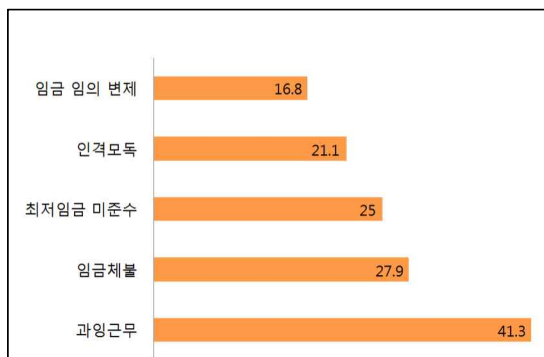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실체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불안한 노동에 놓여있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근로자 중 72.1%가 부당대우 경험을 했으며 특히 임금에 관한 부당대우 경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74.9%는 참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 대응을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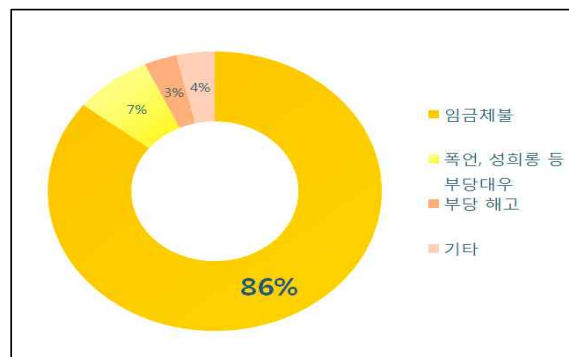
(2015 알바몬 조사결과)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당대우는?

▶ 알바몬 알바생 대상 조사 결과



▶ 신문생활고 아르바이트 민원신고 1,476건 조사 결과



부당대우의 내용들로 보면 위의 그래프들과 같다.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가장 많이 받는 부당대우로 임금체불이 꼽힌다. 첫 번째 그래프를 통해서도 역시 3개의 문항이 임금 관련한 부당대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받거나 일한 만큼의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르바이트의 부당대우가 지속되는 이유

-잘못된 인식

먼저 아르바이트는 본업이 아닌 부업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들로 인해 여전히 아르바이트가 단순한 용돈벌이라는 가벼운 목적으로 비춰지고 이들의 노동 역시 가볍게 평가되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켜주어야 할 권리들에 소홀해지는 것이다.

-구제절차 이용의 어려움

그러면 어쨌건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신고를 하면 깔끔히 해결될 일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제절차과정 자체가 노동자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부당대우를 받은 노동자는 피해자로서 구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절차 속에서 스스로가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입증의 어려움이 있고 조사과정 중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용자와의 대면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런 절차들의 까다로움과 부담으로 부당대우를 받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선뜻 신고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미한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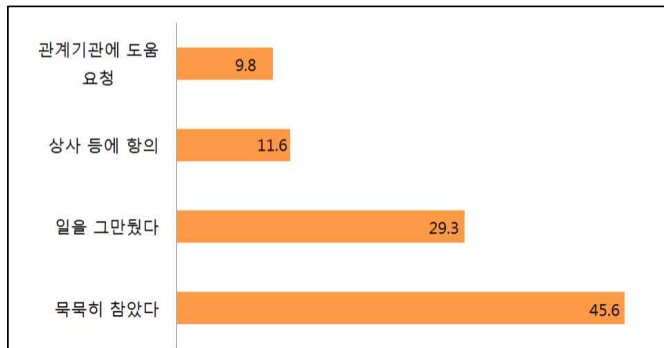
노동부에 적발된 3만 건의 부당대우 신고사례들을 분석해 봤을 때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45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처럼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건 아주 극 소수에 불과하다. 법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의 사각지대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 사항이 많아서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부당대우에 대한 대처 방법

▶ 알바몬 알바생 대상 조사 결과



앞서 말한 이유들로 사회의 약자의 위치에 있는 아르바이트근로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적극적인 대처보다 참고 일을 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 인해서 불안한 알바노동은 개선되긴 커녕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강화조치도 물론 이루어져야하지만 무엇보다 아르바이트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바로 알고 찾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

_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들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근로를 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작성해야 할 근로계약서지만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73%가 될 정도로 많은 알바생이 근로계약서작성을 놓치고 간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최저임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꼭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휴수당 지급

소정 근로시간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결근 없이 성실하게 일한 아르바이트직원에게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하루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가산임금 지급

시간 외 근로를 할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받는다. 법에서 정해놓은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상 근로시 지급의 50%추가된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임금 임의 변제, 부당 삭감은 불법

임금을 변제하거나 부당하게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관행들로 ‘꺼기’와 ‘수습기간’을 예로 들 수 있다.

꺼기 : 고용주가 계약한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강제로 늦게 출근시키거나 일찍 퇴근시켜서 그만큼의 임금을 삭감하는 관행

수습기간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분명한 고용기간 알바에게는 수습기간을 정할 수 없는데 일부 사업장에서 고용주가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90%미만의 임금을 주며 부당삭감을 한다고 한다.

알바에게 꺼기와 계약서 없는 수습기간 모두 엄연한 불법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

4시간 이상의 근무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루 8시간 근로자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꼭 주어져야 한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가능

최저임금제의 중요성

최저임금하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임금, 고용불안,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최저임금은 더 이상 알바생이나 고령노동자가 받는 일부 특수한 계층의 임금이 아닌 국민 임금이 되었다.

심지어 최근조사결과 우리나라의 노동자 7명중 1명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이 정해준대

로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살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 현실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삶

최저임금법 1조에 나오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은 현실과 차이가 크다. 일주일에 5일근무 총 40시간 근무했을 시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노동자는 월 116만 6220원을 벌게된다. 그런데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의 월 가계지출비용이 166만 4787원으로 나왔다.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자신이 매월 받는 임금보다 나가는 지출이 월등히 많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너무 낮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을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하는 이유이다.

생활안정이 가능한 독립, 그리고 자아실현은 시급 5580원 최저임금을 받고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에게는 꿈만 같은 얘기라고 한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낮게 측정이 되는 걸까? 나아가 이런 근로자의 임금체불의 고통이 단순 사용자들만의 탓일까?

최저임금 위원회

최저임금은 오늘의 밥값과 내일의 삶을 걱정하는 청년들의 구체적인 현실에 근거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수많은 당사자들의 삶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2016 최저임금안 전원회의

2016년 전원회의에서 최초 제시안으로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노동자 위원은 1만원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의 동결 주장은 물가인상마저도 고려하지 않은 액수란 비판을 받았다.

1차 수정안에서 노동자측이 8400원으로 내린 것에 반해 사용자는 30원 올린 5610원으로 가져왔다. 의견 대립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내년 최임금을 6030원으로 정하게 되었다.

[임금인상에 대한 노동자위원 주요 입장]

- 경제 불평등 해소
- 경제 성장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를 줄이고, 빈곤층이 성장하면서 경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임금인상에 대한 사용자위원 주요 입장]

- 영세기업 경영난
- 일자리 부족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자영업자들과 영세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늘려 경영난을 불러오고, 경제도 침체될 것이다.”

영세기업의 경영난은 인건비 때문인가?

- 가맹비
-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 재벌 대기업의 시장독점
- 높은 임대료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기업구조에 있다. 한국에는 540만명의 근로자가 열악한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으로 내몰렸다고 한다. 자영업자의 대다수가 가맹점주이다.

가맹 본사에서는 매달 가맹비를 명목으로 점주들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억지로 요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이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프랜차이즈라는 대기업이 장악해버린 시장에서 자영업자가 개인 사업으로 살아남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가맹비 뿐만 아니라 높은 월세도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이다. 대기업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영세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라 대기업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상황이다. 임금 인상문제가 더 이상 근로자와 영세 작업장의 대립으로만 다뤄져서는 안 되지 않을까?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한 채 최저임금 인상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재벌, 대기업이야말로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방해꾼이다.

질의응답 및 토론

-현선 : 주체적인 노동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주체적인 노동자라 함은 사회 구조속에서 구체적인 노동자와 삶에 구조 속에서의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주체적인 노동자 상이 있으면 말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성지 : 뭔가 전 우리 스스로가 약자라는 것을 인식해야함 정부가 비정규 정규를 나누는 것은 정규적이 비정규직이랑 연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란 생각이 들고 약자가 약자를 압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분상승을 조금이라고 하면 약자를 바로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고 항상 약자라는 생각을 해야할듯합니다.

-산 : 알바 비정규직 차이 뭐예요?

-현선 : 비정규직 속에 알바가 포함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운 : 아까 주체적인 노동자라는 주제설명에서 나온 말인데.. 저는 여기 있는 분들에게 질문인데요. 창업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현선 : 이런 의제 뽑은 것은 사회의 보편적인 시장 구조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았던 거지만 저는 그런 틀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래서 주체적인 노동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 같아요.

-진한 : 전 졸업하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체적인 노동자는 먼 훗날의 이야기 같아요. 일단 사회의 노동자 하고 나중에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연진 : 저는 특이한 사업체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영국은 지원 잘해주는데 한국은 그런게 없고 방금 말씀하는 분에 말에 공감이 되어요. 어렵다는 게.

-별 : 전 성지 말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나라 인식에는 노동자가 스스로 돈좀 받으면 노동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저는 알바를 하는 노동자들도 스스로가 노동자라는 인식을 못하는 경향이 있는듯 해요. 하지만 그게 아닌 연결돼있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파업도 같은 노동자로서 그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요.

-수자T : 저는 친구들에게 묻고 싶은 게 기본소득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성남은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성남시에 3년 이상 산 사람한테는 월100만원정도의 생필품 살 수 있는 화폐를 주고. 서울도 못사는 20대 초반한테 월10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 입니다. 호주는 월 80만원씩 무조건 주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네요.

-준상 : 저는 사회에 나가지만 저는 일부러 회피하는 건지 아직은 저것이 저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한 번도 해본적도 없고 무섭기도 해서 감이 안 잡혀요. 노동자라는 게 상상도 안돼요. 직접 당해봐야지 생각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알바 경험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해 줬으면 해요.

-현선 : 알바해보신 분들도 경험 얘기해주세요.

-준학 : 저도 와 닿지는 않는데 알바나 최저임금 같은 것들이 와 닿지 않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현실에 나가면

여러 문제와 만날 텐데 그런 문제가 마음가짐으로 넘길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성지 : 저는 미술 쪽 했는데 부모님은 미술을 하지 말라고 설득했었어요. 현실의 사회의 한계에 대한 압박을 매일매일 겪어요. 지인분들 얘기도 듣고 해서 무서웠는데 여러모로 생각해본 결과 돈을 못 벌 것 같아도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퍼센트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 듯 했고 그래서 저는 미술을 하기로 했었어요. 지금은 물론 다른 쪽으로 틀었지만..

-지민 :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윤 : 저는 인턴을 음악 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노동자다'라는 의식이 참 없어요. 음악을 하기 위해 돈을 벌고, 노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과 먹고 사는 일을 같이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네요.

-별 : 근데 그래도 좋아하는 일이 얼마큼 돈을 벌 수 있는 게 중요하긴 한 거잖아요. 기본소득이 지급이 되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지 : 저는 미술하면서 살기에 미술이 돈이 너무 들어서 현실적으로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포기 했어요.

-연진 : 언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대학등록금이나 제가 살면서 쓸 비용들을 생각하면서 알바하면서 충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아까 쌤이 말씀하신 기본소득 좋은 것 같아요.

-민수 : 저는 교육 엄청 받았는데도 사회 나가면 먹고 사는 것 부터 막막한 게 화나는 것 같아요.

-산 : 인턴쉽 하면서 17만원의 생활비로 한 달 살았어요. 이게 큰돈인 줄 알았는데 17만원이 생각보다 엄청 적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나가는 성인이 되기 전에 사회를 알 수 있게 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생각해요.

-현선 : 많이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꼭 마주해야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두려움이나 불안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현실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회피와 거부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민 : 공감 가요. 저도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알바를 해보지 않아서 알바 하는 다른 애들을 이해를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을 보니까 저도 뭔가 알바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동착취 등을 보면서 두려움도 들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경험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진 : 알려는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알려주거나 교류 할 수 있는 장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과 같은 시간이 꼭 필요 한 것 같아요.

-성지 : 지금까지 주체적인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다니는 인문계학생들은 교사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이유는 교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이고. 하지만 반대로 교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색을 드러내지 못 하는 게 정체성에 대해서 국가의 침해라고 생각을 해요.

-산 : 근데 교사 같은 경우엔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개인의 사상을 얘기했을 때 선동질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고 사적인 자리에선 할 수 있다고 봐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공감이 갈려면 알아보고 찾아봐야지 나중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땐 대처하기에 용이할 것 같은 거죠.

-소윤 : 와닿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 지금 우리는 용돈벌이가 알바의 대부분 인 것 같은데 그래서 와 닿지 않는 듯 한데... 다른 친구들은 독립과 이런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푸하 : 저는 경제적 독립을 하려고 부모님한테 돈 안 받고 뽕세계 알바 했는데 벌어도 나갈 돈 다나가고 알바하느라 제 시간도 없어지고 삶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기본소득 주면 노동의 강도를 조정 할 수 있게 되어서 시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을 듯해요. 자기계발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연진 : 저는 운 좋게 대학을 무료로 다니는데 전 대학원까지 가고 싶어서 23살을 경제적 독립을 생각하고 있어요.

-산 : 솔직히 경제적 독립을 늦게 할수록 저에겐 부담이 덜 될 듯 한데요. 저는 운 좋게 1년 동안 일할 곳을 찾아서 당장 내년부터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용돈 받는 애들이 약간 부럽긴 한데 난

나대로 살 거고 여튼 빨리 경제적 독립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도운 : 저도 집안 사정을 알고 있기도 하고 엄마의 생활을 보장해줄려고 빨리 경제적 독립을 할려고 해요. 그렇지만 인턴생활을 하면서 느낀게 제가 모은 돈으로만 생활해 보려고 했는데 두 달도 안 지나서 그동안 모은 60만 원을 거의 다 썼어요. 이것저것 일도 해보려고 했지만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부모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최대한 독립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청년 수당은 좋다고 보는데요. 근데 전 경남주민이라 해당사항이 없다는게 안타깝네요.

-소윤 : 경제적 독립이랑 정신적 독립은 어느게 먼저일지, 아니면 언제쯤 이뤄져야 하는 걸까요?

-별 : 아예 따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도운 : 저는 경제적 독립보다 정신적 독립이 먼저일 것 같아요. 물론 이른 나이에 먼저 돈을 벌러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돈을 어떻게 써야 될 지도 생각해봐야 될 거 같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야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것 아닌가 싶어요.

-진한 : 정해지진 않았지만 사춘기가 오고 나서 정신적 독립이 먼저 시도 되는 거 같고, 그 뒤에 오는 거 같아요.(경제적)

-나린 : 성인이 되신 분들의 말씀이 듣고 싶어요. 어떻게 사시는지.

-종운 : 다 비슷한 생각하는 거 같은데. 내던져 지기 전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사회에 나오니까 아닌 거 같아서 좀 그랬고. 그래서 알바를 할려고 했는데 하기 싫은데 돈이 없으니까 해야되는데 하기 싫고 돈은 없고 집은 나가고 싶은데 마침 친구가 공동체에서 살아보자 해서 살다가 집에 다시 들어와서 생각이 좀 바뀌고 그리고 다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다 똑같고. 이제 집 나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우리도 잘 모르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석원 : 사회에 내던져진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졸업생 형들에게 놀러가 보면 딱히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왜 그런가 봤을 때 너무 성인과 청소년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눠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체 성인이 된다면 주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나? 싶고. 대안학교 다니면서 일반학교 다니는 애들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은 게 너무 이상적인 것만 배우는 거 같아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는 것. 감을 잡아줘야 할것 같아요.

-민수 : 대학을 가고 싶어요. 나름대로 입시고 수능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가서 뭘해먹고 살지 라는 고민에 답이 안 나와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아서 대학에 가보려는 거 같아요. 대학이 나에겐 대안이인 거 같아요.

2부

현 사회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 진로의 틀

_강의: 태영철 (금산간디학교 교장)

1. 들어가는 말

“청소년들이 해결하고 싶은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청소년 관련 단체나 교사들이 해결하고 싶은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통계나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단연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이슈이다. 물론 청소년들의 상담이나 코칭 이슈를 찾아보면 매우 다양하다. 학업, 친구관계, 가족 문제, 감정, 습관 등등... 하지만 위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과정이 진행되면, 궁극적으론 진로문제에 막히게 된다. 이것은 대안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안학교의 인성교육 혹은 전인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위의 문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안교육의 핵심적 가치는 인성교육이었다. 대안학교들의 교육과정에서는 인성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이든 구성해왔고 학교마다 독특한 인성개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왔다. 종교를 기반으

로 하는 대안학교의 경우는 그 종교의 핵심적인 사상을 인성개발의 교육과정으로 발전시켜 왔고, 다른 대안학교에서는 각자의 설립철학과 배경에 따른 다양한 인성개발 프로그램이나 교과들을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이러한 패러다임이 점점 바뀌고 있다. 즉, 인성교육에서 진로교육으로 서서히 가치의 중심이 점점 옮겨지고 있다. 크게 보면 진로교육은 한 인간의 “총체적 삶”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인성교육도 진로교육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진로교육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Who Am I?”이다. 이것은 자신의 과거를 탐색하고 여기에서 자기를 발견의 과정이다. 둘째, “Where To Go?”이다. 이것은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폭넓게 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직업에 대한 이해도 포함된다. 셋째, “How To Get There?”이다. 여기에는 자신의 비전과 꿈을 찾고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과 실행을 연습해 보는 것이다.

최근, 진로교육 관련해서 공교육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진로상담교사 총원이라든가 진로교육의 교육과정의 편입 등은 그러한 사례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측면에서 진로교육을 살펴보고, 대안학교에서 시도된 진로교육의 사례들을 통해 진로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2. 진로교육이란?

1) 진로, 경력 그리고 커리어

우선 진로와 관련된 단어들의 의미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로교육을 설명할 때 장래의 직업 선택을 위한 교육으로 해석될 경우 진로교육의 의미는 매우 협소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력, 커리어라는 단어 대한 의미 해석도 함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진로는 “앞으로의 직업적인 방향 및 선택”의 의미가 크다. 그래서 진로지도 혹은 진로교육은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에 대하여 학교에서 행하는 지도, 취업이나 진학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직업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접근이다.

경력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으로 해석된다. 즉, 과거의 한 사람이 쌓아온 직업과 관련된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커리어는 진로로도 해석이 되며, 경력으로도 해석되는 폭넓은 개념으로서 본고에서는 진로를 커리어와 같은 개념으로 쓴다. 즉, “사람이 일생을 걸쳐 지속되는 개인의 일과 관련된 모든 경험(Michael Arthur, Douglas Hall, Barbara Lawrence)”으로 개념을 규정한다. 이러한 개념의 규정은 기존의 직업교육이라는 협의의 진로교육을 넘어서 새로운 광의의 진로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

2) 진로교육의 과정

서두에 다루었듯이 진로교육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Who Am I?” - 자기발견

자기발견의 단계에서는 자신의 성격, 흥미, 적성, 열정, 강점, 가치, 정체성 등을 다룬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검사도구를 활용한다. 대표적인 검사로 هول랜드, 스트롱 검사 등이 있다. 성격을 알아가는 도구로는 MBTI, 에니어그램, DISC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검사를 통해 학생 스스로의 성격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흥미와 적성은 기존의 هول랜드 검사나 설문검사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기발견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강점이다.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진로교육에서 큰 힘을 준다. 다중지능검사나 강점설문 조사를 통해 좀 더 깊이 있게 접근 할 수 있다. 자기발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가치의 발견이다. 가치는 크게 존재가치와 직업가치로 나눌 수 있는데, 삶에서 선택의 순간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가치이다. 자신의 가치를 뚜렷하게 알아내는 것은 청소년의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그리고 자기발견의 마지막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다. 흔히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자아정체성은 자기발견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다. 청소년기의 모든 활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모든 교과와 활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자기발견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통

해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들을 탐색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Where To Go?" - 진로탐색 : 직업탐색, 의사결정

진로탐색은 1단계의 자기탐색에 이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을 찾고 선택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을 실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직업에 대한 지식과 체험은 물론이고 직업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의 과정까지 함께 포함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꿈의 목록, 진로비전, 진로목표 등이 있으며, 좀 더 활동적인 과정으로 1일 직업체험, 직업 인턴십 등이 있다. 이 단계가 정리되면 마지막에 진로목표를 세우고 구체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위의 과정 중에서 꿈의 목록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과정으로 추천한다.

(3) "How To Get There?" - 진로결정 및 진로코칭

이 단계는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탐색하고 실천하는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진로결정이라는 것은 자신의 진로와 진학을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로 결정과 실현의 과정을 통해 진로를 경험해보는 과정에서의 결정을 의미한다. 진로를 결정과정은 자존감과 효능감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며, 자신의 현재 모습을 투영한다고 할 수 있다. 진로결정의 과정이 끝나면 잡매칭의 과정으로 넘어간다. 잡매칭은 자신의 진로 중에서 가장 적합한 직업과의 매칭을 시도한다. 잡매칭이 적합하게 진행되면 그 직업의 멘토를 찾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후 멘토링 과정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작업 중에서 생기는 문제나 과제를 해결해가는 진로코칭의 과정이 있다. 진로코칭의 과정은 전체과정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지만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 코칭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대안학교에서 진로교육이란?

기존의 학교에서 바라보는 진로교육은 대학진학교육이다.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대학을 위한 준비단계로 인식되기 때문에 진로교육은 진학교육 이상을 넘어서기 어렵다. 하지만 대안학교에서는 진로교육이 대학진학을 위한 들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로교육의 본래의 목적을 구현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비인가 고등과정 대안학교의 경우는 대학입시 보다 자신의 진로를 찾는 학생의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진로교육은 구체적이며 실질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진로를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개념을 규정하고 대안학교의 진로교육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1) 협의의 진로교육

협의의 진로교육은 그야말로 직업과 진학의 과정으로서 진로교육을 한정짓고 이에 맞춰 진로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교육과정 안에 진로교과가 있으며 수업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학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얻는 과정이다. 진로 도구를 활용한 검사와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자료를 얻기도 하고, 좀 더 활동적인 수업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2) 광의의 진로교육

광의의 진로교육은 진로를 "사람이 일생을 걸쳐 지속되는 개인의 일과 관련된 모든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진로를 교육과정 안에서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성장과정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진로교육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학교의 모든 교과와 경험을 자기발견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다. 학생들의 삶의 전과정을 바로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학생들과 만나는 것이다. 학생들이 어떤 교과에 더 흥미가 있고, 어떤 동아리에 더 관심이 있으며, 어떤 취미와 활동을 즐기며,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열정의 대상은 무엇인가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면서 실제의 활동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안학교의 방향과 일치하는 진로교육의 방향이다.

3) 대안교육에서 진로 교육이란 :

(1) 대안교육에서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

기존의 진로교육은 인간에 대한 철학적 관점이 없다. 그래서 인간을 유전적이거나 혹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즉 사회적 적응을 위한 존재로 바라보며, 이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직업과 진학교육을 해왔다. 하지만 대안교육에서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바로 인간을 창조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즉, 인간이 사회라는 기계에 종속된 부품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창조할 수 있는 창조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학생들을 진로위해 현재를 희생하거나 참고 견디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창조하고 지금의 삶이 진로의 한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자기실현적 존재로서 자신의 잠재력과 탁월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이며, 교육은 이러한 존재가 자신의 탁월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교육은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자극하고 이것이 탁월성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과정인 것이다.

(2) 대안교육에서 진로교육은?

지금 대안교육의 현장은 교사 중심의 가르침에서 학생 중심의 학습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Teaching에서 Learning으로의 전환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 초창기 대안학교에서 “어떻게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될까?”라는 질문에 관심을 두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잘 학습하는 학생이 되도록 촉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진로교육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진로를 찾도록 가르치거나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일깨워서 자신의 탁월한 삶을 기획하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극하고 도와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학생을 교육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교육의 주체로서 스스로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보면서, 진로교육의 목표는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학습할 수 있는 평생 학습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대안교육에서 진로교육은 “삶의 교육이 곧 진로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있다. 즉, 광의의 진로교육과 일치한다. 이것은 아래의 글에서도 확인된다.

삶에 관한 지식을 오로지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삶에 대한 지식은 오로지 삶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학교가 할 일은 이런 사실을 학생들에게 일깨우고 삶의 한가운데에서 학습하도록 이끄는 데 있다 - 비노바 바베

그래서 대안교육에서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삶의 한 가운데서 학습하는 교육이다. 교실에서 검사를 통해 진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운데서 직접 멘토를 만나고 인터뷰하면서 직업과 직업인에 대해 체험하고 자기화 하는 것이다.

4. 대안학교의 진로교육 사례는?

대안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로교육의 사례를 간디학교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자기발견

대안학교에서 자기발견의 교육은 인성교육 혹은 치유의 교육과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인성과 치유 교육의 핵심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서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미디어 썰라피” 수업을 들 수 있다. 자신에 관련된 모든 것들(가족, 역사 등등)을 조사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수업이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며,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발견의 과정을 거친다. 꿈찾기 수업, 미술치료수업, 마음공부 수업 등등이 모두 이런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업들

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성격 등을 탐색할 수 있다.

간디학교에서는 고1학년 과정을 자기발견의 과정으로 두고 집중적으로 자기발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방학기 및 자기발견 프로젝트(1학년 프로젝트) 등이 가 그것이다. 해방학기의 경우 학교 밖의 공간에서 같은 학년들과 교사들이 함께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다름과 탐색을 이어간다. 밀양연극촌 체험과 국토순례 등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2) 진로탐색 :

진로에 대한 탐색의 과정은 다양하게 진행한다. 거의 모든 대안학교에서 매년 체험학습을 통해 다양한 직업과 진로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간디문화의 밤(명사초대)” 등의 초대와 기회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 분야의 멘토들을 초대해서 그 분들의 삶을 들여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또 “잡스(교사, 졸업생, 학생이 서로 만나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재학생이 직업을 가진 졸업생을 섭외해서 특강하면서 만남의 시간을 가진다. 재학생은 물론이고 교사와 졸업생들의 만족도도 높다.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수업에서는 역할 모델을 찾아서 한 학기를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만나는 과정을 통해 진로의식을 높이고 만남을 폭을 확장시키는 프로젝트수업도 있었다. 진로탐색의 과정에서 새로운 흐름은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1000개의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이 미래에 도전할만한 직업(창업) 1000개를 찾고 도전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3) 진로체험 :

대안학교의 특성상 소수의 학생들과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다. 금산간디학교의 인턴십탐방, 제천간디학교의 인턴십프로그램, 금산과 제천간디학교의 창업프로젝트, 작업장 학교, 멘토링 프로그램, LTI 등은 진로체험의 전형적인 예일 것이다.

인턴십탐방 프로그램은 진로탐색을 통해 찾아낸 몇 가지 진로와 직업을 10여개 내외로 축약해서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처음부터 학생들이 인턴십 탐방할 장소를 섭외하고 인터뷰 일정을 잡는다. 그래서 인턴십 장소를 섭외할 때부터 거절을 당하는 경험을 한다. 학생들은 거부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큰데 이 과정을 통하고 나면 모르는 사람을 만나거나 일정을 잡는데 좀 더 익숙해진다.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성장의 지점이 되는 것이다. 인턴십탐방에 이어 인턴십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학년~3학년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인데, 인턴십탐방에서 구체적으로 2~3개 정도의 인턴십장소는 선택해서 1개월 내외의 직접체험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제천간디학교의 경우에는 고3학생이 3~5개월 정도 길게 인턴십을 나간다. 제천의 경우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인턴십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또한 창업프로젝트의 경우는 학교내외의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창업의 전과정을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이다. 학교 내의 창업의 경우 창업의 아이디어를 동아리형태로 이어가다가 이것이 생산성과 제품이 질이 확보되면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이루어진다. “뽕만들기”, “효소공장”, “비누만들기” 등이 그것이다.

제천간디학교에서는 학교 내에 작업장을 구축했다. 비누만들기, 돼지기르기, 옷만들기 등의 작업장을 만들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켜서 전문적인 역량을 길러 진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진로경험을 학교 내에서 축적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교 외의 전문가집단과 학생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에 있는 상상이룸센터에서는 노원구와 인근 지역의 직업멘토들을 100명 이상 발굴해서 멘토그룹을 만들고 이 그룹을 학생들과 연결해주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학교와 학교 밖을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대안학교 내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된지 얼마되지 않았다. 그래서 인지 여전히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다. 학교내외의 자원을 묶어내고, 학교 밖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대안학교의 인력과 능력으로는 이 프로그램들을 구축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또한 교사, 학부모,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가 지역과 사회에 열린 구조가 되어있지 않으면 단발성으로 끝나기 쉬운 프로그램들이다. 그래서 학교 내의 교사와 학부모의 필요성과 동기수준이 높아야하고, 학교 밖의 자원과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연결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교사가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역동적으로 작동해야만 위의 프로그램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고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 하지만 단위 학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조직하기에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를 대안교육연대하든가 대학 등에서 함께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5. 대안학교 진로교육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간디학교는 5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들은 자신의 발견을 통한 자기성장의 길을 가고 있으며 재학 동안 드라마틱한 변화와 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어떤 학교도 거두기 어려운 성과였다고 본다. 이것은 구체적인 진로교육이 없던 시절부터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기말축제, 문화의 밤, 주를 여는 시간, 동아리 활동, 갖가지 교내외 문화제 등등이 그랬다. 그것은 지금의 그 어떤 진로교육보다 깊이 있었고 강력했다. 학생들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았고 자신의 탁월성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우리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인 “안정”과 “돈” 중심의 획일화된 가치를 벗어나 다양한 가치와 의미의 삶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과 경험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사회를 변혁하고 기여하고 헌신하는 많은 청년들을 길렀다. 이러한 과정은 또한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교육에도 큰 역할을 했으며 자립심과 자존감을 키웠다. 뿐만 아니라 대학 중심의 진로교육에서 인성과 행복 중심의 진로교육을 추구하고 실천해왔다. 성공한 사람이 아닌 행복한 사람을 롤모델로 제시했고 이를 통해 행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2) 한계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한계 또한 명확하다. 교육과정의 잦은 변화와 교사들의 잦은 이직률은 이제까지의 수많은 시도와 성과를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하고 발전시키는데 장애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허술한 체계와 함께 교사들의 동료성 구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효과를 지속하거나 그 다음 단계로 점프하는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6. 나오는 말

대안교육이 이 땅에 발을 디딘지 15년이다. 그 동안 대안교육에서 보여준 진로교육은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감히 공교육에서는 생각지도 못할 가능성에 도전했고 일정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한 과정은 학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고 실제로 학생들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대안학교의 자율적인 분위기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교사의 일회성 이벤트 수업으로 그친 것과 이러한 삶의 교육이 체계성을 가지고 발전되지 못했다는 한계 또한 뚜렷하다.

새로운 시대의 대안교육의 정체성과 지향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이 바로 진로교육이라고 본다. 대안교육의 진로교육의 강점은 활동과 경험 중심의 진로교육이다. 이것은 진로와 삶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이 곧 진로교육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건강한 믿음과 철학은 대안교육이 앞으로 지향해야할 진로교육의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지향은 공교육의 진로교육에도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다. 창조성과 자아실현은 시대의 화두이자 진로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제 대안교육이든 공교육이든 이러한 궁극의 목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면서 학생들이 진정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가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영서 : 지금 대안학교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지?

-태쌤 :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아요.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아닐까? 정체되어있던 걸 죽여야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지금도 계속 만들어 내는 중이지 않을까요.

-지민 : 학교를 다니면서 땅속으로 뿌리를 내린다고 했는데, 뿌리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태쌤 : 내려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발견인 것 같아요. 이런 에너지가 있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 더 내려 가다보면 어떠한 메세지가 오는 것 같은 순간이 올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한참 있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내면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참여하면서 자기 자신을 확장시키는 과정 일 것 같아요.

-인옥 : 이 상황에서 바로 사회에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학교가 사회에 나가기 전 무언가를 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태쌤 : 탐색의 기간들이 필요한 과정들이 곳곳에서 생기고 있어요. 고민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수 :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마다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고, 막막한 것만 주어지는 것 같아요.

-태쌤 : 대안학교 학생들은 인턴십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까 말했던 탐색의 기간들이 필요한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민수 : 저는 예술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다 이런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서 얘기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준상 : 오전시간에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개인적으로 불편해지는 것이 경제적 독립을 좀 늦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굳이 있는데 왜 지원을 받지 말아야하는지 또래 친구들은 경제적 독립을 일찍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왜 죄인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태쌤 : 죄인은 전혀 아니죠. 다만 그 시기를 잘 생각해보고 부모님과 계약을 해박야 할 것 같아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너무 오래 지속되다보면 부모님에게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 나는 30대에 독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건 정신적 독립이 되니 경제적 독립이 확실히 되더라는 것. 아무래도 묶여 있다 보니 리모콘 조종당하듯 품에 있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성지 : 제가 원래 미술을 했는데 미대를 포기하고 심리학 전공으로 썼거든요. 저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되게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사회학에 조금 더 관심이 가요. 그런데 제가 사회학에 가게 되면 오랫동안 계획을 했던 심리학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인생계획을 다시 짜야한다는 어려움이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태쌤 : 대학을 가고 나서 느낀 건데 특히 우리나라는 미술이나 음악이나 특수한 것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갈고닦고 닦아야 한다고 사람이 믿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왔다갔다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떤 선택을 할 때 이런 기준을 가져요.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을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요. 외부의 속성보다는 내가 언제 나다울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인이 되어도 마찬가지 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제 스스로가 보람이 있어서 하고 있지만 많은 고민을 해요. 이게 정말 맞는지. 주저 하지 말고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마주할 사회와 현실을 앞서 나아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사회 선배들의 이야기

_강의: 허경 (최계바라 기획사)

최계바라 기획사는 청년들이 만드는 문화기획사입니다

- 남북청년들과 함께 유쾌한 통일을 만들어 갑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웨딩문화를 기획합니다

- 창의적 청년들, 또라이 10만명을 모읍니다
- 청년들 가슴속에 불꽃을 키웁니다
- 이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 사회의 내일을 희망합니다.

[질의응답(포스트잇에 쓰여진 문구에 대하여)]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왜 많이 벌고 싶어요?

-카이스트나 역대연봉을 받아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할 때, 저는 백수였어요. 그 당시에 여러 곳에서 일하자는 연락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직업을 택한 이유는 어떤 꿈이 있었어요. 저는 2층집에 차고가 있어야 해요.
 11시에 차고로 내려와서 만들다만 의자를 만들고, 아내는 자고 있어요. 토스트를 요리를 해다 주고 그날 저녁에 있을 바베큐 파티를 위해 그릴을 올려놓아야 해요. 그런데 이걸 할려면 돈이 있어야 하겠죠.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됐지만, 저는 한 달에 10일만 일하면서 저런 꿈을 이루고 싶어요. 10년 뒤에는 꼭 그럴 수 있길 바라요.
 저는 이런 꿈을 꾸게 된 게 대학교 4학년이에요. 그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 멋지죠. 친구는 어떤 음악이 만들고 싶어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요.) 제가 처음 이제 마지막으로 유럽여행을 갔었어요. 체코에 갔었는데 어떤 재즈바에 갔었는데 공연단이 공연을 해요. 막 자유롭게 연주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보였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그 나라에 대해 공부해 보니 거기는 교육과정이 끝나면 한사람이 한 악기정도 다룰 수 있게 한다고 해요. 멋지더라구요. 사람이 풍요로워 지려면 음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우학교 졸업생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누가 뭐라던 음악을 해요. 듣던 말던 음악을 만들면서 앨범을 6개를 냈어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 멋진 뮤지션이 되었어요. 하고 싶은 일 꾸준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대학

-저는 대학을 안가면 잉여인간이 되는구나! 라는 협박을 받고 3수까지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맨날 술을 마시는데 이게 진정한 교류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학년 때 실망을 많이 했어요. 공부만 하려고 가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또 하나의 메리트는 아직 사회는 대학생들에게 관대합니다. 그리고 대우도 좀 다르고 특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공부뿐만 아니라 그런 특혜 받으면서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대학이 그다지 만족스럽진 않지만 대학을 안 가보지 않아서 말씀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고졸로 살면서 사회가 주는 시선들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라이만의 기준이 있나요?

-따로 없어요. 또라이 포럼에 오는 사람 자체가 또라이 이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내린 기준은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는 청년? 이에요 생각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을 또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직원 모집 하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있는 멤버들끼리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회사가 커지면 정직원도 뽑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인 기술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속지 말고 나를 예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내 의견을 이야기 할 때 나를 표현하는 것이 두렵지 않으셨나요?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또라이로 살아가는 건 되게 피곤합니다. 저는 굉장히 착한아들로 살아왔어요. 부모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이제 와서 생각하면 항상 중고등학교시절 친했던 친구들이 생각이나요. 독특했던, 쉽게 말하면 오타쿠 였죠. 그 친구를 관찰하는 건 되게 즐거웠어요. 나또한 그런 기질은 있었구나. 시도는 안했지만 그런 이들 옆에 있었구나. 내가 독특한 시도를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판을 구성 하는 일이 잘 맞다는 생각을 해요. 행사를 기획해도 그 행사를 즐기는 이들을 보는 게 더 좋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 돈키

호텔에요. 저 스스로를 빗대본다면 돈키호테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닐까. 상식적인사람이죠?

-준학 : 페스티벌도 여시고 하는데 돈은 어떻게 벌어요?

-이런 짓들을 하다 보니 정부기관에서 의뢰를 해요. 요새는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자체가 축제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많아요. 몰랐죠? 독특한 시도를 해오다보니 기획의뢰를 주로 하죠. 진부하지 않으려 하다 보니깐요. 000의 20주년행사를 의뢰하면 해적파티로 만들거나 또라이 과거시험 같은 경연대회를 연다던가.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행사를 꾸려나가는 역량이 커지다보니 의뢰를 받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가 하는 자체행사만으로도 경제적인 부분을 채우려하는 것이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학년으로 이뤄져있어요? 고3이 많은가요? 대학진학을 하는 사람은?

-형근이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어요?

-형근 : 저는 혁명가가 될 거예요. 뭘 혁명하고 싶어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부수고..

-오..혁명가. 얼마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명한 사람의 강의에서 질문을 했대요.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물었더니 사람에 대한 존중, 인권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려는 사람들을 먹고살게 해줘라, 내부고발자 등과 같은 이들을 도와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혁명가가 되려는 그 마음을 지원하겠습니다.

-성지 : 심리학과 나오면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끼워주셨으면 해요. 심리치료는 돈이 비싸서 생활에 치여 사는데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요.

-이제 마무리 해볼까하는데 대학진학이든 사회진출이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시고 각자의 재밌는 이야기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마칠게요. 고마워요.

부록

우리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제 6조 균등한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 7조 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 8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밖의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2장 근로계약

[제 17조 근로조건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의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유급휴일과 주휴수당에 따른 휴일
4. 연차 유급 휴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5.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 19조 근로조건의 위반]

제 17조에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 해지할 수 있다.

[제 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 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임금

[제 43조 임금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 45조 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 50조 근로시간]

일주일간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초과할 수 없다.

[제 54조 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 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의 평균 1회 이상을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한다.

제 5장 여성과 소년

[제 71조 시간외 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일종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 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 8장 재해보상

[제 78조 요양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79조 휴업보상]

사용자는 제 78조에 따라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80조 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표준근로계약서

_____ (이하 “갑”이라 함)과와) _____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부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_____ 시 _____ 분부터 _____ 시 _____ 분까지 (휴게시간 : _____ 시 _____ 분 ~ _____ 시 _____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_____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_____ 요일

6. 임금

- 월(일, 시간)급 : _____ 원

- 상여금 : 있음 () _____ 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없음 ()

· _____ 원, _____ 원

· _____ 원, _____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갑”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을”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을”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갑) 사업체명 : _____ (전화 : _____)

주 소 :

대 표 자 : _____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_____ (서명)

진로&전체 평가

-건산 : 진로는 오전에 문제점들을 잘 짚어줘서 좋았고 오후에 나름 고민이 풀리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 조금 용기를 얻었어. 전체평가는... 일단 내 태도에서 보면 성실하지 않았던 것 같고... 준비도 많이 빠지고 수업집중도 안 좋았고. 그래도 모두 유익한 내용이었고 좋았어. 여러 학교사람 많이 만나서 좋았어.

-산 : 진로수업은 오전에 문제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오후에는 강사 분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알려줘서 좋았고. 버킷 리스트 작성도 나름 좋았어. 아쉬웠던 것은 강사분의 말이랑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올 것들만 나왔던 것 같아. 진로 팀의 생각을 들어보지 못해서 아쉬워. 총평은 나도 수업태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 아쉽고 모둠별로 얘기 할 때 조장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나름 도움이 됐어.

-형근 : 진로 수업은 산이랑 비슷하게 좀 아쉬웠던 거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좋았고, 강사 분들 이야기 듣는 거 좋았다. 총평은 전 수업태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우려했던 제천간디학교만의 캠프가 아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푸하 : 저는 진로수업 오전에 서로 토론 했던 게 제가 발언은 많이 안했지만 다른 분들 생각을 많이 들으면서 도움 많이 됐어요. 오후 강사 수업이 좋았어요.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됐던 것들이 정리되는데 도움이 됐어요. 인문학 총평은 제가 3일 왔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되게 만족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았습니다.

-영서 : 오늘 진로팀 수업은 좋았다고 밖에 생각이 안나요. 강사수업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됐고. 총평은 참가자분들에게 감사 했던 것 같아요. 열의가 토론 같은 데서 느껴졌고. 저는 생활부분에서 약간 미숙해서 아쉬워요.

-성훈 : 진로 강의 들을 때 어려웠던 것 같아요. 토론이나 이런 거 할 때 생각도 잘 안 나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복잡 했어요. 오전에는. 오후에 강사선생님들 오셔서 하니까 위로가 됐고, 20대에 하고 싶은 거 적어서 조별로 이야기 했던 게 서로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총평은 진짜 좋았어요. 이런 거 처음 해 봐서 수업 듣고 친해지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경험과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김준상 : 저는요. 진로문제에 대해서 알면서도 외면하고 싶었어요. 두려우니까. 근데 오늘 진로 강의를 듣고 그럼에도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준 느낌이 왔어요.

총평은 ppt로 강의 하는 게 10분 이상 들으면 지겨워지는 감이 있었는데 몇 시간씩 해도 생각보다 안 지루하고 잘한 것 같아요. 재밌게 들었어요.

-지민 : 진로 강의 중에서 최계바라 기획사 그분의 강의를 신선했어요. 생각의 틀을 깨준 기분 이였어요. 참 좋았고요. 총평을 하자면 이야기 하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이였어요. 첫째 날 ot랑 철학을 못 들었던 게 아쉽네요.

-준상 : 진로 할 때 종이에 적는 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정리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이때까지 '무서워서 피하고 있는 게 분명 하구나!' 깨닫게 해준 강의들이였어요. 총평은 어제 몰카 이후로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게 진담인가 가짜인가 생각이 들어서 혼란스럽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재밌었어요.

-수자 : 저 그냥 섞어서 할게요. 5~6일 동안 사회에 내던져 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뜨끔했어요. 진로프로젝트 수업 할 때도 '사회에 적극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회도 살아 볼만해요! 전 지금 저의 이순간이 제일 좋거든요? 매 순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을 성실하고 열심히 산다면 후회 안하게 될 것 같아요. 사회가 너무 무섭고 두려운 곳은 아니니까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회에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배움의 형태는 많이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학과공부보다 세미나가 제 인생에 더 도움이 되었어서 이런 자치대학의 형태가 좋은 것 같아요.

-성지 : 수업은 처음에 매끄럽게 진행 잘한다는 생각했고, 진, 현선 같이 진행 잘한다고 느낌 받았고 오후 강의에 태쌘이 틀어주신 영상 보면서 되게 순간적으로 눈물이 올라와서 왜 그런지 당황스러웠는데 그런 기분이 왜인

가 생각해보니 제가 많이 포기했고 외면했던 것이 많았다는 걸 느꼈어요. 진로수업하면서 위안 많이 얻었고 총평은 여기 와 맺은 관계에 얘기 하고 싶은데 아 휴지가 필요 할 듯(울컥) 제가 살면서 상처가 누구나 있는데 상처 안 받기 위한 방식이 누군가에게 의미부여 하는 거였어요. 예민하게 신경 쓰고 처음 본 사람이라도 분석하면서 제 나름대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닥치고 있었죠. 왜냐면 그걸 말하면 그게 완벽한건 아니니까. 그 사람을 항상 예상하고 관계를 시작했는데 여길 왔는데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졌던 건 이 밝은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우울함? 폐쇄적인 너희들만의 세상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게 느껴져서. 또 살아오던 대로 그게 무엇일까에 대해 많이 관찰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걸 알 수 가 없는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건. 근데 그게 이상하게 위안이 됐고.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이 관계가 소중해졌고. 많은 얘길 하진 못했지만 너무 위안을 얻고 저한테 괜찮다는 사실을 계속 말해주는 같아서 쾌감?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그러면서 '내가 알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받아들이면 되는 구나.' 라는 걸 머리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안됐었는데. 그걸 여기서 하게 되면서 다들 괜찮다고, 밀하든 괜찮다고 다 좋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연희 :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느꼈다는 게 신기한데, 나는 숙박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보통 거기 써있었을 때 위에 철학 역사 성 사회 진로로 돼 있었는데 제목들만 보면 뻔한 내용을 상상하지만 그 안에 프로그램을 봤을 때 진심으로 새로운 내용들이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암튼 중요한 얘기 여기서 많이 한 거 같고 이런 얘기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니까 좋은 기회였던 거 같고 그리고 너네 들 적자났다고 한 소리를 들었어.(일동 당황) 적자까지 내면서 열심히 한 게 고마움.

-채현 : 진로 강의는 계속 피하고 싶었던 얘기를 오전에 해서 울적함이 있었는데 오후에 다른 선생님들 오셔서 얘기하는 거 듣고 생각이 좀 넓어진 거 같은 느낌이었어. 우리학교 졸업생들도 비슷하게 살잖아 사실. 그래서 좋았어요. 총평은 아직 끝난 게 실감이 잘 안 나는데 다들 수고 한만큼 잘 해 준거 같고 나한테 필요한 쓸모 있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가는 그리고 진짜로 참가해준 거의 하루 50명씩 참가자들한테 진심으로 너무 고맙고 수줍음 너무 수고 해주셔가지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소운 : 오늘 같은 경우엔 1부에선 얘기 나누는 거만큼 사회와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너무 그동안 도망쳐왔나 생각 들었는데 2부에선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했어요. 마찬가지로 카드에 써서 얘기 나누는 게 즐거웠던 이유가 다른 친구들은 20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뭐하고 싶은지 나눌 수 있는 게 즐거운 이유 같고 인상 깊었고 아쉬웠던 건 뭔가 단거랑 짠거랑 동시에 오는 느낌이었고.(일동 : 그건 맛있는거 아니야?) 아 그런가?(웃음) 매운 거랑 단거랑 동시에....아무튼 그런 느낌이었다. 아 총평 저는 딱 거보다도 같이 함께해준 친구들한테 너무너무너무너무고마워요. 사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거의 3개월 과연 많은 애들이 와줄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좋을까. 우리 캠프는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부담됐는데 캠프 만들어줘서 고맙다하고 참여해서 즐겁다는 얘기 들어서 되게 뿌듯했어. 이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 물론 끝났으면 좋겠지만. 이런 생각의 장이 끝나지 않았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주제 일 수 있는 주제들이 일맥상통하는 기본이 들 때마다 카타르시스 느꼈던 듯. 결국 똑같은 얘기구나 결국 하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관계 면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총복여고, 이우학교, 태봉고를 만났을까 할 정도로 다양한 친구들 모여서 좋았던 거 같아요. 맛있게 먹고 내일 흐뭇하게 헤어졌으면!

-현선 : 수업을 준비하면서 누구나 그랬듯이 의도한 방향이 있을 거야. 다들. 근데 오늘 되게 흐름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의도한 방향으로 이해 해준 거 같아 뿌듯하고 진로팀은 마지막 날 이다보니 첫날부터 부담이 많았는데, 다했다는 생각에 지금 굉장히 즐기고 총평하자면 매일 수업이 좋았지만 수업 끝나고 나서 항상 고민이 많아졌던 거 같아. 그냥 자야지~ 가 아니라 생각할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고민이 생각났던 거 같고 답을 얻기보단 물음을 많이 얻어가는 거 같다 느꼈어.

-진 : 오늘 수업은 다들 총평 할 때 수업한 애들이 '아쉽다. 아쉽다' 했는데 공감 될 정도로 아쉬웠는데 진행 잘 못한 거 같고 평가지나 들으면서 예상했던 방향대로 이해를 해주고 그게 뿌듯해. 우리가 뭘 했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야 들기 시작했고 총평은, 더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다양한 얘기하는 게 되게 좋았어. 얘기 안 나올까 걱정 많이 했는데 참가자들 많이 얘기해주고 참여해줘서 우리 수업에 인문학의 반은 참가자들이, 반 이상이 몫이 컸다고 생각하고. 근데 진로가 마지막이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부담감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친해지지 못한 게 아쉽고. 좋았습니다. 완벽했어요.

-소아 : 수업 순서를 진로를 가장 마지막에 뒀던게 좋았고 아득하게만 다가왔던 스무 살을 캠프 끝내면서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 기대도 되는 거 같고 걱정을 덜어줬다거나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고민도 할 만 하구나 생각하고 총평하자면 수업도 들어야 되고 친해져야 되고 내수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잠을 줄이는 거밖에 없어서 다 4시간밖에 못자고 그랬는데도 평소에 자던 거 절반밖에 못자면서도 자는 시간이 그래도 아까워서 안 잘 수 있으면 안 자고 싶다는 생각 할 정도로 시간가는 게 아까웠고 소중한 거예요. 만감이 교차하네요.

-지현 : 오늘 강의가 되게 재밌었어요. 언니들 하는 것도 재밌고 강사들 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총평은 제가 좀 되게 많이 정이 들었는데 집에 가기 싫고 그래요.

-연진 : 오늘 강의는 진로 팀 친구들이랑 두 달에 준비한 거에 비해서 지켜온 기간 안 되지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잠 줄여가면서. 긴장도 느껴지고 근데 애들이 잘한 거보고 대견하달까. 기특하고 그랬고 또 일반학교 있다 보니 수능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노동을 생각안하고 청년실업 문제다 생각했는데 그걸 자세히 얘기해보고 정확해서 좋았다. 총평은 가려니까 저도 너무 아쉬워요. 정말 좋은 친구들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이 인연을 죽기 전까지 갖고 가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서 좋았어요. 핸드폰으로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걸 자주 했는데 친구들도 “너 기분 되게 좋아 보인다.” 많이 하고 엄마가 가니까 되게 좋나보다 말씀 많이 하시는 거 예요. (울음) 왜 눈물이 나냐면 입시나 그런 걸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을 준비했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최선책으로 원한 꿈들 차선까지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너무 속상해서 모르는 사이에 그게 친구들 가족들한테 힘들다고 표현된 거 같은데 여기 있어서 계속 연락하면서 너 좋아 보인다고 이런 얘기 해주니까 힐링된 느낌이 받았다는 게 엄청 많이 들었고 마무리 어떡하지... 캠프 준비한 거 보면 너무 대단하고 준비한 거만으로도 앞으로 사회 나가서 좋은 사람이 될 거 같아요. 좋은 인연 만들게 해줘서 다들 고맙고 새장 안에 갇혀있었던 느낌 받았었는데. 되게. 제각각 했던 것들을 사회에 나가서 펼쳐보려구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유진 : 진로 강의 들으면서 친구들끼리 얘기 해주는 거 같아서 좋았고 강사분들 강의해주면서 되게 좋았고 앞으로도 저에 대해 생각 할 수 있게 해준 거 같아서 좋았다. 총평은 전체적으로 생각할 거리들 많이 던져주고 생각해준 거 같아서 고맙고 다들 제가 너무 근데 말을 안 해서, 듣기만 해서 미안하고 (울어?) 안 울어ㅋㅋ 되게 저도 다들 좋은 사람 만난 거 같아서 감사하고 이렇게 자리 마련한 거 감사하고 끌고 와준 별. 성지한테 너무 고마워.

-나린 : (휴지넘길까?) 안 울 거야.ㅎ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아요. 저 스스로한테. 어제 밤부터 수자쌤 하고 애들하고 마지막 준비하고 내일 열심히 하자란 생각으로 리허설 하는데 갑자기 제가 너무 어리숙하다고 느껴지는 거 예요. 너무 겁이 나더라구요. 내가 내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시작해야하지 고민이, 겁이 나기 시작해서 그런 준비만 하다가 5시에 잤어요. 7시에 일어나서 이려고 있는데. 제가 관리를 스스로 못 한 탓에 오후가 되니까 직격으로 피로가 몰려와서 분위기가 비 오고 처지기도 해서. 참가자분들보다도 진행자보다 한명인 제가 분위기를 많이 땀다고 느껴지는 거 예요. 계속 나에게 의문을 던지게 됐어요. 준비를 잘 한 걸까, 이 모습이 우리가 바라던 모습일까 해서 의기소침 했는데 마지막 얘기 들으면서 전 좀 기적 같아요. 현선이 뿌듯하다했는데 전 뿌듯하진 않고 그냥 고마울 뿐이에요. 전 그냥 여러분들한테 진로가, 사실 본인 스스로의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강의하고 싶지, 주입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준비하느라 너무 여러분한테 모든 걸 맡겼나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만큼 고마워요. 총평은 이렇게 하루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머리가 아프지 않다는 것? 학교에서는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배고프고 힘들었는데 캠프에선 그렇지 않았어. 재밌더라고요. 스스로 되게 즐기고 있나보다 라고 느꼈고 이제야 이려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올해 사람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배운 거 같아요. 캠프에서도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좋은

사람들이 와줬고 그 사람들 덕에 사람에 대해서 배웠어요. 스스로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게 되고.

-도은 : 진로가. 마지막 날 이다보니 부담 갔을 거 같기도 하고. 준비한다고 애들이 잘 한 거 같아서 재밌게 들었고요. 제가 한 주제랑 조금씩 연관돼서 보충하는 느낌도 났고, 강의도 잘 들었는데 아쉬웠던 게 개인적으로 태뽀같은 경우는 들었던 경우라 집중이 덜됐고, 허경 분은 새로운 걸 소개해주는 건 좋았는데 자기가 살았던 얘기를 좀 더 해줬으면 어땠을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조별로 얘기 했던 것도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선에서.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부터 차근차근해서 좋았고 애들이 열심히 해준 거 같아서 좋았어요. 총평은 너무 기쁘고요 일단. 두 달 동안 준비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담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체크나 빠졌던 부분이 있어서 잘했어야 했는데 아쉽고 강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강의준비시간보단 자료 찾고 하는 데에 집중해서 그걸 다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쉽고. 토론이나 다른 흐름을 잡는 거에 있어서 순서가 철학-진로로 이어진게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토론도 참가자 친구들이 많이 해서 좋았고. 이 넓은 강당이 가득차고 그렇게 뿌듯하고 고맙고 그랬고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서 좋았어요. 걱정 했던 만큼 망하고 안 그래서 좋았고. 진짜 망하는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아니었던 거 같아서 좋았고 아쉽고 좋은 감정이 더 크고. 좋습니다.

-선명 : 저는 일단 매번 올 때마다 늦어서 죄송하고 그래서 맨날 첫 번째로 하는 강의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아쉽고 오늘진로부분에서 나눠서 얘기하는 부분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에서 다 얘기 한 거 같구요. 총평은 앞에서 장점만 나와 가지고 단점도 좀 얘기하자면 시간대가 밥을 먹고 해서 너무 졸려서 집중을 못했고 제 잘못도 있지만. 강의 좋았고 학생들이 준비했다는 게 되게 놀랍고 특별한 경험과 추억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너무 좋았습니다.

-윤샘 : 저는 3일이란 짧은 시간동안 참여 하면서 사실 강의는 강사들하고 얘기 나누는 줄 알았는데 거의 첨부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준비해서 되게 놀랐고 저도 3학년으로써 학년들끼리 뭔가 하려했는데 짧은 기간 딱 하는 데 오랜 기간 동안 준비 했다는 게 되게 대단해 보였고요. 신기했고 우리는 이럴 수 있었을까? 생각도 들었고. 좋았던 건 여기 다양한 대안학교뿐 아니라 일반학교까지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 오늘도 강의보단 친구들끼리 얘기 하는 게 인상 깊은 얘기 와 닿고. 3일 이라는 게 짧고 친해지지 못한 게 아쉬움이 크지만 이런 기회 있다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수고했습니다.

-평강 : 저는 오늘 수업할 때 오전시간이 맘에 들었는데. 토론도 재밌고 수업준비내용도 마음에 들어서 물론 강의 때문에 일찍 자른 건 알지만 조금 더 길게 했다면 재밌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 들었고 졸업 뒤가 막막했는데 답이 조금씩 보이는 거 같아서 맘에 들었고 총평은 학교 안에 계속 3년 동안 같은 얼굴 보고 살다 밖에 나와서 다른 학교 친구들도 보고해서 얘기 나누고 생각 공유했는데 '나랑 비슷하구나.' 해서 제일 좋았어요.

-총희 : 올 때마다 늦어서 죄송하고. 진로는 오전에 친구들이 준비한 것도 되게 평소에 관심 없던 주제에서 새로운걸 알게 되서 좋은 경험 이었고요 강의도 두 분밖에 없었지만 풍성했던 거 같아요. 다른 사람이 다른 얘길 해주니까 유익한 것도 많았고 관심가진 주제 얘기해서 좋았고, 총평은 저는 여기 올지도 몰랐어요. 포스터 봤을 때 '어 이런 걸 하네.' 하고 끝이었는데 홍보 좀 도와주다 어 좀 재밌겠다. 그래서 가봐야지. 전일참가에 숙박까지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재밌는 것만 골라서 당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돈만 있었으면 전일 참가했을 게 아쉽고 제친 친구들이 이렇게 사실 처음 왔을 때도 친구들이 이걸 기획 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왔는데 친구들이 첨부부터 끝까지 하는 걸보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전혀 관심 없던 데서 알게 되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친구들 얘기해준걸 듣고 있으면 문제가 정말 많구나. 내가 안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가? 고민도 했는데 이런 문제들 안고 살아야 하는 거구나 생각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무 살 그렇게 비참하지 않아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종운 : 역시 일단 늦어서 죄송하고요.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다 말해버려서 무슨 할 말이 있겠냐만은 막상 이친구가 한말 들으니까 또 미안해지네요. 제가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다른 좋은 면들도 많았어요. 너무 비극적으로 말해서 죄송하고 혹시 오해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진로수업에 대해선 재밌었던 거 같아요. 지루 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꽤나 흥미롭게 이끌어 낸 거 같기도 하고. 강사 두 분들도 재밌게 들었어요. 사실 태뽀은 '저 뽀 여기서 또 보는구나.' 무슨 말씀을 하실까 했는데 재밌었고 최게바라 할 땐 들어만 봤지 본적도 알아보려

고 해본적도 없었는데 오늘 드디어 알게 되겠구나 하고 들어보니 재밌었어요. 이걸 학생들이 준비해서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총평. 너무 진로만하니까 그러네. 모든 강의가 재밌었고 비록 강의를 3개밖에 못 들었지만 그 3개조차 재밌었고 역사와 사회까지 들었더라면 더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역시 돈의 문제였습니다. 용돈벌이가... 제천간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런 걸 위해서 마치는 거까지 보고나니까 되게 멋있고 저희들이 필간출신인데 필간은 재학 할 땐 필리핀에 있으니까 보고 싶어도 못 오는 게 안타까운 거 같아요. 필간 애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면 좋겠는데 학기 중에 있으니 못 듣는 게. 학생 일 때 내가 와서 들었다면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많이 봤어요. 화이팅입니다.

-별 : 오늘 진로수업이 사실 아쉬웠어요. 왜냐면 세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한걸 아는데 짧은 시간에 담아내려고 하니까. 하나하나만 놓고 토론해도 한 시간은 될 거 같았거든. 의도한 바를 보면 총평을 들어보니 각자 나름대로 해석해서 얻어 가는 게 많은 거 같아서 좋네요. 총평은 사실 제천이 이런 걸 준비해줘서 대단하고 고맙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판을 깔았지만 덕분에 이게 인문학 이라는 게. 저는 사실 처음 준비할 때 공부한다는 척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캠프준비하고 있어 라는 말이. 토론도 제가 토론이라는 느낌을 가졌던 게 짜낸다는 느낌이었는데 많은 친구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 하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 제가 공부하는 척이라고 생각했던 게 공부가 돼서 돌아오니 신기했고, 음.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신기해요. 저는 아까 태썸 영상에서 기억 남는 문구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네가 만나는 사람들로 이뤄지는 거다 하는 게 기억 남는데 여기서 만난 분들이 기억에 남을 거 같고 저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대안 학교 분들이 찾아오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졌고요. 매번 감탄했던 거 같아요. 사실 아직도 내일 집 가서 일어나야 된다는 게 꿈같은데 여러분들 다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민수 : 진로 같은 경우에 열등감에 막연하고 불안해서 쩡쩡땀거든요. 길을 알려 달라. 그러면서 계속 쌤들한테 그랬거든요. 왜 구체적으로 대안제시를 안하냐. 오늘 강의 들으면서 확실해진 건 어쩔 수 없구나, 내 길은 내가 생각 하는 거구나. 남의 그것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구나 하는 걸. 오늘 딱 '어쩔 수 없구나.'를 느꼈고 슝스슝해졌고 총평은 정보들이 통계에 대해서 너무 출처가 명확하지 못했다는 게 많은걸 오늘 느꼈어요. 통계는 조사기간이나 인구, 대상에 대해 명확히 밝혀줬으면 좀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게 돼요. 제 생각에 많이 간혀있었던 거 같았는데 와서 다양한 관점도 듣고 강의 들으면서 많은 물음과 제 생각을 깨트리는데 기여한 거 같아서 만족합니다.

-석원 : 저는 진로수업에 장점 3개 쓸 때 콤플렉스라 생각한 거 3개를 쓰고 말했는데 태썸이 하는 거보고 해봤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단점보단 장점이라고 받아들여져서 놀랐고. 이런저런 활동하면서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했던 게 너무한 게 아닌지. 너무 멀리 내다보고 답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닌지 생각했고 좀 더 내 앞에 있는 것들, 현재 충실하고 현재에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총평은 간디학교 들어와서 2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최근에 무기력함이라든가 감정들이 회의감이 많이 들었는데, 자존감도 낮아졌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기도 하고 여기서 강의 한 거말고도 개인적으로 찾고 싶은 것도 있어서 서울 상경했는데 다양한 이유나 가져온 질문들에 대해서 많이 가져가는 거 같고, 그 뒤에 새로운 질문들도 얻어가서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천분들이 준비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완벽하진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참가한 사람들이 그 부분을 매꾸려고 노력해서 저는 그게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한 : 옆에 친구가 너무 많이 말했어. 말하자면 저는 마지막 활동이기도 했지만 자기가 20대 하고 싶은 일 3가지 쓰는 게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제가 수능본건 아니지만 선배들 모습보고 앞으로 졸업하고 어떡해야될지 고민 많이 했는데 언제부터 자신이 무력해지고 잉여해지면서 잘 하지 않았어요. 쓰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활력 찾은 거 같아서 좋았고, 총평하자면 저는 이 캠프를 오게 된 계기가 학교에 있는 게 질려서, 재미없고 무기력해져서 다 벗어나고 싶어서 온 것도 있고 변화계기를 얻고자 온 거 같아요. 쌤들이 이게 학생들이 준비한 거고 강의진도 준비 안 된 게 많을 거다. 얻을게 있겠냐고 말해서 살짝 고민했는데 오고 보니까 답이 정해져있고 일반적 강의처럼,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던져진 많은 질문과 문제에서 해결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자리 만들어준 여러분 정말 고맙다.

-인욱 : 진로수업은 좋았어요. 얘기 하는 게 소소하면서도 개인적인 소소한 얘기면서도 다들 해보고 싶단 걸 공

유했단 게 좋았고 강의도 엄청 좋았는데 허경그분은 말했듯이 저희학교 왔었는데 그때 들었던 내용 똑같이 듣고 얘기 하시는데 듣는데 더 많은 얘기 들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계속했어요. 질문하곤 싶었는데 뭘 할까 생각하며 시간 보내다보니 지나가다가 시간이 끝났고 그래서 아쉬웠어요. 전에 왔을 때 재밌기만 한 게, 가볍고 그랬는데.. 사실 처음에는 듣는 걸 연습했어요. 처음 3일은 말 안하고 그 다음부터 말 많이 했는데 듣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했어요. 내가 얘길 안 해도 나 같은 사람이 같은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걸 들으면 좋았고ppt도 발표도 저희학교도 발제형식이지만 그만큼 준비를 다들 안하거든요. 날로 먹는 달까. 그런 게 있는데 오래 준비하고 그런 강의를 들으니 학교에서 하는 발제식 수업에도 공을 들이면 듣는 애들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해서 많은걸 느꼈고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더 친해지면 좋겠어요.

-준학 : 진로수업은 진짜 좋았어요. 공감 안된다한 게 의미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좋았는데 ‘어려웠다.’ 라는 거 같아요. 근데 앞으로 사회 나가서 마주하게 될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 해주신 거 되게 좋았고 강연 와주신거 좋아서 좋았어요. 총평은 (어후 떨려) 아 제가 마지막 이죠. 사실 인문학 캠프가 저에게는 되게 스스로한테 큰 도전이기도 했고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데 평소 느끼는 호기심 질문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지만 제가 항상 해야되는 두려움, 한계에 마주 했을 때 캠프에선 이런데 학교에선 무기력하기도 하고. 그런 두려움을 넘어 볼 수 있을까 해서 되게 답을 찾으러 왔던건데 강의들 하나하나가 다 좋아서 계속 받아 적고 진짜 생각하게 해주시고 답을 얻었던 때도 있었고. 그런 것보다 제일 좋았던 건 따듯하게 말해 주는 거였던 거 같아요. 한명 한명한테 진짜 고마운 거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음 (울컥!) 도운누나 나린누나 누나. 누나 소아누나누나....소운누나.....누나....누나...누나...산이형 영서형 준상이형 지민이형 준상이형 ...형...형...푸하형 형근이형 건산이형 민욱이 ... 어...(이름모름) 아이.....별이누나...(이름 쪽 나열)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 너무 고마운 거 같고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기억에 남을 거 같고 앞으로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캠프 였던 것 같습니다....대단하십니다!

참가자 소감문

김성훈

일단 제천 간디 친구들이 준비해온 강의를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 그 강의를 준비 했는지 느껴졌습니다. 저와 동갑내기 친구들이 준비한 강의라고 안 믿겨졌을 정도로 깊은 생각이 담겨있는 강의라고 느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들을 듣고 관련된 의제들에 대한 이야기와 토론을 하는 시간은 매우 좋았습니다. 여러 관점의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내 생각이 정리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고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강의 내용들도 모두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꼭 알고 살아야할 주제들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생각이 한층 더 풍부해졌습니다.

철학 강의에서는 왜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고 역사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정치나 이런 것들이 왜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과 각자가 생각하는 연애관이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사회시간에는 학교 교육이나 군대같이 현재 겪고 있고 또 머지않아 겪게 될 문제들을 다뤄주어서 생각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진로시간에는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며 무서워서 피하고만 있었던 진로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행방식도 저는 별로 흠잡을 것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원하는 것을 하나 이야기 해보라면 다 같이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의 청소년들 여럿이 모여 이렇게 인문학 이라는 주제로 평소에는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학교 후배들한테도 내년에 할 인문학 캠프에 꼭 가보라고 강력 추천했습니다.

좋은 캠프를 준비해준 제천 간디 친구들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옥지민

생각을 두서없이 쓴 것이라 정리 되어 있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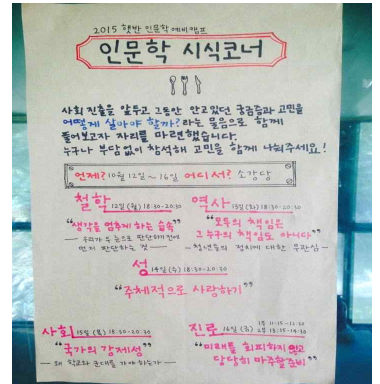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주제 선정이 좋았습니다. 고민거리를 털어 놓기 좋을, 그리고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었던 주제들이었습니다.
- 토론의 주제가 광범위 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 좋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 지 몰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답을 꺼내놓기 쉬운 주제부터 시작해서, 진행자가 차츰차츰 주제를 확장시키는 쪽으로 부드럽게 유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앞의 의견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질의응답을 토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 나갔다면 더욱 활발한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응답에서 하는 이야기와 토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아주 사소한 부분입니다만, 여타 캠프와는 달리 하루의 일정이 비교적 늦게 시작하는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 회의를 하는 것 처럼 발언권을 얻어 토론을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의 방식대로 물 흘러가듯 진행해도 괜찮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발언을 할 틈이 없어 이야기를 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 숙박과 식사, 시설은 모두 다 좋았습니다.
- 조금 늦었습니다만, 몇 개월동안 캠프 준비하느라 정말로,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 많이 듣고, 말하고,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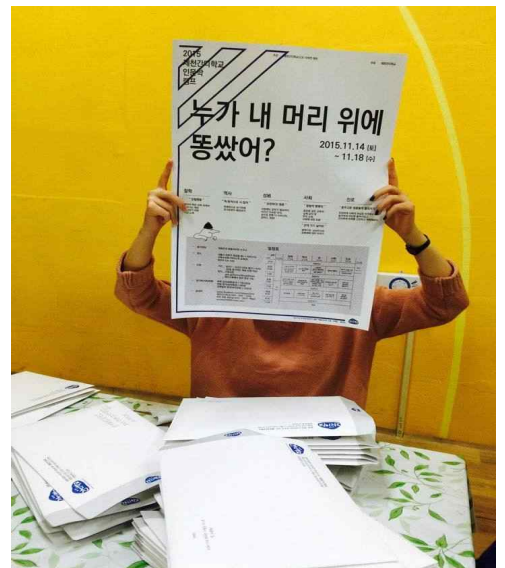
일방적으로 들려주기의 강의가 아닌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생각하며 진행하는 강의여서 새롭고 재밌었습니다. 또 인생이나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접할 것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들려주어서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5일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강의와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야해서 제 머리가 힘들었지만 그만큼 생각 해야할 것들이 많아서 저에겐 너무 가치있고 감사한 캠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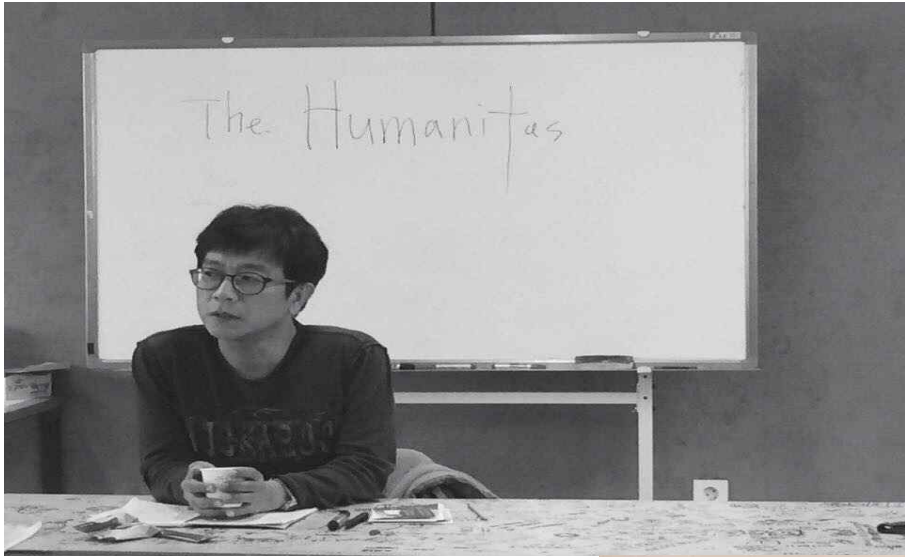
활동사진

[인문학 시식코너_예캠]



[사전모임 및 포스터 발송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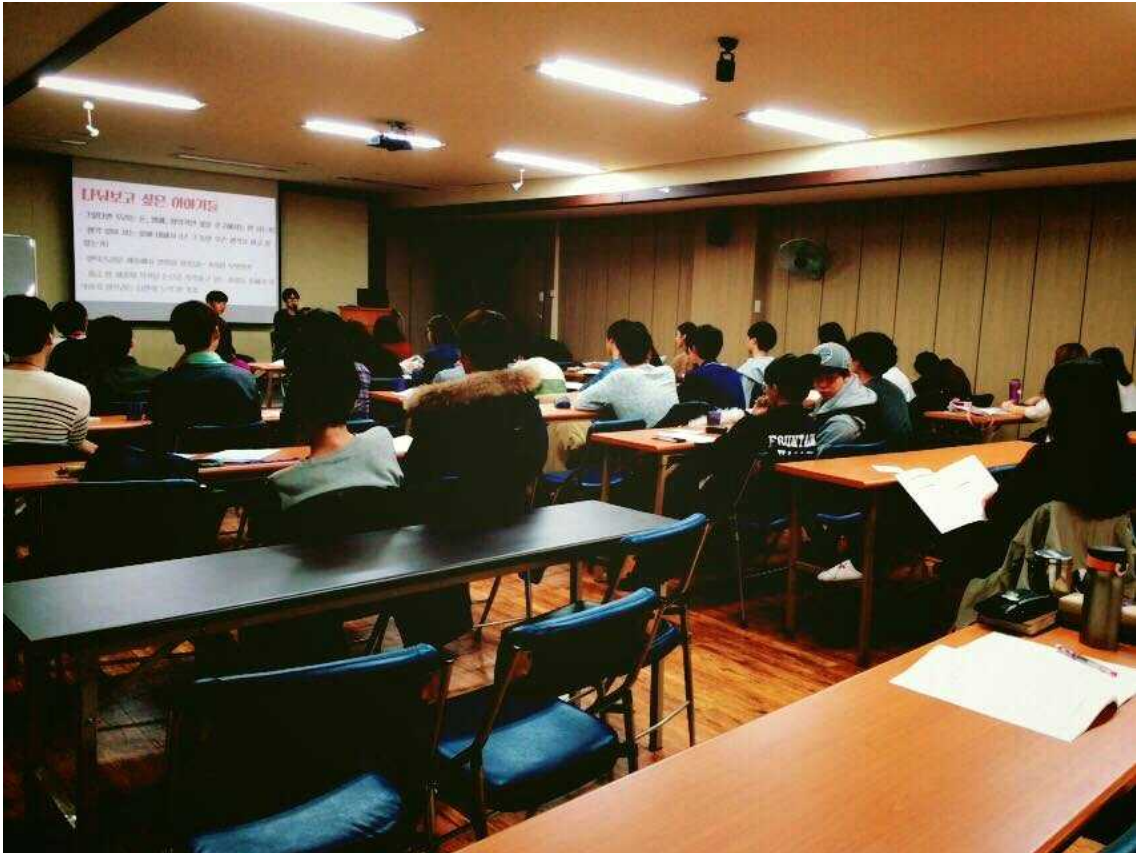




[누가 내 머리 위에 똥쌌어?_본캠]











[2015 인문학캠프 누가 내 머리 위에 똥쌌어? 결과 자료집]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tban2015>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 92-3 제천간디학교 출간

영서 도운 편집

15.12.02 마감